

세계화가 새로운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에게 '성별'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끌어 낸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이미 존재하던 서구와 아시아 선진국과 그 외의 나라  
들 사이에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더욱 커지지만, 이제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계층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층 분화의 과정에는 '성별'이라는 요소가 주요한 차별 기제로 작동한  
다. 근대화가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는  
여성의 몸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여성이 남성과 국가, 국제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통해 그 여성적 가치를 판단하는 초<sup>over</sup>남성적 시스  
템이다. 그러나 세계화에 관한 담론은 젠더 관점을 무화해 왔다는 점에서  
'배제 서사' *Narrative of Exclusion*였다(Sassen, 1999).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상  
황에서 여성주의 운동은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국제적 연대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고, 기존의 글로벌 질서에 대항하는 도덕적 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스피베이, 2000).

# 2006 여성주의 학교 심화 세미나 커리큘럼

♡ 조원 ♡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

조원

## 2006 여성주의 학교 심화 세미나 목차

### 제 1주, 에코 페미니즘

- 『에코페미니즘』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 창작과 비평사 / 2000  
1장~6장
- 『페미니스트 생태주의경제학과 지역경제의 성장』 Ellie Perkins / 국제페미니스트경제학회  
1996년 여름 학술대회 발표논문
- 『힐러리에게 암소를 - 세계화 경제를 넘어 '자급'의 삶으로』  
마리아 미즈 · 베로니카 벤홀트-툼센 / 1999 / 녹색평론 제57호

### 제 2주, 자본주의와 여성노동

- 『가부장제 이론』 실비아 월비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996  
제2장 유급 고용
- 『경계없는 페미니즘』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 여이연 / 2005  
6. 여성 노동자와 연대의 정치학
-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마츠이 아요리 / 들린 아침 / 2005  
서론 / 제1장 인신매매되는 여성들 / 제3장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
-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김현미 / 또하나의 문화 / 2005  
3장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문제 사회인가?

### 제 3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과 방법론

-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태혜숙 / 여이연 / 2001  
1-1 페미니즘 이론의 전개과정  
1-2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지형도  
2-1 스피박의 페미니즘  
2-2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스트 윤리를 위하여

### 제 4주, 제 3세계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학

-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태혜숙 / 여이연 / 2001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 『다른 세상에서』 가야트리 스피박 / 여이연 / 2003  
젓어미
- 『경계없는 페미니즘』 찬드라 모한티 / 여이연 / 2005  
서구의 시선 아래: 페미니즘 학문과 식민담론  
투쟁의 지도 그리기: 제 3세계 여성과 차이의 정치학

## 제 5주, 여성주의 정신 분석

-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 한신문화사 / 1997  
모녀관계 / 모성
- 『히스테리』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 여이연 / 2003  
4장 더 나은 어머니
-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아드리엔느 리치 / 평민사 / 1995  
9장 어머니와 딸
- 『여성과 광기』 필리스 채슬러 / 여성신문사 / 2000  
1-2. 어머니와 딸들: 인생에 대한 신화적인 주석

## 제 6주, 섹슈얼리티

- 『히스테리』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 여이연 / 2003  
3장 섹슈얼리티와 언어
-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 베리 / 삼인 / 2002  
2장 성적 권력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 동녘 / 2006  
자위하기 - 분리된 여성의 욕망과 몸의 제자리 찾기 (원사)

## 제 7주, 동성애 정치학

-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서동진 / 문예마당 / 1996  
1장 성정치학 -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게이정치학에 관한 열 개의 명제'
-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동성애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서동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1994) pp.26-86
-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이론의 발전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김지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1997) pp.14-121

## 제 1주,

# 에코 페미니즘

- 『에코페미니즘』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 창작과 비평사 / 2000  
1장~6장

- 『페미니스트 생태주의경제학과 지역경제의 성장』 Ellie Perkins / 국제페미니스트경제학회  
1996년 여름 학술대회 발표논문
- 『힐러리에게 암소를 - 세계화 경제를 넘어 '자급'의 삶으로』  
마리아 미즈 · 베로니카 벤홀트-툼센 / 1999 / 녹색평론 제57호

## 1장 서론: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쓴 이유

마리아 미스 & 만다나 시바

공저라고 하면 으레 저자들이 함께 독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작업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의 집필을 구상했을 때 우리 두 사람은 그러한 공동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부딪혀야 했다. 한 사람은 이른바 남(南, 개발도상국—옮긴이)에 속한 인도에,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편인 북(北, 선진국·산업국—옮긴이)의 독일에, 이렇게 우리는 서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살며 일하고 있다. 이 두 곳은 남의 민족들의 회생을 바탕으로 북의 민족들에게 특권을 제공하는 세계시장체제에 의해 그리고 역사·언어·문화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는 각자 받은 훈련과 배경도 다름데, 반다나는 환경운동 출신의 이론물리학자이며, 마리아는 여성운동 출신의 사회과학자이다. 한 사람은 남의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자연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보아왔으며, 또 한 사람은 '아수'의 마음으로(in the heart of the beast) 사는 사람의 시각에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을 연구해왔다. 이 모든 차이들이 선의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더구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적·민족적·국가적·인종적·문화적·종교적 차이를 자율성의 공간으로 삼아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듯한 자금의 상황에서 함께 책을 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구시대의 '주'의 틀, 특히 사회주의적 국제주의가 몰락하는 시점에서 페미니즘

과 생태주의의 기치하에 새로운 국제주의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고 비난받지는 않을까? 더구나 남의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페미니즘이란 서구(북)로부터의 수입품이며, (유럽과 북미의)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자국 남성들의 특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실정이다. 어쩌면 이러한 차이들을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과 같은 보편주의적 용어 안에 담으려 하기보다 이를 인정하는 편이 더 현명했고, 각자의 나라에서 그리고 그 문화적·인종적·정치적·경제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작업에 전념하고 지역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들과는 별개로, 우리는 전세계 여성들이 나날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얽혀 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지구적(global) 정치로부터 발생한 공동의 관심사들을 나누고 있으며, 우리를 지탱시키는 과정들을 지켜내려는 여성들의 노력에 동참한 결과 생각이 서로 비슷해진다. 이렇듯 공통된 사고와 관심은 단일성이나 동질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닌 차이를 창조적으로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책을 함께 쓴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그중 하나는 자본축적을 위해 전세계 인간과 자연의 통제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대두함에 따라 점점 비가시화되는 '다쁜 전지구적 과정들을 가시화하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동질화하는 동시에 파편화시키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의 강령으로 정체성과 차이의 추구가 더욱 중요해지리라는 낙관적 믿음이다.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시각에서는 차이란 위계적인 것이며 최일성이 평등의 선결조건이라고 해석된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복이 남을 지배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며, 갈수록 더욱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광적으로 약탈하며 자연을 유린하는 세계구조의 내재적 불평등의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의 관심사에 이르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의 경험과 통찰, 그리고 우리가 체계화한 분석들이 제도권 학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

(chalk) 채글과 벌목 반대운동,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 농약을 사용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인한 식품오염에 반대하여 자급적인 생산자·소비자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일본 여성들의 운동, 콜고기와 새우의 터전인 맹그로브 숲을 살리기 위한 에파드르 빈민여성들의 노력, 더 나은 수자원 관리와 토양보존 및 토지이용을 위해, 그리고 기업주에 맞서 생존의 토대(숲, 연료, 사료 등)를 지키기 위해 남에서 벌어지는 수천명 여성들의 투쟁 등 생태계 파괴와 약화에 대항하는 수많은 지역적 투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 도처에서 많은 여성들이 같은 분노와 불안, 그리고 삶의 토대를 보존하고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같은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계급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여성들은 다른 여성, 다른 민족, 심지어 다른 국가와도 유대를 맺는다. 이러한 활동과 반성의 과정에서 유사한 분석과 개념, 그리고 때로는 유사한 전망 역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남서부 독일의 빌(Why?) 운동에 참여한 여성농민들은 이 나라 최초의 반핵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이 운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들은 독일 내의 다른 운동들, 지식인·학생·도시 거주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너머 스위스와 프랑스의 비슷한 운동들과도 연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가부장적 남녀관계에 눈뜨게 되었으며 이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해방을 향한 첫번째 발걸음이었다.<sup>10</sup> 수년

1) N. Gladitz, *Leber heuer abts als morgen radikal*, Berlin: Wagenbach 1976.  
2) V. Shiva,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Survival*, New Delhi: Kali for Women and London: Zed Books 1988; V. Shiva, "Fight for Survival," (Interview with Chaman Devi and Iwari Devi) *Illustrated Weekly of India*, 1987년 11월 15일.  
3) I. Dankelman & J. Davidson, *Women and Environment in the Third World Alliance for the Futu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1988.  
4) Paul Ekans, *A New World Order: Grassroots Movements for Global Chan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5) E. Bravo, *Acción Ecológica, Un Ecosistema en peligro: Los bosques de maiz en la costa ecuatoriana*, Quito, n.d.  
6) 이것은 2명의 반핵운동 여성지도자인 Annemarie Sacher와 Lore Haag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이다. 독일 남서부 Kaiserstuhl의 밑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독일에서는 첫번째 반핵운동

전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년간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 보호와 생존에 관련된,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 빈번하게 부딪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성, 아동 그리고 인간 일반뿐 아니라 동식물군의 폭넓은 다양성까지도 보호하는 것이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협하는 파괴적 경향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라 부르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 체제는 여성 및 '이(異)'민족과 그들의 땅을 식민화함으로써 생겨나 뿌리내리며 유지되고, 자연 역시 식민화하고 점차 파괴시킨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무엇보다 남성의 지배로부터 여성이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근대화' 및 '개발' 과정과 '진보'가 자연세계 오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우리는 환경재난과 환경악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대한 영향보다 더 컸으며, 또 어디서나 환경파괴에 먼저 반대하는 사람도 여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환경운동가로 일하면서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이 성(gender)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다른 많은 여성들과 더불어 우리는 16세기 이래의 환원주의적 근대과학이 형성한 남성과 자연 간의 착취적인 지배관계가, 근대 산업사회까지 포함하는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에 팽배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착취적·억압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에 대한 각자의 적극적 참여가 두 사람을 공통된 분석과 시각으로 이끌었음을 발견했다. 해답을 향한 모색을 명확화하기 위해 우리는 유사한 이론과 유사한 지자들에게로,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에게로 이르게 되었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논문들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각자가 여성으로서 반응했던 재판적 조건이 우리의 사고를 자연스럽게 근접시켰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세계체제가 결국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총체적인 위협을 낳는다면, 모든 생명체에 내재한 생존 본능과 외지를 되살리고 바꾸어나가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sup>11</sup> 허발라이의 백악

이 지난 후, 이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지도자 중 두 사람은 인터뷰에서 성장 지향적 산업주의와 소비주의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라 부르는 것에 근접한 모델에 기초하여 대안 사회의 건망을 명확하게 제시했다.<sup>12</sup> 사회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연대를 창출하려는 여성들의 노력의 또다른 예로 유해폐기물 투기에 반대하는 로이스 깁스(Lois Gibbs)와 나트마다(Natamada)댐 건설에 반대하는 메다 파트카르(Medha Patkar)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미국 내 여성활동가들은 유해폐기물 투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해왔으며, 악명높은 러브슨하(Love Canal) 사건에서 유해폐기물 투기에 반대하는 로이스 깁스의 정력적이고 집요한 노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머리 러빈(Murray Levine)은 "러브슨 하가 로이스 깁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아주 현명하고 민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설사 판료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용어로 은폐되어 있 다 해도 부조리를 귀신같이 탐지할 수 있게 된다"고 쓰고 있다.<sup>13</sup>

1980년대에 유해폐기물 처리장이 가난한 유색인종 거주지 근처에 자리잡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들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유해폐기물 투기에 반대하는 여성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내집 뒷마당에는 안된다(NIMBY, not in my backyard)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이의 뒷마당에'(시민운동 소식지의 제목) 안된다는 차원의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솔라지록(Schlage Lock)사가 멕시코 테카테(Tecate)에서 마칼라도라(수입한 비관세 부품을 조립해 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인소유 조립공장—올킨이) 사업을 하기 위해 문을 닫을 때까지, 이 회사에 다녔던 조운 샤프(Joan Sharp)는 이같은 연대를 잘 보여준다. 1992년 3월 당시 실직 상태였던 조운은 '정의의 위한 흑인 노동자'(Black Workers for Justice)의 대표로 멕시코에 갔다. 당시

으로서, 1974년부터 핵원자로 건설이 중지된 1976년까지 지속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aral Sarkar, *Green Alternative Politics in West Germany*, Vol. 1: The New Social Movements, New Delhi: Pionella Publishers 1992.  
7) Dankelman & Davidson, 앞의 책.  
8) Lois Gibbs, *Love Canal: My Sto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2, xv면.

코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그리고 30여명의 회사동료를 앞에 걸러 주게 했다고 그녀 등이 믿고 있는 위험한 화학약품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서였다. 그녀가 가지고 간 200면에 달하는 서류에는 슬라지가 유해화학품을 사용했고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카시의 노동자들 중에는 슬라지가 남부의 흑인 거주지역(Black Belt South)의 값싼 노동력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엔프란세스코의 공장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sup>9)</sup> 나르마다계곡에서는 매다 빠뜨까르가 나르마다강에 초대형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인도의 가장 핵심적인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르마다강이 곧 마타(mata, 즉 어머니)라는 개념이 여기서 매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여성성 즉 마타의 개념은 자동적으로 이 운동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지도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여성적인 기초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sup>10)</sup>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 곳곳의 수많은 여성들이 지닌 공통의 관심사가 그들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우세했음을, 그리고 그들간의 차이를 경계짓는 것으로보다는 그들의 투쟁과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연대감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준다.

### 이 공동의 기반을 알아보기가 왜 그리 어려운가?

하지만 어떤 여성들, 특히 도시의 중산층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해방과 자연의 해방 간의, 그리고 그들 자신과 세계의 '다른' 여성들 간의 공통성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자본주의의 가부장제 혹은 '근대'문명이 현실을 구조적으로 양분하고 이 양자를 위계화하여 서로 적대시하는 우주론과

9) *Voices Unidas*, Vol. 1, No. 2, 1992.

10) "Indigenous Vision, Peoples of India, Attitudes to the Environment," *India International Centre Quarterly*, Spring-Summer 1992, 294면에서 인용한 Medha Patkar의 인터뷰.

인류학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한쪽은 늘 우월하며, 다른 쪽의 회생의 대가로 늘 번성하고 진보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소비는 생산에, 지역적인 것은 전지구적인 것에 동등으로 종속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이분법을,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구분과 유사한 인간과 자연 간의 구조적 분리의 부당성을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sup>11)</sup>

많은 여성들은 이 위계적인 이분법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고 자연이 문명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단순히 그 서열을 뒤바꾸려 했다. 하지만 이 경우 그같은 세계관의 기본구조는 유지되며 표면적으로 분리되고 위계화된 두 부분간의 기본적 적대관계 역시 지속된다. 이 세계관은 '타자'나 '대상'을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여, 쉘트르(J. P. Sartre)가 『위 클로』(*Hitus Clos*)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지옥에나 떨어져라!'라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기는 투쟁에서는 한쪽이 궁극적으로 '타자'를 종속시키고 착취함으로써 살아남는다. 이것은 또한 역사와 진보의 개념에 대한 해질주의나 맑스주의 변증법의 핵심이기도 하다. 진화론 역시 적대적 생존법칙인, 끝없는 생존경쟁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개념들은 계몽주의 이래 유럽의 이른바 근대성(modernity) 혹은 진보의 기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홉스(T. Hobbes)의 저서 『리바이어던, —올린이』 이후로 사회는 적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적 원자들의 조합으로 개념화되어왔다. 근대경제학 이론은 개인의 이익추구가 모든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후에 다윈(C. Darwin)은 자연에서 유사한 원칙을 '발전'했다. 따라서 공생관계나 생명을 유지시키고 부양하는 상호연관들은 무시된 채, 자연진화나 사회변동 모두 약자에 대한 강자의 끊임없는 투쟁과 계속적인 교전행위에 의해 추동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세계관은 생명체와 문화의 다양성이 지니는 풍부한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대신 이를 분열

11) S. Ortner, "Is Female to Male as Nature to Culture?" M. Z. Rosaldo & L. Lamphere,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경험한다. 다른 한편 원치화된 부분들을 재결합하려는 시도들은 다양성과 질적 차이들을 제거함으로써 다만 표준화·동질화에 이르렀을 뿐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은 (인류를 비롯해) 자연 속의 생명이 협력과 상호보살핌, 사랑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새로운 우주론과 새로운 인류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표현까지도 우리의 안녕과 행복의 진정한 원천으로서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세계를 새로 판다' '상처를 치유한다' '망(web)'을 새로이 서로 연결한다는 등의 은유를 사용한다.<sup>12)</sup> 전체론적(holistic)인,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우주론과 인류학을 창조하려는 이같은 노력은 계몽주의 이래 사용되어온 것과는 다른 자유 개념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 자유 대 해방

이런 노력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자연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해방의 과정, 이성과 합리성의 능력으로 자연의 과정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과정을 지배하는 데 달려 있다는 생각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다. 사회주의의 이상향 역시, '필요의 영역'(자연의 영역)에서 '자유'의 영역' 즉 '진정한' 인간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역사적 행진이 인간의 운명이며 이 과정은 자연과 자연의 힘을 소위 '제2의 자연' 또는 문화로 변형하는 일을 수반한다고 보는 자유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연과 사회 양자의 한계가 변증법적으로 극복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 역시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한 위대한 해방자

12) I. Diamond & G. F. Orenstein, *Recover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90; J. Plant, *Healing the Wounds: The Promise of Ecofeminism*, Philadelphia, Pa., Santa Cruz, Ca.: New Society Publishers 1989; Y. King, "The Ecology of Feminism and the Feminism of Ecology," *Plant*, 앞의 책, 18~28면.

로 칭송받아온 근대 과학과 기술의 적용이 왜 갈수록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뿐인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은 계몽주의적 해방논리와 자연의 재생주기를 지키고 복원주의는 환경논리 간에 모순이 있음을 점차 첨예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987년 독일의 쾰른에서 있었던 '여성'과 환경이라는 모임에서 안젤리카 비르크(Angelika Birck)와 이레네 슈퇴르(Irene Stoehr)는 이러한 모순이, 계몽주의의 이념에 고무된 많은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특히 생식영역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여타의 노동영역에까지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희망을 걸었던 여성운동에서도 적용됨을 분명히 설명했다. 이레네 슈퇴르는 이러한 해방 개념이 필연적으로 인간성과 여성성을 아우르는 모든 자연에 대한 지배를 함축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배관계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생태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들이 이 와 똑같은 논리를 통해 여성 자신과 자연의 '해방'에 이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sup>13)</sup>

이직까지도 많은 여성들, 특히 동등화(equality)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남성의 사회 안에서 남성 '따라잡기'란, 현존 구도 안에서 남성들이 자연으로부터 취한 것에 대해 더 많은 혹은 동등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사회에서는 이것이 상당수 존 성취되어서, 현대 과학과 가사관련 기술, 제약업 등은 여성을 단조롭고 고된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므로 여성의 구원자라고 선언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환경 오염과 파괴가 현대의 가사관련 기술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해방의 개념이 우리 삶의 토대로서 지구를 보호한다는 개념과 양립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순은 이어지는 글에서, 특히 생명과학을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하지만 계몽주의적 해방논리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여성에 대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통찰함으로써 도출해낸 것만은 아니며, '자유'의

13) A. Birck & I. Stoehr, "Der Fortschritt entläßt seine Töchter," *Frauen und Ökologie: Gegen den Machtfortschritt*, Köln: Volksblattverlag 1987.

영역'을 향한 백인남성들의 행진이 시작된 이래 이들의 자유를 위해 자신  
의 주체성과 자유 때로는 생존기반까지도 부정당해온 희생자들에 대한 관  
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여성뿐 아니라 자선 그리고 유럽  
의 (남성)주체들이 '필요의 영역'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착취·  
종속시킬 수 있도록 '개방되고', '타자들' '대상들'로 변형된——식민화되고  
'자연화된'——이민자들이 포함된다.

이들 희생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계몽주의기회의 허구성은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앞서 기술했듯이 생존기반 등의 파괴를 외  
미할 뿐만 아니라 (이론과 따라잡기식 개발을 통해서) 이 과정의 수혜자  
들이 얻은 것과 똑같은 물질적 수준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제한된 지구 안에서 필요로부터의 탈출이란 있을 수 없다. 자유란 '필  
요의 영역'을 정부하거나 초월함으로써가 아니라 필요의 제약, 즉 자연의 제  
약 안에서 자유, 행복, '윤리적 생활'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초점  
을 맞추으로써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자급적 관점이  
라 부르는데, 왜냐하면 자연을 '초월'한다는 것은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신 자연의 생존적재력이 모든 차원과 모든 발전양태에서 가려지고 보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의 영역 내에서의 자유는 모든 이에게 보편화될  
수 있지만 필요로부터의 자유는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릇된 전략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낳는 이러한 이분법은 특히 그릇된 전략으로  
이끌어왔고 또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데, 이는 주로 평등의 문제  
즉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문제  
에서 그러하다. 지금까지의 유일한 처방은 거시적 차원이든 미시적 차원이  
든 '따라잡기식 개발' 전략이었다. 식민화된 '제3세계'에서 시도되어왔고 또  
실패를 거듭한 이 전략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적용되었고 이제는 탈사회  
주의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다. 여성운동의 많은 분파도 동등화,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그리고 직업·정치·교육에서의 여성할당제  
같은 정책들을 통해 똑같은 전략 곧 남성 '따라잡기' 전략을 추구했다. 요컨  
대 남성모델을 본뜨고 '승리자'의 특권을 나눠가지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동등화정책이 육군이나 해군의 실제 전투부대에 여성들이 배속되  
는 데까지 이르렀고 이것이 해방으로 가는 단계로 환영받는데, 이는 결코  
전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러한 동등화정책에  
반발하면서 자본주의 기부장제사회에서 남성의 특권을 공유하기를 거부한  
다. 하지만 대체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궁극적으로 여성과 여  
타 피압박집단에게 해방을 가져다줄 정책으로 여긴다.

## 전지구적인 것 대 지역적인 것

요즘 들어 '전지구적인' 것 대 '지역적인' 것이라는 구도가 환경이나 개발  
담론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인간의 노동력과 시  
장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자원에까지 마음대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익집단  
들이 흔히 스스로를 '세계공동체' '전지구적 평화' '전지구적 환경' 혹은 보  
편적 인권과 자유로운 세계시장의 수호자로 자처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전지구주의(globalism)의 암묵적 약속은 '자유로운 세계시장'이 세계평화  
와 정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통의 전지구적 목표라는 이름을 내걸고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같은 행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지역 생태계·공동체·문화 등을 착취할 권리를 요구  
하는 것이다. 언제나 지역적인 것이 희생된다는 사실은 가령 전프전의 결  
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전쟁은 국제연합으로 대표되는 '세계공동체'의  
이름으로 외견상 보편적 혹은 전지구적 정의의 원칙이란 것에 의해 정당화  
되었다. 전 세계는 이라크의 점령으로부터 루웨이트를 해방할 책임을 느끼  
도록 요구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해방'의 희생물은 지역적인 것이 분명  
했으니, 이라크와 루웨이트의 여성과 아동, 쿠르드족 그리고 걸프지역의  
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결코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전지구주의'——'새로운 세계질서'——는 미국  
의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Bush)가 주창한 것이다. 구시대의 초강대국  
들의 오랜 대치상태가 종식되면서 이 새로운 세계질서는 세계 평화와 화합  
의 전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낡은 세계질서를 포장만 달리한 것  
에 불과하다.

이 책 뒷부분에서 강조하겠지만, 전지구적 질서에서 '전지구적'인 것이  
란, 단지 몇몇 다국적기업들(MNCs)과 강대국들의 통제하에 다양한 차이  
를 지닌 경제·문화·자연을 포섭함으로써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전  
지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강대국들은 '자유무역, 구조조  
정 프로그램' 그리고 점차 더욱 빈번해지는 군사적 분쟁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전지구적 확장을 지원한다. 통일독일에서는 현재 인종주의자들이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세계시장에 새로이 '편입'된 구소련과 동유럽에  
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스리랑카와 인도, 아프리카에서는 종족분쟁  
이 그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곳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새  
로운 분리가 이뤄지고 경제선이 확정되고 있고, 반면 초국적기업의 투자와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계질서'나 '전지구적 통합'이라는 거창한 계획  
을 추진하도록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이다.

지배적인 담론에서 '전지구적'인 것이란 지배적인 지역들이 지역적·국가  
적 통제에서 벗어나 전지구적 통제를 휘둘러는 정치적 공간이다. 하지만  
이 말이 연상시키는 바와는 반대로 전지구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체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간 특정 지역의 제한된 이해를 대변한다. 세계 7대 강대  
국의 모임인 G7은 전지구적인 문제들을 주관하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이해  
관계란 제한된 것일 따름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 해서 실제로  
전 세계 모든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며, 기부자들의 정치·경  
제적 힘에 좌우되는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기구일 따름이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공동체, 즉 (예컨대 나르마  
다 계곡의 부족들 같은) 진정한 기부자들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식민주의에 대항한 독립운동은 식민지로부터 중심부 경제대국으로의 경  
계유출로 인한 빈곤과 수탈을 폭로했다. 전후 세계질서에서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들이 남에 출현했고, 저개발과 가난을 명목삼아 개발자금 융자  
와 외채에 토대를 둔 새로운 식민주의를 만들어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  
기금(IMF) 같은 브레턴우즈 기구들 또한 출현했다. 환경운동은 이들 기구  
가 구상하고 돈을 낸 잘못된 개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폭로했다.  
환경보호는 이제 미사여구로 동원되거나 세계은행과 같은 '전지구적' 기구  
들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이처럼 반대자들의 언어를 포섭함으로써 얻은 정당성에, 전지구적으로  
뻗어나간 '지역'이 지리상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나타내는 일종의  
위계조적의 형태이며 낮은 단계의 (지역적) 위계는 어떤 식으로든 높은  
(전지구적) 단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개념에서 도출한 정당성이  
더해진다. 가동중인 비민주적 개발계획들도 이와 유사한 '국가적 이익'이라  
는 잘못된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적인 이해는 더 큰 이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을 느끼도록 되  
어 있다. 독립 이후 인도의 지역공동체들이 대규모 댐의 건설을 허용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식이었다. 상이한 '지역적' 이해가 전국적 규모로 서로 맞서  
게 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이른바 '국익'이라는 것이 때호리  
(Tehri)나 나르마다계곡 같은 온갖 댐 건설로부터 이익을 얻는 한층의 건  
설업자들과 기업가, 그리고 그들의 돈을 받는 한층의 정치가들의 선거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적' 이익으로 부풀려진 힘  
소하고 이기적인 이해에 대항해 대규모 댐 공사에 반대했던 지역공동체의  
집단적 투쟁은 진압당한 진정한 공동의 이익이란 기치로 떠오르게 되었다.

## 보편주의 (사구)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문화상대주의의 출현

동서대립의 종식이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꿈과 이상향의 종말일 뿐 아니

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들 간의 관계에 관한 보편주의적 개념에 근거한 모든 보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유럽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이며 —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 남성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해체'되어왔다.

이들 이데올로기들의 종말은 근대화의 보편화 — 계몽이라는 유럽적 기회 — 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에 의해 선언되고 있다. 또한 일부 환경론자와 개발론자들은 서구의 산업사회 모델이 물질적 혹은 경제적 개발과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대다수 비유럽사회에서 문화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비근대사회에서는 경제와 문화(혹은 맑스주의 용어로 토대와 상부구조)의 이분법적 구분이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근대화전력이 생물적 다양성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까지 파괴하여 한편으로는 미국식 코카콜라와 패스트푸드 모델로 동질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체를 이용한 항적 산업의 요구에 맞추어 동질화시켰다는 근거로, 서구의 개발패러다임을 비판한다. 우리는 서구식 개발패러다임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며 세계시장과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비롯되는 동질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상부구조 또는 문화와 경제 혹은 토대 간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구 위의 생명체의 다양성과 인간사회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이 지구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하지만 경제를 아예 무시하고 문화 혹은 문화들만을 고려함으로써 이분법적 구조를 그저 뒤집기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문화적 전통을 동일한 가치로 볼 수는 없는데, 그러한 태도는 유럽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교조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보편주의를 문화상대주의로 단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심지어 폭력이나 지점금제도, 음해절단,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거부장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나 관습까지도 그것들이 특정 민족 고유의 문화적 표현물이자

다양성과 상호연관성까지 살펴야만 한다. 여성해방과 지구상의 생명 보존을 위한 공통의 근거는, 개발과정의 희생자였으며 자신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 여성들, 예를 들어 인도의 칩코(Chipko) 여성들, 초대형 댐 건설에 반대한 사람들, 원자력발전소와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는 무책임한 유해폐기물 투기에 반대하여 싸우는 여성들, 그리고 그림에 전세계의 다른 많은 이들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풀뿌리 여성활동가들과의 대화에는 문화상대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 여성들은 전세계 여성을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며 남성과 여성들을 자연의 수많은 생명체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 — 생활기반 — 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서 뿜어나오는 보편주의는 계몽주의와 자본주의의 거부장제가 빚어낸 유럽중심적 보편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이 보편주의는 추상적인 보편적 인간 '권리들'을 다루기보다는 생명을 지속시키는 네트워크와 과정들이 손상되지 않고 작동될 때에만 충족되는 공통된 인간욕구를 다룬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총명한 의미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사회 모두에 존재하는 이같은 '공생' 혹은 살아 있는 연관성'뿐이다. 의식주, 애정과 보살핌과 사랑, 공지와 정성, 지식과 자유, 여가와 기쁨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문화, 이데올로기, 인종, 정치·경제 체제와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다.

대개의 개발담론에서 이들 욕구는 이른바 '기본욕구'(의식주 등)와 자유나 지식의 추구 같은 이른바 '고상한 욕구'로 나뉜다. 여성활동가들이 표현하듯,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은 그러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는 생계유지와 생명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있어 큰 부분이다. 그들에게 자유란 어머니 대지와외의 예정어린 상호관계와 협조적인 생산활동을 뜻하며<sup>15</sup> 지식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생존지식을 말한다. 부유한 북의 여성들이나 남의 부유층에 속한 여성들이 이러한 보편주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생존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진부한 것으로, 당연히 주어지

14) 이것은 Vandana Shiva가 한 인터뷰에 기초한 것이다. Shiva, 앞의 책, 1987.

창조물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야 한다. 문화상대주의자에게는 언어, 종교, 관습, 식습관, 남녀관계 등으로 표현되는 전통들은 언제나 특수한 것이며 따라서 비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이'에 대한 강조가 극단에 이르면 공통성을 전혀 못 알아보기 쉽고 심지어 외사소통마저 불가능하게 만든다. 가치판단을 정치시키기에 이른 문화상대주의가 전체주의적이며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적 보편주의의 해결이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것은 실상 낡은 동전을 뒤집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은 자유주의적 태도를 취하지만, 유럽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식민주의와 공유지 파괴, 대규모의 사유화, 그리고 이윤을 위한 상품생산에 근거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화적인 것, 지역적인 것, 차이에 대한 이같은 새로운 강조, 이런 문화상대주의가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문화와 차이에 열중하는 동안 국제자본은 모든 자연자원과 생명체 그리고 지역문화와 전통과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하면서 생산과 시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지역문화들은 조각조각 나뉘어 그 단편들이 세계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이 될 때에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음식이 '민속음식'이 되고 음악이 '민속음악'이 되고 전통설화가 '민속학'이 되어야만, 그리고 기술이 관광객에게 팔 '민속품' 생산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자본축적 과정은 이런 지역문화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들이 이처럼 해체되고 그 조각조각이 상품화되는 동안 이 조각난 단편들은 세계시장에서 '재결합'되고 그리하여 모든 문화적 다양성은 표준화되고 동질화된다. 문화상대주의는 이러한 과정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과정을 도리어 정당화하고 있으며, 차이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작용과, 생명을 상품과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힘을 간파하고 있다.

문화상대주의로부터 벗어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간의, 여성과 남성 간의,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는 사실로 여겨진다. 생존·생명을 위한 일상의 노동의 가치 바로 그것이 소위 '고상한' 가치의 미명하에 침식당해온 것이다.

## 에코페미니즘

\*엣 지체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sup>16</sup>인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다양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해 나온 것이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프랑쥬이즈 도본느(Françoise D'Eaubonne)지만,<sup>17</sup> 되풀이되는 환경제앙으로 촉발된,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수많은 항의와 운동을 통해 비로소 널리 퍼지게 되었다. 스리마일섬에서의 원자로 노심 용해를 계기로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1980년 3월 에머스트에서 열린 최초의 에코페미니스트 회의 — '지구'의 여성과 생명: 80년대의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회의' — 에 모였다. 이 회의에서는 페미니즘, 군사력 강화, 치유, 생태론(ecology) 간의 관계가 논의되었다. 회의 조직자 중 한 사람인 이네스트라 킹(Ynestra King)은 이렇게 적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과 총체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특별한 힘과 완전함을 옹호한다. 우리에게 스네일 다터(북미산 민물고기의 일종 — 올긴이)는 어느 공동체의 물에 대한 요구나 마한가지로 고려되어야 하며, 물고래는 참치에 대한 기호와 나란히, 그리고 참치의 먹이가 되는 생물은 스카이랩(미국 유인 우주실험실 — 올긴이)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 정체성을 지닌 운동세력이며, 이 절박한 시기에 해야 할 특수한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기업전사(corporate warrior)들에 의한 지구와 지구 위의 존재들의 파괴와 군대전사(military warrior)들에 의한 핵전쟁 위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에게

15) Diamond & Orenstein, 앞의 책, 1990.

16) F. D'Eaubonne, "Feminism or Death," Elaine Marks & Isabelle de Courtivron, eds., *New French Feminisms, an Anthology*, Amherst: Amherst University Press 1980.

우리의 신체와 성(sexuality)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도 바로 이 남성주의적 정신이며, 그것은 복잡다양한 지배체제와 국가권력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있다.<sup>17)</sup>

어느 곳에서 환경파괴나 핵전쟁 위협에 대해 반대활동을 하든, 여성들은 여성과 이민족, 자연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극단 깨닫게 된다. 또한 이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것이 미래세대들과 생명과 이 지구 자체에 충실해지는 길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본성과 경험을 통해 이 점에 대한 깊은 특별한 이해를 갖고 있다.<sup>18)</sup>

'기업전사들과 군대전사들의 환경에 대한 공격은 마치 우리 여성들의 신체에 가하는 공격처럼 직접적으로 감지된다.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느낌을 밝힌 바 있다. 세베조(Seveso) 오염 반대시위를 했던 한 스위스 여성은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을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는 무리에는 남성들이나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다국적기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베조의 라로슈피보당(La Roche-Givaudan)사보다 더 여성의 몸과 어린 이를 해치는 것이 또 어디 있다 말인가? 1976년 7월 10일 이후 여성과 어린이의 삶 전체가 그 '사고'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오래 계속될 것이다."<sup>19)</sup>

1984년 12월 2일과 3일 밤 당시 인도 보팔에 있던 유니언카바이트 살충제공장에서 40톤의 유독가스가 방출되었다. 이 재난으로 3천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가스에 노출된 40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이들은 여성이었고 가장 큰 절기개 경의를 요구하는 이들 역시 여성이다. '보팔가스 페디드 마힐라 우도그 상가탄'(Bhopal Gas Peedit Mahila Udyog Sangathan, 보팔가스 피해여

17) Y. King, "The Eco-Feminist Perspective," L. Caldecott & S. Leland, eds., *Reclaiming the Earth: Women Speak out for Life on Earth*, London: The Women's Press 1983, 10면.  
18) 같은 글, 11면.

19) F. Howard-Gordon, "Seveso is Everywhere," 같은 책, 36-45면.

체르노빌 참사는 특히 이러한 전쟁기술과 전반적인 산업의 전사(warrior)체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연스레 불러일으켰다. 핵기술이 폭탄으로 사용될 때는 나쁜 것이지만 복의 가정의 가전제품을 작동할 전기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좋은 것이라는 허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소비적인 생활양식도 자연과 여성과 이 민족과 미래세대들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전쟁체제의 커다란 일부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생명공학,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의 새로운 발전으로 인해 여성들은 과학과 기술이 성차별적인 것이고, 과학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가부장적·반자연적·식민주의적인 것이며, 자연의 생산력과 여성의 생식력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인터내셔널 네트워크(FNRRAGE)가 1984년 결성된 이래 1985년에는 스웨덴과 독일의 본, 1988년에는 방글라데시, 1991년에는 브라질에서 중요한 회의들이 잇따라 열렸다. 이 운동은 좁은 의미의 여성운동 내지 페미니스트운동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교회·대학에 몸담은 여성들, 도시와 농촌 여성, 노동자와 전업주부들이 이런 기술에 반대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이 기술의 윤리적·경제적·건강상의 문제들이 계속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운동은 프랑스푸르트에서 '대리모'대행사 설립을 막는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그 전사(warrior)적인 과학이 살아 있는 전체를 분리하고 해부하는 데 끝물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연관성을 찾는다는 에코페미니즘의 원칙이 또한 이 운동에 지침을 제공했다. 그리하여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술들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복의 산업국이나 제3세계의 동식물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한다. 그들은 여성의 해방이 고립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 지구 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더 폭넓은 투쟁의 일부가 될 때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 운동은 또한 새로운 연대와 네트워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방글라데시 회의에서 이러한 기술에 대해 들은 한 아프리카 여성은 "그게

성노동자연합이란 뜻—올긴이)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생하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희생자들의 목숨과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도정부와 유니언카바이트사 및 전세계에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이 재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인 바스피스 출신의 가난한 이슬람교도 여인, 하미다비(Hamidabi)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슴속에 불이 꺼지기 전에는 이 싸움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불은 3천개의 화장용 장작다미에서 시작된 불이지요. 우리가 정의의 연을 때까지 타오를 겁니다." 또 씨칠리아에서 해미사일 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여성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핵화산과 호전적 남성문화 사이의 연관, 전쟁의 폭력과 강간의 폭력 간의 연관을 뚜렷이 알아본다. 실상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전쟁에 대해 갖는 역사적 기억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평화시'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기도 하다. 남성을 대다수가 즐기는 것 같은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놀이가 공적·정복·소유·통제라는 남녀관계의 전통적 경로와 동일한 단계를 거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상이 땅이건 여성이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sup>20)</sup>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의 추진력이 된 여성들이 모두의 식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기술과 자연·전쟁·여성·미래세대에 대한 전쟁 간의 연관은 분명했다. 독일 남서부의 빌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여성농민들도 기술과, 산업체제가 가진 이윤중심의 성장에 대한 광적 집착과, '제3세계'에 대한 착취 간의 연관을 알아보았다.<sup>21)</sup>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한 러시아 여성 또한 이러한 연관을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요약하고 있다. "남자들은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과 착을 정복하려 할 뿐이지요."

20) 같은 책, 126면에서 인용한 Statement of Sicilian Women.

21) Gladitz, 앞의 책 참조. 이것 역시 1990년 Maria Miles가 한 인터뷰에서 인용한 것이다(각주 6 참조).

정보라면 우리는 진보 필요없어요. 다 가져가요"라고 외쳤다.

## '영적' 에코페미니즘 아니면 정치적 에코페미니즘?

여성들은 환경, 평화, 여성, 특히 건강 등 다양한 운동영역에서 모든 것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을 재발견하면서 이론과 삶의 영적(spiritual) 차원에 대해서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이 상호연관성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영적인 것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인간행복의 성취가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상품생산의 확대를 조건으로 한다는 자본주의와 맑스주의 유물론은 모두 이러한 차원을 부인하거나 훼손했다. 페미니스트들은 근대가 시작될 무렵 벌어졌던 '마녀사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가부장적 과학과 기술은 이 여성들(마녀들)이 실패당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지식과 지혜,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도 파괴당한 후에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2)</sup> 이런 지혜를 가부장제에 의한 파괴로부터 여성과 자연을 해방시킬 수단으로 회복하고 재생시키려는 욕구 또한 이처럼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려진 동기가 되었다. '영적'이라는 용어는 사담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 수 있는 모호한 단어이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종교를 뜻하지만 이 종교는 기성 종교의 근본적인 전사(戰史) 전통에 비추어볼 때 여성과 자연에 분명 적대적인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 같은 가부장적이고 일신론적인 종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신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를 부활 혹은 재창조하려 시도했고 이때 여성이 여신으로 정의되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만물에 깃들고 스며 있는 여성원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여성은 덜 '영적인' 즉 덜 관념론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영(靈)은 여성적인 것이지만 물질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사실

22) C.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상 연결원리인 것이다. 이처럼 좀더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은 흔히 생 각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주술에 더 가깝다.<sup>23)</sup> 여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스타호크(Starhawk)의 저서<sup>24)</sup>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에게는 여성이 대체로 여성의 관능, 여성의 성적인 에너지, 여성의 가장 소중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며, 여성을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생명체와 생명요소들에 이어준 다. 그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는 에너지이다. 이처럼 '내세적'이라기보다는 관능적이고 성적인 여성은 정신과 물질, 초월과 내재성 사이에 중심을 잡아 양극간의 대립을 없앤다. 오직 내재성만 존 재하지만 이 내재성이란 주관성과 생명력과 정신이 없는 무기력하고 수동 적인 것이 아니다. 영이란 모든 것에, 특히 우리의 관능적인 경험에 내재하 는데,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때어놓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은 모든 생명을 꽃피우는 사랑이며 만물에 담겨 있는 주술이다. 새로이 발견된 고대의 지혜는 만물을 감싸안은 이런 연결관계에 대한 오래된 주술적 통찰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연결관계를 통해 힘없는 여성들이 힘을 가진 남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적어도 1980년대에 미 국무성을 둘러싸고 제례를 거행한 여성들 그리고 처음으로 에코페미니스트 선언서를 만든 여성들의 사고방식에 적 장은 영향을 미쳤다.<sup>25)</sup>

생태학에서 이같은 '여성'의 강조에 해당하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재발견으로, 그에 따르면 인간이 다시금 모든 생명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 기고 존중할 때에만 지구상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은 내세 의 신이나 초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우리의 노동에, 우리를 돌 러싼 모든 것에, 우리의 내재성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 제례의식으로, 춤과 노래로 이 신성함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어머니 대지에 의지하고 있음을 찬양하는 것은 프랜시스 베이컨

23) M. Mies, TANTRA, Magie oder Spiritualität? Beiträge zur.  
24) Starhawk 1982.  
25) Caldecott & Leland, 앞의 책, 15면.

(Francis Bacon)과 그의 추종자, 그리고 근대 과학과 기술의 창시자들이 조장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의존성이 자유에 대 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롱하는 것이기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없 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구적 합리성, 서구과학의 패러다임과 자유의 개념은 모두 이 의존성을 극복하고 초월하려는 데에, 자연을 (남성)의지에 종속시키고 자연의 모든 주술적 힘을 끌어버리려는 데에 바탕을 둔다. 이 런 맥락에서 여성은 '어머니 대지를 치유'하고 세계에 다시 주술을 걸고자 노력한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유럽 합리성의 진전과정의 필연적 소 산이라 본 주술풀기(disenchantment) 과정을 무위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미국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유럽의 에코페미니스트들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듯하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특히 1980년대 초 이래 종종 이 경 향이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일종의 몽상적 세계로의 후퇴를 나타내며, 현실 에서 이탈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의 손에 권력을 맡기는 도피주의라고 비판 받았다. 하지만 '영적' 페미니스트들은 비록 작은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것 이기는 하나 그들의 입장이 일상의 정치이자 근본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정치가 남성들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그 들의 파워게임을 반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역시 독 일에서 이 논쟁은 1978년 이후 의회정치에 참여한 녹색당의 출현이라는 배경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녹색당의 여성운동가들은 환경적 관심보다 는 페미니즘적인 관심에서 참여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 러한 관심사를 그들의 강령과 정치전략에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에코페미 니스트운동 역시 내부에서 '영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은 대개 좌파출신 인 사들에게서 나온다. 다수의 여성들 특히 자본주의비판을 거부장제비판과 연결지면서도 여전히 일종의 '유물론적' 역사관에 매달려 있는 여성들이 영적 에코페미니즘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본주의는 '영적' 페미니즘의 '물질주의'비판조차 포섭할 수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뉴에이지운동과 비교(比較)운동 은 비전(秘傳), 명상, 요가, 주술, 대안적 건강법 등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의 근거가 되 는 것이 바로 대다수 세계 여성들 일상의 생존활동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 런 물질주의적이고 내재성이다. 이 물질주의는 상품화된 자본주의도 아니요, 기계적인 마스주의 유물론도 아니다. 이 둘은 모두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에 대한 동일한 개념에 토대를 둔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에코페미니 즘적 정신주의는, '멈출리지 않고서 음식'을 바라며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 지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의 관심도 없는 내세적 정신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어지는 장(章)들은 에코페미니즘을 삶의 기본욕구로부터 출발한 시작 이라 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자금적 관점 이라 부른다. 우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 시각에 더 근접해 있으며, 남에서 자신들의 직접적인 생존을 위해 싸우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북의 도시 중산층 남성과 여성보다 여기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들이 산업체제의 파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육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남성 또한 이 과정을 분석 하고 변화시킬 '물적 토대'를 지닌다. 이어지는 장(章)들에서 우리는 우리 의 투쟁과 사후평가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몇 문제들에 관해 논할 것이다. 이 문제들은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개념에 관한 문 제, 빈곤과 개발 문제, 모든 생명체의 산업화라는 문제, 문화적 정체성과 뿌 리박음의 문제, 제한된 지구 안에서 자유와 자기결정을 추구하는 문제 등 지구 위의 생명을 지키고자 할 때 당연히 되는 문제들 대부분을 포괄하 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과 여성과 어린이와 남성 모두에 게 자비로운 사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는 각자 맡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의전과 분석의 차이를 전부 없애려 들지는 않았다. 차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점과 조건에서 그런 차이들은 불가피하며 회 피해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차이들은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전기 구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렸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동양의, 특히 중국과 인도 전통의 맥락에서 때 어내 단편적으로 취한 것이다. 식민지에서 물질적 자원을 약탈한 다음 이 제는 정신적·문화적 자원마저도 세계시장의 상품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서구의 거부장적 자본주의문명의 깊은 위기를 보여준다. 서구에서 (언제나 '물질'세계와 분리된) 삶의 정신적인 면이 점점 침식당함에 따라, 서구인들은 자신의 문명에서 파괴된 것을 찾 아 '동양'으로,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도색은 분명 온전한 전체(wholeness)를 향한 인간의 깊은 욕구 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극히 같은 파면적이고 상품화된 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동양의 정신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동양인들이, 예컨대 인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있고 자신들이 취한 요가나 태극권 같은 단편 들이 어떤 사회경제적·정치적 맥락에 놓인 것인지도 거의 알지 못하며 알 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일종의 사치성 정신주의인 것이다. 자랄 자르카르 (Sara Sarkar)의 표현대로<sup>26)</sup> 이것은 서구적 생활수준이라는 물질주의의 꾀 위에 덧붙인 이상주의적 장식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사치성 정신주의는 정 신과 물질, 경제와 문화 간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없다. 전체성을 향한 이 같은 도색이 현존하는 착취적 세계체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더 나은 사회 를 향한 탐색으로 통합되지 않는 한 그것은 쉽게 흡수되고 무력해지기 십 상이기 때문이다.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제3세계 여성에게는 이러한 정신주 의 캐익장식이나 물질로부터 정신을 분리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은 어머니 대지라는 말에 따옴표를 붙일 이유조차 없다. 그들은 지 구를 그들 자신과 모든 동료 피조물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살아 있는 존 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지의 신성을 존중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산업과 상품생산을 위한 죽은 원료로 만드는 것에 저항한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자연의 다양성과 한계를 존

26) S. Sarkar, "Die Bewegung und ihre Strategie: Ein Beitrag zum notwendigen Klärungsprozess," Kommune, Nr. Frankfurt 1987.



1부

## 비파괴 과학

## 2장 환원주의와 재생: 과학의 위기

반다나 시바

## 지식과 무지

근대과학은 보편적이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체계로 간주되어왔다. 자체의 방법론적 논리를 통해 생명과 우주와 그밖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과학의 주류, 곧 환원주의적인 혹은 기계적인 패러다임은 15~17세기에 저 빛나는 과학혁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서구 남성의 특정 투사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3세계와 페미니즘의 연구들은<sup>1)</sup> 이 주류 체계가 만인을 위한 보편적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를 해방시키는 힘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연과 여성의 종속을 수반하는 서구적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기율로 등장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sup>2)</sup>

이러한 지배와 종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지식'(전문가)과 '무지'(비전문가) 사이의 독단적 경계이다. 이 경계는 과학의 주제에 관한 몇몇 핵심적 질문들과 비전문적 지식의 형태들에 대한 고찰을 과학적 연구영역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작용을 한다.

1) Claude Alvares, *Decolonizing History*, Goa: The Other India Book Store 1992.

2) Sandra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개인적인 두 번의 경험은 지배적 지식에 내재한 이러한 배타성을 잘 드러낸다. 1970년대 해물리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나는 여름 휴전 과정에서 핵에너지팀이라는 선택된 소수의 일원이 된 것에 우물해서 잠에 돌아왔다. 그런데 의사인 언니가 핵의 위험에 대한 나의 무지를 일깨워주면서 곧 풀이 죽고 말았다. 핵전문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핵반응이 일어나는지는 알지만 방사선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방사선 배치와 작업복들은 배타적인 집단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의례적인 건치례에 불과했다. 신진 해물리학자로서 이처럼 갑작스럽게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자 나는 충격을 받았고, 기만당한 느낌이 들었으며, 결국 이론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

10년 후 임신하여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전문지식과 무지 사이의 독단적인 경계와 마주치게 되었다. 의사는 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산이 되리라는 예기였다. 나는 별 이상이 없었고 자연분만을 하려던 참이었으며 의료사고를 포함한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로서 나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부정당했고 그 지위는 의사만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무지한 '몸통'이었고 의사는 지식을 갖춘 '정신'이었다. 왜 제왕절개가 필요하냐고 묻자 마지못해 하는 대답이 내가 너무 늙은, 다시 말해 서른살이나 먹은 산모라는 사실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상식을 믿고 분만실을 나와버렸다. 아버지가 나와 내 아기에게 자연분만의 기쁨을 기꺼이 제공할 줄 조출한 병원으로 데려다주었다. 거기서 나는 예상대로 아무 탈없이 아기를 낳았다.

분화되고 단편화된 지식에는 한가지 기만이 내재해 있는 듯한다. 이런 지식은 비전문가의 지식을 무지로 치부해버리며 인위적인 분할을 통해 지식 자체의 무지를 감출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근대 서구 가부장제의 '과학 혁명'이라는 특수한 인식론적 전통을 '환경주의적'이라 특징짓는다. 그 이유는 ① 다르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법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능력을 축소하며, ② 자연을 무기력하고 파편화된

## 가치와 비가치

환경주의는 그 자체의 신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봉사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보호받는다. 환경주의는 결코 인식론적 우연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경제·정치 조직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환경주의적 세계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경제는 동일한 과정의 철학적·기술적·경제적 구성요소이다. 개별 기업과 경제의 분화된 부문들은 사적 소유이든 국가소유이든 자체의 효율성과 이익만을 생각하며, 모든 기업과 모든 부문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극대화되는 현실에는 눈감은 채 이윤의 극대화라는 척도로만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 효율성의 논리를 제공해준 것이 환경주의이다. 착취와 수탈을 통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자원체계의 특성만이 고려되며, 생태계의 과정을 안정시키지만 상업적 이윤을 남기는 않는 특성은 무시되고 결국 파괴된다.

상업적인 자본주의는 전문화된 상품생산에 기반을 두며,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과 자연자원의 단일기능적 활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환경주의는 복잡한 생태계를 단일 구성요소로, 단일 구성요소를 단일 기능으로 환원시킨다. 나아가 이것은 단일 기능, 단일 구성요소의 착취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조작하도록 한다. 환경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숲은 상업적인 목재로, 목재는 펄프와 제지업을 위한 섬유소로 환원된다. 그리하여 숲, 토지와 유전(遺傳)자원들은 펄프의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조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전체적인 생산성만 증가시킨다면 그것이 숲의 수분 보유량을 줄이건 숲공동체를 이루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파괴하건 상관없이 과학적으로 합법화된다.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산림관리와 산림'개발'은 살아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자연의 유기적 과정과 리듬과 재생력을 파괴하는 변형을 수반하기 때문에 환경주의 과학은 점증하는 환경재난의 뿌리가 된다.

지식과 무지 사이의 독단적인 경계는 가치와 무가치 사이의 독단적인 경계와 상응한다. 환경주의적·기계론적 은유는 가치의 척도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살할 도구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그것은 자유롭고 자생적인 것을 식민화하고 통제할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기술개발은 이미 변형되고 소모된 것으로부터 아직 손대지 않은 것으로 점차 확대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시각에서는 재생력의 터전으로서의 종자와 여성의 육체가 최후의 식민지가 되는 셈이다.<sup>4)</sup> 이 창조적인 재생의 터는 전문가들이 가치를 '생산하고' 추가하는 '수동적인' 장소로 바뀐다. 자연과 여성과 유색인들은 다만 '원료'를 제공할 뿐이다. 여성과 자연의 공헌에 대한 평가절하는 식민행위에 개발과 진보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맞물려 행해진다. 소의를 의미하는 분리가 소유권과 통제권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 정부에 관한 로크(J. Locke)의 두번째 논문은 "자연이 제공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로부터 인간이 무언가를 끌어낸다면,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인간의 노동이 섞여 있고 그럼으로써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다"고 언명하고 있다.<sup>5)</sup> 그리하여 '끌어내는' 행위는 소유의 행위가 되며 자본이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더 용이하게 '끌어내고' 분리하고 쪼개기 위해서이다. 끌어낸 그리고 '노동과 석유'를 통해 확보되는 소유권은 그 앞에 앞서 이미 노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자연과 종자재배에 부여된 인간노동 사이에,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산물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 산업화의 시각이 자연이라 간주하는 것은 비노동, 즉 생물적·자연적이라 정의함으로써 켜아내리고자 하는 이면쪽의 사회적 노동인 것이다. 또한 이 시각은 자연과 여성의 노동을 수동적으로 규정한다.

클라우디아 폰 베를호프(Claudia von Werthof)가 지적한 바와 같이<sup>6)</sup> 지배적인 시각에서 보는 '자연'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혹은) 가능한 새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노동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노동은 비노동으로, 생물학적인 것으로 선언된다.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숙련된 작업능력은 천연자원이 양,

4) M. Mies et al., *Women, the Last Colony*, London: Zed Books 1988.

5)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London: J. M. Dent & Sons 1991.

6) Claudia von Werthof, "On the Concept of Nature and Society in Capitalism," Maria Mies et al., 앞의 책.

그들의 생산품은 천연 매장물인 양 여겨진다.”

이리하여 상당수의 인위적인 변화가 지식의 파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명의 재생과 갱신의 원천은 무기력하고 파편화된 물질로, 그저 최종 생산물로 가공되어야 할 ‘원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변해버린다. 창조성이 수동성으로 변화되면 생산성은 분열적이고 강제적이며 착취적인 행위로 제배치되며 동시에 다른 모든 가치는 무가치로 규정된다. 이러한 생산과 가치의 제배치를 통해 재생의 터전에 대한 외적 통제와 인류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버린다. 역설적이게도 파괴자가 구원자로 둔갑하는 것이다.

가치가 무가치로, 노동이 비노동으로, 창조성이 수동성으로, 파괴가 생산으로 변화하는 많은 현상은 자본과 기술이 생물적 재생산을 대체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 인간생식의 한원

출산의 의료화는 여성의 신체를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퍼편적이고 물신적이며 대체가능한 부품으로 기계화한 것과 관련된다.

임신한 여성은 이제 인간의 재생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생산품을 꺼내야 하는 ‘원료’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모가 아니라 의사가 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의학적인 ‘처치’는 최대 화하고 자궁과 여성의 ‘진통’은 최소화한 제왕절개 수술이 최상의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시험관 아기의 경우 어느 전문가위원회는 의사를 단순히 ‘가능성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태아 자체의 형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예전에는 산모 그리고 산모와 아기 간의 유기적 통일성에 있던 초점이 이제는 의사가 통제하는 ‘태아’라는 결과물에 맞추어진다. 여성의 자궁은 활동력 없는 용기로 환원되었고 여성의 무지와 더불어 여성의 수동성이라

7) Emily Martin, *The Woman in the Body*, Boston: Beacon Press.

상적인 경우로 분류되었다. 앤 오우클리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자.

여성의 자궁은 단순한 용기에 불과하고, 여성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데올로기와 관행에 의해 포획된다. 여성의 자궁을 포획하는 일은 물리학주의적·남성우월주의적 과학페러다임이 지배하고 있음을, 생명을 의화하는 논리뿐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정신과 무관하게 설명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데카르트식 세계관의 궁극적 논리가 지배함을 나타낸다.”

‘아기제조 혁명’이라는 ‘타임’(Time)지의 기사는” 갱년기로 인한 불임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에 대해 쓰고 있다. 신체의 리듬은 기술적 장비이라 고 체계적으로 해석되는데,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정신과 물질성 양면에서 유기체의 파편화를 수반한다. 그리하여 ‘타임’지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자궁이 노화해서가 아니라 난소가 노화해서 불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적 전체를 파편화된, 분리·대체 가능한 부분들로 환원하는 것이 바로 환원주의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인 것이다.

## 식물생식의 한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이래 기술과 경제는 생명의 협박에, 풍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가정을 강화해왔다. 농업과 식물생산 분야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어떻게 생태계와 사회체제의 파괴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수세기 동안 농경사회는 식물의 생식력과 토질 재생을 위해 자연의 한계와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이같은 재생을 위한 자연적 과정은 극복해야 할 속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공장에서 제조된 종자와 비료가 자연의 종자와 땅의 생산력보다 우월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물들은 토질과 식물을 재생불가능

11) Ann Oakley, 앞의 책.

12) Time, 1990년 11월 6일.

는 관념도 조작되었다.” 태아와 여성 간의 직접적인 유기적 접촉은 여성을 훌륭한 어머니로 교육시킬 전문지식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성과 기계에 의해 매개되는 지식으로 대체된다. 앤 오우클리(Ann Oakley)는 의학교과서에서 다음 대목을 인용한다.

산모는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를 사회적으로 대면할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서, 바라건대, 아이를 기생물이 아닌 동반자로 보게 된다. ... 검사하는 의사와 기술자들은 산모에게 아이를 보여줌으로써 일찍 감지 아이와 예정어린 유대를 맺게 할 좋은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산모가 태아를 배려하며 행동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성의 진통과 지식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신체에서 우러나는 태아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까지도 의사와 기술자들에게 지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식기술은 어머니에게서 의사로, 여성에게서 남성으로의 권력 이동을 더욱 강화하는바,<sup>8)</sup> 그것은 정자의 생산이 난자의 생산보다 훨씬 더 가치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들은 난자 ‘기증’이 여성에게 야기하는 것보다 정자 관매가 남성에게 야기하는 긴장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과정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침해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말이다. 더 나아가 체외수정(IVF) 등이 지금은 불임이라는 ‘비정상적’ 경우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 간의 구분이라는 것은 자연과 비자연 간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것이다. 임신이 의학적인 상태로 처음 바뀌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의사들의 처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 한정했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원래의 전문가인 산과들이 맡아보았다. 1930년대에는 전체 출산 중 30%가 집에서 분만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우로 간주되었으나 1950년대에는 70%가 병원에서 분만해야만 하는 비정

8) UNICEF,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1990.

9) Ann Oakley, *The Captured Women*, London: Blackwell 1989.

10) Singer and Wells, *The Reproduction Revolution, New Ways of Making Bab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한 자원으로 급속히 변모시켜버렸다. 녹색혁명과 산업적 영농을 위한 원료와 투입물로 사용된 토양과 종자는 병든 토지, 침수되거나 염분이 댄 황무지, 그리고 질병에 찌든 농작물을 만들어냈다. 자연을 자원으로 바꾸는 궁극적 단계는 식물이 다시 자라날 원천인 ‘종자’를 기업이윤을 위해 조작되고 특허권이 설정되고 소유가 가능한 ‘유전자원’으로 변모시키는 일이었다. 식물을 재생시키는 자연의 방법은 너무 느리고 ‘원시적인’ 것이라 하여 내팽개쳐졌다. 생명체 번식에 있어 자연의 한계인 ‘종의 장벽’은 이제 공학적으로 유전자교배 생명체를 산출함으로써 극복되었으나 그것이 생명체에 미칠 영향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과학혁명은 무지의 경계를 멀리 밀어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신, 자연과 여성을 자원으로만, 그리고 자연의 한계를 구축으로 보는 지식 전통은 전혀없는 엄청난 인공적 무지를 만들어냈고, 이 무지는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원천이 되고 있다. 종자의 식민화는 여성신체의 식민화 패턴을 반영한다. 이윤과 권력은 모든 생물적 유기체에 대한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잡(hybridization)은 종자에 대한 침해였으며, 곡물(식량)과 생산수단으로서의 종자의 통일성을 부수어버린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식물재배와 상업적 종자생산 분야에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축적의 공간이 열렸다. 여성의 생식과정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종자 식민화의 첫번째 단계 역시 기계적 은유를 통한 종자의 환원이다. 다수화 곡물종자에 관한 한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물은 농업의 주된 제조공장이고, 종자는 ‘기계’이며, 비료와 농업용수는 연료와 같다. 제조제, 살충제, 정비, 신용대부, 기술적 노하우는 이 산업의 산출물을 증가시키는 가속기이다. 이 식물기업의 산출물은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투입물을 활용하는 종자의 유전적 잠재력과 직접 관련된다.”<sup>10)</sup>

13) Mahabul Ram, *High Yielding Varieties of Crop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현대의 식물재배는 일차적으로 시장성에 장애가 되는 생물학적 요인들, 즉 재배하고 증식하는 내재적 능력을 종자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자체 번식하는 종자는 무로이며 공동의 자원이므로 농민들의 통제 아래 있다. 반면 기업의 종자에는 가격이 있고, 기업이나 농업연구소의 통제에 놓인다. 공동자원에서 상품으로, 자체 재생하는 자원에서 단순 '투입물'로의 변화는 종자와 농업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놓았다. 이리하여 가난과 저개발을 낳는 도구가 되어버린 새로운 기술에 의해 농민들은 생계수단을 강탈당한 것이 다.

자원으로서의 종자를 곡물(식량)과 매이놓게 되자 종자의 지위도 변화하였다. 완전한 자기재생적 산물이었던 종자가 상품생산을 위한 단순 원료로 전락했다. 따라서 재생과 생물다양성의 순환은 농장과 숲에서 천연적으로 나오는 공짜 생식질(germ plasm, 1893년 바이스만이 제창한 '생식질설'에서 상정된 유전물질, 유전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물의 유전과 생식에 관여하는 모든 결정 요소라는 단위로 구성된다—올긴이)이 실험실과 연구소로 들어가고 가격이 붙은 상품이라는 획일적 생산품이 기업에서 농민에게로 흘러드는 단선적 흐름으로 대체되었다. 잠재적인 다양성은 획일성에 기초한 산업생산의 원료로 전락함으로써 사라져버렸고 이에 따라 지역 농업의 다양성도 사라졌다. 클로드 알바레스(Claude Alvares)의 말을 빌린다면 "최초로, 인류는 자생하지 못하고 인공적인 환경에서 키워야 결실을 맺는 종자를 만들어낸 것이다."<sup>14</sup>

종자 본성상의 이같은 변화는, 자기재생적인 종자는 '원시적'이고 '가공되어야 할' 생식질이라 취급하는 반면 투입물 없이는 무기력하고 재생력도 없는 종자를 '침단'이고 '우수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체계 및 의미체계에 의해 정당화된다. 전체가 부분으로, 부분이 전체로 전도된 것이다. 상품화된 종자는 두 가지 면에서 생태학적으로 불구이다.

① '종자'란 문자 그대로 번식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스스로 번

14) Claude Alvares, "The Great Gene Robbery," *The Illustrated Weekly of India*, 1986년 3월 23일.

있게끔 적용시키거나 생식질을 농민에게 유용한 품종으로 구체화시킬 때, 생식질이 가치를 가지려면 상당량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sup>15</sup> (강조는 인용자)

기업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물질적인 과정은 생태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 또한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독점화경향은 이런 필요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가치척도로서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나의 대상/물질에 특허를 설정함으로써 대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 특허받은 대상/물질로부터 새롭고 유용한 품종을 창조/발명하는 것을 막는다. '지적 생산물'을 특허내고 '소유하는' 것은 산업디자인과 공예의 분야에서보다 생물학적 과정의 영역에서 더 문제가 되는 데,<sup>16</sup> 생물학적 영역에서는 유기체들이 자체 생식하며 종종 번식과 선택 등의 기술로 형성·변화·증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지적 재산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생명의 소유 개념을 바꿔놓은 생명공학이 나타나기 전까지 동식물은 특허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술의 등장으로 생명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유전자 분리와 조작의 가능성은 유기체를 유전적인 구성요소로 환원시켰다. 생명체에 대한 독점권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제3세계 등지에서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기르고 길들이고 발전시킨 농부들과 농업전문가들의 공헌은 평가절하되고 폐기되어버렸다. 팻 무니(Pat Mooney)가 지적했듯이 "지적 재산권은 연구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이들이 행사해야만 인정된다는 주장은 과학발전에 대한 근본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견해이다."<sup>17</sup>

16) 같은 글.

17) Robert Sheewood,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Colorado: Westview 1990.

18) Pat Mooney, *From Cabbages to Kings, Intellectual Property is Intellectual Integrity*, ICDA report, 1990.

식하지 못한다. 이렇듯 유전자원은 기술적 조작을 통해 재생가능한 자원을 재생불가능한 자원으로 변모시킨다.

②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므로 그것은 인공적으로 제조된 투입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종자회사와 화학회사가 합병되면서 투입물에 대한 의존도 높아날 전망이다. 화학품은 그것이 종자의 외부에 가해지는 내부에 가해지는 간에 종자재생산의 생태적 순환에 대한 외적 투입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렇듯 생식이라는 생태적 과정이 생산이라는 기술적 과정으로 변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의 저변이 형성된다. ① 농민의 소유권 박탈: 기업의 종자가 부 창출의 근원이 되는 과정에 의해 농민의 종자는 불안전하고 가치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② 유전적 쇠퇴: 자연선택이나 인위선택 과정을 거쳐 진화·생산되고 제3세계 농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자생 품종 혹은 토종들이 '원시 품종'으로 불리는 반면, 국제연구센터의 현대적 식물육종종들과 초국적 종자회사가 만들어낸 종자들은 '침단' 혹은 '엘리트' 종자라 불리기 때문이다. '원시적' '침단' '엘리트' 등의 단어에 내포된 위계서열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북은 인제나 남의 생식질을 거저 쓸 수 있는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남의 유전자 보유권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남의 국가들도 똑같이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선언된 북의 유전자산업의 특허품종들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북의 국가들은 이러한 상호성을 거절한다. 국제식물유전자원위원회(IPGRI) 사무국장인 윌리엄즈 박사는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은 원재료 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sup>18</sup> 파이어니어하이브리드(Pioneer Hi-Bred)사가 협찬한 1983년의 식물육종 포럼은 이렇게 선언했다.

생식질이 공공자원이니까 개량품종도 생식질을 제공한 나라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혹은 아주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천연 그대로의' 생식질을 해당 식물육종자들이 이용할 수

15) Jack Kloppenburg, "First the Seed," *The Political Economy of Plant Biotechnology* 1492 ~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에서 인용.

이런 주장은 명백히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① 제3세계 농민들의 노동은 가치가 없고 서구 과학자들의 노력만이 가치를 낳는다. ② 가치는 시장성의 전제에서, 즉 수익성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천년 동안 농부들이 이뤄낸 유전자변화의 총량'이, 최근 일어난 동안 종다 체계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종자의 유용성을 만들어내는 이가 식물학자만은 아닌 것이다.

## 철학과 정의

노동이 비노동으로 정의될 때, 가치는 무가치로, 권리는 무권리로, 그리고 침략은 개량으로 정의된다. '개량된 종자'와 '개량된 태아'는 사실상 '점령된' 종자와 태아이다. 사회적 노동을 자연상태로 규정하는 것이 이 '개량'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치를 동시에 획득한다. ① 그들이 착취하는 생산물의 원소유자의 공헌은 모두 부정하며, 그들의 활동을 수동적이라 치부함으로써 이미 사용되고 개발된 자원을 '사용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버려진' 자원으로 변모시킨다. ② 착취를 '개발'과 '개량'으로 해석함으로써 '개발'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철도를 소유권으로 바꾼다. ③ 그리고 거둬들여지만 이전의 사회적 노동을 자연으로 정의하고 따라서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민중들의 관습적·집단적 용역권을 '해적행위'와 '절도'로 바꾼다.

아메리카 땅을 원주민들에게서 빼는 것에 대해 토머스 모어 경이 적용한 논리에 따르면, "누구라도 쓸모없이 비어 있는 땅을 취할" 때 그 물수는 정당화된다. 1889년 로우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정착민과 개척자는 그들 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 그들이 없었던들이 거대한 대륙은 오로지 지지불한 야만인들을 위한 사냥금지구역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sup>19</sup>

원주민의 이용은 이용이 아니고, 원주민의 땅은 '비어 있는' 것이며 '정당

19) Theodore Roosevelt, *The Winning of the West*, New York.

하게' 전용할 수 있는, 가치없는 공짜 '자연'으로 정의되었다. 지금도 새로운 식민지들이 환경주의적 사고방식과 자본과 이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분할되고 있으며, 기부장적 권력으로 통제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식물 유전 공학과 생식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과 자연이 아닌 것의 경제, 권리인 것과 권리가 아닌 것의 경제가 새로이 그려지고 있다.

'종자전쟁'과 무역전쟁, GATT가 주관하는 특허'보호'와 지적 재산권<sup>20</sup>은 분리를 통한 소유권 주장의 최신판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산업이 '지적 재산권'의 부제로 약 1~3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미국이 요구하는 이 '권리'체계가 모양을 갖춘다면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추가로 이전되는 자금 때문에 제3세계 국가의 외채위기는 10배 이상 심화될 것이다.<sup>21</sup>

생명과정이 '가치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그 파장을 잘기갈기 찢는 것이 가치와 부 창출의 원천이 될 때, 내적 공간(종자와 자궁)에 대한 침략이 자 본축적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통제와 원천 자체를 파괴하는 통제와 권력의 새로운 원천이 될 때, 폭력과 권력과 환경파괴는 밀접히 연관된다.

### 재생, 생산, 소비

생명을 이어나가는 재생의 원천에 대한 식민화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위 기이다. 기부장적 자본주의에 봉사하는 기부장적 학문과 기술은 재생의 순환을 조각내어 이를 원료와 상품이라는 단선적 흐름 속에 억지로 끼워넣었다. 자급적이고 자기재생적인 체계가 '원료'로 전락하고 소비체계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체제로 격상되었다. 자연적인 성장주기의 파괴는 자본시장의 원천이 되었다. 매릴린 워링(Marilyn Waring)의 지적대로<sup>22</sup>

20) Draft Final Agreement, *General Agreement for Trade and Tariffs*, GATT Secretariat, 1991년 12월.

21) Henk Hobbelink, *Biootechnology and the Future of World Agriculture*, London: Zed Books 1991.

국가회계에 관한 자료 수집에 기초가 되는 원칙은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때버린다는 것이다. 재생력의 파괴는 파괴로 드러나지 않고, 대신 '생산자'와 '소비자'와 상품의 증식만이 성장의 신호가 되는 것이다.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주류 환경론자들은 페미니즘과 결별하여 자본주의의 기부장제가 만들어낸 세계모델을 계속 사용한다. 그 모델은 생태순환을 재건하는 대신 기술적으로 수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활동을 재생과정 안에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범주는 유지한 채 '녹색소비주의'를 환경적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한다.

페미니즘의 관점은 자연과 사회에서 권력과 외미를 구성하는 기부장적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 생산과 소비를 재생이라는 맥락에 두는 것이므로 그것은 더 넓고 더 깊은 관점이다. 지금까지 분리된 것으로 다루어졌던 것, 가령 생산과 재생 같은 문제들을 연결지을 뿐 아니라 이렇게 연결지음으로써 생태론적 페미니즘은 세계를 조작하고 착취할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 주체로 볼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부장제가 생산적이라 규정한 것 중 많은 것에 내재한 파괴성을 폭로함으로써 '생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창조활동의 인식과 경험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

그랬을 때 기부장적 인식에서 '수동적'이라 해석되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생명을 새로이 이어나가는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된다. 활성화의 주요 원천은 자연의 재생리듬과 순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그 리듬과 순환의 외적있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바브라 맥린톡(Barbara McLintock)이 지적하는 "유기체에 대한 공감"이든<sup>23</sup>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말하는 자연의 영속적 리듬에의 참여이든<sup>24</sup> 혹은 이드와리 데비(Irwin Devi)가 설명하는 숲과 초원에

22) Marilyn Waring, *If Women Counted*, New York: Harper & Row 1989.

23) Evelyn Fox Keller, *A Feeling for the Organism: The Life and Work of Barbara McLintock*, New York: W. M. Freeman 1983.

24) Patricia Hynes, *The Recurring Slant Spring*, Athene Series, New York: Penguin Press

서 나오는 샹크피(shanki, 힙)이든<sup>25</sup> 간에 그 표현은 달라도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호의존과 총체성에 대한 탐구와 경험은 자연의 지속가능한 체계를 침해하지 않고 복돋우는 과학과 지식을 창조하는 기반이다.

## 3장 페미니스트 연구: 과학, 폭력, 책임

마리아 미스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의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여성운동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것은 1968/69년 우리가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주류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은 이를 철저히 감춰왔다. 이것은 적어도 300여년간 수백만 명의 우리 자매들, 이른바 '미녀'들이 박해받고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재발견했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에 버금가는 경험이었다. 이 대학살도 주류 역사서술에서는 거의 무시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이해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여성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상기해야 할 것은 여성학이 여성운동으로부터 성장했다는 점이다. 여성학은 강단학계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며, 연구기관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소수의 재능있는 여성 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은 거리에서 만들어졌으며, 전업주부, 비서, 학생과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여성으로서 기부장제의 착취와 억압에 대해 싸우기 위해 결속한 수많은 여성집단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여성학을 만든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목표, 즉 남성지배와 폭력·착취로부터

\* 이 글은 1986년 Innsbruck대학교에서 했던 강의를 대략 수정한 것으로, 독일에서 출간된 Hildegard Fassler, ed., *Das Tabu der Gewalt*, vol. 1, 1985~87, Innsbruck: Universitätsverlag에 수록된 바 있다.

25) Vandana Shiva, "Fight for Survival," *Illustrated Weekly of India*, 1987년 11월 15일.

의 여성해방이란 목표를 가진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이 정치적 목표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73~80년 서독에서 여학생들과 페미니스트 강사들이 대학을 여성해방의 전장으로 삼아 여성들의 세미나를 조직하고, 여성을 위한 베를린 여름학교를 열고, 이후엔 함부르크·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여성주간(Woman's Weeks)을 조직, 마침내 '여성을 위한 사회과학 연구와 실천 연합'(Association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Praxis for Women, 1978)과 독일사회과학회(German Sociological Society) 내의 여성연구분과(Women's Research Section, 1979) 등을 만들었을 때였다. 이와 유사한 페미니스트 조직들이 다른 분과학문에서도 세워졌다.

여성해방운동에 뿌리박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1976년 빌레펠트 사회학자대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 연구가 "모든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하며" 여성학이 단지 무슨무슨 사회학, 무슨무슨 심리학 등과 같이 기존 분과학문에 덧붙여지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그 당시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페미니스트 연구로서 그것은 마땅히 과학과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어야 했다. 이 패러다임은 여성과 그들의 공헌을 감춰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과 개념화에서나 이론과 방법에서나 모두 남성중심적인 편견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 과학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왔음을 발견했다. 생물학주의(biologyism) 및 사회과학·심리학·행동과학·교육 등에서 양성간의 관계에 대한 생물학주의적 시각이 그것이다.

1978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으로 여성학대회를 열었을 때, 우리는 사회과학에 대한 이질적이고 페미니즘적인 이해를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경험 및 여성억압에 대한 연구와 그 억압의 철폐라는 우리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여성으로서 맺고 있는 관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에 통합하는 것이었다. 당시 내가 발표한 여성학의 방법론에 대한 생각은 이후 여성학의 이론적·방

부터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편향과 상호성의 요구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여태까지 대개 권력엘리트의 지배와 정당화의 수단이었던 연구는 지배받고 착취당하며 억압받는 집단들, 특히 여성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여성해방의 대의에 헌신하는 여성 학자들이 '위로부터의 시각'에 대해 재관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이 당하는 억압에 동의한다는 뜻이 된다. 남녀 관계야말로 위로부터의 시각의 가장 오래된 본보기이며 모든 수직적·위계적 관계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아래로부터의 시각'에 대한 요구에는 과학적인 차원과 윤리·정치적인 차원이 함께 들어 있다. 과학적인 의미는 양적 연구도구가 정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들이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위계적인 연구환경이 연구의 목적 자체를 좌절시키고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심문당하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심한 불신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은 여성이나 여타 해방받지 못한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성원으로만 인터뷰를 받을 때 발견된다. 이런 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흔히 실제 행동보다는 '기대 행동'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Bonger 1974).

여성해방의 대의에 헌신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결과에 머무를 수 없다. 그들은 사회과학에 더 낮고, 더 밑을 만하며, 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만족할 수도 없다. 아래로부터의 시각이 지니는 윤리·정치적 의미는 과학적인 의미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들을 분리한다면 여성학에서 이론 또는 방법론적인 혁신들이 다시금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여성학이 의식적으로 여성 압박과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의 일부가 되어야만 여성학의 이론적·방법론적 혁신들이 현상태의 유지와 위기관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의식있는 여성 학자라면 여성문제를 기성 학문과 연구정책 내부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만 아니라, 연구의 영역과 목적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세우기 위해서도 싸워야 함을 뜻한다. 대다수 여성의 요구와 이익이 여성학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 결국 학

방법론적 기반으로 널리 유포되고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이 방법론적 원리 혹은 지침은 아래와 같이 소개되었다.

현재 주류 사회과학의 이론 및 방법론과 여성운동의 정치적 목표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여성학이 여성해방의 도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증적·양적 연구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여성학은 단순히 이제 여성들이 연구의 '목표집단'이 되었다거나 점점 더 많은 여성 학자와 학생들 이 여성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사실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Mies 1983, 120면)

다음의 내용은 내가 생각하는 여성학의 방법론적 원리를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여성학이 여성해방이라는 목표에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Mies 1983, 117~137면).

### 페미니스트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

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연구대상에 대한 중립과 무관심이라는 기본요건은 의식적 편향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는 연구대상에 대한 부분적 동일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자신의 이중의식을 의식적·적극적으로 연구과정에 통합시키는 여성들에게는 이런 부분적 동일시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연구대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해관계를 배제하며 거리를 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소위 "관찰자 지식" (Maslow 1966, 50면)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 편향은 연구대상을 더 큰 사회적 전체의 일부로 인식할 뿐 아니라 연구주체 즉 연구자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의식적 편향은 단순한 주관주의나 감정이입과는 다르다. 그것은 제한된 동일시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와 그의 '대상' 간에 비판적인 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연구자와 연구대상 양측의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고 쌍방의 의식을 넓혀준다.

②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수직적인 관계 즉 위로부터의 시각은 '아래로

문을 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요구와 이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시각'은 또한 하나의 기본요건으로 이어진다.

③ 사면적이고 개입을 회피하는 '관찰자 지식'은 여성해방을 위한 적극적 참여행동과 운동과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연구도 마땅히 그러한 투쟁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여성학이 여성운동으로부터 성장해나온 까닭에, 여성 억압이나 착취에 대한 관심도 없고 투쟁에도 참여할 적 없는 강단학계의 여성 학자들이 여성학을 순수한 학문적인 관심사로 축소시키고 연구소와 대학의 상아탑에 가두어 그 불만의 날을 무디게 한다면, 그것은 운동의 목표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다. 이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여성학은 운동의 투쟁 및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유지해야 한다.

마스 베버가 주장한 그 유명한 학문과 정책(실천)의 분리는 여성해방에 이롭지 않다. (자신들은 특권층으로서 이미 해방되었다고 느끼기에) '가엾은 자매들'을 위해 기부장적 '시혜' 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러나 하나의 체제로서의 기부장제에 투쟁하는 여성 학자라면 그들의 연구들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운동의 사회적 행동과 투쟁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운동에 대한 그들의 공헌은 추상적인 분석과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론적·방법론적 잠재력을 발전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여성 사회과학자들의 엘리트주의적 태도는 그들이 사회적 행동이나 투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울드너 Gouldner의 말을 빌리자면) "지배 혹은 형제 사회과학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극복될 것이다. 연구가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행동으로 통합된다면 지식과 실천의 변증법은 더 나은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를 때 연구대상은 정적이고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역동적이며 모순적인 실체이다. 그러므로 연구도 이 과정의 역동성에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

④ 사회적 행동과 투쟁에의 참여, 그리고 연구를 이 과정에 통합하는 일

은 더 나아가 현상태의 변화가 과학적 탐구의 시발점이 됨을 의미한다. 이 접근방식의 좌우명은 '무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가 될 것이다.

"배의 맛을 알려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입에 넣고 씹어보아야 한다." (Mao Zedong 1968) 이 원칙을 여성학에 적용시킨다면, 현재의 가부장제의 법의·차원·형태와 주의·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압박에 대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지금까지 여성에 관한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기사노동, 직업, 시간제노동 등에 대한 여성의 태도 같은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현상에 집중되어왔다. 그러한 태도나 의견에 대한 조사는 여성의 진정한 의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바가 없다. '정상적인' 생활이 파괴되었을 때, 즉 이혼이나 결별 등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여성이 자신의 진정한 상황에 대해 의식할 기회가 생긴다. 위기에서 실재를 아는 것이다. '위기의 경험' (Krisis 1977)에서 그리고 정상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여성들은 평소에는 거리를 갖지 못한 채 하나의 대상으로서 침잠해 있던 실제 사회관계와 대면하게 된다. 정상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들은 스스로에게조차 그 관계가 억압적이라거나 착취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태도조사에서는 흔히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여성이라는 성차별적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상태에 균열이 생길 때 이처럼 가부장적 관계가 그 성격상 자연스럽고 조화롭다는 식의 신비화는 지속될 수 없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개별 여성과 그녀의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도 적용된다. 오늘날 우리가 여성학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 내의 지적 노력이 아닌 여성운동이 이론 변화의 결과이다.

여성 학자들이 그들의 학문을 해방투쟁의 불가분의 일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연구를 개인적·사회적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도 인간으로서나 학자로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사회적 변화를 전유(專有)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역사의 과정에서 그 변화에 수동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여성은 역사를 만들었으나 예전에는 그것을 주체로서 전유하지(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들의 역사와 과거의 투쟁과 고난과 꿈에 대한 그같은 주체적 전유는 해방투쟁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집단적 여성 의식 같은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성역사의 전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캠페인과 투쟁을 기록하도록 고무하고 도와줄 수 있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촉진시킬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투쟁을 분석하도록 도움으로써 과거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즉자적 행동주의에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학을 연구하는 여성들이 운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다시 그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더이상 개인적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그것을 집단적인 것으로 만들고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함을 함축한다. 여기에서 다음 원칙이 나온다.

⑦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집단적인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전유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학은 남성 학자들간에 팽배한 개인주의·경쟁·출세주의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연구에 종사하는 개별 여성 학자와 그의 방법론 둘 다에 해당된다.

오늘날 이러한 시발점과 근거들을 되돌아보는 일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장에서 내가 위의 원칙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비판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라는 주체가 연구영역에 들어오고 여성과 남성 학자들이 이 주제를 연구하는 것 정도로 여성학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여성학과 여성해방운동을 연결시킨다는 정치적 목표는 대개 포기되었고, 마스 베버의 해묵은 과학과 정치의 분리가 여성학의 과학적 자질의 증거로 다시 한 번 수용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몇몇 나라들에서 여성학이 대학 내에 제도화되는 것과 나란히 여성학의 강단화가 벌어진 것이다. 여성 학자들이 원래의 정치적 목표를 포기할 채비가 되었거나 혹은 이 목표를 공유해본 적도 여

그들은 엘리트적인 편협성과 추상적 사고, 정치·윤리적 무능과 기성학자의 의 오만 따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적 작업이나 과학적 조망이 전문과학자의 특권이 아니며, 학문의 창의성은 살아 있는 사회과정에 근거함을 알아야만 한다. 방법론적으로, 이것은 변화의 역사의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할 기술에 대한 모색을 의미한다.

⑤ 연구과정은 '연구주체'(사회과학자들)에게나 '연구대상'(대상집단으로서의 여성)에게나, '의식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의식화'(conscientization)의 방법론은 빠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문제정식화 방식(problem-formulating method)에서 처음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이 접근법의 결정적인 특징은 억압적 현실에 대한 연구가 전 문가가 아니라 억압의 대상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에는 연구의 대상이던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와 행동의 주체가 된다. 이는 억압상황의 연구에 참여하는 학자가 그 사람들에게 연구도구를 주어야 함을 뜻한다. 학자는 피압박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끔, 그들이 맞서 투쟁하는 문제들을 정식화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여태까지의 여성운동은 의식화과정을 대체로 여성으로서 각 개인의 고통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의식고취를 위한 모임들에서도 강조점이 자본주의 가부장제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관계보다는 집단동학, 역할-특화 행동이나 관계의 문제에 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정식화 방식에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억압적인 사회관계의 한 표현이자 발현으로 간주한다. 의식고취를 위한 모임들이 모든 지배관계를 심리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제정식화 방식은 의식을 해방행동을 위한 주체적 선결조건이라 본다. 만일 의식화과정이 변화와 행동의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환상이나 심지어 회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⑥ 그러나 나는 빠울로 프레이리보다 한결을 더 나아가고자 한다. 문제정식화 방식을 통한 여성의 집단적 의식화는 여성의 개인적·사회적인 역사에 관한 연구와 병행해야 한다.

성운동에 참여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여성학을 수행할 때에만 여성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는 듯하다.

내 견해로는 정치와 학문, 생활과 지식의 새로운 분리, 요컨대 여성학의 강단화는 페미니스트운동과 그 목표를 배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여성학의 정신을 말살할 것이고, 맑스주의의 강단화가 맑스주의학(Marxology)을 낳았듯, 여성학을 빈약하고 무미미한 페미니즘학(feminology)으로 만들 것이다. 스스로를 강단학문적 담론으로 한정시킨다면 이와 똑같은 일이 에코페미니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중 다수가 사회과학이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초기에는 주류 사회과학을 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자연과학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 근저에 깔린 세계관, 그 인류학, 그 방법론과 응용에까지 미친다. 이 비판은 애초에 연구소나 대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평화·여성 운동 등과 연결되어, 특히 생식기술이나 유전공학에 반대하는 운동과 연계되어 생겨난 것이다. 더 많은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하게 될수록, 헬케 잔더(Helke Sander)가 표현한바 "중거리 로켓과 연애 사건"(Sander 1980, 4~7면) 간의 관련성, 즉 군사주의와 가부장제 간의, 자연에 대한 기술적 파괴·지배와 여성에 대한 폭력 간의, 그리고 자연의 착취와 '이민족의 착취 간의 남녀관계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여성·자연·이민족과 그들의 나라는 백인남성의 식민지이다. 이들에 대한 식민화, 즉 약탈적 전유(착취)를 위한 종속이 없었다면 그 유명한 서구문명도, 진보의 패러다임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과학과 기술도 없었을 것이다(Werhelf, Mies & Bennhold-Thomsen 1983).

이 명제는 이른바 순수과학이 성별구분이 없고,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며,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대부분이 남성인 이 분야 종사자들은 결백하다는 가부장적 신화를 폭로해온, 근대 과학사에 관한 일련의 페미니스트 저작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Griffin 1978; Merchant 1983; Fox Keller 1985를 보라).

특히 케릴린 머친트는 『자연의 죽음』(The Death of Nature, 1983)이라는

저서에서 현대 자연과학, 특히 역학과 물리학이 무엇보다 살아 있는 유기체—나아가 여성으로 해석되는 유기체—로서의 자연에 대한 파괴와 종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과정의 끝에서 자연은 단지 죽은 원자로 간주되어 가장 작은 요소로 분해된 다음, 위대한 (배인) 공학자에 의해 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새로운 기계로 재조합됨을 설득력있게 묘사한다. 머천트는 어머니 대지에 대한 이 새로운 지배가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에 대한 발전과 지식은 특히 이 자연과학의 새로운 아버지인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 권력과 연결되었다. 또한 16, 7세기의 마녀사냥과 비슷하게, 비밀을 얻어내기 위해 자연을 종속시키고 억압하고 고문까지 하도록 요구한 것도 그랬다. 게다가 베이컨은 실험에 입각한 새로운 경험적 방법의 창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어머니 대지를 감싸고 있던 오랜 금기를, 가령 원하는 광물을 얻기 위해 어머니 자연의 지궁으로 경도를 파헤쳐 들어가는 안된다는 금기를 일말의 주저없이 과감히 풀어버리고 그것들을 한갓 미신으로 비쳐지도록 자연과학의 새로운 영웅들에게 권유한 사람이기도 했다. 베이컨은, 자신의 보물을 탐욕스럽게 혼자자서만 갖고 자녀들(아들들)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나쁜 여자를 다룰 때처럼,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으로부터 비밀을 강제로 빼내야 한다고 말했다.”

1) Carolyn Merchant(1983)는 베이컨의 저작집(4권)에서 다음 글을 인용하여, 그가 마녀생판의 심문방법을 자연에 적용하고자고 제언했음을 입증한다(Bacon 1623/1870, 96, 298면, 강조는 Merchant).

당신이 자연의 뒤공무나를 인도하여 또다시 똑같은 장소로 물고 가고 싶다면, 당신은 오로지 이리저리 떠도는 자연을 따라 뒤따라만 하면 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상한 일의 역사를 믿지 않으며, 따라서 사실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있는 곳에선 마음·미법·미력·용상·예인 등의 미신적인 이야기는 모조리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사마귀 운명이라 해도, 여전히 심사숙고와 고려를 하다 보면... 자연의 비밀을 더 통찰하려는 데엔 아무런 마술, 마술 등을 행한 리로 기소된 사람들을 제대로 판결하는 데도 유용한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심문하는 것이 온전한 그의 목표일 때, 신이 당신의 사례 속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러한 구명과 구실을 피고들어가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그에 대답기 전에는 사람의 기질이 잘 드러나지 않듯, 불같이 단단히 묶기 전까지는 계속 형상을 바꾸는 포도나무수처럼, 자연도 그냥 내버려둘 때보다 인위적인 도구(기계장치)로 시험하고 괴롭혀야 스스로를 더 잘 드러낸다.

들이 추구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여태까지 여성과 자연에 있었던 생선의 기계와 창조의 힘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순수한' 남성정신의 통제하에 두기를 원했다. 그들은 스스로 창조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과 자연으로부터 주체성, 다시 말해 그들의 궁지와 정신을 빼앗아 생명이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야 했다. 살아 있는 유기체가 미래의 기계와 상품의 아버지들에게는 원료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블린 폭스 켈러는 이 새로운 남성들이 그들 내부에서도 어머니 자연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새로운 잠재력이 집중된 곳은 남근이 아니라 머리, 즉 두뇌였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열등한 것으로, 한갓 동물성으로, 사실상 이미 굴복시켜 혼란하고 이용하는 자연으로 여겨진다. 이런 까닭에 새로운 남성들은 플라톤에게는 여전히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였던 에로스, 사랑이 불가능했다. 플라톤의 경우 에로스는 나이는 현명한 남성의 젊은 남성에 대한 사랑이었다. 물론 그에게서 우리는 이미 여성과 물질에 대한 평가절하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젊고 예민한 남성의 육체를 사랑했으며 그 안에 깃들인 영혼을 보았다. 폭스 켈러에 따르면 현대 자연과학자들은 대다수가 관계와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과학을 추구하는 정열은 베이컨이 말했듯 '정숙한' 정열이었지만, 실상 남성 동맹 내부의 경쟁적인 압력과 잔능(全能)에 대한 광적인 집착에 의해서만 타오를 수 있는 것이었다(Evans 1986을 참조하라).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자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은 이러한 광적 집착이 백인남성의 진보모델 전체의 가부장적 핵심이라고 폭로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지식 앞에서 그저 뒤로 물러앉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구나, 과학마저 가부장적이라니..... (폭스 켈러조차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남성적이지 아니라.) 이 새로운 남성들의 작품이 그들의 두뇌를 통해서가 아니라 두뇌와 그들이 대단히 완곡하게 권력이라 일컫는 폭력 간의 치명적인 결합을 통해 어머니 대지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의 기원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머천트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머니 자연에 대한 베이컨의 마녀사냥의 이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금기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가장 거리낌없이 어긴 곳은 백인남성들이 식민화했던 지역들, 즉 카리브해 연안과 남아메리카라는 사실이다. 아메리카의 금은광을 약탈할 때 정복자들은 그런 오랜 금기들에 대해 더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무세한 무기는 그들에게 어머니 자연이 보복하리라는 오래된 두려움을 무시할 힘을 주었다. 베이컨 이래 자연과학과 일부일치의 정숙한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 힘의 근원을 탐구해보면, 마녀에 대한 폭력적인 상상 그리고 식민지의 정복과 약탈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인간(즉 백인남성)과 자연 간의 이 새로운 관계는 최초의 실험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노동에 근거하지 않는) 막대한 양의 새로운 부가 또한 여기서 발생했으며, 이 부는 교황, 국왕, 제후, 모험가, 그리고 종국에는 신흥 부르주아들에 의해 마침내 새로운 자연과학의 성립토대로 전용되었던 것이다. 베이컨은 과학자였을 뿐 아니라 후한 녹봉을 받는 영국 제임스 왕의 고문이었다.

이블린 폭스 켈러(Evelyn Fox Keller)는 이 새로운 가부장적 과학의 역사를 또다른 시각, 곧 심리학적 측면에서 펼쳐 보는데(Fox Keller 1985), 이는 자연과학의 아버지들이 사용한 성차별적 언어상징에서 주로 드러난다. 이들에게 자연은 결코 무성적(無性的) 존재가 아니었으니, 자연은 여성적 사악하고 위험한 여성으로서 마땅히 정복되어야 했다. 남성은 그의 정신, 그의 지성을 통해 이 창녀에 대한 지배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는 배후에 물질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신은 시든 나뭇가지만큼이나 무력하다. 물질적 힘과 결부시켜서야 베이컨은 그의 아들에게 '과학과의 순결한 결혼'이 결실이 맺으리라고, 즉 많은 작품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이라면 작품이란 말 대신 기계와 상품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 자연과학의 새로운 아버지

그래서 새로운 자연과학자는 자연을, 경제노역을 시키야 하고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 재조되어야 하는 노예처럼 다뤄야 한다고 요구받는다.

베이컨, 데카르트, 막스 베버 이래의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과학을 순수한 진리탐구의 영역이라 정의하면서 끊임없이 지식과 폭력 혹은 강제(가령 국가 혹은 군사력의 형태를 띤) 간의 불결한 관계를 숨겨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은 곧 힘이다'라는 구호를 무사히 선전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학을 정치의 영역, 즉 강제와 권력의 영역 바깥으로 옮겨놓았다.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공격하는 정치(권력)와 과학의 분리는 거짓에 근거한 것이다. 가치로부터 자유롭고 사심없는 순수한 과학, 진리의 무한한 추구에만 열중하는 과학이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다. 법률상 진리추구는 제도 내에서 과학적 자유로서 보호 받는다. 순수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불가항력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편이라는 과학자도 그러한 기초연구에 누군가 돈을 대지 않는다면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를 뒷받침하는 자금의 배후에 있는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내기란 어렵지 않다(Evans 1986; Bane 1985).<sup>2)</sup>

캐럴린 머천트(1983)가 지적하듯 베이컨 이후 과학적 방법론이 근거하는 인식론적 원칙은 폭력과 권력이다. 어머니 자연이라 불리는 유기적 전체를 폭력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는, 연구대상을 공생적 맥락에서 강제로 분리하여 실험실에 격리시키지 않고는, 물질의 신비를 밝혀내기(원자연구)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기(생명공학) 위해 연구대상을 조각내어 분석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과학자들이 지식을 얻을 길은 없다. 그들은 원래의 환경 안에 보존한 채로는 자연과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폭력과 강제가말로 근대 과학과 지식 개념의 내면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방법론적 원칙인 것이다. 그것들은 흔히 생각하듯 과학의 산물을 응용하는 것에 관해서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근대과학의 인식론적·방법론적 토대에 속한다. 하지만 어머니 자연과 지구상의 다른 자매들

2) 오늘날 산업국에서는 기초연구의 상당부분이 군비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자연과학자의 절반 이상이 군사기밀 분야에서 일하며, 미국의 경우 그 비율은 60%에 달한다(Bane 1985).

에게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호모 사이언티피쿠스(homo scientificus)는 스스로를 자연과 별개의 것으로, 아니 자연 이상의 것으로 간주해야 했다. 자연, 자신을 낳은 여성 그리고 여성 일반과 더불어 사는 관계가 부정되는 인간 개념이 만들어져야 했던 것이다. 근대과학자들이란 그들 자신과 자연이 자기들의 두뇌의 힘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새로운 신이며 유럽문명의 문화적 영웅이다. 배이컨 이후 수세기 동안, 인간과 어머니 자연 그리고 인간의 어머니 사이의 공생관계의 파괴가 곧 자유와 해방의 과정으로 치부되어왔다. 내 견해로는 이것이 새로운 과학적 방법과 새로운 자본주의경제,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정치 간의 연결고리이다.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공생적인 관계를 일방적인 주종관계로 바꾸지 않았다면 부르주아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백인남성들의 식민지로 바꾸어놓지 않았다면 자본주의경제는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 간의 공생관계를 폭력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다면, 여성을 단지 인간 이하의 동물이라 부르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남성들은 자연과 여성의 군주로 부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새로운 과학의 주제들에게 자연과 여성의 이같은 폭력적 분리와 종속은 우리가 여성에게서 태어났으며 언젠가는 죽을 필멸의 육신적 존재란 사실의 흔적조차 완전히 지우는 지식 개념이 생겨나야 함을 의미했다. 뢰헤(Böhme) 형제는 과학의 근대적 개념의 또다른 아버지인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인간의 육신적 존재성과 관련된 모든 인식의 원천을 배제한 지식과 합리성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보여주었다. 즉 우리의 육감적 지식, 경험, 갖가지 느낌들과 감정이입, 상상력과 직관의 힘 등은 모두 배제되었던 것이다. 순수이성은 이런 것의 흔적도 갖지 않으며, 다만 추상적이고 차가우며, 계산적이고 수량적인, 요컨대 냉담한 합리성이 다. 이러한 지식이나 이성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주제 간의 명확한 단절이 필요한 것이다(Böhme & Böhme 1985).

지식을 얻기 위해 자연과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폭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윤리적인 질문이 즉각적으로 제기된다. 대체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

서 이 전-태아 시기에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명백히, 그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력저력 하는 사이에 이 정의는 생식기술을 규제하려는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졌다. 과학자들과 의료재단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태는 명백하다. 즉 생식기술, 특히 IVF공학이 성공하려면 더 많은 태아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성공률은 너무 낮다(Klein 1989).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시대학의 생명윤리학자 헬가 쿨세(Helga Kuhse)와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정의를 내리는 능력에서 한결을 더 나아간다. 그들에게 2주 된 태아는 단지 '양상추'(lettuce)일 뿐이다. 그들은 호모 세피엔스 종과 인간 개체 사이에 구별을 짓거나 선을 긋는다.

그렇다면 인간의 태아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것은 분명 호모 세피엔스 종이지만 인간의 특징적인 자질 중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즉 그것은 자기 인식이 없으며 자율적인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 신경계도, 두뇌도 없으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 경험능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이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혹은 심지어 실험용 생쥐에도 못 미치는 양상추 같은 존재이다. (Kuhse & Singer 1986, 15면)

쿨세와 싱어에게 2주 된 태아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제"가 아니며 (Kuhse & Singer 1986, 19면), 따라서 연구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남아도는 태아는 폐기하거나 인공적으로 낙태시킬 수도 있다. 그들은 경제선을 인간 개체에 더 가깝게 설정하여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기, 즉 중추신경계가 발달한 이후의 시기를 자신들의 정의로서 배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 시기가 18~20주경이 될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한시간을 위임위원회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웰러위원회(Waller Committee)가 설정한 현재와 14일보다 한참 더 늦추어 잠을 주장한다(Kuhse & Singer 1986, 21면). 그들은 태아란 여성의 일부이며 여성과의 공생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점은 어디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최초의 분리는 여성과 태아의 분리이다.

생명윤리학자들에게 유전공학 및 생식기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는가? 주제와 대상 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인간만이 주제이고 인간이 아닌 것은 모두 대상인가?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인간도 실험의 대상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노예와 식민지 주민들은 주제로 여겨지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생식기술과 유전공학은 지금까지 인간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폭력적인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한것 연구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주던 최후의 경계까지도 무너뜨렸다. 이것은 특히 생식기술의 주된 연구대상인 여성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주제와 대상, 인간과 비(非)인간을 가르는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이냐는 질문은 과학 내부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 패러다임은 과학적인 총동에는 한계가 없으며 추상적 지식의 탐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리라는 신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연구과정 안에서는 어떠한 도덕적 간섭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스스로 윤리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자들 또한 보통의 시민이요 남편, 아버지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작업에 관한 윤리적인 질문들과 갈수록 더 많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들은 대개 이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즉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르는 선을 어딘가에 새로이 그음으로써 해결한다. 이는 곧 무엇이 주제이고 무엇이 객체인가에 대하여, 무엇이 인간이고 무엇이 비인간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이 새로운 정의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법의 한 예가 새로운 생명윤리학자들이 태아연구라는 까다로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 비단 생명권운동(Right-to-Life Movement)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 태아연구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태아연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영국에서는 위늑위원회(Warwick Committee)와 (생식기술의 감시자임을 자처하는) 자원검열국(Voluntary Licensing Authority)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발견했다. 그들은 임신한 지 2주 후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았다. 2주 이전에는 태아가 아니라 전-태아(pre-embryo)라는 것이다. 따라

다만 정의(定義)의 문제에 불과하다. 과학자들은 주로 정의내리는 행위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직접적인 폭력에서 절보기에는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구조적 폭력으로 변모했다.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이러한 정의의 힘이아말로 비로 나찌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특히 정신장애자들을 상대로 연구를 행한 과학자들이 도덕적 제약을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연구를 행한 과학자들은 정신장애자들이 비인간이거나 인간 이하라는 정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누가 인간이고 누가 비인간으로 정의되느냐는 것은 권력의 문제이므로 쿨세와 싱어가 내린 인간의 정의(이성적·자기인식적·자율적임)는 권력의 조작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 역시 오랫동안 이성적이며 자기인식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떠올리게 된다.

마찬가지의 자의적인 분리통치 논리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혹은 연구 결과의 응용 사이의 구분에도 적용된다. 기본연구 혹은 기초연구란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응용연구보다 나을 것도 순수할 것도 없는 것으로, 만일 기초연구에서 발달 없이 지적졌을 사회의 모든 금기가 침범당하고 모든 도덕적 원칙이 내던져진다면, 연구결과와 응용에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거부장들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다른 길이란 없으며, 저절로 질 수 있는 일은 모두 저절러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동물실험과 인간실험의 경우뿐 아니라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소나 돼지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 이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Corea 1985). 그러나 자연과학자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그들 자신과 우리를 어머니 자연으로부터 빼어낼 수는 없다. 이 점은 이들 기본연구자들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통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과학과 책임 사이에는 연관, 아니 차라리 모순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과학 — 즉 우리 사회에서 과학이라 불리는 것 —은 어떠한 책임도 깨닫지 못함이 분명하다. 더구

나 과학자들의 자기규정에 따르면 자연과학과 책임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이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직업으로서의 과학에 관한 막스 베버의 저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남편이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이 지구 위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지식의 축적이라는 추상적 이상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에서의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를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비판하는 것은 현실 안에서는 바깥에서와 다른 도덕규범을 따르는 이른바 불편부당한 연구자가 되어버리는, 과학자들의 이같은 위선적이고 정신분열적인 분리현상이다. 윤리와 도덕과 책임을 과학의 결과물들을 응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모든 윤리학의 파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동적인 윤리는 늘 숙절없이 자연과학자들의 허구와 날조에 뒷받침되면서, 가장 피해가 큰 결과에 대해서만 규제를 시도할 뿐이다.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그 한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에서조차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과학은 공평성으로 무장한 채 공격을 피해가고 있다. 위원회는 주로 과학자나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대다가 윤리 또한 과학으로 이해되어 동일한 패러다임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결코 건드리지 않는 금기사항은 과학과 힘, 과학과 무력, 과학과 가부장제 간의 엄청난 결함관계이다.

브라이언 이슬리(Brian Easlea)는 핵물리학자들이 처음부터, 심지어 그들이 소위 순수연구라는 것만 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마음 저편에서는 이 거대한 힘을 군사적으로 응용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의 연구에 전쟁관련 부처의 주먹을 끌어들이기까지 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는 또 이러한 원자폭탄과 로켓의 아버지들이 품었던 남근출산에 관한 환상도 설득력있게 묘사하였다(Easlea 1986).

과학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은 — 특히 체르노빌 사태 이후 — 현재의 모든 과학기술이 폭탄이나 로켓에 응용될 때 외에도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과학기술임을 명백히했다(Miles 1986). 베이컨과 데카르트 이래 근대 자연과

안내자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각은 지식의 원천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모든 인간행복의 원천인 것이다.

새로운 과학은 또한 오늘날 지배적인 이중적 도덕기준을 거부해야 한다. 그것은 마침내 결과물의 응용에서만이 아니라 방법론과 이론에서도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내 관점에서 이 새로운 책임은 지구와 지구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우리의 생명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우주 안에서 타자들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무한한 진보란 없으며 무한한 진리추구도, 무한한 성장도 있을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이 수행한, 그리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본질적 비판이 그간 몇몇 남성들로 하여금, 백인남성의 가부장적 이미지와 서구문명의 문화적 영웅, 특히 — 근대·정치·경제에서의 남성동맹과 합작하여 이 모든 전쟁과 재난을 초래한 — 자연 과학자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조짐이다(Böhme & Böhme 1985; Easlea 1986; Butte 1985; Theweleit 1977).

체르노빌 사태는 우리에게 근대의 기술가부장들이 생명과 생명체와 공생관계를 파괴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 사건이 벌어지자 그들은 그 파괴의 정도를 측정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그들 또한 여전히 —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 가이아와 어머니 대지와 여성이 필요한 것이다.

- Bacon, Francis (1623/1870) *De Dignitate et augmentis Scientiarum*. James Spedding, Robert Leslie Ellis & Douglas Devon Heath, eds. Francis Bacon. (Works, Vol. 4) London: Longman's Green.
- Böhme, Gernot & Hartmut Böhme. (1985) *Das Andere der Vernunft. Zur Entwicklung der Rationalitätsstrukturen am Beispiel Kants*. Frankfurt: Suhrkamp Verlag.
- Butte, Werner, ed. (1985) *Militarisierte Wissenschaft*. Reinbek, Rororo Aktuell, Technologie und Politik 22: Rowohlt Verlag.
- Corea, Gena. (1985) *The Mother Machine*. New York: Harper & Row.
- Easlea, Brian. (1986) *Fathering the Unthinkable: Masculinity, Scientists and the Nuclear Arms Race*. London: Pluto Press.

학자들은 "파괴의 아버지들"이었다(Easlea 1986). 생명, 여성, 어린이, 미래, 어머니 대지, 우리 자신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먼저 이런 식의 과학이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며, 부도덕하다는 것을, 두번째로는 연구소 따로 개인적·정치적 생활 따로 돌아가는 이중적 도덕기준이란 게임을 더이상 지속시키질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스스로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구상의 자기지속적인 생명체들간의 핵심적 연결고리와 살아 있는 환경 내의 식물·동물·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무참히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해줄 추상적인 지식화독이란 없다. 지식과 힘의 결합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과학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무한한 지식과 진지한 능을 추구하는 그 유명한 남성적 충동으로는 과학의 또다른 패러다임이 시작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과학 내부에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관으로부터,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다른 민족·종·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관계들은 더이상 무력을 통해 스스로를 인간으로 나머지를 비인간으로 정의하는 백인남성의 군사주의적 모델에 따라 정의될 수는 없다.

다른 과학에 관한 생각들은 다른 윤리적·방법론적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회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과 관련하여 앞서 말한 내 비판의 많은 부분이 자연과학에도 또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과학의 중심에 놓일 것은 주체-주체의 상호성이라는 원칙이다. 이는 연구대상이 다 시금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체의 존엄/영혼/주체성을 부여받을 것을 전제한다. 새로운 과학은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우리가 육체를 가졌음을, 우리가 어머니 대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여성으로부터 태어났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특히 칸트 이래 근대 자연과학이 그랬듯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우리의 감각을 폐기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들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피화한 기판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 Fox Keller, Evelyn. (1985) *Reflections on Gender and Sci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riffin, Susan. (1978) *Woman and Nature: the Roaring Inside Her*.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 Klein, Renate, ed. (1989) *Infertility: Women Speak out About Their Experiences of Reproductive Medicine*. London: Pandora.
- Kulase, Helga & Peter Singer. (1985) *Ethical Issues in Reproductive Alternatives for Genetic Indications*. Paper presented at 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Human Genetics, Berlin.
- Merchant, Carolyn. (1983)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Harper & Row.
- Miles, Maria. (1983) "Towards a Methodology for Feminist Research." G. Bowles & Renate D. Klein eds. *Theories of Women's Studies*. (117~398)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1984) "Frauenforschung oder feministische Forschung." *Beiträge zur feministischen Theorie und Praxis*, 11. 40~60.
- (1985) "Why do we need all this?" A call against genetic and reproductive technology.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8. 553~60.
- (1986) "Wer machte uns die Natur zur Feindin?" Marina Gumbardoff, Maria Miles, Annette Stopczyk & Claudia v. Werthof, eds. *Tschernobyl hat unser Leben verändert. Vom Ausstieg der Frauen*. Reinbek, Rororo Aktuell, No. 5922: Rowohlt Verlag.
- Sander, Helke. (1980) *Über die Beziehungen von Liebesverhältnissen und Attributenverhältnissen*. Courage, Nr. 4. 4~7. Berlin: Courage Verlag.
- Theweleit, Klaus. (1977) *Männerphantasien*. Frankfurt: Roter Stern Verlag.
- Werthof, Claudia v., Maria Miles & Veronika Bernholdt Thomssen. (1983) *Frauen, die letzte Kolonie*. Reinbek, Rororo Technik und Politik, No. 20: Rowohlt Verlag (English version: *Women, The Last Colony*, London: Zed Books 1988).

화학비료, 살충제, 원자력, 자동차 등과 같은 상품들의 산업적 생산에 드는 환경비용. 그리고 그것들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피해에 따르는 환경비용이 자연에 부과되고 있다. 이는 대기·수질·토양 오염,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독으로 나타난다. 특히 원자력산업, 유전공학, 컴퓨터 기술과 누구도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이들의 세너지효과 등 현대의 첨단기술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이렇듯 자연과 미래가 모두 풍요로운 사회와 제금의 단기적인 이윤동기를 위해 식민화되고 있는 것이다.

식민화된 자와 식민자 간의 관계는 결코 동반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자에 대한 후자의 강제와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관계야말로 축적의 중심에 놓인 무한성장의 비밀이다. 산업생산의 모든 비용을 외부로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 비용을 산업국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면, 즉 비용이 내부화된다면, 무한성장은 즉각 종말을 고했을 수밖에 없다.

#### 따라잡기 불가능한 것과 비합리하지 않은 것

착취와 식민지적 분리에 근거한 이 축적모델의 논리는 '따라잡기식 개발' 같은 것이 식민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어떤 식민지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 식민지가 많은 노력 끝에 '개발'의 궁극적인 지점이라 여겨지는 것을 성취한다 해도, 산업화된 중심부는 벌써 더욱 '현대적인' 개발 단계로 이미 '진보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TV였지만 내일은 컬러TV가 되고 그 다음날은 컴퓨터가 되며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최신판 '컴퓨터 세대'가 되며 더 나중에는 인공지능기계 등이 될 것이다.<sup>11)</sup> 따라서 식민지의 이 따라잡기 전략은 늘 지는 게임이다. 식민자의 진보 자체가 식민지라는 존재와 그에 대한 착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합의들은 개발전략을 논의할 때 늘 간과된다. 목표는 산업사회의

11) O. Ullrich, *Weltmeisene: In der Sackgasse des Industriesystems*, Berlin: Rotbuchverlag 1979, 108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들은 따라잡기 전략이 모두에게 가능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나는 오늘날 세계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다국적기업의 관리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부유한 나라의 은행과 정부 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실상 그들은 이런 보편적 성장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성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이른바 시장경제라는 것의 식민지적 구조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남북관계' '지속가능한 개발' '성장의 문턱에 이른 국가' 등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부유한 국가들과 동일한 생활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할 것이라 암시하는 미사여구로 감추어진다.

그러나 평등문제와 환경문제는 애써 무시한다 해도, 과연 북의 사회들이 추구하는 이 운택한 생활의 모델과 '따라잡기식 개발'의 패러다임이 최소한 북의 사람들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곳에서는 이 모델이 약속한 바가 이루어졌는가? 적어도 여성과 어린이들이 더 평등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는가? GDP의 증가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나는 노숙자와 빈곤,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가난,<sup>12)</sup> 대도시의 범죄와 마약의 증가, 그밖에도 예컨대 소평평 같은 여러 종류의 병적 중독증세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많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우울증과 자살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적 학대뿐 아니라 공격 폭력과 가정내 폭력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직접적 폭력도 늘어나고 있고, 매스미디어에는 온통 폭력 기사뿐이다. 게다가 도심은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며, 걷고 숨쉬기에 적합한 외부 공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도시와 고속도로는 차량으로 질식상태이다.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심에서 벗어나 전원이나 가난한 남의 국가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 만일 통상 주장하듯이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좋다면, 왜 그들은 도에서 휴가를 보내지 않는 것인가?

15) Sheldon, Danziger & Stern.

생활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저개발'국들이 산업사회와 같은 수준의 풍요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된다. 이것은 듣기 좋은 소리이고 만민평등이라는 부르주아혁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요구가 논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무시된다. 이 요구가 불가능하다 사실은, 북의 풍요로운 산업사회들의 주된 생산체제와 생활양식을 현재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후 30년 동안 보편화시킨다고 했을 때 환경에 초래될 결과가 어떨지를 생각해보면 명백해진다. 예컨대 전세계 인구의 6%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이 화석연료 총생산량의 30%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남의 가난한 나라에 그 80%가 살고 있는 나머지 세계인구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sup>13)</sup>

트레이너(Trainer)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 인구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4을 소비한다고 한다. "현재 세계 에너지생산량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미국인들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량은 현재의 1/5로 줄어들게 된다."<sup>14)</sup> 달리 표현하자면, 2050년이 지나면 세계인구가 11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110억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1970년대 중반의 미국인 일인당 에너지소비량만큼 사용한다면 종래의 석유자원은 34년에서 74년 안에 고갈될 것이며,<sup>15)</sup> 다른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사 세계의 자원기반이 무한하다 하더라도 빈국들이 산업화된 북의 주된 생활양식을 따라잡으려면 500년 가량 걸린다고 추정되며, 그나마 북의 나라들이 자기들 경제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무한 경제성장 모델을 포기할 때나 가능하다. 남의 국가들이 이러한 모델을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며, 이는 자원기반의 유한성과 불균등한 소비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성장모델이 특히 경제개발에 관한 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식민주의적 세계질서에 근거

12)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ed. US Foreign Ministry, Washington, Appendix, 1980, 59편을 참조하라.

13) F. E. Trainer, *Developed to Death: Rethinking Third World Development*, London: Green Print 1989.

14) 같은 책, 61면.

최근 미국에서는 삶의 질이 10년 전보다 낮아지고 있다. GDP와 삶의 질 사이에 역관계가 있는 듯하다. 즉 GDP가 늘어날수록 삶의 질은 악화되는 것이다.<sup>16)</sup> 예를 들어 시장의 힘이 커지자 여태까지는 집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먹게 된다. 즉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하나의 용역, 하나의 상품이 된 것이다. 만일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산다면 GDP는 증가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공동체의 붕괴, 개인 의 고립과 고독, 사회의 무관심과 원자화이다. 폴라니(Polanyi)의 말처럼 시장의 힘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sup>17)</sup>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은 양극화현상으로 특징지어지고, GDP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은 낮아진다.

'따라잡기식 개발'이 부유한 나라와 제금에 속한 북권층까지 괴롭히는 비물질적인 심리적·사회적 비용과 위험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절표전이나 체르노빌 사태 같은 인위적 재난을 포함해 환경재난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세계의 부유한 중심지의 물질적 생활마저 또한 악화된다. 풍요로운 사회는 엄청난 양의 상품에 둘러싸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생활필수품, 곧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건강에 좋은 음식, 공간, 시간, 고요 등이 결핍된 사회이다. 체르노빌에서 어린이들이 어머니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는 루웨이트의 어머니들이 겪고 있다. 석유부국 루웨이트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국민들에게 태양과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을 사주지 못한다. 기본적인 공동 생활품의 결핍은 빈민층이나 부유층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빈민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힌다.

요컨대 끝없는 성장과 이윤을 지향하는 현재의 세계시장체제는 외부와 내부의 식민지들, 즉 자연, 여성, 이민족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을뿐더러, 또한 결코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는 소비자를 필요로 한다.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자모델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조차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점점 희귀해지는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16) Trainer, 앞의 책, 130면.

17) K.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Frankfurt: Suhrkamp 1978.

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걸프전도 대체로 그 지역의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다. 앞으로 그러한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의식적이고 전면적인 생활양식의 변화, 소비의 감소, 북의 소비패턴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에너지 보존을 위한 단호하고 광범위한 운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18장을 보라).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크게 보아 여전히 따라잡기식 개발의 신화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비롯한 북과 남의 정부개발정책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세 명의 국가수반 —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체코슬로바키아의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 당시 서독 대통령이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 — 이 참여한 한 TV토론<sup>18)</sup>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토론은 부유한 유럽으로 들어 가려 애쓰는 수백만의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을 묘사한 영화 「행진」(The March)을 상영한 후에 이루어졌다. 서독 대통령은 북의 부유한 산업사회에 사는 세계인구 20%의 소비패턴이 세계자원의 80%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패턴이 급기야는 전세계적으로 삶의 자연적 기반을 파괴하리라는 점을 꽤 분명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면 북의 소비패턴을 비판하고 포기해야 하며, 남의 국가들에게 북을 모방하지 말도록 경고해야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북을 줄이도록 설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대답했다. 더구나 남의 사람들도 북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개발원조를 통해 '우리의' 부를 남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따라잡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부가 앞서 살펴본 대로 북이 식민지를 약탈한 결과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회주의국가 짐바브웨의 대통령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남의 사람들도 북의 사람들이 가진 만큼 많은 자동차와 냉장고, TV수상기, 컴퓨터

18) 이 토론은 1990년 5월 22일 Norddeutscher Rundfunk(NDR)에서 "Die Zukunft gemeinsam meistern"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송은 Rolf Seemann-Eggelsen가 제작했다.

를, 어머니를 위한 직업보장, 육아휴직 등 사회주의국가가 그들에게 제공했던 혜택 또한 전부 잃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염증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과정임을,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평등을 위해 식민지를 필요로 하며 민주주의와 형식적인 평등이 자동적으로 평등한 생활수준이나 평등한 경제적 보수를 낳는 것이 아님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독에서 이른바 서독 정치인들 특히 쿨 수상에게 당한 배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유럽의 집'으로 들어가 부의 식탁에 함께 앉고자 하는 다른 소수집단, 민족적·인종적 소수, 외국인 노동자, 다른 동구인들을 향한 적대감으로 전화되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따라잡기식 개발 신화가 붕괴하자 자신들 영토 안팎의 종교적·민족적·인종적 '타자'들을 거대한 근본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일어났다. 민족주의와 근본주의, 공동체주의의 주요 파닉은 모두 여성이다. 왜냐하면 종교적·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이란 언제나 가부장제, 가부장적 여성 이미지,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사례들에서 보듯이 거의 항상 여성에 대한 더 많은 폭력과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들' 여성에 대한 통제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sup>19)</sup> 게다가 따라잡기식 개발 신화의 붕괴는 남성의 군사회화를 야기했다. 새로운 민족주의와 근본주의는 거의 다 젊은 남성군인들이 주역을 맡은 사실상의 내전으로 이어졌다. 부유한 남성들의 클럽에 동등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도 없으므로, 가부장적 세계에서 통용되는 바로서 자신들의 남성성을 과시할 방법이던 기관총을 휘두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따라잡기식 개발의 신화는 궁극적으로 더 악화된 환경파괴, 더 심화된 '제3세계' 착취, 더 가혹한 여성폭력, 더 강화된 남성의 군사회화를 야기할 뿐이다.

19) A. Chachchi, "Forced Identities: The State, Communalism, Fundamentalism and Women in India," D. Kandiyoti, ed., *Women, Islam and the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터, 비디오를 원하고 그만큼의 높은 생활수준을 바란다고 했다. 이것이 개발에 대한 자신의 정책목표라는 것이다. 그도 본 바이츠제커도 '따라잡기'를 통해 북의 소비패턴을 보편화하려는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묻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그것은 정책이 환경에 초래한 결과들을 문제삼지도 않았다. 선거에서 뽑힌 국가의 수반으로서 그들은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즉, 북의 부유층의 생활양식은 보편화될 수 없으며 평등한 세계라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에서 그런 소비패턴이 끝장나야 한다는 점을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따라잡기 전략은 구(舊)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여전히 굳건하다. 동독, 폴란드, 구소련에서의 개발은 명백히 이러한 신화의 회생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의 본질이 밝혀진 후에 뒤따를 재난 역시 명백하다. 동독, 즉 구 독일민주공화국의 주민들은 자본주의 서독의 소비모델에 동참하기를 갈망하였고 자기 나라의 붕괴와 독일통일에 찬성표를 던졌으로써 '평등'해지리라 희망했다. 그들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풍요를 여는 열쇠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독 주민들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실상 서독 자본을 위한 값싼 노동시장 혹은 식민지로 취급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서독 자본은 동독으로 시장을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독일통일로 인해 동독 노동자들이 서독 노동자들만큼의 임금을 요구할 것으로 동독에 투자하는 것은 꺼린다. 그들로서는 동독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통일된 지 1년도 안돼서 동독의 주민들은 이미 실망하고 좌절하였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경제는 사실상 붕괴했으나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부터 얻은 혜택이라곤 없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얼마간 함께 노력하고 나면 서독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선전한다. 이 과정으로 인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것은 늘 그렇듯이 동독의 여성들이다. 이전에는 90%의 노동참여율을 기록했던 동독 여성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남성들보다 더 급속히 일자리를 잃었고, 이제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군(群)을 이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턱아스, 진보적 낙태법

#### 따라잡기식 개발이 여성을 해방시키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따라잡기 전략이 남의 국가들에서 초래하는 환경비용을 살펴보았다. 이 전략은 사실상 개몽주의와 부르주아혁명 이래 노동계급 운동, 민족해방운동, 여성운동 등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여러 운동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왔다. 산업국의 여성들에게 있어 따라잡기식 개발이란 여성의 평등권 정책을 통하여 가부장적인 남녀관계가 철폐되리라는 희망을 의미했고 또 지금도 그렇다. 이 정책은 현재 여성을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 정치기구와 노동시장의 여성 할당제나 지명제를 요구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의 몇몇 주정부는 여성을 위한 특별 승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로운 하이테크산업같이 예전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경제분야에 여성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여성의 저항은 그들의 해방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되는 데, 왜냐하면 그러한 기술은 남성의 세력영역으로 여겨지므로 따라서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반드시 침투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러한 온갖 노력과 발의들이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따라잡기 전략에 더해진다. 이같은 동등화정책은 대개 여당이나 공식적인 야당에 의해 공포되어, 여성운동 내부의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는가 하면 또한 많은 여성들의 반대를 받기도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경제 체제의 수사와 실제 행동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며 그것이 계속해서 여성을 주변화시킨다고 본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남성 따라잡기 전략 안에 서는 남성 특히 영향력있는 지위의 백인남성이 여성들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이 함축하는 바는 세계경제구조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자연과 외부 식민지는 계속 착취되며, 이 구조의 지속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군국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풍요한 사회의 중산층 여성들에게 이 따라잡기 전략이란 그들이 백인남성들의 전리품에서 한몫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계몽주의시대와 세계

의 식민화가 시작된 이래 백인남성들의 해방·자유·평등 개념은 자연과 이 민족과 그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과 문화 혹은 문명의 분리가 이러한 이해의 핵심이다. 초기 여성운동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 '파라점기' 전략을 해방의 지름길로 받아들이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담론에서 '자연'이라 정의되던 것을 극복해야 함을 뜻했다. 왜냐하면 이 담론에서 남성들은 문화의 대변자인 반면 여성들은 자연 속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피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sup>20</sup> '슬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sup>21</sup> 등 여성운동 이론가들은 이러한 자연-문화 구분을 그들의 해방이론의 핵심으로 삼았다. 오늘날 이 이론법은 생식기술과 유전공학에 대한 담론들에서 다시금 출현하고 있다(19장을 보라).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왜 여성에게 있어 파라점기식 개발의 길이 북의 풍요한 산업사회들에서조차 환상이고 또 앞으로는 판상에 불과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① 프랑스혁명의 위대한 가치인 개인의 자유·평등·자기결정이라는 약속은 보편적인 권리로 선포되지만 여성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함은 자명하지만, 이 모든 권리들이 재산과 돈의 소유에 의존하는 까닭에 많은 여성들을 저버려왔다. 자유는 돈을 소유한 사람의 자유이다. 평등은 돈의 평등이다. 그리고 자기결정은 언제나 돈과 재산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자기결정은 언제나 돈과 재산에서 돈과 재산을 통제하는 사람들이란 대개 남편이나 자본주의국가이다. 남편이 돈벌이하는 사람이고 아내의 집 지키는 주부라는 것이 적어도 법률로 보호되는 남녀관계이다.<sup>22</sup>

자기결정과 자유는 사실상 여성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여성들 자신이 상종으로 취급되는 데다 설사 돈을 갖고 있다 해도 시장에 어떤 상품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그들은 말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욕망과

20) S. de Beauvoir, *The Other Sex*,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52.

21) S. Firestone, *The Dialectic of Sex*, New York: William Morrow & Co. 1970.

22) M. Mies, 앞의 책.

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접근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익을 따지는 접근을 윤리적인 접근으로 대체해야 한다.

④ 환경문제에 대하여 자기의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세계의 다른 곳에서 환경 악화와 파괴가 심화된다. 이것은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 분명해졌는데, 그 당시 독일의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아기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난감했던 나머지 제3세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 한 가지 예가 산업화된 농업이 비료와 농약을 남용한 결과 모유가 DDT 등의 유독물질에 오염된 것이다. 레이첼 카슨은 진작에 토양의 오염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는 식품, 특히 모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점을 지적했었는데,<sup>23</sup> 이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북의 많은 여성들을 경악시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여성이 내게 전화를 해서 모유가 오염되었으므로 이제 독일에서 3개월 이상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해결책으로 그녀는 인도 남부에서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유아식을 생산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곳 건조한 대관고원에는 '라기'(ragi)라는 특수한 기장이 자라는데, 생육에 물도 필요없고 비료도 필요없어서 빈민층의 값싼 주식이라고 한다. 이 기장이 유아기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제안은 이 기장을 가공하여 통조림으로 만들어 독일에 유아식으로 수출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모유의 오염으로 결망에 빠진 독일 어머니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난한 인도 남부에서도 새로운 수입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나는 빈민층의 주식인 라기를 세계시장에 내놓아 수출상품으로 만든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이상 그것을 사먹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 가격이 급등할 것은 물론이고, 그 계획이 실현된다면 북의 시장에 라기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머지않아 살충제 등의 농약이 사용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라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람들의 손에 생산

23) R. Carson, *Silent Spring*, Greenwich: Fawcett Publications 1962; P.H. Hynes, *The Recurring Silent Spring*, New York: Pergamon Press 1980.

육구도 물건을 더 많이 팔려는 사람들의 목표에 따라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 결국 여성들은 시장이 제시하는 것을 원하도록 설득당하는 위치에 있다.

② 이 자유와 평등과 자기결정은 돈의 소유와 권력의 매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여성에게 확대될 수가 없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제제가 남성과 동등해질 것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 중 몇가지를 직업과 소득(혹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최소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식민지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여성을 계속해서 무한정 착취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제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중산층 여성들과 똑같은 생활수준을 세계 전역의 여성들에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여성들에게 부유한 나라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강요할 수 있을 동안에만 — 그리고 이는 외세의 뒷줄을 통해 가능해진다 — 부유한 나라에서 충분한 자본이 축적될 수 있고, 그리하여 실질적인 여성조차 최소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세계의 실제 여성 모두가 이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착취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체제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한 것이다.

③ 그러나 이는 또한 그러한 구조에 있어서는 여성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물질 토대도 없음을 의미한다. 돈과 재산에 연결된 개인의 자유·평등·자기결정의 핵심은 개인의 자기이익이지 이타주의나 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기이익이란 언제나 타인의 자기이익과 경쟁하게 마련이다. 착취구조에서 이해관계는 필연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출용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 혹은 산업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실제로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면 북의 여성 노동자는 그 옷을 거의 살 수 없거나 저금만큼 많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의 이해관계에서 볼 때는 옷값이 싸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시장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이들 두 부류의 여성들의 이해관계는 적대적이다. 국제적인 연대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신

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환경식민주주의의 한 변형이라 할 만하다. 그녀에게 그보다는 독일의 농업방식을 바꾸고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그 방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모유의 오염 문제는 비상사태라고 대답했다. 불안한 마음에 독일 어머니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녀는 인도 남부 빈민여성들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려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녀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그 돈으로도 결코 지금 인도 여성들이 돈 안 들고 아기들에게 먹이는 건강한 음식을 살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 예는 시장 특히 세계시장이 기적적으로 작동하리라는 믿음에 기반을 둔 파라점기식 개발의 신화가 실은 다만 자녀에게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주고 싶을 따름인 어머니들에게조차 이해관계의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5장 환경의 빈곤화: 여성과 어린이는 마지막으로

반다나 시바

루스 사이델(Ruth Sidel)의 『여성과 어린이는 마지막으로』<sup>1)</sup>는 '침몰할 수 없는 배' 타이타닉(Titanic)호의 침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 끔찍했던 밤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먼저 구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등석과 이등석에서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여성과 어린이는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 상등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여러모로 타이타닉호에 비유될 수 있다. 빈력빈력하고 호사스러우며 침몰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루스 사이델이 주목했듯 육외까페와 싸우나, 사치스런 옷가게는 준비해도 재난이 닥칠 경우 모두를 위한 구명보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타이타닉호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에는 잠겨진 문과 고립된 갑판이 너무 많으며 여성과 어린이가 최우선이라는 정책은 있으나 그것은 제일 먼저 구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일 먼저 빈곤의 심연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 환경악화와 빈곤의 창출

개발이란 제3세계에 사는 모든 이에게 복지와 풍요를 주겠다는 것이었

\* 이 글은 1991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UNCED 워크숍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빈곤'에 제출한 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로는 숲의 벌목이 경제성장이다. 벌목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어 더이상 생물자원(biomass)과 물이 생산되지 못하고 숲과 농업공동체가 빈궁해져 더라도 말이다.

셋째, GNP와 같은 지표들은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파괴적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조직하는 원칙은 이용과 자본축적의 극대화이다. 자연과 인간의 욕구는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관리된다.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 등록된 것으로만 한정되며, 개발이테올로기는 대체로 모든 자연자원을 상품생산을 위한 시장경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관념에 기반을 둔다. 재생가능한 자원이 계속 생기도록 자연이 이용하고 있고 생계와 살림을 위해 여성들이 이용하는 이들 자원을 시장경제로 전용할 경우, 생태적 안정에 악조건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야기된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개발레라다임은 가난을 서구적 소비패턴의 부재나 현금수입의 측면에서만 파악하므로, 자급자족경제를 다루지 못하거나 개발로 인해 자급자족경제가 파괴되는 데서 벗어나는 빈곤을 계산에 넣지 못한다. 『가난: 민중의 재산(Poverty: the Wealth of the People)』이란 책에서 한 아프리카인 필자는 생계로서의 가난과 박탈로서의 가난을 구별한다.<sup>2)</sup> 가난으로서의 생계라는 문화적 개념을 박탈과 상실로 인한 빈곤의 물질적 경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파악된 가난이 반드시 실제적인 물질적 빈곤은 아닌데, 즉 자급자족을 통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급경제(subsistence economy)들이 박탈이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이테올로기는, 이들 경제가 자급자족 메커니즘을 통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해어날 길 없이 참여하거나 시장을 위해 생산되고 시장을 통해 분배되는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선언한다. 세계적 규모의 영농기업이

3) R. Balro, *From Road to Green*, London: Verso 1984, 211면에서 인용.

다. 몇몇 지역의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 악숙이 실현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개발은 환경파괴와 빈곤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개발레라다임의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첫째, 그것은 서구의 산업경제로부터 도출된 진보모델과 서구식 진보가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가정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만인을 위한 복지향상으로서의 개발은 인간적 욕구, 생산성과 성장 같은 경제적 범주들의 서구화와 동일시되었다. 식민권력 중심부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성장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출현한 경제개발과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개념과 범주들이, 보편적 가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져, 옛 식민지였던 제3세계 신생독립국 주민들의 기본욕구 실현이라는 전혀 다른 맥락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한 대로<sup>1)</sup> 서유럽의 초기 산업화는 식민권력에 의한 영구적인 식민지점유와 지역적인 '자연경제'의 파괴를 필요로 했다. 룩셈부르크에 의하면 식민주의란 자본주의 성장의 지속적이고도 필연적인 조건이다. 식민지가 없다면 자본축적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축적으로서의 '개발' 그리고 '잉여'와 이용의 창출을 위한 경제의 상업화는 이렇게 해서 특정한 형태의 부의 창출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빈곤과 수탈의 재생산에도 관련된다. 상품생산을 위해 상업화된 자원이용에 근거한 경제개발을 신생독립국에 그대로 복제하게 되면 내부 식민지가 만들어지며 예전의 식민지적 관계를 영속시킨다. 그리하여 개발은 식민과정의 지속이 되고 근대 서구 기부경제의 경제적 비전에 의거한 부 창출 계획의 연장선이 된다.

둘째, 개발은 GNP와 같은 재정지표만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표로는 개발과정에 따르는 환경파괴와 빈곤의 창출을 표시할 수 없다. 경제성장을 GNP로 측정할 때 공해관리와 같은 비용은 수익으로 계산되는 반면, 그밖의 다른 비용들은 아예 측정하지도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GNP계산법은

1) Ruth Sidel, *Women and Children Last*, New York: Penguin 1987.

2)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1.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여성들이 기른) 기장을 먹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간주된다. 콘크리트 대신 대나무나 진흙 같은 천연자재로 스스로 집 짓고 산다면 가난하다고 본다. 합성섬유 대신 천연섬유로 집에서 만든 옷을 입으면 가난하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가난인 자급적 생계(subsistence)가 반드시 물질적으로 낮은 질의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컨대 가장 같은 것은 가공식품보다 영양이 풍부하며, 콘크리트보다는 지역 특유의 자재로 지은 집들이 그곳의 풍토와 환경에 더 잘 맞고, 천연섬유가 합성섬유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고 좋종 더 저렴하다. 분별있는 자급적 생계를 가난으로 보는 문화적 인식은 개발과정을 '빈곤되지' 계획으로 정당화시켜왔다. 문화적으로 편파적인 과정으로서의 '개발'은 전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파괴하며, 자원을 다량하게 이용하는 생존수단을 부정하고 자원집약적 상품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제적인 물질적 빈곤을 낳았다. 자급에 필요한 토지와 물을 환급작물의 생산과 식품가공에 전용(轉用)함으로써 점차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식량수급권의 총족수단을 박탈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자원기반은 전지구적 세력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의 자원수요로 인해 계속 침식되고 있다. 환경파괴적 경제활동을 통해 야기되는 불평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우선 특권과 권력의 본래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자연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조장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적·경제적 자연에 대한 특권도 포함된다. 둘째 정부의 정책 덕분에 자원집약적인 생산과정은, 많은 사람들 특히 소외된 경제집단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의존하는 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원료의 소비는 사회적 혹은 환경적 영향은 완전히 무시된 채 시장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원과파에 대한 비용은 외부화되어 사회의 다양한 경제집단에 불평등하게 나누어지는데, 여성들 그리고 근대적 생산체제의 상품·용역의 수요자로 등록될 만한 구매력이 없고 기본적인 물질적 생활필요를 자연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사람들이 이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한다.

개발이 안고 있는 역설과 위기는 문화적으로 인식된 가난을 실제적인 물

질적 가난과 동일시하는 데서, 그리고 상품생산의 중대를 기본교육의 더 나은 충족으로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 토양비옥도, 유전자원 등이 개발과정의 결과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다. 자연의 경제, 특히 여성의 생존경제(survival economy)의 기반을 이루는 이 자연자의 원의 부족은 여성과 모든 주변화된 민족들을 전례없는 지경으로 빈곤화하고 있다. 이 빈곤화의 주범은 상품생산을 위해 이 자원들을 빼앗아간 시장경제이다.

#### 여성·어린이·환경의 빈곤화

UN이 정한 '여성'을 위한 10년'은 개발과정이 확장되고 확산되면 자동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처지가 향상되리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10년이 끝날 무렵 개발 자체가 문제라는 점이 점차 드러났다. 점점 더 심해지는 여성의 저개발은 '개발'에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해서가 아니라, 비용은 감당하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강제적이고도 불균형적인 참여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개발과 박탈은 환경과파괴적인 식민과정을 증폭시키고 자연의 지속가능한 토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상실을 가속화했다. 경제성장은 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가는 새로운 식민주의였다. 그러나 지금 '국익'과 GNP증가란 명목으로 착취를 지휘하는 것은 구 식민권력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엘리트들이며 이는 더욱 강력한 전유(專有)와 파괴의 기술로 감행되고 있다.

에스터 보세럽(Ester Boserup)은 식민통치 기간에 여성의 빈곤화가 얼마나 중대되었는지를 기록을 통해 보여주었다.<sup>4)</sup> 자기 나라의 여성들을 수 세기 동안 연속시켜 기술도 지식도 없는 부족물로 전락시켰던 식민통치자들은 식민지의 여성들에게도 토지·기술·고용에 대한 접근기회를 막아버렸다. 식민지 저개발의 경제·정치적 과정은 현대의 서구 자본장제를 그대

4) Ester Boserup,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London: Allen and Unwin 1960.

파괴적인 개발의 숨겨진 비용 중에는 환경의 황폐화로 말미암은 새로운 비용이 있는데 이것 역시 북과 남에서 모두 여성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GNP의 증가에 비례하여 부와 복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나는 GNP가 점차 자연이 만든 자원 그리고 생명유지를 위해 여성이 생산한 자산 같은 진정한 부(富)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어간다고 본다. 주요 경제활동으로서의 상품생산이 개발이라고 도입되면서부터 그것은 생명과 기본교육을 위한 상품·용역을 만들어내는 자연과 여성의 잠재력을 파괴했다. 자연에서는 환경파괴를 통해 그리고 사회에서는 기본교육의 부재를 통해 증대된 상품과 현금은 더 줄어든 생명을 의미한다. 첫째 자연의 과정과 협력하는 것이 여성의 일이고, 둘째 기본교육을 충족시키고 생존을 확보하는 일이 대개 평가절하되므로, 여성은 평가절하된다. 악개발(maldevelopment)에서의 더 많은 성장이란 생명과 생명유지 체제를 덜 돌보게 된다는 뜻이다.

환경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경제와 비노동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무보수 노동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를 부양하는 민중의 자금경제는 시장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내가 제3세계의 맥락에서 말하는 자연경제, 민중경제, 시장경제라는 개념에 근접한 것으로서 산업화된 경제에 대한 힐카 피에틸라(Hilkka Pietila)<sup>6)</sup>의 범주, 즉 자유경제, 보호부문, 속박경제라는 범주가 있다.

자유경제란 경제와 사회의 비화폐적 핵심부로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위한 무보수 노동이며 이웃들과의 상호원조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호부문이란 국내시장을 위해 공식적 수단에 의해 생산·보호·지도되는 것으로 식품, 건설, 용역, 행정, 보건, 학교, 문화 등이 있다. 속박경제란 수출을 위한 그리고 수입품과의 경쟁을 위한 대량생산이다. 조건은 시장경제에 의해 좌우되며 종속적이고 취약하며 부득이하게 경쟁적이다.

일례로 1980년 핀란드경제에서 각 범주에 투입된 시간과 돈의 비율은

6) Hilkka Pietila, *Tomorrow Begins Today*, Nairobi: ICDA/ISIS Workshop 1985.

로 반영하고 있는바, 여성뿐 아니라 수많은 남성도 이 과정에서 빈곤상태로 떨어지지 않으면 여성들이 대개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지세를 받기 위한 토지의 사유화는 여성의 전통적 토지이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입힌다. 현금작물을 널리 심게 됨으로써 식량생산이 붕괴되었으며, 식민통치자들이 남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징용했을 때 여성들은 대개 보잘것없는 자원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UN의 '여성을 위한 10년'이 끝날 무렵 여성 운동가와 조직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10년 동안의 연구 끝에 나온 거의 일률적인 결론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자원, 소득, 고용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인 접근기회는 줄어든 반면, 노동의 부담은 늘어났고, 상대적인 건강 혹은 심지어 절대적 건강과 영양상태는 악화되었으며, 교육수준은 낮아졌다는 것이다.<sup>7)</sup>

인간생명의 재생과 생계부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을 볼 때 여성과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은 어린이의 상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NP로 측정되는 소득과 현금의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성·어린이·환경을 둘러싼 생명의 연결망이 주된 관심대상에서 배제됨을 뜻한다. 여성과 어린이의 지위와 환경의 상태가 개발의 '지표'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러한 배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로 시장경제에 대한 자연·여성·어린이의 공헌은 부정되고 무시된다. 주류 경제이론들은 자금과 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이론들은 통제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성과 어린이라는 세계의 다수 인구를 포괄할 수가 없다. 두번째로 여성·어린이·환경에 미치는 경제 개발과 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다. 이 두 요소 모두 이들을 빈곤으로 이끌고 간다.

5) DAWN, *Development Crisis and Alternative Visions: Third World Women's Perspectives*, Bergen: Christian Michelsen Institute 1985.

〈표 5.1〉

|                | 시간  | 돈   |
|----------------|-----|-----|
| A. 자유경제, 비공식경제 | 54% | 35% |
| B. 보호부문        | 36% | 46% |
| C. 속박경제        | 10% | 19% |

표 5.1과 같다.

가부장적 경제학에서 일차적 경제는 B와 C이고 A는 이차적 경제로 간주된다. 메릴린 위링이 밝힌 대로<sup>7)</sup> 국가제정과 GNP는 사실상 자유경제를 생산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이라 하여 배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이 '자유' 혹은 '열린'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의 눈으로 보자면 '속박'경제이다. 속박경제가 빈곤해지면—즉 착자가 되면—그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자유경제이다. 구조조정과 긴축 프로그램의 시기에 공공지출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은 대개 빈민층에 가장 무겁게 지워진다. 많은 경우 재정지출의 감축은 사회적·경제적 개발비용을 크게 삭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실질 임금과 소비도 상당히 줄게 된다.

'개발', 외채, 환경파괴와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통해 생겨나는 빈곤의 덫을 가장 크게 절감하는 사람은 여성과 어린이이다. 북남간의 자본흐름도 역전되었다. 10년 전에는 총 400억 달러의 돈이 북에서 남의 나라들로 들어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 원조, 이자와 자본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남에서 북으로 해마다 200억 달러의 돈이 들어간다. 산업국들이 지불하는 개발도상국의 원자재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사실상의 자원이전까지 포함한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들어가는 돈은 한해에 6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적 유출은 여성·어린이·환경의 빈곤화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UNICEF의 추정에 따르면 1988년<sup>8)</sup> 한해 동안 북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채무관련 조정정책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죽어간 아동의 수가 50만명

7) Marilyn Waring, *If Women Counte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8) UNICEF,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88.

에 이른다. 이제 빈곤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환경의 빈곤화와 관련된 여러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빈곤은 이른바 가난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빈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에도 존재한다. 현재 미국 빈민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1984년에 미국인의 14.4%(3370만명)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았다. 1980~84년에 빈민은 450만명이 늘어났다. 1984년 여성이 가장인 가구 중 34.5%가 빈민 가정으로 이는 부부가 함께 꾸리는 가정보다 5배가 많은 수치이다. 백인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빈곤율은 27.1%이고 흑인여성의 경우는 51.7%, 히스패닉계 여성가장의 경우는 53.9%이다. 여성의 빈곤이 아동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충격적이다. 1984년 6세 미만 아동의 24%가 빈곤층이었지만 대 비해 여성가장 가구 아동의 경우는 53.9%였다. 흑인아동의 경우는 46.3%가 빈곤층이었고 흑인여성 가장 가구의 아동은 66.6%에 달했다. 히스패닉계 아동은 39%가 빈곤층이었으며 여성가장 가구인 경우는 70.5%였다.<sup>9)</sup>

미국의 복지권리운동 조직자인 테레사 푸니치엘로(Theresa Funicello)는 "공정한 어떤 상태로 제라도, 미국 최고의 아동살인범은 가난이다"라고 말했다.<sup>10)</sup>

뉴욕시에서는 40%의 어린이(70만명)가 정부가 빈곤층이라 분류한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해마다 7천명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태어나고 1만 2천명의 어린이가 학대나 무관심 때문에 고아원으로 옮겨진다.<sup>11)</sup>

어린이권리헌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권리는 생명권이다. 이 권리의 부정이야말로 빈곤을 정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의 정의는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하는 음식과 물과 거처에 대한 접근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정하는 현실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9) Marilyn Waring, 앞의 책, 180면 인용, Ruth Sidel, 앞의 책.

10) Marilyn Waring, 앞의 책.

11) 같은 책.

〈표 5.2〉 3~4세, 7~9세 인도의 남자와 여자가 섭취한 음식물(단위: g)

| 식품    | 3~4세 |     | 7~9세 |     |
|-------|------|-----|------|-----|
|       | RDA  | 남   | RDA  | 남   |
| 곡물    | 173  | 118 | 90   | 252 |
| 콩류    | 55   | 22  | 18   | 49  |
| 녹색 채소 | 62   | 3   | 0    | 75  |
| 곡류    | 40   | 15  | 13   | 50  |
| 과일    | 50   | 30  | 17   | 50  |
| 우유    | 225  | 188 | 173  | 250 |
| 설탕류   | 22   | 13  | 16   | 30  |
| 유지류   | 30   | 5   | 2    | 50  |
|       |      |     |      | 23  |
|       |      |     |      | 8   |

출처: R. Devadas & G. Kamalanathan, "A Women's First Decade," 평등·개발·평화에 대한 여성NGO회의에 제출된 논문, New Delhi 1985.

에까지 연결된다. 어머니가 영양이 부족하면 임신중의 합병증, 조산, 생존율이 최박한 저체중아 출산 등이 나타난다. 또한 임신과 출산 시의 사망은 빈혈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며 빈혈의 원인은 유년기의 영양부족이기 십상이다.<sup>12)</sup> 여성과 어린이가 영양을 취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된다.

농업·개발·계획은 종종 농주립 유발 계획으로 변모해버린다. 비옥한 땅이 수출용작물 재배지로 바뀌고, 영세농은 땅을 잃으며, 빈곤층의 식량 대부분을 공급해주던 생물다양성은 사라지고, 대신 단일 현금작물이 재배되거나 환경이나 주민의 식량공급에 적합치 않은 토지이용 체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계속적인 식량위기로 인해 1억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기근은 저변에 깔린 더욱 큰 위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기아에 시달리지 않을 때도 매일 1천명의 아동이 영양실조나 이에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추산된다.<sup>13)</sup>

남(南)의 어디에서나 약개발로 인한 경제위기는 환경을 파괴하고 어린

14) Lloyd Timberlake, *Africa in Crisis*, London: Earthscan 1987.

15) Susan George, *A Fair World than Debt*, San Francisco: Food First 1988.

순수한 소득지표는 종종 미래세대의 운명을 짓누르는 삶의 빈곤을 포착하지 못하며, '필요'가 특정인 조건에조차 환경제언에서 비롯되는 생존의 위협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빈곤이란 서구 산업사회라는 범주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생활양식으로만 규정되었다. 우리는 이제 한되고 편견에 사로잡힌 인식에서 벗어나, 식량·물·거처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데서 기인하는, 유독물질과 핵위험이란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위협이라는 견지에서 빈곤이라는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놓는 개발은 빈곤을 인간의 기본욕구에 대한 부정으로 정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기본욕구란 생존, 보호, 애정, 지식, 참여, 여가, 창조, 정체성, 자유로 여겨져왔다. 이러한 욕구들은 어린이에게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따라서 어린이는 인간적이고 정외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조직으로 이를 그리고 '개발'이라 해석되는 파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안내자가 될 수 있다.<sup>14)</sup>

가부장적 개발은 현금의 흐름을 늘어나게 했지만 인간의 진정한 욕구라는 차원에서는 발달을 가져왔다. 다음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어린이에게 있어 이러한 발달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식량과 영양 위기

전통적인 의미로는 새로운 빈곤의 맥락에서든 여성과 어린이는 식량체계의 주변부로 취급되어왔다. 영양 면에서 인도 같은 나라의 여자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표 5.2를 보라).<sup>15)</sup>

어린 소녀들의 영양실조의 결과는 성인기로 이어지며 이것은 다음 세대

12) Manfred Max-Neef et al., "Human Scale Development," *Development Dialogue*, Dag Hammarskjöld Foundation 1989.

13) Meera Chatterjee, *A Report on Indian Women from Birth to Twenty*, New Delhi: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Cooperation and Child Development 1990.

〈표 5.3〉

| 종목     | 1984년 8월<br>칼로리량 | 1985년 11월<br>칼로리량 | 변화율<br>% |
|--------|------------------|-------------------|----------|
| 밀가루    | 2,232            | 1,443             | -35      |
| 옥수수 가루 | 3,669            | 2,013             | -45      |
| 쌀      | 1,646            | 905               | -45      |
| 타고기    | 220              | 174               | -20      |
| 연유     | 1,037            | 508               | -51      |
| 기름     | 1,003            | 823               | -18      |
| 후식량    | 1,727            | 1,253             | -27      |

출처: Susan George, *A Fair World than Debt*, 1988, 188면.

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 외채사망을 효과를 수치화할 수도 있다. 1970년에서 80년 사이 10년 동안 이자상환액이 해마다 일인당 10달러씩 증가함으로써 기대수명은 0.39년씩 줄어들었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연구대상 73개국 주민의 수명이 평균 367일 단축되었음을 의미한다.<sup>16)</sup> 배후에서 이루어진 영양상태 연구는 이호마(Ihima)의 최빈곤지역과 인근 빈민촌들에서 영양부족인 아동의 비율이 1972년의 24%에서 1978년에는 28%, 1983년에는 36%로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198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동 68만 5천명과 인근 지방의 아동 38만 5천명이 생존에 충분치 못한 음식을 섭취했으며 이 수치는 14세 미만 아동의 1/3에 달한다고 한다.<sup>17)</sup>

브라질의 북동부 극빈민지역에서는 기아가 풍토병화되어서 브라질의 여론조사기관 IBASE가 '하위인종'이라 지칭하는 사람들과 영양학자들이 풍토성 폐소발육중이라 부르는 질병이 생겨났다. 이 지역 아동은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 사는 같은 나이의 아동—이들도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고 할 수 없는데도—에 비해 키는 16% 작고 몸무게는 20% 적게 나간다. 표 5.3에서 볼 수 있듯 자마이카에서도 식량소비량이 줄어들었다.

16) 같은 책.

17) 같은 책.

식량가격이 감당할 수 없이 상승함에 따라 아동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1978년에는 부스타멘테(Bustamante) 아동병원에 입원한 아동 중 영양실조인 아동은 2% 미만, 영양실조에 관계된 위험을 앓는 아동은 1.6%였다. 한테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가 체감되기 시작하던 1986년에는 영양실조로 입원한 아동이 두 배로 늘어나 4%에 가까워졌고 위험으로 인한 입원은 5%에 달했다.<sup>18)</sup>

영양실조는 어린이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하다. 세계 도처에서 이뤄진 조사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천만명 가량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2억명 가량의 어린이가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sup>19)</sup>

어린이의 영양결핍이 증가하는 것은 토양의 영양결핍을 낳은 바로 그 정책 때문이다.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외환소득을 늘릴 잉여농산물을 얻어내는 농업정책은 여성·어린이·환경의 영양상태를 전례없이 악화시켰으로 써 그 잉여를 만들어낸다. 마리아 미스가 지적한바,<sup>20)</sup> 이 잉여의 개념은 가부장적인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연·여성·어린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환경이나 공동체의 요구에 비해 초과생산된 물질적인 잉여가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몫을 필요로 하는데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여성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자연이 생산한 것에서 일정한 몫을 필요로 하는데도) 여성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다. 영양 실조와 결핍으로 인한 질환은 또한 자급적인 공동체의 영양기반을 이루던 생물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심화된다. 예컨대 바투아(bathua)라는 밀밭에서 자라는 매우 영양가 높은 녹색채소가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밀밭의 길을 매면서 밀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식구들에게 풍부한 영양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강도 높게 사용하면서 바투아는 밀의 주요 경쟁식물이 되었고 제조제를 써서 제거해

18) 같은 책.

19) UNICEF,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1990.

20) Maria Mies,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London: Zed Books 1991.

철거되어 '제정착'되었던 것이다. 당국의 입장에선 어찌되는 상관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마실 물도 없고 적절한 하수도시설도 없었다. 콜레라로 죽어간 것은 빈민층 아동뿐이다. 야무나(Yamuna)강 건너편의 수영장에는 관광객과 외교관, 엘리트층을 보호하기 위해 염소소독한 물이 가득했다.<sup>21)</sup>

## 유독물질의 위험

20세기 말에 이르러, 우리의 과학체계가 특히 어린이들이 겪게 될 실제적·잠재적 위험들을 제거하거나 대치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모든 재난들은 마치 일상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는 유독물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린이들을 실험체로 사용하여 가르치려는 실험과도 같다. 거부장적 체제는 이 유독물질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으며 하지만, 어머니로서 여성들은 자식들이 치한 위험을 목과할 수 없다. 화학오염에 가장 민감한 것이 어린이이고 따라서 화학적 환경오염은 어린이들의 건강악화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러브온화와 보팔의 재난에서도 어린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였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기업체와 정부의 의지에 반대하여 끈질기게 저항하고 침묵을 거부했던 것은 여성들이었다.

러브온화는 수십년 동안 후커(Hooker)화학공업사가 화학폐기물을 버리던 장소였다가 그후 주택들이 들어섰다. 1970년대까지도 이곳은 평화로운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주민들은 자기 집 밑에 유해화학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두통, 현기증, 구토, 간질병은 운하 근처의 주민들을 괴롭힌 각종 문제들 중 일부에 불과했다. 간장·신장 협착과 정기적으로 제발하는 요도협착이 자주 일어났다. 또한 선천성 기형의 위험률도 56%라는

21) Mira Shiva,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Subversion of Health," Vandana Shiva, ed., *Minding Our Lives: Women from the South and North Reconnect Ecology and Health*, Delhi: Kali for Women 1993.

야 할 검토라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식량순환은 파괴되고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아이들은 공짜 영양원을 잃었다.

## 물의 위기

제3세계 아동사망의 34.6%는 식수위기가 그 원인이다. 매해 500만명의 어린이가 설사병으로 사망한다.<sup>22)</sup> 공업용수나 산업적 농업용수로의 전용과 산림벌채, 사파화, 가뭄 등에 관계된 복잡한 요인으로 인한 수자원의 감소는 어린이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물을 이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짐과 동시에 수원(水源)의 오염이 증가하고 그와 관련된 건강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 기존의 페리다임에서 '개발'이란 물을 더욱 집중적으로 낭비한다는 의미이다. 즉 댐, 녹색혁명, 농업 관개시설, 냉방이 된 곳곳의 호수와 도심 공업단지, 냉각수 등으로 물이 엄청나게 낭비되며, 산업폐기물 투기로 인한 오염도 발생한다. 개발로 인해 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어린이—그리고 성인—의 생존요구가 회생되고 있다.

멕시코코씨티 외곽의 빈민촌에 사는 행상인 안토니아 알칸타라(Antonia Alcantara)는 그녀의 수도에서 "누렇게 벌레가 득실거리는" 물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멕시코씨티에 사는 2천만 주민들의 수요로 인해 주요 대수층(帶水層)의 수위가 해마다 3.4미터씩이나 줄어들고 있다.<sup>23)</sup> 멕시코씨티의 수도 체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부유한 중산층이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비용의 1/10밖에 받지 않는 수도요금으로 인해 사실상 낭비를 장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수요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장사꾼인 페라스(piperas)에게 물을 사야만 한다.

1988년 델리에서는 2천명의 사람들(주로 어린이)이 빈민지역에 출몰한 클레라로 사망했다. 이 빈민지역은 인도의 수도인 델리의 환경미화를 위해

21) UNICEF, 앞의 책.

22) Caroline Moser, 1989년 파리에서 열린 '여성과 개발'에 관한 OECD워크샵의 기고논문.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으며 아동 난청도 빈번했고 아동들에게 백혈병과 기타 암도 많이 발생했다.<sup>24)</sup> 유산율도 일반인보다 75%나 높아서 러브온화에서는 15명의 임신부 중 겨우 2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경종을 울리고 또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죽음과 질병으로 위협받는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이었다.

일본에서도 췌소(膵素)화학 공장에서 30년간 방출한 매틸수은에 실하게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미나마타만의 어부들과 그 가족들이 끔찍한 재난을 당했다.

1984년 보팔에서는 유니언카바이트드사의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수천명이 죽사했다. 죽음을 모면한 수천명의 더 많은 사람들도 아라까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밖에도 여성들은 또한 부인병이나 월경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도 진행중인 의료생태학적 연구에서는 가스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호흡기, 생식기, 신경계, 근육-골조,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되었다. 1990년 인도의학연구협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보고에 따르면<sup>25)</sup> 피해 주민들의 사망률은 일반인의 2배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가스 피해자들한테는 자연유산, 사산, 영아사망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기록되었다.

가스와 몇달 후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는 정상이었다. 그후 나는 병원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애는 몸이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다. 다리도 없고 눈도 없이 죽어서 나왔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더 낳았는데, 아이는 곧 죽었다. 한달 반 전에 나는 아이를 또 낳았다. 피부는 화상을 입은 듯했고, 너는 절반만 만들어져 있었다. 나미지는 물로 차 있었다. 죽어서 나온 그 아이의 몸은 온통 하얗다. 출산 두 달 전부터 심한 통증이 있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앉지도 걸지도 못했다. 온몸에는 발진이 생겼다. 의사는 아기를 낳고 나면 나올 것이라 했지만 여전히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sup>26)</sup>

24) Lois Gibbs, *Love Canal: My Sto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2.

25) Bhopal Information and Action Group, *Voices of Bhopal*, Bhopal 1990.

26) 같은 책.

히로시마, 스리마일섬, 피시피섬, 체르노빌—이 모든 핵 재난은 핵위협이 우리들보다 우리 후손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비키니섬에서 브라보( Bravo ) 실험이 있던 당시 리온 에크닐랑( Lion Eknilang )은 7살이었다. 그녀는 눈이 파랗고 구역질이 났으며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실험이 있던 지 이틀 후 리온과 그녀의 가족은 쿠와잘레인( Kwajalein ) 환초( 環礁 )에 있는 미군기지로 후송되었다. 본젤합( Rongelap )이 살기에 너무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다. 리온의 할머니는 1960년대에 갑상선암과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핵실험중에 사망했다. 리온은 이렇게 최고

나는 일곱 번이나 유산과 사산을 했다. 섬에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8명이 더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모두 켈리명어라 같았다. 이들 중 몇은 어릴 달, 아홉 달밖에 지나지 않아 뱃속에 있었지만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지만 바깥 세상은 물론 자신의 부모조차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그들은 불구의 팔과 다리를 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누워 있을 뿐이었다.<sup>27)</sup>

환경 파괴는 어떤 측면에서든 미래세대의 생명에 대한 가혹한 위협일 수 밖에 없다. '세대간 형평성'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세대간의 정의 문제는 양상간의 정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어머니들이 보살핌과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난다면 그 아이들이 관심의 중심에 놓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성들의 연대는 생존전략을 개발하고 환경 파괴에서

27) Pacific Women Speak, Women Working for a 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1987.

추산했다. 게다가 가족도 집도 없는 '거리의' 아이들이 1억명이나 된다. 이 아이들은 빈곤, 저개발, 그리고 착박한 환경조건의 희생자들— 사회적으 로 없어도 좋다고 취급받는 사람들—로,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생존하며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목소리도 갖지 못한다.

히말라야의 침프부족 여인들은 벌목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

리브온하 거주민연합도 널리 알려진 또다른 사례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투쟁하는 젊은 주부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는 결국 위험폐기물에 대한 시민정보센터 설립했다.

보팔 참사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모여 만든 보팔가스 피디프 마틸라 우도그 상가단은 유니언캐비어드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7년째 투쟁하고 있다.

남북을 막론하고 세계 도처의 환경 파괴 지역과 오염지역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여성들은 생존의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지구 및 그들의 자녀들과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 온갖 난관에 맞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녀의 생명 및 지구의 생명과 연결시키는 말을 다시 꺼리고 시도한다. 여성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환경정의 없이는 지속가능성이란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양상간과 세대간의 정의 없이는 환경정의 또한 불가능하다.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생존과 환경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과 어린이의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어린이와 여성을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여기고 마음대로 처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인가? 간디(Gandhi)는 의혹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간단한 척도를 알려주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그/그녀에게 해를 줄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줄 것인지를 질문하십시오."라고.<sup>31)</sup> 우리가 미래세대를 보호해줄 환경정의의 규약을 이끌어내는 데 진정

31) Rajni Kothari & Vandana Shiva, "The Last Child," 평화와 전지구적 변화에 관한 UN대학 프로젝트들을 위해 쓴 원고.

비롯된 자녀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항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 여성과 어린이의 생존전략

환경악화와 빈곤 등 부정적인 개발조류에 의해 생존이 점점 더 위협받게 됨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는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선진국의 전체 인구 중 1/3 이상이 여성가장 가구로, 노르웨이의 경우 38%이고 아시아의 경우는 14%이다.<sup>28)</sup>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는 노동과 에너지로 따져본다면 역시 여성이 주된 부양자이다. 예컨대 농촌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줄어드는 장작과 물을 얻기 위해서 더 멀리 걸어나가야 하며, 도시지역에서는 돈을 더 받는 옥외노동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계유지를 위한 노동에 더 들어가는 시간은 대개는 아이 돌보는 시간 및 에너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때로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의 부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가령 인도에서는 14세 미만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4%에서 8%로 늘어났다. 15~19세 연령집단에서는 남자의 경우 노동참여율이 8% 줄어든 반면 여자는 17% 늘어났다.<sup>29)</sup> 이것은 더 많은 여자아이들이 노동력으로 차출되는 반면 더 많은 남자아이들은 학교로 간다는 뜻이다. 상당한 수치의 이 비율이 아마도 여학생의 높은 자퇴율과 여성노동자에 비해 50% 높은 남성노동자의 문자해독률을 설명해줄 것이다. 2001년이 되면 0~14세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20%가 더 늘어날 것이고 15~19세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0%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sup>30)</sup>

국제노동기구(ILO)는 1980년대 초반 '경제활동을 하는' 15세 미만 아동은 전부 5천만명 가량이라고 추산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억명으로

28) United Nations, *World's Women*, 1970~90.

29) Meera Chatterjee, 앞의 책.

30) UNICEF, 앞의 책.

으로 관심이 있다면 '마지막 사람'이라는 기준은 '마지막 아이'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 없어도 되는 마지막 아이: 주류 패러다임

정부와 정부간기구, 권력엘리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지막 아이'에게는 구명보트가 필요없다. 이 관점은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말한 '구명보트 윤리'에 잘 나타나 있다. 빈민과 약자는 '잉여'인구로서 지구자원에 불필요한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여기에 입각한 대응과 전략은 지구자원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은 다수의 빈민이 아니라 소수의 소비지향적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소비와 파괴적인 기술이 자원에 가하는 압박을 무시한 채 '보존'제들은 마지막 아이를 생존의 한계상황으로 더욱 내몰고 있다. 엘리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공식적 전략들은 구명보트 전략을 통해 '비생산적인' 빈민층을 떨구어버린다면 세계는 더 유복해지리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환경주의는 점차 생태적 위기를 새로운 투자와 이윤의 기회로 보는 경영자·기술관료층의 수사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열대행동계획(Tropical Action Plan), 기후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은 흔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취할 수 있도록 삼림과 대기와 생물적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새로운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들 환경계획에서는 희생자가 약당으로 변모한다. 환경위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는 여성들이 도리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해야 할 요소가 되는 것이다.<sup>32)</sup>

'인구폭발'은 언제나 근대 가부장제사회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만들어낸 이미지로 등장한다. 맬서스(Malthus)는 산업혁명 초기

32) *Bioscience*, Vol. 24, 1974, 561면.

33) Vandana Shiva, "Forestry Crisis and Forestry Myths: A Critical Review of Tropical Forests: A Call for Action," World Rainforest Movement, Penang 1987.

에 인구폭발을 예언했으며,<sup>36)</sup> 양차대전 사이에는 특정 인종이 인간 유전자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으로 간주되었고, 2차대전 후에는 폭동 때문에 미국이 자원과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나라들이 '인구 화약통'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는 지구의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중적인 이미지로 굳어진 세계의 굶주린 무리들에 맞서 오염을 통제하는 일이 바람직하고 심지어는 절대절망한 임무로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수치를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지구에 가하는 환경부담 역시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이 감춰지게 된다. 지구 전체로 보자면 최빈곤지역(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인구를 급격히 줄인다 해도 그 영향력은 현재 최고 소비수준을 기록하는 10개국인 인구를 5% 줄이는 것보다 훨씬 미미하다.<sup>37)</sup> 지구를 과잉인구의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미명하에 여성의 신체는 인구조절정책을 통해 잔인하게 침탈되고 있다. 산업오염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력 자체가 위협받는 곳에서는 여성의 이해가 자녀들의 이해와 상반된다. 이와같은 분리·지배 정책은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리하게 조절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기술관료층이 최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여성을 아동의 수동적인 '환경'으로 묘사하거나 '인구폭발'의 주범인 '폭탄'으로 묘사한다. 이 두 경우에서 자녀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의 생명은 어린이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어머니의 지공은 아이의 '환경'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상대적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조차 태아는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아기의 건강상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어머니의 건강이 '태아환경 내의 한 요소'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아기 관계를 해체하는 비슷한 관점이 작업장의 환경위험에 대해

34) Barbara Duden, "Population," Wolfgang Sachs, ed.,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1992.

35) UNICEF, 앞의 책.

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태아보호 정책'은 임신한 (혹은 임신을 원하는) 여성을 위험지역에서 내보냄으로써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한다는 것으로, 고용주들은 위험한 생산에서 초점을 옮길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sup>38)</sup> 극단적인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식탁에 올릴 음식을 얻기 위해 불임수술에 동의하기도 한다. 더 전형적인 사례에는 여성들의 생리주기를 감독하거나 고용하기 전에 유산을 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린 넬슨(Lin Nelson)이 말한 대로 "오염을 가정하고" 작업장 제배치와 산부인과적 처치를 받기란 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것들은 병 자체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대응일 뿐"인 것이다.<sup>39)</sup>

## 민중들의 대응

지역사회 집단, 비정부조직(NGO),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은 여성과 어린이를 생존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경향을 역전시킴으로써 환경악화를 반전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도의 첸코운동이 그러한 반동의 하나이다. 케냐에서는 그린벨트운동으로 1천개의 공동체 그린벨트가 조성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하발 알라인 말레이시아(Sahabat Alam Malaysia, SAM)와 페낭소비자연합이 부족·농민·어촌 공동체와 연계를 하며 파괴된 환경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사라와크(Sarawak)에서 벌목을 저지하려는 부족들의 운동에도 이런 조직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아카오 데모크라티까 페미니나 가우차(Acao Democratica Feminina Gaucha, ADFG)가 지속가능한 농업, 토착민의 권리, 부채와 구조조정 같은 쟁점에 관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대응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들 모두 '마지막 아이'를 관

36) Lin Nelson, "The Place of Women in Polluted Places," Irene Diamond & Gloria Orenstein, eds., *Assess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ierra Club Books 1990.

37) 같은 글.

심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동시에 이루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연구재단(Research Foundation), 스웨덴의 다그함마르셴드재단(Dag Hammarskjöld Foundation),<sup>40)</sup> 1992년 리우세계포럼의 플라네타 페미아(Planeta Femea)<sup>41)</sup>가 조직한 회담 같은 여성·건강·환경에 관한 최근의 노력들은 어린이·여성·자연의 본모습을 파편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인식하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여성과 어린이를 제일 먼저

1987년 황야회담(Wilderness Congress)에서, 온다가 네이션(Onondaga Nation)의 오렌 리온즈(Oren Lyons)는 이렇게 말했다. "네 모 카신으로 어떻게 대지를 받아야 할지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뎌라. 미래세대의 얼굴들이 자기가 살아갈 차래를 기다리며 대지로부터 울려다보고 있으니까."<sup>42)</sup>

GNP의 성장과 자본축적의 증대라는 성취 속에서 국제적인 권력을 거머쥔 정책결정자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어린이와 미래세대의 열광이다. 어린이는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어린이중심의 문화는 파괴되고 주변화되었다. 결정을 내림에 있어 어린이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어머니와 부족 등의 공동체로부터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도전장이다.

여성과 어린이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을 창조하는 여성을 그 때문에 종속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남성을 그 때

38) "Women, Health and Ecology," 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Natural Resource Policy와 Dag Hammarskjöld Foundation이 주최한 제미니의 의사록, *Development Dialogue*, 1992.

39) 플라네타 페미아는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 기간 중 지구포럼에 설치된 여성들의 랩트이다.

40) Oren Lyons, 4th World Wilderness Conference, Eugene, Oregon, 1987년 9월 11일.

문에 우월하다고 보는 논리가 전복되어야 한다. 가부장제가 과거에 이룩한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의 소외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성·어린이·환경의 빈곤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쇠퇴를 막고자 한다면 생명의 파괴가 아닌 생명의 창조를 인간의 진정한 임무로 인식해야 하며, 인간됨의 본질이 전세계 다양한 종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6장 누가 자연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었는가?

마리아 미스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견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후라면 그것에 대해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의 다수 분파 및 그밖의 여러 집단과 개인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거듭 벌여왔다. 원자력이란 너무나 위험한 에너지원이어서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사실은 체르노빌 사태와 그 여파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해 글을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기술에 대해서는 책임없어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자연을 정복하는 기술에 그처럼 열성적인 남성들, 거부장들더러 이 혼란을 정리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세계의 가정주부 노릇을 하는 데 질렀다구요"라고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동조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한 것이지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여성들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없다. 어떤 여성들은 우리 모두 어차피 언젠가 죽을 운명이니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일은 잊은 채 죽는 날까지 인생을 즐기다 가는 게 낫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이라면 이런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오염된 잔디밭에서 놀지 못하게 하려고 애쓸 것이고, 밖에 나갔다가 온 뒤면 신발을 씻을 것이며 뉴스에서 보도되는 야채·우유·과일 등의 핵오염에 대한 최신 처방을 따르고 아이들을

118

사냥 오염은 정신적 오염으로 증폭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았던 것처럼 살아가고, 장을 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직장에 나가고, 꽃에 물을 주기를 계속한다. 체르노빌 이후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이상태 비슷하게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으며 더 많이 걱정해야 했다. 원자력의 선전가들인 과학자,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동안에도 여성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먹을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다. 그 '생활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사라져버렸음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은 여성들이다. 상추는 아직 사도 괜찮은 것일까? 우유는 위험하다. 요구르트와 치즈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오염되었다. 뭘 요리해서 먹을 것인가? 여성들은 체르노빌 이전에 나온 곡물류와 분유를 구하거나 미국이나 제3세계로부터 수입한 음식을 찾기 시작했으며, 스웨덴 같은 나라는 매주 타이로부터 신선한 야채를 공수해 온다. 체르노빌 이전의 비축물이 사라져버리고 오염되지 않은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끊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어린이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놀 거리를 마련해주고 달래야 하는 것도 여성이다. 핵공학의 옹호자—체르노빌 사태의 책임자—인 과학자와 정치가들은 그저 "애들이 흉장난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명령하면 그만이다.

임산부는 또 어떤가?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안은? 그들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많은 임산부들이 의사에게 임신중독을 지시하는 것이 '안전한지' 자문을 구했다. 많은 이들이 기형아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홀로 떨었다. 또다른 많은 임산부들은 유산을 했으나 그것을 체르노빌 사태와 분명히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그 당시 소련에서나 서구에서나 생명을 위해 책임을 느낀 것은 여성들이었지. 통상 '책임있는' 당사자로 여겨지는 과학자·정치가·경제인들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염려한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구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느낀 것도 정치가나 과

120

위에 비교적 오염이 덜 된 식품을 고르는 데 전문가가 될 것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은 체르노빌 참사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한다. 이 위기가 어떻게 여성의 삶과 심리적 조건을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여성들이 이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모든 것이 변했고 모든 것이 그대로다

마침내 봄이 왔다! 모든 것이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만발하고 따뜻한 햇살이 길고 우울한 겨울이 지난 후 사람들은 집밖으로 나와 자유로이 숨쉬고 자연을 즐기려 한다. 하지만 도처에 보이지 않는 표지판이 경고하고 있다. "날 만지지 마세요. 난 오염됐어요!" 우리는 마치 자연이 TV소인 양 나뭇잎·꽃·풀들을 보면서도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자연을 만질 수도 없고 본래의 삶이 있는 피조물로서의 자연과 교류할 수도 없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감응력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기계적 인간이 된 사람들은 개의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감각은 이미 기계적인 자극-반응 작용으로 환원되어버렸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감응력이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아이들과 수많은 여성들—은 자연으로부터의 이런 감각스러운 분리를 깊은, 거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경험한다. 그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자신들과 나머지 자연세계 사이에 놓인 장벽이 그들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침식한다고 보는 것이다.

1986년 4월 나는 체르노빌 사태가 자신들의 삶의 기쁨을 파괴했다고 느끼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 마치 방사능이 이미 그들의 육체를 파괴하고 있어 망가뜨린 듯했다. 그들은 기운이 없고 속이 메스껍다고까지 했다. 아이들과 관련한 봄을 바라보는 일이 그들의 위를 뒤흔들어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왜 계속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젊은 제자들을 마주했을 때 나 또한 그와 비슷한 감정을 겪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 미래의 직업 을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신체적인 방

6장 누가 자연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었는가? 119

학자가 아니라 여성들이었다. 1986년 5월 모스크바에서 온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은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뻐코 자연과 적을 정복하려 할 뿐이지요!"(Die Tageszeitung, 1986년 5월 12일) 남성은 기술의 전문가요 여성은 생명의 전문가이며, 남성은 전쟁 전문가요 여성은 전쟁 이후 생명을 회복시키는 전문가인 듯하다. 이러한 분업이 체르노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몇가지 교훈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일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다. 이 기술은 불가역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가 먼저 이 사건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더 폭력한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교훈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체르노빌 이후 새로운 철박성을 띠게 되었다.

① 아무도 자기 혼자 모면할 수는 없다. '나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체르노빌과 같은 산업적인 재난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은 정치적 경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더 이상 지리적 거리가 안전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② 근대의 기계-남성이 지구에 저지른 일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자신이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삶이 있는 자연을 집합하고 파괴하고서도 그 화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무한한 진보'란 위험한 신화이다. 백인남성들이 수세기 동안 자연을 적으로 취급해왔으므로 이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적의를 갖는 듯하다.

③ 스스로 '책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체르노빌을 통해 이들 '책임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뿐임이 명백해졌다. 정치가들이 오염하충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과학이 정치의 시너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정치가들은 오로지 상인과 농민

6장 누가 자연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었는가? 121

등의 표를 잃을 위험이 있는 곳에서만 보상을 약속한다. 정치가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들의 초과노동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노동은 노동이나 노동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노동을 동원해도 체르노빌이 파괴한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

④ 정치나 과학을 주도하는 남성들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고가 윤리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연구를 감행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과학자의 60%가 국방성에서 돈을 대는 연구를 하고 있다. 심지어 핵에너지와 유전공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과학자들까지도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과학과 응용과학을 여전히 구분해서 생각한다. 독일에서 열린 유전공학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유전공학 분야의 한 선도적인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술이 위험하지 않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개발하고 응용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원자력의 위험을 알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폭파시켜야만 한다는 얘기이다. 유전공학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 수 있다. 많은 과학자들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연구가 도덕적인 고려나 사람들의 우려와 정서, 특히 정치가들의 자금규제로 인해 방해받고 있으니, 윤리와 도덕은 연구가 완료된 후 그것을 응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때나 되어서야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리위원회는 그후에나 생겨난다. 하지만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가들이다. 다른 한편 이들은 오염허용치 등의 어려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사실상 과학자나 정치가는 특정 기술에 투자할 돈이 있고 이윤을 위해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⑤ 정치가와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위험한 것은 그들에게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상상력과 감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종류의

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원자력뿐 아니라 유전공학과 생식기술 같은 다른 새로운 '미래' 기술들은 모두 전쟁기술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적어도 처음에는 국방부서가 지원하는 군사연구의 결과로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살아 있는 연관관계와 공생의 파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케릴린 머천트의 말대로 근대과학이란 자연에 대한 전쟁이다. 자연은 (여성과 같이) 남성의 발 아래 복종시켜야 할 적인 것이다.

⑥ 사람들을 진정시키려는 온갖 필사적 노력들은 권력층이 대중들을 두려워하고 대중들의 공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권력층은 여성과 달리 지구 위의 생명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더이상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들은 공포와 분노를 가장 이성적인 감정으로, 체르노빌 이후의 수개월 동안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보았다. 도처에서 '핵발전'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 '원자력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원자력에 반대하는 부모 모임'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자연을 적대시하는 이 전쟁 기술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⑦ 체르노빌 참사는 우리를 '석기시대'로 후퇴시키는 이들이 핵에너지의 즉각적인 종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보와 문명의 이름으로 이 기술을 전파하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주었다. 체르노빌 이후의 몇달 동안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이 '진보'에 대해 경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기술전파자들이 '결핍의 아버지'인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이 넘쳐나는 상품의 홍수 속에 정작 기본적인 생필품, 즉 아이들을 위한 녹색채소와 깨끗한 물과 우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책임이 있다.

원자력과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등은 종종, 사회관계를 변화시켜서 인간 존재가 자연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데 근거해 현재의 주류 과학패러다임과 그 기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주장에

4) Carolyn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실험을 할 수 있기 위해 과학자들은 혹시라도 실험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온갖 감정이입과 상상력을 죽여야만 한다. 브라이언 이슬리<sup>1)</sup>와 뵈메 형제<sup>2)</sup>가 보여준 바와 같이 근대과학, 특히 핵물리학은 정서적으로 불구인 인간을 요구한다.

⑧ 체르노빌 이후 과학계와 정치계의 주도적인 '책임자들' 중 몇몇의 반응은 매우 특이했다. 수년 동안 핵에너지가 안전하며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고 안전장치들은 결점이 없다고 역설하던 사람들이 1986년에는 방사능측정기에 나타난 수치들 — 200이나 500 혹은 심지어 2천 베크렐 — 이 위험하지 않으니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과학자나 정치가나 모두 정확한 계기로 측정된 매우 높은 방사능수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축소시키려 애썼던 것이다. 자신들이 설치한 장치를 '믿는' 대신 그들은 주부들에게 '상추를 씻어라'든지,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라'라든지 '신발을 씻어라'라고 말했다. 칼 송리의 부인은 상추를 사서 다듬는 모습으로 TV에 등장하여 송리의 가족들은 방사능측정기로 드러난 높은 방사능수치라는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 갑자기 통제와 정확한 측정이라는 과학의 낯은 마술이, 모방하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더욱 낯은 마술로 대체되는 것이다.<sup>3)</sup> 홍보담당자는 과학자와 정치가들을 TV에 출연시켜 생리를 먹는 퍼포먼스를 연출함으로써 사람들을 달래려 했다. 과학단체들은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측정된 방사능은 매우 낮으므로 건강을 해칠지 모른다고 우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핵산업체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Frankfurt Rundschau*, 1986년 6월 12일).

⑨ 체르노빌을 통해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없

1) Brian Easlen, *Feathering the Unthinkable, Masculinity, Scientists and the Nuclear Arms Race*, London: Pluto Press 1986.  
2) Gerhard Böhm & Hartmut Böhm, *Das Andre der Vernunft*, 1985.  
3) Christel Neuss, "Sie messen und dann essen sie es doch: Von der Wissenschaft zur Magie," Gamberoff et al., *Tschernobyl hat unser Leben verändert, Vom Ausstieg der Frauen*, Rororo Aktuell, Reinbek 1986.

의해 정당화된다. 여성들 역시 이 주장을 활용하여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 혹은 기술적인 보완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체르노빌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시간차원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즉시 자연에 대한 상이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제 세습 137이 방사능을 반감하기까지 30년을 기다려야 하며,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2만 4천년이고 스트론튬 90의 반감기는 28년이다.

체르노빌의 파괴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인근지역을 오염시키면서 많은 이들에게 질병과 죽음과 절망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차원은 '원주민의자들', '실용주의자들', 신속한 결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전파시킨 기술적 해결책의 산물이다. 이러한 시간차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제 마침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이상 생존의 문제를 정치나 과학, 경제의 전문가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핵발전소의 즉각적 폐쇄와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의 중단을 요구하고, 자연에 대해 세롭고 우호적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때이다. 이제 자연에 대한 전쟁을 끝내야 하며 자연을 더이상 우리의 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 불가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살아 있는 전체로 보아야 한다.

- 초역자 : delta feminists 시타
- 출전 : 1996 [Summer Conference on Feminist Economic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국제페미니스트경제학협회 1996년 여름 학술대회)

##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과 지역 경제의 성장

FEMINIST ECOLOGICAL ECONOMICS AND THE GROWTH OF LOCAL ECONOMIES

Ellie Perkins

### 요약

이 논문에서는 가계(household)와 지역사회에서 시작하는 여성과 자연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에 관한 최근의 문헌들을 검토한다. 이 글은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이론과 분석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운동가들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지역적인 동시에 전지구적인(local-global) 이슈들을 다룰 것이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연구 필요성 및 정책적 함의 역시 개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I. 서론 -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운 좋게도 우리는 경제학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곤란(involverment)의 관점에 입각해 경제적 삶의 수많은 상이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모델링 하고 있다. 생태주의 경제학자들은 환경과 경제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이러한 상호작용들을 적절히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 또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환경" 사이의 비교 - 양자 모두 명백히 근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외부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 는 지금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내가 볼 때,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사상과 분석적 통찰력은 (내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생태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학자들이다) 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적 비전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들은 [현재] 엄청나게 고양되고 있으며, 또한 데이터 수집, 경험적 실험, 이론적 연구의 확장 및 정책의 적용 등에 있어서 놀랄 만큼 많은 새로운 작업들을 수반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특히 세 가지 독특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

을 개관하고자 한다. : 첫째, 운동(activism)과 공공 정책에 있어서의 함의들, 둘째, 그것의 장소한정성(place-specificity)과 지역적-전지구적 상호작용들, 셋째, [앞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연구.

첫 번째 장에서는 최근 문헌들을 검토하는 형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구조를 개관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운동(action)에 있어서의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예들과 그 "정책적 연관성(policy relevance)"을 다룰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전지구적 경제 변동과 지역적 경제변동 사이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네 번째 장에서 개관되며, 마지막 장에서는 이를 요약하고 결론짓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모델들은 경제를 그 각각이 경제적임과 동시에 생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기타 상호관계성들의 복합체로 본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 가계(household) 내에서 수행되는 일의 중요성이다.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왔다. : Julie Nelson은 이 일을 "provisioning"<sup>1)</sup>으로, Diana Lee-Smith는 "subsistence"<sup>2)</sup>로, Vandana Shiva는 "sustenance"<sup>3)</sup>로, 그리고 Maren Jochimsen과 Ulrike Knobloch는 "caring activities"<sup>4)</sup>로 명명한다.

예를 들어 Jochimsen과 Knobloch 같은 경우는, 인간 존재에게 필수불가결한 (그리고 돈과는 무관하게 수행되는) 사회적 및 물질적 관계들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과정이라는 "지속 경제(maintenance economy)"까지도 산업 경제에 연결시키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행위 모델을 발전시킨다. 주로 산업 생산이 의존하고 있는 보살핌 행위들(caring activities)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에 기초가 되는 생태적 과정에 의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보살핀다.

그러나 산업 경제는 보살핌 행위와 생태적 과정들 양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한다. : "이러한 모델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생태적 과정에 대한 산업 경제적 사고 및 행위의 어떠한 해악이든, 그것은 단지 그 과정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 행위 및 그 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즉, 그러한 해악은 여성들의 삶에 심원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sup>5)</sup> 따라서 Jochimsen과 Knobloch는 광범위하게 토론되어 온 공과 사의 이원성에 대해 질문하고, 자연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이원성을] 확장시켰으며, 새로운 재화의 생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한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sup>6)</sup>

Hilkka Pietila에게 있어,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들 - 음식, 의복, 주거, 보살핌, 놀이 등 - 을 중요시하는 것이 어떠한 경제의 기능에 있어서든 극히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비록 산업화되고 상업화된 경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에 거의 신경 쓰지 않지만, Pietila는 "자유로운 경제(free economy)", "사람들이 임금 없이도 자기 가족들의 복리(well-being)와 만족을 위해 '자유를

1) Nelson, Julie, "Feminism, Ecology, and the Philosophy of Economics."

2) Lee-Smith, Diana, "Women, Subsistence, and Globalization."

3) Shiva, Vandana, "WTO, Women and the Environment: An Ecological and Gender Analysis of 'Free Trade'."

4) Jochimsen, Maren and Ulrike Knobloch, "Making the Hidden Visible: The Importance of Caring Activities and their Principles for any Economy."

5) Ibid., p. 5.

6) Ibid., p. 7.

게' 행하는 일과 생산"과 같은 표현을 통해, 그것들을 자신의 경제학 모델의 중심에 놓았다.<sup>7)</sup>

이러한 "자유로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Pietila가 "보호 부문(protected sector)"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보호 부문은 "(농업 및 식품 생산, 주택 및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구축, 행정, 학교, 건강, 운송 및 통신 등과 같은) 공적 서비스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위한 생산 및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 부문은 법률과 행정적 수단에 의해 보호되고 지도되며, 따라서 그 가격과 여타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세계 경제로부터 그리 큰 압력을 받지 않는다."<sup>8)</sup> 수출을 위한 생산은 Pietila의 모델에서 "속박된 경제"로 명명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 시장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문의 조건들과 가격, 경쟁, 수요 등은 국제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속박된 경제[부문]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국내 경제는 외부적 요인들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의 자기 결정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sup>9)</sup>

Pietila의 모델은 "자유로운" 가족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는 가족 경제의 전체 규모가 다음과 같이 측정된 1980년 핀란드에 대한 그림을 인용한다.

|              | 시간  | 돈   |
|--------------|-----|-----|
| 자유로운 경제 [부문] | 54% | 35% |
| 보호 부문        | 36% | 46% |
| 속박된 경제 [부문]  | 10% | 19% |

Pietila는 이 모델의 함의가, 가내 생산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해야 할 필요, 집 밖에서의 일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가사 노동(activities)을 위한 시간을 보장할 필요, 가정 생활의 중심성을 반영하도록 지역사회를 공간적으로 조직할 필요, 그리고 그 모델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필요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롭고 비(非) 화폐적인 경제의 회복은 경제 성장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들 - 아이들, 환자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함께 일하는 것 - 을 가정에서, 그리고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면, 지역사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값비싼 공공 서비스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보호부문을 끊임없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그녀는 또한 "속박된 경제"가 경작과 채취를 통해 자연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경작과 생산이 가능한 한 생태적으로 건전해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잉여는 사라질 것이다 - 따라서 산업화된 국가가 세계 시장에 농업생산물을 수출해야 할 필요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세계 무역은 각 나라가 서로 치명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는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재화들로 주로 구성될 것이다."<sup>11)</sup>

7) Pietila, Hilkka, "Daughters of Mother Earth: Women's Culture as an Ethical and Practic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 5-6.

8) Ibid., p.6.

9) Ibid., p.6.

10) Ibid., p.10.

가게 혹은 지역사회가 기본적인 필요들을 공급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Pietila의 경제학은, 여성의 일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외부성"으로 간주되어 온 이러한 요소들을 상품화(commodifying)하거나 화폐화하지 않으면서 생태적 파괴와 재료처리량을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와 비슷하지만 보다 이론적으로 정교화된 분석이 바로 Mary Mellor의 분석이다. Pietila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여성과 자연은 남성지배적인 경제 내에서 외부성으로서의 공통적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남성지배적인 경제를] 버터주는 핵심적인 물질적 기초를 구성한다"<sup>12)</sup> 라고 주장함으로써 경제학에 대한 생태주의적 비판과 페미니스트 비판을 결합한다. Maria Mies와 Vandana Shiva가 지적했듯이, 여성들이 생존과 생계를 위한 필요를 중심으로 책임지고 있는 남반구에 있어서 이러한 상태는 특히 위태롭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생존 경제(subsistence economy)에서는 남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들이 이미 충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초과착취(superexploitation)'로 내몰리게 된다."<sup>13)</sup> Marilyn Waring은, 여성의 부불노동이 국부(nation's wealth)로 계산되지 않으며, 국가의 지출에 있어서 여성들의 필요는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이러한 사실들은 북반구에서나 남반구에서나 마찬가지라고 논증해왔다. 이와 비슷하게, 자연 세계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비자본주의 경제체제 모두 안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인종주의와 빈곤은, 환경 파괴의 가장 나쁜 영향은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희생을 외부로 돌리며, 환경 파괴를 막는데 거의 아무런 의욕도 없다.

Mellor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환경을 전액 가격화(full-cost pricing)하는 것은 "이미 배제의 패턴을 창출해왔던 그 구조 자체를 정당화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만약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다른 근원적인 변화도 없이 여성들이 단순히 그들의 지불·부불노동에 대해 남성들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구매력을 경제 안으로 유입시킬 것이며,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생산과 소비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의 물질적 한계를 상승시킬 것이다. 오직 모든 부가적인 지출이 서비스(교육, 간호, 상담, 개인 보살핌, 놀이 등)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에만 생태적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다. 게다가 그렇게 되려면 이 서비스들이 어떠한 더 이상의 소비나 오염도 만들어내지 않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의 모든 부불노동을 화폐화하는 것은 경제에서의 재료처리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신고전주의적 용어법을 사용하자면 이는 일종의 "전도된 결과(perverse result)"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염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설계된 환경세 역시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동반하는 가격 폭등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장에 의한 해결책은, 회사, 실험실, 그리고 정부에서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주로 남성인) 사람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소비자(이들은 주로 여성이다)와 가난한 사람들(이들 역시 주로 여성이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11) Ibid., p.18.

12) Mellor, Mary, "Women, Na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conomic Man'", p.5.

13) Ibid., p.6.

14) Ibid., p.8.

것을 의미한다."<sup>15)</sup>

"어떠한 유인에 의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sup>16)</sup>고 Mellor는 말한다. 그녀는 산업경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 "실제적인 물질적 결과를 갖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제적 인간(man, 남성)'은, 외부화된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물질적 기초에 의존하고 있다."<sup>17)</sup>

경제 체계에 있어서 여성과 자연의 또 다른 공통성은 시간의 문제에 의해 입증된다고 Mellor는 지적한다. "산업화된 사회는 가계와 [공식적인] 일(work)을 분리시킴으로써, 지불받는, 시간이 제한된(time-limited) 노동을 위해 어떤 명백히 지정된 공간과 시간을 배제시켰다 (.....) 지불노동은 시간정향적(time-oriented)이지 과업지향적(task-oriented)이지 않았다. 여성들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가정에서의 그녀들의 노동은 여전히 과업지향적이고 생물학적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더러워졌을 때 씻겨져야 하고, 아기들은 배고플 때 젖을 먹여야 하며, 피곤할 때 돌보아져야 했다 (.....) 그들의 요구는 '근무시간 외'라고 해도 중단되지 않았다."<sup>18)</sup> Mellor는 이러한 이중성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Barbara Adam을 인용하고 있다. "그녀들의 노동이 생물학적 시간에 맞춰져야 하는 이상, 시간은 여성들에게 결코 자유를 의미할 수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들은 생물학적 시간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불노동을 하는지도 모른다."<sup>19)</sup>

[시간과] 자연의 연관 고리는 "생물학적 시간의 물질적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has broken free)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생태적 시간과 생태적 현실로부터도 동떨어지게 된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physicality) 및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상실한 것이다."<sup>20)</sup> 이러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미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단서를 보여준다. : "만약 우리가 생태적 시간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경제 체계들이 내포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시간은 포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음식을 섭취, 의류,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 등을 나누는 생물학적 시간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sup>21)</sup>

내가 언급한 모든 이론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업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다 - Val Plumwood, Carolyn Merchant, Judith Plant, Maria Mies, Seyla Benhabib, Sandra Harding, Marilyn Waring, Hazel Henderson, Michele Pujol, Julie Nelson, Nancy Folbre, Diana Strassman,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sup>22)</sup>

보다 페미니스트적인 이론적 작업들 또한, 경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접근들을 이

15) Ibid., p.12.

16) Ibid., p.13.

17) Ibid., p.17.

18) Ibid., p.19.

19) Ibid., p.20.

20) Ibid., p.20.

21) Ibid., p.21.

22) Lance Taylor: "Environmental and Gender Feedbacks in Macroeconomics," (World Development, vol. 23 no. 11, November 1995) 라는 논문에서 이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같은 주제에 대한 Maria Sagrario Florio의 논문 "Economic Restructuring, Gender, and the Allocation of Time" 역시 가계 생산(household production)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생태적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Marcia Nozick은 이러한 기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 서구 문화에 의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여성적이고 삶을 가능케 해주는(life-affirming) 가치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의 등장 (.....) 그것은 토착 문화들과 생태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 세계에 대한 관계적이고 비위계적인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협동, 공감, 그리고 양육(nurture)
-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 : 목적과 수단은 하나이다
- 사회 변동은 개인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는 신념
- 직관, 주체성, 창조성, 그리고 자발성에 대한 가치 부여

이러한 ‘여성적 원리들’은, 우리가 일하고 조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회에 대한 대안적 미래상의 기초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 더 작고 보다 인격적인 구조 및 과정, 협동적인 노동 양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지와 비공식적 경제에의 의존. 이들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뒷받침해주는 가치들이다.”<sup>23)</sup>

Barbara Brandt에게 있어서 보다 강력한 지역사회 기반 경제는, 단순히 사람들을 세계 시장의 불안정한 부침 속에서 살아남게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 변화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들과 가계들(households)이 보다 자립화되고 능력을 갖추어 갈수록, 그들은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대응의 기초를 닦게 된다. 공장 폐쇄, 해고, 지역 상점들의 감소, 또는 여타의 커다란 경제적 난관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닥쳐왔을 때, 이와 같은 능력 있고 창조적인 개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들을 보다 더 잘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 한 행위들을 통해 형성되어 온 새로운 지역사회의 유대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더욱 충분히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 및 기업들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sup>24)</sup>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는 세계 경제를 덜 필요로 하게 된다. 자기충족적인 지역사회 안에서는 먼 곳에서 오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고서도 건강하고 보람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이웃 - 그들[이웃들]의 기술, 필요, 재능, 그리고 신용 - 에 대해 알아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관련된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유익한 일련의 교환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 기술 교환, 공동체적 농업, Local Enterprise Trading Systems, 신용조합 또는 비공식적인 신용 [대출] 그룹들, 도시의 공원들, 육아 및 다른 것을 위한 협동조합들, 환경 친화적인 주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 또는 지역의 자원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변형시키는 여타의 기획들.<sup>25)</sup>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 양자 모두에 속한 많은 사회들 속에서, 네트워킹, 갈등의 중재, 유기적 조직화,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시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하는 것은 바로 여성이다.

23) Nozick, Marcia, No Place Like Home (Ottawa: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1992), p.38.

24) Brandt, Barbara, Whole Life Economics: Revaluing Daily Life. (Philadelphia/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5), p.153.

25) Norberg-Hodge, Helena, "Building the Case Against Globalization and For Community-Based Economics," International Society for Ecological Economics Newsletter, vol. 5, no. 2, April 1994, pp.3-4.

자기충족성(self-sufficiency)을 향한 작업에는, 우리가 보다 질 높고 물질은 보다 덜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의 개발, 보존, 그리고 이해(appreciation)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성들이 이러한 기술들의 수호자(guardians)이자 젊은이들의 스승인 한, 그러한 기술들을 전달하는데 있어서의 그녀들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자기충족적인 미래에 있어 핵심적이다.

Adair과 Howell이 말한 바와 같이, “미래를 지키려면 우리의 지역사회를 재구성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말하고, 듣고, 공존하는 방식들이 모든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을 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식탁에서의 관계에 구현되어 있는 특성들이야말로 전략과 행동(action)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 필요한 특성이다..... 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여성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사회를 재조직하고, 삶 전체를 개선하고, 미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갖추자.”<sup>26)</sup>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은 따라서, 사회 변동과 지역사회의 건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왜 그것이 여성들의 행복(well-being)과 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해, 이론적 기반과 풍부한 실재적 경험 양자 모두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II.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 그 운동(activism)과 정책

전지구화에 직면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이 이미 생각하고, 쓰고, 해왔던 많은 일들은, 다음과 같은 Janine Brodie 의 진술의 핵심을 보여준다. : 페미니스트 분석은 “(전지구적) 재구조화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적절한 경계, 이러한 두 영역들 안에서의 성별화된 주체들의 구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투쟁의 목표들을 둘러싼 각축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전체에서 시작해야만 한다.”<sup>27)</sup> 지역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중개자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영역을 의미한다. 동시에, 지역사회가 국내 또는 국제적인 “공적” 삶으로부터 얼마간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중앙집중적 통제에 대항하는 강력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파괴적인) 보루, 다양성의 피난처, 그리고 창조적인 인간 상호작용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학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을 위한 분석적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경제학보다 더욱 정통한 이론적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기적인(self-interested) 개인의 행위에 대한 분석에 기초를 둔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 행동과 동기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무시한다.<sup>28)</sup>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적 분석은 정부의 활동(그리고 활동하지 않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 무역 협정에서부터 보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sup>29)</sup> 여성의 수많은 경제적 기여들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 집단적인 결핍/필요들보다 개인을 더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강조가 정책으로 바뀌어지는

26) Adair, Margo and Sharon Howell, "Women Weave Community," in Helen Forsey (ed.) *Circles of Strength: Community Alternatives to Alienation*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3), p. 41.

27) Brodie, Janine, "Shifting the Boundaries: Gender and the Politics of Restructuring," cited in Isabella Bakker (ed.), *The Strategic Silence: Gender and Economic Policy* (London: Zed Press, 1994), p. 19.

28) Nelson, Julie and Marianne Ferber (eds.), *Beyond Economic Man*.

29) Waring, Marilyn, *If Women Counted* 문 보라.

것은, 남반구에서나 북반구에서나 지역사회 - 그리고 여성들 - 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sup>30)</sup>

그러나 [현재],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가능한 "정책적 타당성(relevance)"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다른 수많은 의문들이 가려지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재산의 소유권, 경제 사회의 최상층,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투표권으로부터조차 배제되고 있는데, "정책"이 가장 우선적이란 말인가?

Mary Mellor가 말했듯이,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토지권(land rights)이 야말로 환경 정의에 있어 치명적이다. 이것의 극악무도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때 소유권을 개인적 원칙과 집단적 원칙 둘 중 어느 것에 근거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은 결정적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평균적인 권리(common rights)에 기반한다. 만약 [그 사회에] 개인적 소유(individual ownership)가 확립되어 있다면, 토지에 대한 접근성은 대개 남성 가장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여성들의 독립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는 또한 부채의 위험과 더 부유한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빼앗길 위험을 동반한다.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토착 지주나 외부의 지주들로부터의 토지 물수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에 대한 집단적 모델들[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이다."<sup>31)</sup>

강한 지역사회와 자급자족적인 지역사회 사이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무역(trade)이 일어나는,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이행 도정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다. 전 세계의 여성들은 지역적이고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미 이러한 난관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된 정책적 경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며, 결국 정부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33)</sup>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생태주의적 행동(activism)들 중 일부를 여기서 잠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밴쿠버에서는 WomanFutures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Society라는 단체가 일종의 대부 보증 기금(loan guarantee fund)을 만들어, 여성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의 기업들이 제

정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들은 또한 여성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대부분 씨름, 물물교환 시스템, 저축 그룹 및 다른 대안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돕는다. 그 그룹의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다. "여성들은 전 세계 노동의 2/3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작동해서는 안된단 말인가? 여성들은 '갈라진 틈새로 새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다. 만약 여성들이 온전한 참여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성들의 지역공동체 발전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달려 있다."<sup>34)</sup>

루이지애나의 Four Corners라는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Southern Mutual Help Association이라 불리는 여성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함으로써,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물들을 개조하고 새로 지었으며, 그녀들이 습득한 기술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다.<sup>35)</sup>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고 사랑의 운하 활동가(Love Canal activist)인 Lois Gibbs가 이끄는 '무모한 낭비에 대비한 시민 정보센터(The Citizen's Clearinghouse for Hazardous Wastes)'는, 유독성 오염 문제를 다루는 지역 그룹들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sup>36)</sup>

멕시코의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지역 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만남을 가능케 해주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서로 다른 지방 조직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이 모임에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 조건들,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노동자로서 맞닥뜨리는 필요들에 대해 토론한다.<sup>37)</sup> 라틴아메리카(Latina) 여성들은, 미국 쓰레기 취급 회사들이 멕시코의 Tijuana와 캘리포니아의 Kettleman City에 유사한 유독 쓰레기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조직화하고 있다.<sup>38)</sup> 1992년 2월에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서 온 110명의 여성들이 멕시코에 있는 Valle del Bravo에서 나흘동안 회합을 가지고, 자유무역과 여성에 대한 경제적 구조조정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토론했다.

몇몇 교환, 회의 및 기타 연계 프로젝트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네트워크들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sup>39)</sup> 쿠바, 특히 Havana에서, 무역 보이콧과 식유 부족은 자전거 사용을 급증시켰다. 이는 도시의 분위기와 모습을 바꿔놓고 있다. "식유 수입량의 80%가 없어진 상황에서, 운송, 농업 생산 및 산업 등의 전통적 패턴들은 과감하게 바뀌어져야만 했다. 유기농업과 탈중심화된 생산은

30)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 Cameron, Barbara, "The Impact of Free Trade on Women's Employment," Draft, York University, 1994; Elson, Diane, "Gender-Aware Analysis and Development Economic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5, no. 2, 1993; Jokes, Susan, Gender and Macro-Economic Policy, paper prepared for AWID Colloquium on Gender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ashington, DC, 1988; Palmer, Ingrid, Gender and Population in the Adjustment of African Economies: Planning for Change (Geneva: ILO, 1991); Palmer, Ingrid, "Gender Equity and Economic Efficiency in Adjustment Programmes," in Haleh Afshar and Carolynne Dennis (eds.) Women and Adjust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Macmillan, 1992); Cohen, Marjorie,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Restructuring for Women: The Canadian Situation,"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Canada in Transition, at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Mexico City, November 27, 1992; Rubery, Jill (ed.), Women and Recess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8); MacDonald, Martha and Pat Connelly, "Class and Gender in Fishing Communities in Nova Scotia,"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30, 1989.

31) Mellor, Mary, "Building a New Vision: Feminist, Green Socialism," in Richard Hofrichter, Toxic Struggl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Justice (Philadelphia/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3), p. 44. 젠더와 재산권이라는 주제는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Gender Program이 후원한 1995년 후반의 이메일 회의(e-mail conference)에서 특히 강조된 바 있다.

32) Elabur-Idemudia, Patience,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Women in the South," paper given at Summer Institute on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Theorizing Global Connections," York University, Toronto, June 14-23, 1995.

33)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 및 사회 변동에 관한 다른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Frances Moore Lappe and Paul Martin DuBois, The Quickening of America: Ray Morrison, Ecological Democracy, and Enrique Luff, Green Production.

34) 다음을 보라. Alderson, Lucy, Melanie Conn, Janet Donald, Molly Harrington, and Leslie Kemp, Counting Ourselves In: A Women's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Handbook (Vancouver: WomanFutures, 1993), and Alderson, Lucy and Melanie Conn, More Than Dollars: A Study of Women's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British Columbia (Vancouver: WomanFutures, 1988).

35) Claire Sofran, "The Women Who Helped Themselves," Good Housekeeping, May 1993, p. 40-47; cited in Barbara Brandt, Whole Life Economics, p. 148. 을 보라.

36) Epstein, Barbara, "Ecofeminism and Grass-roots Environ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Richard Hofrichter, Toxic Struggles (Philadelphia/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3), p. 149. See also Celene Krauss, "Blue-Collar Women and Toxic Waste Protests" in the same volume.

37) Breaking Boundaries: Women, Free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Washington, DC: Alternative Women-in-Development Working Group, June 1993), p. 10.

38) Ibid., p. 6.

39) Woman-to-Woman Global Strategies, Changing Economies: Free Trade and the Global Agenda...Bringing Women Into the Picture (Toronto, March 1993).

더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자전거는 버스와 자동차를 대체하여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가장 극적인 교훈은, 주요 도로에 자전거를 도입한 것이 직접적인 환경적·경제적 이익들 뿐만 아니라 적합성(fitness), 건강, 그리고 보다 향상된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리에서의 생활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집이나 자동차 안의 안전한 '누에고치'안으로 숨어버려온 하던 우리들이, 이제 생기 넘치고, 건강하며, 긍정적인 거리 생활의 경험을 가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탄자니아에 있는 여성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변화하는 경제적 압력들에 대응하여, 교대 신용 연합(rotating credit associations), 개별적인 벤처 사업이나 농업 생산물, 탁아 협동조합 및 여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왔다.<sup>41)</sup>

인도의 지역 사회들을 강화시킨 여성중심의 문화적 전통들이 지니는 중요성은 Frederique Apffel Marglin과 Purna Chandra Mishra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그녀들은 이러한 전통들을 북반구를 지탱해줄 수 있는 모델로서 언급하고 있다(who note the model these traditions may hold for the North).<sup>42)</sup>

필리핀 여성농민연맹(The Peasant Women's 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AMIHAN)은 여성을 위한 발전 프로젝트들, 유기농법과 해충방지에 대한 농촌지도자교육(conducted pilot studies), 보다 안전한 요리용 전열기구,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무역지향적 경제전략에 대한 여성들의 단합된 저항과 정치적 개입 등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들을 입증해주고 있다.<sup>43)</sup>

식품 첨가물과 환경오염에 대해 고민하던 일본 여성들은 1970년대 초반에 Seikatsu Club이라는 식품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단체는 현재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약 2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그 회원들은 광범위한 정치적·환경친화적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에 기초한(locally-based)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상호 부조, 신뢰, 보살핌, 지역공동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이, 자본주의적 원칙이 아닌 윤리적 경제(moral economy)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이러한 여성 네트워크들은, [현존하는] 여타의 소비-생산-분배 체제들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이다.<sup>44)</sup>

Hilkka Pietila는 핀란드에서의 마을 실천 운동(village action movement)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 이 단체는 시골 마을의 주민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조직이다. 장년층을 위한 운동 센터 건립, 학교와 주간탁아센터 개선, 지역 문화 보존 및 [그 지역의] 예술적 유산들을 기념하는 일 등이 지역 위원회들이 주력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talkoot"이라는 핀란드의 자발적 협동작업 전통은, 제한된 재정적 자원 내에서 필요한 건물을 짓고 다른 일들을

40) Adamson, Lyn and Gina Rey, "Cuba's Cycling Revolution," in Sue Zielinski and Gordon Laird (eds.), *Beyond the Car: Essays on the Auto Culture* (Toronto: Steel Rail Publishing/Transportation Options, 1985), pp. 123-124.

41) Tripp, Aili Mari, "Women's Associations and Networks in Tanzania," in Sheila Rowbotham and Swasti Mitter, *Dignity and Daily Bread: New Forms of Economic Organizing Among Poor Women in the Third World and the First* (London/New York: Routledge, 1994), pp. 139-157.

42) Apffel Marglin, Frederique and Purna Chandra Mishra, "Sacred Groves: Regenerating the Body, the Land, the Community," in Wolfgang Sachs (ed.) *Global Ecology* (Halifax: Fernwood Publishing, 1993), pp. 197-207.

43) Ayyapan, Loreta B. and Teresita G. Oliveros, "Filipino Peasant Women in Defense of Life," in Vandana Shiva (ed.) *Close to Home: Women Reconnect Ecology, Health, and Development Worldwide* (Philadelphia/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4), pp. 113-120.

44) Mies, Maria and Vandana Shiva, *Ecofeminism* (Halifax: Fernwood Publications, 1993), pp. 260-262.

해내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Pietila는 전지구화 경향, 이주, 그리고 무역이 초래한 "인간 존엄성 및 생명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의 붕괴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마을 실천 운동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sup>45)</sup>

Margo Adair와 Sharon Howell은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지역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개괄하고 있다. : 모여서 누비이불을 만들고 그것을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자매단체에 보내는 여성들, 자신들의 독창성으로 파업을 지탱해주고, 자신들의 용기로 시민권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여성들, 효과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정신(spirituality)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말이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의 초점은 정책 연관성 그 자체가 아니라 운동가들의 활동에 있다. 보다 나은 경제를 건설하는 것의 핵심은 이론적 작업과 실천적 작업의 상호작용에 있는 것이다. 미래상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론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것이며, 특정한 사람 및 특정한 장소에 대해 세부적인 데까지 정통해 있는가가 관건이다.<sup>46)</sup>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 이론은 실제적 경험과 지역적 수준에서 얻어진 지식에 의해 하나하나 채워져 왔다.

### III.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이 갖는 지역적·전지구적 의미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한다. :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자들은 가계와 지역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를 구조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파괴적인 거시 경제적 정책방안을 도입하려는 자들에게 지구통째로 넘겨줘 버리고 있는 것인가?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껏해야 어쩔 수 없는 시대착오이고 최악의 경우 가망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뿐인가?

이것은 내가 수많은 동료 학자들에게 들어 왔던 지역 경제에 대한 비판이다. 나는 위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초점을 두고서, 지역 경제의 발전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경제 운동가라면 누구나 전지구적 추세가 지역경제의 출현을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풀뿌리 [운동의] 주도자들은 세계 경제의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 운동가들이 세계화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 오히려 정 반대이다! 그들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세계화의 겹겹이 가려진 틈새들 사이에 있는 것들을 키워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그 결과로 형성될 미시-환경들(micro-environments)은, 세계 경제에의 의존성에 대한 다양한 인간적 규모의 경제 대안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지지해준다. 이들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미약하고 대등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상에 빠져서는 안

45) Pietila, Hilkka, "The Villages in Finland Refuse to Die," in Vithal Rajan (ed.), *Rebuilding Communities: Experiences and Experiments in Europe* (Foxhole, Dartington: Green Books Ltd., 1993), p. 127.

46) 많은 에코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다양성, 어떤 의미에서의 "장소", 그리고 장소 특수적이고 공동체 특수적인 (Carolyn Merchant의 용어를 빌리자면) "협력 유리"의 발전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령 Merchant (1992, 1995), Epstein (1993), Hypatia (1991), Mies and Shiva (1993)를 보라.

된다. 동시에, 앞에서 내가 개괄하려고 시도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균질화에 대한 거부"와 도전의 상을 그려내고 있으며, 이는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자원이다.

대다수의 지역 경제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전지구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에 대한 이론 역시 그것의 전지구적 결과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경험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정확히 그들의 다양성과 차이들로 인해, 지역 경제는 전지구화의 단일화하는 힘에게 눈에 가시이다. 지역 경제 이론이 다루는 것은 생태적 현실들을 존중하고 지역공동체 수준에서의 소규모의 공유된 지식들에서 효율성을 발견해내는 새로운 종류의 경제적 발전이다. 전반적인 세계화의 불가항력에서 기인한 객관화된 [사회적] 비용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역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용들을 최소화하려고 효과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전지구화가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소비를 가속화하는 것에 의존하는 만큼, 그것은 점점 더 단명할 수밖에 없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먼 곳에서 운반되어져 오는 재화들의 무역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운송비용은 비싸질 것이고, 그에 따라 상품의 가격도 비싸질 것이며, 그에 따라 지역적으로 생산된 대용품들이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유해하고 위험한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물들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과 함께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속이나 기타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것들도 그와 유사한 경향을 띠는 것이다. 이미 생산-소비-폐기물처리의 순환 고리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며, 지역 경제적 연계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이용은 소규모의 분산된 환경(settings)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탈중심화는 생태주의적 경제 발전에 적합하다.

자원 소모와 폐기물 처리에서 비롯되는 환경 위기는 지역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역 경제, 그리고 특히 지역적인 환경 관리 전략을 필요로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sup>47)</sup>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 경제는 전지구적인 경제 구조조정이 초래한 사회적 압박들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지구화를 (지역 경제가 없을 때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역 경제 활동이 낳은 "경제적 수익(economic rents)"은, 정의상으로는 공정히 분배되며,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면 세계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 시장에서의 지금과 같은 활동들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지역 경제에서의 활동들에 시선을 돌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경제적 세계화와 전지구적 생태 현실들에 대응하여 지역 공동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것들의 성격과 함축적 의미는 점점 명확해질 것이다. 그들이 세계 경제에의 적응을 의미하든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을 의미하든 간에, 지역공동체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지역공동체 경제의 출현과 그것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다.<sup>48)</sup>

47) Martin O'Connor, *Is Capitalism Sustainable?* 1994.

48) 이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Mies and Shiva, *Ecofeminism*; Sachs, *Global Ecology*; and Cate Sandilands,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Ecofeminism and 'Universal Politics'"*을 참조하라.

#### IV.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과 연구의 필요성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현존하는 전지구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경제는 지금 어떠한가?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은 현재의, 그리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경제 변화를 창출해나가는데 있어서의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우선, 가계에 중심을 두고 경제를 분석하는 관점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및 재생산 노동의 결정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제의 규모와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계 부문과 (무엇보다도) 음식, 주택, 교제, 건강 관리 및 세대간 가족 부양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가계구조의 생활력을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위한 방법이나 하다 못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의 도구들이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경제"의 규모나 건강성에 대해 아무런 도구도 갖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캐나다 통계(Statistics Canada)는 가사 노동(household work)의 가치와 자원고갈에 대한 측정을 캐나다 국민 계정에 덧붙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다른 국가 기관들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sup>49)</sup> Redefining Progress in the United States와 같은 단체들은 국민계정체계(national accounting systems)에 보다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0)</sup>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Marilyn Waring이 십여 년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식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러한 강조로부터 나오는 관련 문제들은, 이제 정책과 연구에 있어서 보다 우선성을 가지게 된다. : 가사노동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누가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그 상대적 가치, 즉 가격은 얼마인가? 그 일은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력한 가계 경제 부문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로,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은 지역공동체를 어떤 맥락, 즉 가족이 "외부적인" 생산 중심의 경제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맥락 속에 위치 지운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공동체 조직과 경제의-생산성, 건강성, 또는 경제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이러한 영역 역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및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sup>51)</sup>

다시 말하자면,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은 양적이기도 하고(지역공동체 경제 부문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질적이기도 하다(그것이 건강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공동체의 조직과 유대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들의 대부분은 명백히 자발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을 돈으로 가치 평가하는 것은 가

49)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0.

50) Cobb, Halstead and Rowe, 1995. 참조.

51) Boswell, 1990.을 보라.

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복잡성들을 고려할 때에만 가능해진다.<sup>52)</sup>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기존 문헌들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sup>53)</sup>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은 세 번째로, 이러한 “외부적”이고 공식적이고 생산지향적인 부문이, 대단히 불안정하며 경기변동에 대해 유동적이고 외부로부터의 경기 파동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복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의 기여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흥미로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경제 부문이 훨씬 덜 이해되어져 왔다.

공적인 노동시장에서만 아니라 가계와 지역 공동체 부문들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 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이 갖는 경제적 함의, 여성과 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 공적 경제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이 갖는 잠재적 이득, 평등임금 즉,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복지, 가족의 수입(family benefits), 사회적 서비스 등과 여성의 노동, 경제적 “효율성”과 복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척도와 인간의 육체적·감정적·사회적 건강성 척도, 그리고 경제적 척도들이 통합되는 것.

요약하자면,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이 기여할 수 있는 몇가지 특수한 영역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

- “Redefining Progress”, ISEW(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그리고 여성의 노동의 가치와 환경 파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여타의 경제적 척도들.
- 실업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이중 착취(double day)”를 줄이며, 경제의 물질적 재처리량을 감소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노동시간 단축안(案).
- 초과노동,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자원고갈 등과 같은 경제적·환경적 “해악들(bads)”에 대한 세금을 늘림으로써 (또는 국가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경제를 합리화하는 것.
- 강력한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국제무역협약들과 정부 정책들을 모든 수준에서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 계획안.
- 지역 수준에서의 서비스 제공(보육, 건강관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 환경개선 등)을 위한 조건의 창출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 환경 및 건강 정책을 위한 경제 원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환경오염 및 인간 건강과 경제학 사이의 장·단기적 관계[에 대한 분석]를 정교화하는 것. 이러한 관계들은 유행암과 기타 생식기 암 등에서 보듯이, 여성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

현재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거나 측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경제”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균형있고 현실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공적 경제만을 다루는

것은 분석을 왜곡시키고 여성의 핵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거의 나타내주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의 패러다임들은 현존하는 권력 및 특권 체제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의문시하는 것은 순수히 학문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여성의 총체적인 경제적 기여와 그것이 지역적·전지구적 생태 환경에 대해 갖는 관련성을 아주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수많은 작업들 - 이론적, 정치적, 실제적 수준들에서의 - 이 요구된다.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또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다루었던 모든 앞선 연구들을 재해석(revisiting)하기 위한 이론적 정당성과 동력을 제공해준다. 이는 공적 경제에서만 아니라 그것[공적 경제]을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가계 및 지역공동체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들을 재사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보적인 사회 연구 및 실천을 위한 자원들이 언제나 제한적이라고 할 때,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우선의 연구과제는 무엇인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며, 경제적 생산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서의 가계의 근본적 중요성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적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구조의 중요성과 지역공동체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이제까지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 V. 결론

공식적인 화폐 경제(money-denominated economy)는 전체 경제 상황의 단지 한 측면일 뿐이며, 인간 및 사회적 재생산과 생태적 재생산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 발 의자의 다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가계 및 지역공동체 도처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 (공적 경제 과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전적 가치를 매기려는 시도 - 혹은 이러한 활동들을 ‘일(work)’이라고 명명하는 것 - 는 하나의 완결적이고 기능적인 전체로서의 경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나 타당성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학문적 연구와 풀뿌리 지역공동체의 조직화하는 정치적인 실천, 그리고 가정에 기반한 토론의 역동적 결합을 통해, 이러한 사상은 “경제”가 사고되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 역으로 이 과정은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하나의 집단으로서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경제학”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지구를 변형시킬 수 있는 엄청난 희망을 담고 있는 일련의 분석 및 경험들에게 하나의 이름을 준 것이다.

■ 참고문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세미나 커뮤니티에서 원본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52) Segal, 1995; Voluntary Action Directorate, 1995; Handy, 1995을 보라.

53)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994.

힐러리에게 암소를

세계화 경제를 넘어 '자급'의 삶으로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툼센

---

이 글은 최근 국내에 《에코페미니즘》의 공저자 중의 한사람으로도 소개된 바 있는 독일의 생태여성주의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마리아 미즈(Maria Mies)가 그 동료 베로니카 벤홀트-툼센(Veronika Bennholdt-Thomsen)과 함께 집필한 새로운 책 Eine Kuh für Hillary: Die Subsistenzperspektive(1997)의 영어판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zed Economy(1999)의 서문을 옮긴 것이다. "Subsistence Perspective"는 성장, 개발, 세계화 경제의 이데올로기의 지배 밑에서 지금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에 필요한 진정하게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근년에 유럽, 특히 독일의 생태운동가들 사이에 관건적인 화두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새로운 개념이 근본적으로 제3세계 풀뿌리 민중의 삶의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열쇠말인 subsistence는 기초적인 생존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잠정적으로 '자급의 삶'으로 번역하였다.

---

1995년 4월 북경에서 '유엔 세계 여성회의'가 열리기 몇달 전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그녀의 방문목적은 방글라데시 시골마을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어온 '그라민은행'(Grameen Bank=풀뿌리 민중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난한 시골마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소액의 사업자금을 부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중에 있는 은행 - 역주)의 사업이 정말 소문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몸소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은 방글라데시에서 농촌여성들의 상황을 놀랄 만큼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클린턴 부인은 정말 이 여성들의 힘이 소액대출 때문에 커졌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라민은행이나 개발지원 기관들에게는 '여성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한 여성이 자기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얼마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힐러리 클린턴은 마이샤하티 마을을 방문하였고, 거기서 그곳 여성들의 상황에 대하여 몇몇 여성들과 회견을 가졌다. 여성들은 대답하였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수입이 있어요." 그들은 얼마간의 '자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암소, 닭, 오리 등이라고 했다.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클린턴 부인은 만족스러웠다. 마이샤하티 마을에서 여성들의 힘은 분명 커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하는 사람이 방글라데시 여성이 되고, 힐러리 자신이 대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되었을 때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질문과 대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아파[자매님], 당신은 암소가 있어요?"

"아뇨, 나는 암소가 없는데요."

"아파, 당신은 자기 소득이 있어요?"

"실은, 전에는 내가 직접 벌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돈버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몇 있나요?"

"딸 하나예요."

"아이들을 더 갖고 싶진 않아요?"

"네, 하나나 둘쯤 더 갖고 싶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딸 첼시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마이샤하티 마을 부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참 안됐네! 힐러리 부인은 암소도 없고, 자기 소득도 없고, 아이도 딸아이 하나뿐이라는군."

방글라데시 농촌여성들의 눈에 힐러리 클린턴은 결코 힘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암소 한마리와 닭 몇마리와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힘이 있다고 느끼는 방글라데시의 농촌여성들과 힐러리 클린턴 사이의 인터뷰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여성들이 어째서 힐러리에 동정심을 느끼는가? 힐러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방글라데시의 농촌여성들은 단지 순진하거나 무지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여성들은 클린턴 부인이 '부유한'나라에서 왔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의 에피소드는 힐러리 클린턴과 방글라데시 마을 부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요약적으로 드러낸다. 이 여성들은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시각은 '밑으로부터의' 관점, 즉 자급의 관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세상을 볼 때, 모든 사물과 관계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특히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 그것은 좋은 삶이 가능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물건이 많아야 되고, 사치품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좋은 생활은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와 세계도처의 부유계층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클린턴 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반구의 부유한 여성들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이다.

아마도 방글라데시 시골에서의 그 회견은 클린턴 부인에게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심중팔구 시골마을 부인들이 공손한 태도로 얼마간의 사업자금을 요청하고 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의 아내인 자신을 우러러보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시골마을 여자들은 힐러리의 '위로부터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인터뷰 동안, 그들은 부와 가난에 대해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입상품으로 가득찬 슈퍼마켓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빈곤과 부와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주었다.

아마도 클린턴 부인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결핍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른다. 자기 나라의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아직 갖고 있는 어떤 것일 것이다. 자부심, 위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 -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우리는 그것이 '자급의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급의 관점은, 스스로의 생명(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며,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의 모태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자급의 관점이다. 우리도 힐러리 클린턴처럼 부유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의 모델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좋은 삶'의 욕구가 초래하는 파괴 - 자연의 파괴, 외국인의 파괴, 민중의 자립과 존엄성의 파괴, 아이들의 미래의 파괴,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의 파괴 - 때문이다. 우리는 항구적인 상품, 서비스, 돈의 성장을 노리는 '위로부터의' 관점으로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궁지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배적인 패러다임과의 근원적인 단절과 새로운 관점, 새로운 비전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자급의 관점의 윤곽을 그려나가려는 노력에 있어서, 방글라데시 농촌여성들은 우리의 스승이 된다. 그들이 힐러리 클린턴과 나눈 대화는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의 모든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생존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부인들에게서 5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 밀으로부터의 관점이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여성의 관점 특히 남반구의 농촌여성들과 가난한 도시여성들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일상생활과 그 정치, 삶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들의 전략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밀으로부터의 관점은, 사회 '꼭대기층'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이미지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그릇된 망상인가를 알려준다. 이러한 망상에서 벗어나옴으로써 우리는 이런 식의 이른바 좋은 삶이라는 것은 오직 소수에게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도 타자 - 자연, 타인, 여성, 아이들의 희생 위에 가능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급의 관점은 돈, 교육, 지위, 특권이 아니라 기초적 생존수단, 즉 한마리의 암소, 몇마리의 닭, 아이들, 땅, 그리고 얼마간의 독립적인 현금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이다.

셋째, 바로 이러한 독립적인 생존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데 대한 깨달음이 마이사하티 마을의 여성들에게 미합중국의 퍼스트레이디를 단지 그들의 '나이 든 자매'로서 대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부심과 위엄과 용기를 부여한 것이다. 그들은 남의 도움으로 빌어먹는, 비굴한 거지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발로 서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배운 네번째의 교훈은 이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엿보이는 정신자세는 《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의 기원》의 끝에서 프레데릭 엥겔스가 언명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배계급에게 좋은 것은 그 지배계급이 속한 사회전체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질문은 그 반대를 가리킨다. 즉, "방글라데시 마을 여성들에게 좋은 것은 전체사회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이고, 성차별이 없고, 비식민주의적이고, 생태적이며, 정의롭고 좋은 사회는 지배계급의 생활양식 - 예컨대, 모든 사람이 별라와 개달락을 소유한 - 을 모델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급에 토대를 둔 기초적 생존양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엥겔스의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기획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결국 붕괴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섯째, 우리는 세계를 '제1'과 '제3' 부분으로 나누는 정신분열 증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여성들도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들과 미합중국의 퍼스트레이디 사이를 갈라놓는 간극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구분과, 이 구분에 따르는 갖가지 차별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힐러리 클린턴은 무엇보다도 '나이 든 자매'이자 한사람의 여성이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삶의 필요와 욕구 - 즉, 자급적 삶의 수단('암소')과 얼마간의 독립적 소득(남편으로부터 독립된)과 아이들 -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이러한 자급의 입장이 그들 자신뿐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마을여성들과 같은 의견이다. '자급의 관점'은 이른바 개발도상국들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른바 선진국들과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관점일 수밖에 없다. 이원적으로, 위계적으로 나뉘어진 두개의 경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물론 이른바 '경제'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도전한다. 만약 '경제'가 산업의 끊임없는 팽창, 상품의 생산 및 소비, 자본축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목표로 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제'는 자급의 관점과 양립할 수 없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이 시스템은 경제를 조직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모델로서 장려되어왔다. 우리는 흔히, "대안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부재'의 신드롬에 감염되기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이 책에서 새로운 '경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이것은 여성과 타인들과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식민화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경제시스템보다도 더 오래되고 동시에 더 젊은 경제 개념이다. 이 새로운 경제는 생명과 이 지상에서의 삶의 산출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경제 및 사회활동의 중심에 두지, 돈이라는 죽은 물질의 끝없는 축적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자급'이라는 개념은 보통 가난과 후진성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자급이 의미하는 것은 생존의 가장자리에서의 고된 노동과 삶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행복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의 것 - 일, 문화, 자기자신의 능력 - 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멈추고, 또 좋은 삶이란 '꼭대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자기자신의 것에 대한 이러한 과소평가의 습관은 강요된 식민화와 천격화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식민화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왔다.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낮게 보는 이러한 습관은 나아가서, 우리가 '따라잡기 개발'과 '따라잡기 소비주의'라고 부르는 또하나의 환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환상은 사회적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식민화된 사람들도 때가 되면 꼭대기의 사람들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뒷받침되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따라잡기' 경제모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화되고, 계속 팽창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경제의 밑바닥으로부터 보는 관점은,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절망감을 낳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으로 좋은 삶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방글라데시와 기타 다른 남반구 국가들의 농촌여성들은 백악관이나 그밖의 다른 부유한 세계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한 여성들이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등에서 억압자들이 떨어져나가는 일이다. 자기 사회내부의 가부장적

남성들, 다국적기업들,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이러한 국제 자본의 후견인들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자국내 관료들이 바로 그러한 억압자들이다.

우리의 자립적인 삶에 필요한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내부와 둘레에 있는 자연과의 협력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 힘은 돈이라는 죽은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상호의존 속에 있지, 경쟁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인 행동에 있지, 수동적인 소비생활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그러움과 함께 일하는 것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지,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와 시기심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이 힘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우리의 친척이라는 우리 자신의 깨달음 속에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지배적 경제 시스템이 결코 어떤 불변의 자연법칙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세기 전 사람들에게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대안부재'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더러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대안이 결코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급의 관점이야말로 대안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오늘날 이른바 경제의 세계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새롭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필수요건을 구성해왔던 식민화와 '원시적 축적'의 불가피한 연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계속되어온 식민화와 그 파장은 북반구의 산업국가들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은 북반구에 있어서의 점증하는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화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 경제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갑자기, 북반구 산업국가들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방글라데시의 농촌여성들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아직 커다란 양적인 간극이 있지만, 그러나 구조적으로 볼 때 북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은 남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과 더이상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갑작스런 깨달음 앞에서, 대부분의 북반구 사람들은 사실을 부정하려 들거나 아니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경제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은 늘 그들에게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북반구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따라잡기 개발을 통해서, 남반구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따라잡기 개발이란 것이 하나의 신화일 뿐이며, 한쪽의 부와 진보, 다른쪽의 빈곤과 퇴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둘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배적인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게 결국 대부분 허풍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갈수록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현실에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북반구에서조차도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더 빈곤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어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 경제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돈과 자본이 안전한 삶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못된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토대는, 최근의 태일랜드에서처럼,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 있고, 은행가라 할지라도 일시에 거지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금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앞에 블랙홀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경제의 붕괴는 세상의 종말, 물질적 안전의 끝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의 여성들과 달리, 그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암소 한마리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방글라데시 마을여성들 -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을 대변하는 - 의 시각으로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종말론적 절망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 그런 절망감은

북반구의 소수 옹석반이들의 사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절망감은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특히 그들이 누려온 특권이 약탈에 기초해 있으며, 모두에게 좋은 삶이란 - 즉, 자급적인 삶 - 그러한 특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급의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또한 외부나 위로부터의 힘으로부터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진 힘을 의식하고, 그에 따라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자급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 생태적, 경제적, 여성주의적, 반(反)식민주의적 관점에서 - 또한 이 새로운 관점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도처에서 시작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새로운 관점이 언젠가는 '모든' 기본적 사회관계 - 남녀간, 세대간, 도농간, 여러 계급들 및 사람들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 를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모든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중심적 관심사가 죽어있는 돈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제 2주,

## 자본주의와 여성노동

• 『가부장제 이론』 실비아 월비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996

제2장 유급 고용

• 『경계없는 페미니즘』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 여이연 / 2005

6. 여성 노동자와 연대의 정치학

•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마츠이 아요리 / 들린 아침 / 2005

서론 / 제1장 인신매매되는 여성들 / 제3장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

•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김현미 / 또하나의 문화 / 2005

3장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 제 2 장

## 유급 고용

## 서 론

저자들은 고용에서 나타나는 성별 관계를 다룰 때 주로 세 가지 경험적인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덜 버는가? 왜 여자들은 남자보다 보수가 적은 일에 종사하는가? 왜 여자들은 남자와 다른 일을 하나?

이 장에서는 먼저 봉급, 일의 유형과 범위에서 현재의 남녀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된 시각들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6년 여성은 시간당 남성 임금의 74%를 받는다. 주당 총 평균 소득으로 보면, 이 격차는 더 커져서 여성은 남성 임금의 66%만을 받는다(인소독 조사, 1986). 이같이 격차가 커진 것은 남자들의 노동 시간이 길고, 고대 근무나 시간외 수당의 가동성이 더 큼을 반영한다. 시간제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불균형은 더 커져서, 이들은 1986년 종일제 여성 근로자 임금의 76%만 받는다(인소독 조사, 1986).

1988년 여성은 유급 노동력의 46%를 구성했다(『고용신문』, 1989년 5월, 표 2.1). 이 비율은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

러나 19세기 중반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전체 여성수 중 고용된 여성 또는 고용되지 않은 여성의 %)은 1861년에도 1971년만큼 높아 43%였음을 알게 된다(Hakim, 1980).

노동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 실업률과 거의 같다. 1984년에서 1986년 사이에 여성의 10%, 남성의 11%가 실업이었다(『고용신문』, 1988년 3월:172). 이는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서 나타난 여성 실업률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정부 통계는 실업 보편을 청구하고 있는 실직자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남편이 청구해야만 실업 보편을 타도록 허용되는 많은 기존 여성들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고용은 1965년 상승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면 여성 고용 특히 시간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취업한 여성 중 1986년에는 44%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다(표 2.1 참조).

표 2.1 고용 추세, 영국, 1961-88

| 피 고용 인      | 1961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88   |
|-------------|--------|--------|--------|--------|--------|--------|--------|
| 남 자         | 14,202 | 14,551 | 13,424 | 13,097 | 12,278 | 11,643 | 11,978 |
| 여 자         | 7,586  | 8,236  | 8,224  | 8,951  | 9,108  | 9,462  | 10,096 |
| 여자 비율(%)    | 34.8   | 36.1   | 38.0   | 40.6   | 42.6   | 44.8   | 45.7   |
| 여자 중 종일제 근무 |        |        | 25.3   | 24.3   | 24.7   | 25.2   | 26.2   |
| 여자 비율(%)    |        |        |        |        |        |        |        |
| 여자 중 시간제 근무 |        |        | 33.5   | 40.1   | 41.9   | 43.8   | 42.8   |
| 여자 비율(%)    |        |        |        |        |        |        |        |

출처: 1961년에서 83년까지는 『고용신문』, 1987년 2월 표 1.1에서, 1986년은 1987년 8월, 표 1.1에서, 1988년은 1989년 5월 표 1.1에서 계산함.

각 숫자는 6월에 해당.

남성과 여성은 전형적으로 같은 직업이나 산업에서 일하지 않는다. 노동부 인구 통계청 1980년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63%가 다른 여성들하고만 일했고, 기존 남성 중 81%는 다른 남성들하고만 일했

다(Martin & Roberts, 1984: 27-8). 여성들은 가장 낮은 등급의 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수직적 분리), 다른 영역의 일에 집중되어 있다(수평적 분리, Hakim, 1979). 해킴(Hakim, 1979, 1981)은 직업 분리는 국제적 현상이며, 영국에서는 특히 놀랄 만큼 항상 그대로여서 1901년에서 1977년 사이에 아주 조금만 감소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해킴의 지표(index)는 직업 연구에 기반한다. 그러나 수직적 분리를 포착하는 데는 사회 경제적 집단(Socio-Economic Groups: SEGs)을 쓰고, 수평적 분리를 포착하는 데 표준 산업 분류의 최소 분류 항목(Minimum List Headings, MLH), 즉 산업 분류를 쓰면, 직업 분리의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가 분리될 수 있다. 영국에서 1971년에서 1981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회 경제적 고위 집단들에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대부분의 사회 경제적 하위 집단들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직적 분리의 감소를 나타내 준다(Bagguley & Walby, 1988, 그리고 표 2.2와 2.3 참조). 같은

표 2.2 성별 사회 경제적 집단, 1981

| 사회 경제적 집단  | 비율(%) |    |
|------------|-------|----|
|            | 남성    | 여성 |
| 고용주와 경영인   | 78    | 22 |
| 전문직        | 89    | 11 |
| 준전문직       | 44    | 56 |
| 사무 관리직     | 52    | 48 |
| 하위 사무직     | 29    | 71 |
| 개인 서비스직    | 13    | 87 |
| 숙련 육체 노동직  | 90    | 10 |
| 반숙련 육체 노동직 | 68    | 32 |
| 미숙련 육체 노동직 | 58    | 42 |
| 모든 피고용인    | 61    | 39 |

출처: 『인구통계』, 1981(SEGs 16과 17은 제외됨).

표 2.4 성별 수평적 분리, 영국, 1971-81

|    | 100% |      |       | 90+% |       |       | 80+%  |       |      | 70+% |      |      |
|----|------|------|-------|------|-------|-------|-------|-------|------|------|------|------|
|    | 1971 | 1981 | 1971  | 1981 | 1971  | 1981  | 1971  | 1981  | 1971 | 1971 | 1981 | 1981 |
| 남성 | 0    | 0    | 20.61 | 7.41 | 42.64 | 35.71 | 60.32 | 54.6  |      |      |      |      |
| 여성 | 0    | 0    | 0     | 0    | 2.39  | 2.10  | 15.08 | 23.26 |      |      |      |      |

출처: Bagguley & Walby, 1988.

여성들 간에도 인종에 따라 경제 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고찰될 것이다. 고용에 나타나는 성별 관계의 유형은 영국의 경우 아주 독특하다. 영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 중 두 번째로 높다. 영국은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더 낮은 유일한 EEC 국가이다. 영국은 여성 중 시간제 근무자의 비율이 EEC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표 2.5 참조). 남녀간의 임금 격차의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다. 서구 국가들 중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가장 적고, 미국에서 가장 크며, 영국을 포함한 나머지 서구 유럽 국가들은 그 중간이다.

표 2.5 여성의 고용, EEC, 1984

| EEC 국가들               | 서독   | 프랑스  | 이탈리아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영국   | 아일랜드 | 덴마크  | 그리스  |
|-----------------------|------|------|------|------|-------|------|------|------|------|
|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 40.1 | 45.6 | 32.6 | 35.5 | 32.7  | 46.3 | 32.7 | 58.4 | 33.4 |
| 시간제 근무 여성 비율          | 28.6 | 21.1 | 10.2 | 20.3 | 14.8  | 44.3 | 13.9 | 36.7 | 9.0  |
| 실업률                   | 6.7  | 9.5  | 9.8  | 11.9 | 2.7   | 10.9 | 16.5 | 8.9  | 8.1  |
| 남성 실업률에 대한 여성 실업률의 비율 | 1.6  | 1.6  | 2.4  | 2.3  | 2.0   | 0.9  | 1.1  | 1.3  | 2.0  |

출처: EEC 노동력 조사 1984년 표 T03, T18, T36에서 계산함. 네덜란드는 1984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표 2.3 성별 수직적 분리의 변화, 영국, 1871-81

| 사회 경제적 집단 | 비율(%)  |        |
|-----------|--------|--------|
|           | 남자     | 여자     |
| 1         | 41.88  | 101.98 |
| 2         | 10.08  | 35.10  |
| 3         | 2.78   | 22.99  |
| 4         | 6.33   | 12.59  |
| 5         | 28.21  | 40.45  |
| 6         | -22.28 | 8.17   |
| 7         | 11.49  | 5.19   |
| 8         | -0.75  | 19.85  |
| 9         | -14.34 | -28.58 |
| 10        | 3.63   | -10.21 |
| 11        | -25.87 | -0.33  |
| 12        | 16.93  | 2.51   |
| 13        | -13.68 | -18.19 |
| 14        | -21.04 | -35.23 |
| 15        | -20.26 | -12.59 |
| 16        | -1.71  | 50.04  |
| 17        | 98.21  | 9.46   |

출처: Bagguley & Walby, 1988.

기간 중에 수평적 분리는 남녀에게 반대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력의 90%, 80%, 70%가 남성인 산업들(MLHs)에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은 감소했고, 반면 노동력의 70%가 여성인 산업들(MLHs)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표 2.4 참조). 이 같은 외견상의 모순은 직업 분리의 다양한 차원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1971년에서 81년 사이에 수직적 분리는 감소되었고, 남성의 극단적인 수평적 분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의 가벼운 수평적 분리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일을 할 기회 및 임금 측면에서 남녀간에는 상당한 불평등이 있다. 인종 집단에 따라 여성들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불평등은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 간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유급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 왔지만, 지난 십년간 임금 격차는 끈질기게도 남아 있다.

## 현재의 설명들

고용에서의 성별 구분에 대한 현재의 설명은 네 가지 주요 학파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학적·사회학적 기능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분석, 그리고 이중 체계 이론이 그것이다. 임금 노동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 문헌은 아주 적으며, 반면 경제적 기능주의 문헌은 상당히 많이 많다.

## 경제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기능주의

임금 노동에 대한 기능주의적 분석은 인적 자본 학파에 속하는 노동 경제학자들의 저작 속에 강하게 대표되고 있다. 남녀가 집안일에 쓰는 시간을 다르게 결정한 결과 여자들은 남자보다 기술과 노동 시장 경험에 적고, 자격 요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임금을 덜 받는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Becker, 1965; Mincer, 1962, 1966; Mincer & Polachek, 1974 참조). 한 사람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사람들이 고용주에게 팔 수 있는 기술과 비슷한 개념이나, 여기에는 훈련과 자격 요건만이 아니라 직업 경험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술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은 고령자에 대해 자신이 갖는 가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고, 즉 인적 자본

이 많을수록 그리고 일하는 데 쓴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임금은 더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람들이 고용주에 대해 가지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완벽한 노동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인적 자본론은 여성들은 가족내의 지위 때문에 남성보다 인적 자본을 덜 갖는다고 주장한다. 자녀를 돌보는(남편과 나이 든 부모 또한 돌보는) 여성의 일은 그들이 남자만큼 높은 자격 요건과 오랜 노동 경험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가정일에 보낸 실제 시간 때문이며, 이로 인해 여성은 몇 년 동안 노동 시장을 떠나게 된다. 집안일을 한다고 기대된다는 것은 자격 요건을 획득하는 데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은 자격 요건을 쉼터를 시간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론자들은 노동 시장의 결과가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암시한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의사결정의 단위이며, 가구 안에 우연히 살게 되는 개별 개인들이 아니라 가구의 노동 전략이 존재한다고까지 가정되고 있다. 인적 자본론자들은 어른 중 한 사람은 집안일에 전념하고, 한 사람은 임금 노동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가구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가구 노동은 '실제적인 일'로 간주되고, 어느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사람들이 결정한다. 두 배우자가 양쪽 일을 약간씩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전문적인 분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주부, 또는 전일제 임금 노동자가 될 거라고 일단 결정되면, 두자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 이론은 결과적으로 남녀의 임금이 차이 나고, 남자가 유급 노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차이 나는 것을 예언한다. 여성들은 주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적 자본을 덜 획득하고, 따라서 임금을 덜 받고, 더 나아가서 직업 활동에 시간을 덜 쓴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시점은 임금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임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오직 두 연구에서만 노동자의 특징들이 남녀간 임금 격차의 1/5 이상을 설명했으며(Mincer & Polachek, 1974과 Corcoran & Duncan, 1979),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특징들은 임금 차이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함이 발견되었다(Treiman & Hartmann, 1981:19).

이 발견의 중요성은 과장하기 어렵다. 이는 여성의 낮은 임금은 기술이 적고 노동 시장 경험이 적은 결과라는 경제학·사회학의 정설과 모순된다. 트라이만과 하트만은 임금 격차가 생기는 주요 근원은 성에 의한 직업 분리라고 주장한다.

폴라첵(Solomon Polachek)은 인적 자본론은 직업 분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이론을 구해 내려고 시도했다. 여성은 적은 기술로도 가장 좋은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노동을 중단할 때에도 가장 덜 불리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그는 제안한다. 여성의 직업은 남자보다 기술이 덜 요구되고, 경력의 중단에도 덜 불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잉글랜드(England, 1982, 1984)는 경험적 증거가 폴라첵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할 때 여성 소득의 감소는 '남성'적 직업이나 '여성'적 직업이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자녀 양육 때문에 노동 시장을 떠난 기간에 대해 덜 심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성적 직업을 선택했다고 주장될 수 없다.

인적 자본론의 더 이론적인 문제는 이 이론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그들의 가치에 맞게 임금을 주는 완벽한 노동 시장의 가정에 의존하는 점이다. 이는 기능주의적 계층 이론이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은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맞먹는다. 이 가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되었다. 특정한 직업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숙련되기를 요구하는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

금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이 집안일 대신 유급 노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는 임금이 떨어지는 불경기에는 여성들은 노동 시장을 떠나 가구 내의 유익한 활동으로 돌아오기 쉽고, 호황기에는 노동 시장에 진입할 것임을 의미한다.

인적 자본론은 현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회학의 기능주의 이론학과파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넘어가지만, 논의의 본질적인 요소와 구조는 동일하다.

파슨스의 기능주의(Parsons & Bales, 1956)도 여성이 유급 노동에 덜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적인 위치가 가족에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파슨스는 남자는 외부 지향적인 '도구적 역할'을 맡는다고 보고, 가족 내의 여성의 지위를 '표현적 역할'로 개념화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구분은 권력의 분화와 불평등으로서 아니라 가족 및 전체로서의 사회에 이득이 되는 분화로서 간주된다. 인적 자본론과 파슨스의 기능주의는 직업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가족 내의 여성 지위의 결과로서 설명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이나 전체 사회 모두에 기능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동일한 논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노동 전략이라기보다는 가구의 노동 전략이라는 관점은 인적 자본론과 파슨스 이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성과 노동에 관한 많은 사회학적 분석들의 공통된 특징이다(예를 들어 Pahl, R.E., 1984 참조). 인적 자본론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 수준에서 할 수 있다. 첫째, 이론이 여성의 고용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가정들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인적 자본론은 유급 노동에서의 성별 관계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 왔다. 트라이만과 하트만(Treiman & Hartmann, 1981)이 미국 국립 조사 위원회를 위해 수행한 남녀간의 임금 격차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에는 저명한 계량 경제학자들이 인적 자본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경험적 증거에 관한

나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강한 권력을 가진 노동자들은 덜 강력한 노동자들보다 자신의 직업이 고도로 숙련된 것으로 불리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콕번(Cockburn, 1983)은 인쇄공들이 작업의 기술적 측면이 상당히 축소되어 원고 타자수의 일만큼 단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합의 강력한 힘 때문에 어떻게 그들 직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필립스와 테일러(Phillips & Taylor, 1980)가 보여 주었듯이, 어떤 직업을 숙련된 직업으로 부르게끔 하는 이같은 능력의 차이에는 성의 측면이 있다. 왜냐 하면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보다 전형적으로 덜 강력하며, 자신의 일이 숙련된 일이라는 정의의 고용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남성 노동자들보다 더 적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오랜 기간의 훈련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숙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실을 서열이나 봉급의 면에서 인정받게 하는 사회적 의미에서는 숙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성의 기술 또는 인적 자본은 남자의 경우보다 인정받지 못한 채 지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남녀 노동자 간에는 권력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인적 자본과 임금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접근 방법에는 증거가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문제와 노동 시장과 기술의 성격에 대한 가정이라는 이론적 문제 둘 다가 있음을 보게 된다. 사실상 인적 자본론이 경험적 수준에서 실패한 근거에는 이론적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남성과 여성에게 노동 시장을 불평등하게 구조화시키는 제도화된 권력 관계를 간과한 것이 인적 자본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회학 이론들이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직업에서의 여성 지위를 남성 지위와 차별

화시키는 소규모 과정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중 많은 집권, 특히 역할 분선은 남녀의 문화적 구분이라는 더 넓은 관념에 의존하며, 이를 배 경막으로 이용한다. 가족에 대한 구조 기능론적 분석은 남성과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이중 역할, 그리고 직업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소규모 분석들을 고무시켰다. 어머니인 동시에 직업인으로서는 여성이 수행하는 이중 역할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접근법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 주고 있다. 미르달과 클라인(Myrdal & Klein, 1970)은 시간과 노동에 대한 갈등적 요구에 사로잡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성의 딜레마와 문제를 자세하게 포착하였는데, 그들은 이러한 역할을 만들어 내는 거시적인 구조를 은연중에 이해하게 해 주는 파슨스의 이론들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다. 이처럼 더 넓은 이론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의 강점이 된다. 동시에 이는 물질적 수준의 분석을 회생하는 대신 가치를 강조하고, 직장을 가진 기존 여성에게 이중 노동의 부담을 맡기는 권력과 같은 문제 대신에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점이 되기도 했다.

성별 노동 분업을 주제로 택한, 이 분야의 가장 내용이 풍부한 최근 문헌은 아마도 캔터(Kanter, 1977)의 저작인데, 그녀는 기업에서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이것이 일어나는 그럴 듯한 기제를 기술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조직체의 상층부에 도달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덜 성공하게끔 만드는 문화적 압력과 조직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적 특징과 미시 구조적인 특징들이 설득력 있게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 캔터는 어떻게 경영 윤리가 주로 남성적 윤리인지를 그리고 직업 위계의 각 자리들에 부여된 이념적 관념이 어떻게 성에 따라 다르며,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가까이 가려 할 때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문화의 일면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의 일상적 효과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소집단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자 동료들 및 후원자

급과 낮은 노동 시장 참여는 자본-노동 관계에 의해 결정적으로 모 양지어진다. 여성은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노동자 범주로 여겨지며, 이들에 대한 착취는 고용주들에게 이득이 된다. 비록 이 학파 중 일부 집단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 지위를 노동 계급의 실패라기보다는 성취로 보고 있긴 하다.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에 대한 설명과 이것이 계급 관계에 대해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계급 분석 내부에도 커다란 다양성이 있다. 나는 네 가지 이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브레이버맨의 이론, 둘째는 순환적 예비군 이론, 셋째는 가족 임금 논쟁, 넷째는 마르크스주의 분석론이다.

#### 브레이버맨

브레이버맨(1974)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일반적 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여기에다 성별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현대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직무의 점진적인 탈숙련화가 이루어지며, 여성이 이러한 새로운 덜 숙련된 직무를 차지하게 된다. 둘째, 집안일이 공장으로 옮겨가게 되며 따라 가정에서 해야 되는 노동량이 감소되어 여성을 임금 노동으로 하도록 방출한다.

탈숙련화는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고용주의 노력의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브레이버맨은 자본과 노동 간의 구조적 갈등 모델을 갖고 있다. 탈숙련화는 작업의 구상을 그 실행과 분리시킴으로써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를 숙련 노동자로부터 자본가로 이동시키려고 고안된 것이다. 또한 탈숙련화는 비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더 단순한 작업에 더싼 노동의 고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같은 더싼 노동력은 여성이다.

논의의 두 번째 부분은 기구와 시장 간의 변화하는 관계에 관한 것

의 연결망은 기업 내의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접촉에서 여성을 배제시키게끔 작용한다. 그녀는 승진 사다리의 구조가 어떻게 남성 다수에 게 이득을 주는가를 증명한다. 그녀는 성공한 여성 역할 모델이 없고, 그 결과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하리라는 기대가 여성의 심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효과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것들은 한 조직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모두 적절하고 잘못된 분석이지만, 이는 성별 관계 전반에 대한 이론은 제쳐 놓더라도, 성별 분업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분석은 불평등한 분업의 기본적인 원인과 정면 대결하지 않는다. 즉 왜 여성이 주로 부담을 지어야 하는 가족 내 분업이 존재하는가, 왜 남자는 직장에서 우선적으로 다수 집단이 되는가? 왜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문화가 있어야만 하며, 그래서 우리는 왜 경영에 대한 남성적 윤리를 말할 수 있는가 동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녀의 분석은 더 큰 사회에서의 성 불평등 구조를 전제한다. 그녀는 성 불평등 구조가 회사 기업체의 구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이는 어떻게 이것이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캔터의 연구는 그 자체로서 탁월한 분석이긴 하지만 성별 분업이나 일반적인 성별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은 아니다.

캔터의 저작은 사회라는 더 큰 틀에 의지해서 직장 내에서 남녀가 수행하는 문화적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복합적이고 세련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 관념, 그리고 기대에 대한 강조는 권력과 투쟁이라는 거시 구조의 분석을 회생시킨 셈이다.

####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분석

마르크스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고용의 유형은 자본주의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설명한다. 여성의 낮은 임

이다. 브레이버맨은 과거에는 집에서 직접 생산하였을 물건들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걸로 집안일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외부와 가공 식품은 가내 생산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생산력에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의 예이다. 이것이 여성을 임금 노동으로 방출시킨다고 여겨진다.

나란한 이 두 과정의 결과로 가사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여성들은 사무실과 공장에서 새로운 탈숙련화된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율은 올라간다. 동시에 남성들은 숙련 노동에서 추방되고 실업자가 되거나 일찍 은퇴함에 따라 남성의 노동 시장 참가율은 떨어진다. 브레이버맨은 유급 노동 인구에서 남녀 비율이 같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브레이버맨의 도발적이고 강력한 논의의 두 측면은 문제를 안고 있다. 브레이버맨이 모든 고용주들이 그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한 관리 통제 형태는 사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형태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였다(Elger, 1979; Friedman, 1977; Wood, 1982). 따라서 것처럼 불가피한 탈숙련화의 경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부가 집안일에 쓰는 시간 양의 감소에 대한 브레이버맨의 설명은 주부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이처럼 감소되지 않았다는 몇 년간에 걸친 생활 시간 조사 연구(time budgets)에서 나온 증거와 모순된다(Bose, 1979; Cowan, 1983; Vaneek, 1980). 그러나 전업 주부인 여성의 비율이 그 자체로서 줄어들고 있고(위의 표 2.1 참조), 직장 일도 하는 여성은 전업 주부보다 집안일에 시간을 덜 쓴다는 사실(Pahl, R.E., 1984)은 주목되어야 한다. 경험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문헌 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 예비군 이론

브레이버맨은 여성에 대해 장기적인 노동 예비군이라는 개념을 가

지고 있어서, 이들은 자본주의가 발전됨으로써 고용되게 되었다고 본다.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여성을 노동 예비군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를 단기적인 혹은 순환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 자신은 여성의 고용을 유의미한 정도까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산업 예비군의 상이한 형태들을 확인하였고, 산업 예비군이 자본 축적에 중대하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예비군의 기능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때에 노동자로 하여금 임금과 고용 조건에 대해 협상할 능력을 차단하는 데에 있다(Marx, 1954). 이 예비군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유동적 예비군, 잠재적 예비군, 또는 정책적 예비군 등이다. 유동적 예비군은 자본주의적 기업에 의해 고용되었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잠재적 예비군은 과거에 자본주의적 기업에 고용되지 않았으나 해당 경제 분야가 변화된 결과로 쓸 수 있게 된 사람들, 예를 들면 불완전 고용된 농업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정책적 예비군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고용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나중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잠재적 예비군의 관념은 기존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치(Beechey, 1977, 1978)는 그녀의 초기 연구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여성에게 적용하여 여성들은 경기가 활성화되어 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 직장으로 끌어내질 수 있고, 경제적 불황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동적 예비군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존 여성은 고용자가 더 이상 그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어디든 갈 때가 있고, 무엇이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들은 생산 조건이 변화에 따라 생산에 투입될 수 있고, 폐기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노동 인구를 제공한다.... 기존 여성은 그들 자신만의 세계, 가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에서 해고될 때에는 그곳으로 사라질 수 있다(Beechey, 1977: 57).

만, 유급 고용된 여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표 2.1(이 책 49 쪽)은 남자들의 고용 기회는 1960년 중반에 절정을 이룬 이후 줄어든 반면, 여성의 고용 기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문제들을 통해 이론을 구해 내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밀크맨(Milkman, 1976)은 예비군 효과는 성별 직업 분리 효과에 의해 단지 가리워져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실업으로 가장 최악의 타격을 받은 부문은 압도적으로 남자를 많이 고용한 부문이었고, 반면 가장 영향을 덜 받았던 부문에서는 여자들이 발견되었음을 기술한다. 남자는 제조업에 집중되고, 여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고용상의 남녀 분리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을 실직으로부터 보호했다.

밀크맨이 확인한 상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예비군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러한 분석은 해당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왜 여성은 가장 회복력이 있는 경제 영역에 집중되는가? 왜 나머지 인자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대체하지 않았는가? 짧게 말하자면, 직업 분리는 고용에서 성별 관계 유형의 중심 특징이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비군 이론가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 남녀의 상대적 지위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 가족 임금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 중 처음 두 가지 해석은, 여성은 노동 시장 내에 주변적인,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이론인 가족 임금에 대한 마르크스적인 설명에서 험프리스(Humphries, 1977)는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재한 것은 노동 계급이 가족 임금을 얻기 위해 자본의 반대편에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 주제에 관한 다른 마르크스주의 저자들과 공통적으로 그녀는 여성 고용은 자본과

그러나 더 최근에 비치는 예비군 개념의 유용성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Beechey & Perkins, 1987).

브뤼겔(Bruegel, 1979)은 이 분석을 최근 영국의 경험에 대한 고찰로까지 확대하여, 특히 시간제 노동자들은 노동 예비군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전기 공학 산업의 전체 고용보다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수가 어떻게 무역 주기에 따라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 줄어드는가를 보여 준다.

세계 대전들 기간 동안에도 이를 지지하는 몇몇 증거가 있는데, 이때 여성들은 특히 군수 공장에서 일하도록 충원되었고, 끝났을 때에는 '돌려보내졌다'(Braybon, 1981). 더 나아가서 실직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시간제 근무자를 먼저 해고하는 관습(1970년대 말 이것이 불법적인 차별로 선언되기까지)과 '가장 마지막으로 고용되고 가장 먼저 해고되는' 관습은 경제 진축의 시기에 여성이 직장을 더 쉽게 그만두게 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ruegel, 1979; MacKay et al., 1971).

그러나 이 이론에는 약간의 심각한 이론적·경험적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이론은 약간의 내적 모순을 갖고 있다. 남자보다 먼저 여자가 일자리를 잃는 과정을 결정짓는 것이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본이 자신의 이해에 반대되는 일을 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그만두게 하는 것이 직접 관련되는 고용주의 이익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기제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둘째, 경험적 증거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미국의 1930년대 공황(Milkman, 1976)에서나, 서구 세계 전역의 1970년대 중반의 불경기(OECD, 1976)에서나, 최근 영국의 경기 후퇴(Walby, 1989)에 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직장을 떠나지 않았다. 사실상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심한 경기 후퇴 동안에는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노동의 관계에 의해 결정적으로 구조지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의 자리는 전업 주부이며, 따라서 유급 고용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여성에게 불리하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노동 계급을 위한 승리라고 여긴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풀러난 것은 어린아이·병자와 노인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보장함으로써 가족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하고, 노동 시장에 대한 노동 공급을 통제 가능케 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임금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또한 노동 계급의 연대감을 원조하도록 한다고 험프리스는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에게 가족 임금을 주게 하려는 조직화된 노동 계급의 성공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험프리스의 논의는 남녀로 나뉜 노동 계급 내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바렛과 매킨토시(Barrett & McIntosh, 1980)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더 나아가서 비판자들은 소수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 임금은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위 가족 임금을 받은 많은 남성들은 부인이나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으며, 가족 임금을 받지 않는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먹여 살린다. 가족 임금은 현실이라기보다는 남성의 더 높은 임금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 마르크스주의적 노동 시장 분절론

위의 세 가지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들은 노동 시장, 그 자체 내의 분할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적 이론은 시장보다는 생산에 초점을 맞추며, 시장은 배부주의적 분석과 연관된다. 그러나 노동 시장 그 자체 내의 인종적·성적 구분의 중요성은 마르크스주의적 노동 시장 분절론을 시도하게끔 하였다. 에드워즈, 고든과 라이히의 여러 공동 저자 혹은 단독 저

작들은 노동 시장 분절은 자본과 노동 간의 투쟁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Edwards, Gordon & Reich, 1975; Edwards, R., 1979; Gordon, D.M., 1972). 본질적으로 고용주들은 분할과 지배 전략의 일부로 노동 시장을 분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프롤레타리아의 동질화 그리고 자본의 요구에 집합적으로 저항하는 능력을 막는다. 이러한 분절은 자본의 불가피한 반응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자신의 노동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하나씩 실험해 보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성별 아니라 인종에 근거한 기존의 구분이 고용주에 의해 이러한 분절 전략에 사용된다.

이 분석의 문제점은 다음의 두 원인에서 생겨난다. 첫째, 이러한 인종적·성적 구분이 어디서 오느냐의 핵심 문제는 설명되지 않아서, 설명 가능한데 큰 구멍이 남아 있다. 둘째, 분절은 192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 한정된다는 시기 설정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인종적·성적 분리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에 의한 분절은 자본주의에 선행하므로(Hartmann, 1979; Middleton, C., 1988) 자본주의는 그 원인으로 생각될 수 없다. 이 설명은 직장 내의 사회 관계 분석에서 직업 분리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왜 직업 분리가 성별 형태를 띠는가에 대한 설명은 불완전하다.

직장에서의 성별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설명들은 이 관계를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 속으로 맥락짓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이유로 궁극적으로는 모두 실패한다. 즉 자본-노동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불평등의 하나의 독립된 근원으로 성을 이론화하려는 것을 회색시키게 된다.

###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유급 고용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써 왔으

며, 그들의 경험적 연구의 초점은 성별과 폭력이다. 이 주제에 대해 쓸 때는, 폭력과 성성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권력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함께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희롱과 같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노동 시장 내의 여성 취업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예를 들어 매किन(1979)을 보라].

성희롱은 다양하게 정의되나,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구애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접촉, 외설적인 언사, 집적거림, 추파를 던짐, 폭행, 강간 시도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페미니즘 분석들은 성희롱을 정의할 때, 여성들은 이같은 유혹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Stanko, 1985 참조).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정의는 보통 이러한 행동의 여성의 근로 조건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즉 남자는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성차별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성희롱에 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 매किन(1979)의 저작들은 성희롱은 법적 의미에서 성차별이 된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매किन은 다른 곳에서(1982) 여성은 남성을 위한 성성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성은 페미니즘 분석에 중심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희롱에 관한 그녀의 저작에서 그녀는 이 주장을 직장에서는 간신히 유지한다. 이 분석의 문제점은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어떤 직업에 있으며,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임금을 덜 받는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며, 심지어 설명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스벤코(1988)는 성희롱이 직업 분리에 대해 갖는 의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차지하는 직업 영역에 있는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고용된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성희롱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나는 이 현상을 성희롱은 더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형태의 통제일 뿐 아니라, 여성이 특정 직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급진적 페미니즘에 입각한 성폭력과 분석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고용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는 데는 단지 부분적인 기여만을 할 뿐이다.

### 이중 체계 이론

계급적 시각을 사용하여 고용을 분석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성별 관계에 대한 이론화가 결여되므로 한계가 매우 크다. 이중 체계 이론은 계급 분석과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도입된 가부장제의 이론화를 결합하고자 시도한다. 이 이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두 체계가 성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분석적으로 필요하다고 가정한다(Cockburn, 1983, 1985; Hartmann, 1979, 1981b; Walby, 1986, 1989; Witz, 1987 참조).

하트만(1979)은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체계의 발생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관계는 자본주의로만은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별 관계에 대한 그녀의 이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에 의한 직업 분리이다. 이것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 통제의 중추가 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바로 여성을 더 나은 일자리에 배치시키므로써 남성은 여성을 불리하게 둘 수 있다. 대표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잘 조직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트만은 19세기 장인(匠人) 조합과 같이 남성들이 조합을 조직하여 여성들을 배제시킨 예, 그리고 투쟁한 유형의 직업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데 국가가 지원한 예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자본주의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

으며, 중세 영국에서 남자들이 길드에 조직된 것이 그 예이다. 남자들이 이 돈을 잘 버는 일자리를 가질 때는 확실하게 부인으로 하여금 집안 일과 자녀 양육을 거의 다 하게끔 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에서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남편의 재정적 부양이 필요한 여자들은 이를 거절할 입장이 아니다. 남성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소득이 소위 가족 임금이 되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 의 가사 노동은 훈련이 요구되는 더 나은 형태의 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더욱 가로막는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은 최상의 직업에서 강제로 배제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가사의 부담을 지게 되고, 가사의 부담은 최상의 직업을 갖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끔 하는 악순환을 보게 된다.

하트만의 강력한 분석은 유급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주요한 요소들을 정확히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짧은 논문으로는 많은 점들이 불명확하거나 발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나는 이중 체계 접근법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방식에서 하트만의 탁월한 초기의 이론화를 넘어서고 싶다. 첫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두 체계 간에는 하트만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긴장이 있다. 둘째, 이 두 체계 간의 관계에는 역사적인 변화의 폭이 더 크다. 즉 어떤 시기는 긴장이 더 크고, 어떤 시기에는 조화가 더 크다. 셋째, 이중 체계 차이와 불평등은 더 자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웨스트우드(Westwood, 1984)는 공장 노동에서 성과 인종의 상호 중첩을 탐구하는 이중 체계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여러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capital restructuring)은 두 체계를 -특히 공간적 차원을 가진 체계를-의 집합에 중요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다섯째, 우리는 작업장에서의 가부장적 전략들, 예를 들어 배제 전략과 분리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분리 전략의 하위 유형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이한 국면에서의 국가의 역할들이 구체화되고 차별화될 필

요가 있다. 임금제, 설성이나 폭력 같은 다른 구조들의 역할이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가부장제 개념은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유급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위의 여덟 가지 문제들은 네 가지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과 고용에 관한 이중 체계론적인 분석을 발전시키고 싶다. 첫째,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및 인종주의 둘 다와 결합되는 사실이 더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다른 체계들의 내적 역동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부장제의 서로 다른 내적 구조들은 고용에 미치는 효과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과 관련된 상이한 가부장적 전락들은 구분되어야만 한다. 넷째, 이러한 점합은 시간, 공간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 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간의 긴장, 그리고 이 두 체계 간

#### 관계의 역사적 변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간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음을 주목하긴 하지만, 한트만은 주로 두 체계 간의 조화의 그림을 제시한다. 이는 가족 임금에 대한 그녀의 분석에서 특별히 그러하다. 가족 임금으로 인해 고용주는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고, 남편들은 부인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되므로 고용주와 남편들은 모두 이득을 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성과 일에 대한 마르크스적 이론의 세 번째 해석에 대한

가는 오직 정부 관료 조직 안에서의 여성 고용에만 연루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무수한 정부 위원회들은 이 문제<sup>2)</sup>에 대해 논쟁하였으며, 이 문제를 고용주(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쪽에서, 즉 값싼 여성 노동의 사용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해결하였음은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 여성을 유급의 고용에 채용할 것이냐에 대한 모든 갈등이 다 국가적 정치 무대에 올려진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고용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무직에 대한 갈등은 국가의 개입을 초래하지 않았다.

처음 두 예들은 국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의견의 불일치는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이러한 싸움 뒤에는 경쟁자 세력들 간에 화해의 시기가 뒤따랐다. 우리는 한결같은 갈등이나 조화의 그림보다는 갈등과 타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경우에 물질적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있었음의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갈등과 화해가 순환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관계 또한 역사적으로 발달하여, 투쟁의 다음 발판은 언제나 그전 싸움과는 세력의 기반이나 세력의 균형이 다른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에 관해서는 여성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자신의 이해를 더 많이 대표하게 된 데서 핵심적 변화가 일어났다.

### ㉕ 민족과 인종주의

성과 유급 고용에 관한 많은 분석들은 여성을 마치 하나의 단일한

1) 이 위원회들은 정부 위원회 기구, 정부 위원회, 글래드스톤 위원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전쟁 내각 위원회, 재건부의 여성 자문 위원회와 전후 공무원 채용 재부 위원회가 포함된다(Walby, 1986).

논의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가족 임금론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임이 밝혀졌다. 즉 많은 사람은 그러한 관습으로 실제 살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내가 다른 데서 주장했듯이(Walby, 1983b, 1986),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간에는 하트만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긴장과 투쟁이 있다. 사실상 이는 각 체계의 지배 집단이 여성 노동의 착취에 대해 서로 경쟁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데서 생기는 논리적 결과이다. 이는 한 체계가 다른 여성 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체계를 회생시키기 때문에 생긴다. 즉 여성이 자본가들을 위해 일한다면, 남편을 위해 일할 시간을 덜 갖게 된다.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갈등의 기본 원칙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자본주의 발달 이후 여성 노동의 역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유한 갈등이 있으며 그 와중에서 위기의 순간이 지난 후에 역사적·정치적 타협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사인 셈이다.

투쟁이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기들이 포함된다. 첫째, 19세기 초기와 중반에 남자보다 더 많은 수의 여자가 최초의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는 공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일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려고 노력했던 법제급적인 가부장적 동명의 반대물 초래했다(Walby, 1986b). 둘째, 세계 대전 기간 동안 기술자 연합회와 같이 전원이 남성인 기술자 노동 조합과 고용주 사이에는 군수 공장에 여성을 종원하는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었다(Braybon, 1981; Summerfield, 1984). 전시의 갈등은 역시 국가의 개입으로 해소되었다. 이 경우에 전쟁이 끝날 때 '남성'의 일자리에서 여성을 제거할 것을 보장해 준 것은 바로 임법 조치였다. 이러한 두 경우들에서 특정 산업-즉 변칙적 산업과 공학 기술-에 기초한 갈등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국가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이 문제에 개입했다. 세 번째 예는 여성이 사무 노동에 진입하는 예인데, 국

법주처럼 취급하는데, 이는 민족과 인종주의에 기반한 구분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게 된다(Carby, 1982; Hooks, 1984). 백인 여성의 경험 이 모든 여성의 경험을 대변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이 일반적 문제는 제1장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여기서는 고용의 문제에만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백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sup>3)</sup>은 1984년에서 1986년 사이에<sup>4)</sup> 67%인 반면, 서인도 출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71%로 더 높고, 인도 출신 여성의 경우는 56%로 더 낮으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여성의 경우는 18%로 훨씬 더 낮다('고용신문', 1988년 5월, 165-6).<sup>5)</sup> 남성의 경우 민족에 따른 차이는 훨씬 더 적어서, 88%에서 72% 사이에 이를 뿐이다.

시간제로 일하는 것은 소수 민족 여성보다는 백인 여성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다. 1984~86년 사이에 백인 여성 피고용인의 43%가 시간제로 일하는 반면, 소수 민족 여성의 28%만이 시간제로 일한다.<sup>6)</sup> 시간제로 일하는 정도에서, 유럽 여성과 비교할 때 영국 여성이 보이는 독특한 유형에 대한 일반화는 이러한 민족적 차이들을 인식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다.

노동 인구 조사에서 실업률은 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 2) 16세 이상 은퇴 연령까지의 일할 연령의 사람 중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수를 일할 연령의 전체 사람 수로 나눈 백분율.
- 3) 노동력 조사, '고용신문', 1988년 3월 165쪽에 나와 있는 1984, 1985, 1986년 평균. 3년간의 평균이 제시된 것은 이 조사에서 소수 민족 사람들의 수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표집 오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4) 그러나 이 숫자들은 가내 노동의 범위를 알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여성의 경제 활동의 양을 다소 평가할 수도 있다.
- 5) '고용신문', 1988년 3월, 표 3에서 3년간의 평균으로 제시된 노동력 조사 자료에서 계산함. 자료에 나타난 숫자를 상근 그리고 시간제로 분류된 피고용자들의 백분율로 바꾸어서 계산하였고, 자영업자와 이런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은 제외시켰다.

민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수 민족들의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백인 실업률의 두 배 정도로 흑인 남자는 21%, 흑인 여자는 19%이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여성의 실업률은 38%이다(『고용신문』, 1988년 3월, 172).<sup>6)</sup>

임금 액수의 차이는 자료의 신빙성과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PSI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Brown, Colin, 1984), 잠깐 보아도 소수 민족 남자는 백인 남자보다 상당히 못 벌지만, 소수 민족 여자는 백인 여자보다 더 많이 벌는 것처럼 보인다. 아시아 여자들을 서인도 여자들과 구분하면, 아시아 여자들은 백인 여자들보다 더 적게 벌고, 서인도 여자들은 백인 여자들보다 더 많이 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령별 위 25~54세만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반대로 되어 백인 여성이 아주 약간 더 많이 벌다. 더 나이 든 연령층의 여자는 덜 벌는데, 이 연령층의 집단은 영국에 이민 오는 시점 때문에 서인도 여성들에서보다는 토착 백인 여성에서 더 많다. 따라서, 서인도 여성 집단에서 임금이 놀랍게도 높게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 연령 효과이며, 나이 든 여자들의 불이익을 반영한다. 동시에 시간제-전일제 구분의 효과도 있다. 백인 여자들은 흑인 여자들보다 시간제 일을 할 가능성이 더 크고, 시간제 근무자의 시간당 임금이 낮으므로 결과적으로 평균 임금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기대하지 않은 숫자가 나온 데에는 그 이상의 이유들이 있다고 브뤼켄(1988)은 주장한다. 더 많은 흑인 여자들이 런던에 살고, 런던의 임금이 나머지 지역보다 더 높다. 런던에서는 물가가 더 높으므로, 이는 부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지역 효과이다. 더군다나 가장 빈곤한 가족이 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은 가장 적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아프리카-카리브계 여성들은 영국에

6) 『고용신문』은 마지막 숫자는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다.

제도적 요인은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의 경우보다 더 적다. 백인 여자들은 흑인 여자들에 대한 자신의 이득을 제도화할 수 있는 노동 조합에 비견할 만한 제도를 가지지 못했다(다른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둘째, 민족과 인종은 여성들 간의 차이와 불평등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성별 관계 그 자체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즉 노동 시장 내의 성과 인종이 상호 교차하는 현상은 성별로 구조화된 고용 형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의 한 인상적인 예는 전후 영국의 섬유 산업의 남녀 구성의 변화인데, 이는 성과 계급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인종적 불평등과 새로운 국제 분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 시기에 새로운 국제 분업의 결과로 산업은 심각한 쇠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직물은 신국채 분업 속에서 점점 영국이나 다른 산업 국가보다는 제3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었다(Froebel, Heinrichs & Kreye, 1980). 이로 인해 증가된 경쟁을 보상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임금을 내리라는 심한 압력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인구의 성별 구성의 변화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을 덜 줄 수 있는 여자의 비율이 증가되는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게 보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 준다. 1970년에서 1982년 사이에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51%에서 42%로 떨어졌다(『고용국신문』, 1970-79, 『고용신문』, 1980-82 표 4.1).<sup>7)</sup> 이는 자본이 많이 든 기계를 좀더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야간 작업조에 서 일할 흑인 남성 노동자들을 고용한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양모 지물에 대해 페브르(Fevre, 198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확인되었다. 19세기 공장법의 결과로 여자들은 야간 작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남자만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었다. 노동 시장내의 인종 차

7) 변화에 대한 숫자는 항상 마로마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SICMLH(표준 산업 분류, 최소 목록 항목 번호) 412, '면화나 아마 재의 방직과 합사'와 SICMLH 413, '면화, 리넨과 인공 섬유의 방직'의 합계이다.

서 특정한 직업, 국가 보건 서비스와 같은 직업에 종원되는데, 이 직업들은 우연히도 공적 영역에서 고도로 조합화된 영역이었다.

노동 시장에서의 민족적 불평등은 의미 심장하게도 직접적·간접적 인종 차별의 결과라는 사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예를 들어 Bergmann, 1980a, 1980b; Dex, 1983; Mana, 1984; Miles & Phizacklea, 1980; Phizacklea, 1983, 1988; Rex & Moore, 1967; Rex & Tomlinson, 1979; Wallace, 1982). 이러한 차별은 실업률에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소수 민족의 실업률은 백인의 두 배이다. 실업률에서는 의미 있는 성별 격차가 없음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것은 성에 따른 불이익과 인종에 따른 불이익이 노동 시장에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하나의 예이다.

임금에 관한 자료를 보면, 백인 여성과 소수 민족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인종 차별의 결과라는 일반적인 설명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랍다. 그러나 내가 보여 주었듯이, 이는 주로 통계적인 허구이다.

인종 차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유급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야만 한다.

나는 두 가지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 첫째, 인종적 관습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제도들의 일부는 동시에 성차별적 관습의 핵심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오늘날은 덜하긴 하지만, 많은 노동 조합은 흑인과 여성 둘 다의 희생 위에서 기존의 백인 남성 조합원을 보호하는 행동을 해 왔다(Miles & Phizacklea, 1987; Cockburn, 1983). 이는 왜 민족적 불평등이 여성들 간에서보다 남성들 간에서 더 커 보이는가에 대한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즉 백인 남자들은 모든 다른 집단들-백인 여자들, 흑인 여자들, 흑인 남자들-상관없이-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시장 안에서 조직을 만들었다. 노동 시장 안에 흑인 여자와 백인 여자 간의 인종적 구분을 만들어 낼

별로 인해 돈이 더 잘 벌리는 일은 흑인 남자들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들만이 주어진 임금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

섬유 노동자의 성 구성의 변화는 인종 구성의 변화와 직접 관련이 있어, 흑인 남자의 고용이 증가되고, 백인 여자의 고용은 줄어들었다. 면직물 산업의 성별 구성의 이러한 변화는 인종 차별 구조가 가부장제 그리고 자본주의 구조들과 교차되는 맥락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 ㉞ 자본 구조 개편과 공간적 편차

역사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미 거시적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만 이론화해 가지고는 성 불평등의 구체적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둘 다 상이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체제들을 이루는 구조들과 관습들이 교차하는 복잡한 역사적으로 독특한 방식들이 있다. 상호 연관된 구조와 관습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시간이고, 공간은 또 다른 방식이다. 서로 다른 공간적 위치에 있는 성 불평등의 구체적 형태는 가부장적 구조들과 자본주의적 구조들이 세부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일부 새로운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이 공간을 새롭게 이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지역 문제

영국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개별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영국 본토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지역은 역사적으로 북서부이고, 가장 취업률이 낮은 지역은 웨일스이다(1951년 31.5%와 18.5%) (Walby, 1985:172). 노동 인구 중 여성의 고용 비율이 높은 편지 산업은 북서부에 위치하고, 1842년 광산법 이후 지하에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생산업은 웨일스의 주된 일자리라는 점에서 이는 의미 심장하게도 산업 효과이다(Walby, 1985). 실제로 보워스(Bowers, 1970)는 1961년 여성 고용률의 모든 지역 편차와, 1954년과 1964년 사이 지역별 변화는 산업 구조의 지역별 편차로 설명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 고용률의 지역적 편차의 중요성은 전후 기간 동안에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면직업과 광산업 같은 성별로 유형화된 산업이 쇠퇴한 데에 그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과거에는 임금 때문에 가장 적게 고용된 지역에서 고용률이 증가된 결과이다.

경제적 구조 개편이라는 현재의 라운드는 과거 라운드를 기초로 추진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Massey & Meegan, 1982 참조). 구조 개편이라는 이러한 지질학적 은유에 기초한 매시(Massey, 1984)의 개념들은 성별 관계의 재조직에 적용되도록 유용하게 발전될 수 있다. 자본, 노동과 가부장제 간의 새로운 타협인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새 라운드는 고용상의 성별 관계에 기반하는데, 이는 가부장적 관계와 자본주의적 관계 간에 과거에 맺어진 타협으로 남겨진 것이며, 이러한 산업들의 분업 속에 구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 고용에 대한 가부장적 봉쇄가 과거보다 약화되어 오늘날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들은 과거에 심한 가부장적 봉쇄의 결과로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바로 그 지역임은 놀랄 것도 못된다(Walby, 1985). 예를 들어 1951년 웨일스 다음으로 여성 고용률이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동 앵글리아(East Anglia)는 1952년에서 1979년 사이에 영국 지역 중 고용 성장률이 가장 빨랐으며, 반면 1951년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북서부는 1952년에서 1979년 사이에 전체 고용의 감소를 겪어 내야 했던 유일한 지역이었다(Fothergill & Gudgin, 1982: 표 2.1; Walby, 1985: 172-3).

#### 국제적

한편으로는 제1 세계, 발전된 국가 또는 과개발된 국가라고 다양하

정의 특정한 형태들은 새로운 국제적 형태의 자본에 달려 있다(Froebel, Heinrichs & Kreye, 1980; Massey, 1984; Mitter, 1986). 새로운 국제 분업은 자주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하게 상반화된 형태를 띤다(Mitter, 1986).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의해 제1 세계 여성과 제3 세계 여성의 착취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강력한 사례를 미즈(Mies, 1986)는 들고 있다.

미즈는 산업화된 나라들의 여성의 의존성은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들의 여성 착취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식민화된 가정 주부화의 두 과정은 밀접히 그리고 인과적으로 상호 연관되고 있다는 것이 나의 명제이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식민지로서, 오늘날에는 신국제 분업으로 외부 식민지를 계속 착취하지 않고 고서는 '내부 식민지'—즉 핵가족과 남성 '가장'이 먹여 살리는 여성—의 확립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p. 110).

미즈는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여성을 가정적으로 되게 하는 것, 또는 그녀가 가정 주부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제3 세계의 착취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족 형태가 발전한 것은 역사적으로 특수하며, 19세기 제국주의의 발전에 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르주아와 함께 시작되어, 노동 계급으로 퍼져 나갔다. 첫 번째 단계는 제국주의 정복의 과정이고, 사회적 무력이 발달한다. 산업화 국가들 내부의 관계들은 선택의 반일 뿐이며, 나머지 반은 제3 세계 내의 관계들이다.

미즈는 국제적 분업은 원자재가 식민지에서 수출되어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가공된 후에 전 세계로 내다 팔던 과거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분업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분업에서는 산업 생산은 발전 도상국으로 이전되어,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실업이 생

게 알려진 나라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제3 세계, 발전 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 사이에는 가장 뿌리 깊은 격차가 생겨난다(Boserup, 1970; Leacock & Safia, 1986; Mies, 1986; Rogers, 1981 참조). 서구는

저개발된 세계를 제정시켜 주고, 여성의 해방을 도와 준다고 전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편견과 가장 잘 맞는 고용과 관련된 설명은 여성들은 은둔의 생활을 떠나 돈을 버는 일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와 남편의 통제도 덜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날 널리 의문시되고 있다. 첫째, 이는 여성들이 식민 시기, 그리고 (혹은) 산업화 이전에 상당 정도로 노동에 종사했으며, 이에 대해 통제력을 가졌음을 과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땅을 경작했고,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졌었다. 둘째, 이 견해는 서구화는 가정적인 주부의 모델을 수입하는 것이며, 서구화는 이러한 모델을 일하는 여성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과소 평가한다. 예를 들어 로저스(Rogers, 1981)는 원조 기관들은 제3 세계 국가들의 실제 성별 생산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는 여성 농민들로부터 관습적 권리, 그리고 동기마저도 없애는 부적절한 형태의 토지 개혁을 장려하고, 여자의 노동이 아니라 남자의 노동을 거드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서구적인 여성성의 관념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원조 기관들은 여성 노동의 전체 영역을 인식하지 않는다.

국제적 차원은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의 편차의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영국의 성별화된 고용 관계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또한 중요하다(Mies, 1986; Elson & Pearson, 1981; Mitter, 1986; Schreiner, 1918). 가장 기본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들의 생활 수준은 불평등한 교환 관계를 통해 제3 세계 사람들의 노동에 달려 있다(Frank, 1967; Wallerstein, 1979). 나아가서 영국·미국·서독과 같은 중심부의 남·녀 노동자에게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산업 구조 제조

거한다. 바로 여자들이 제3 세계의 새로운 산업 생산자이며, 바로 여자들이 제1 세계에서 이 상품들의 소비자이다. 의존적인 부인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제3 세계에서 최선의 노동력이다. 산업 이전의 결과로 인자리에서 해고된 제1 세계 여성들은 소비자이다. 미즈의 설명은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민족 해방 운동과 가까스로 통합시킨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들의 예측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계속해서 그녀는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와 구분되지 않으며, 자본주의는 단지 가부장제의 최신 형태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미즈는 제1 세계와 제3 세계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폭넓고 자국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이 설명의 강점은 경제적 수준에서의 국제적 연계에 대한 견해에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른 발전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여성이 억압되고 착취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에 민감한 데 있다. 약점은 이 연구 과정의 범위를 생각하면 기대와는 달리, 뒷받침하는 증거의 일부에 문제가 있고, 이론적으로 침묵한다는 데서 나온다. 첫째, 제1 세계 여성은 제3 세계로 산업이 이전된 이후 현재 가정 주부를 겪고 있다는 그녀의 주장은 경험적으로 틀리다.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구 국가들에서 남성보다 실업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다. 긍정하려면, 이 과정은 완결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방향은 미즈가 주장한 것과 반대임이 분명하다. 둘째, 핵가족 형태는 현대 자본주의에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라슬렛(Laslett, 1977)과 맥팔랜드(MacFarland, 1978)는 핵가족은 자본주의에 유일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있었으며,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여자가 밖에 나가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좀더 강력하게 여성을 가정적으로 길들이는 관념조차도 비토리아 시대의 중간 계급에만 유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이슬람 문

화, 특히 이슬람의 도시, 중간 그리고 상층 계급에서도 이러한 관념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즈는 가부장제 세계 체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 너무 많은 설명상의 강조를 둔다. 셋째, 실제로 그녀는 어떤 점에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데, 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하나의 체계라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관제의 국제적 상호 연결성은 확고하게 확립된다.

초점이 영국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이란 자본이 영국과 제1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오래된 산업들로부터 노동력이 훨씬 더싼 제3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때때로 수반하는 것처럼 보인다(Froebel, Heinrichs & Kreye, 1980; Massy, 1984). 그러나 이는 일부 산업에 해당되었으며, 이 주장은 너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Gordon, 1988). 영국에서 자본 이동의 결과로 가장 고용의 감소를 당한 산업은 서비스 부문이라기보다는 제조업 부문이다(Blackaby, 1978). 여성을 높은 비율로 고용하는 면직물업은 그 과정에 의해 매우 중대하게 변화된 반면, 신국제 분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다른 산업들은 남성을 높은 비율로 고용했다. 제3 세계에 새로 고용된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다. 영국에서처럼 이 나라들에서도 남자보다 여자를 고용하는 것이 돈이 덜 든다(Elson & Pearson, 1981; Mies, 1986; Mitter, 1986). 많은 제3 세계 국가들의 최근의 정치적 대변동에서 성별 관계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성별 관계는 제3 세계의 페미니스트 정치(Jayawardena, 1986)에 중심인 것처럼, 가부장적 정치로서 이슬람의 근본주의(Kandiyoti, 1987)가 부활되는 데에도 중심이 된다. 성별 분업의 이같은 변화는 이 때 크게 논쟁거리가 된다.

따라서 공간은 고용에서 성별 관계의 편차의 근원으로서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한 한 사회 집단의 권력의 형태와 관련된

태의 생산에는 인간 발달의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날과 성별 관계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시간제 근무가 여성 중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에트킨슨에 의하면, 이는 수적 유연성 추세의 결과이다. 그러나 영국의 시간제 근무의 증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시작하였고, 그 이후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가 제시한 유연성의 모델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Walby, 1989).

### 국가의 중요성

나는 가부장 세력과 자본가 세력이 여성 노동의 사용을 놓고 벌이는 어떤 핵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국가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앞에서 시사하였다. 그러나 국가 개입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주로 제1 세대 페미니즘의 시기 동안 여성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 내의 이러한 변화는 국가에 관한 장에서 더 자세히 고찰될 것이며, 여기서는 여성의 고용을 규제하는 데 따르는 국가 역할의 변화를 검토하려고 한다.

여성의 일을 목화 공장이나 군수 공장에 제한시키려는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의 캠페인 기간 동안,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으며 의회에 직접 대표되지도 않았다. 여성의 이익이 국가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정도로 대표되는 어떤 다른 방식도 없었다.

선거권을 획득한 이후, 여성의 일할 권리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갈등에서 여성은 승리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기간 중이었으며, 이 때 남자가 일자리가 없을 때 여자가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론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법안은 국가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다. 이 관습은 널리 성행하고 있었으며, 기업에서는 이 관습이 증가하고 있다는 약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 영국의 고용상의 성별 관계를 이처럼 국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자본의 구조 개편은 성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킨다. 성별 분업에 대한 분석은 자본을 하나의 동질적 실체로 취급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워야 한다.

### 유연성: 새로운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

모든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이 다 공간적 차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최근 논쟁들은 '유연화'가 자본 구조 개편의 가장 최근의 형태라고 제시하고 있다. 에트킨슨(Atkinson)의 설명에 의하면, 경쟁의 압력을 새롭게 받고, 경기 후퇴 때문에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입지가 강화된 회사들은 결국 유연한 회사의 발달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일련의 노동 시장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NEDO, 1986). 유연한 회사의 핵심적 특징은 '핵심적' 노동 인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이, 주변적 노동자에서는 수적인 유연성이 발전하는 데 있다. 기능적 유연성이란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서, 회사의 매일매일의 요구에 따라 쉽게 여러 작업들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적인 유연성이란 특별한 회사에 특정한 기술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들은 회사의 매일매일의 요구에 따라 노동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청, 시간제 인, 초과 근무, 임시 계약, 그리고 노동 인구를 임시 노동자로 만드는 다른 과정들을 포함한다.

이 논제는 특히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로 이것이 새로운 것이냐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Pollert, 1987). 더군다나 이 논제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이 있다. 예를 들어 피오르와 세이블(Piore & Sable, 1984)은 대량 일관 작업을 고체 지향적인 생산품과 자극적인 노동 과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새로운 형

하고 말이다(Lewis, 1980:214; Lewenhak, 1977: 215; *The Vote*, 1932: 52, 129).<sup>8</sup> 그러나 여성들은 복지 수당에 대한 일부 권리를 잃고 말았다. 즉 기존 여성이 복지 수당을 받을 권리는 아노말리 법(Anomalies Act)의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이라는 구절로 부정되었으며, 숙련된 직물 노동자들에게도 불구하고 가정부(domestic servants)로서 일하려고 하지 않던 여성에게 급부금을 부인함으로써 부정해졌다(Bagguley, 1989).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중 군수 공장 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그 다음 중요한 갈등에서, 여성들은 국가 수준에서 논쟁에서 지고 말았다. 자신들이 전쟁하는 동안 여성을 들어오게 허락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여성을 쫓아낼 수 있다는, 전원이 남성인 노동 조합의 요구를 지지하는 법안(전쟁 전 관습법 1942의 복구)이 통과되었다(Soldon, 1978; Summerfield, 1984).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입법은 전쟁 후에 결코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았다(Summerfield, 1984; Walby, 1986).

그 이후 여성 고용 규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국가는 여성의 고용을 제한하는 데서 여성 고용과 고용 조건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다. 1970년에 동등 임금법(Equal Pay Act)이 통과되었고(1975년에 시행됨), 그 뒤를 이어 1975년에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이같은 변화의 근본 원인과 그 효과의 이유에 대한 분석은 국가에 관한 장에서 논의될 것이며, 여기서는 실제 효과에 관심을 가진다. 이 법은 비교적 비효율적이 라고 널리 믿어지고 있다(Gregory, 1982, 1987 참조). 그러나 이 법

8) 그러나 민족적 국가는 결혼 퇴직 관행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방 당국들은 고용주로서의 권한 안에서 이를 도입했다. 여성의 정치 활동 정도가 결과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벨슨에서는 장백이 없었는데 여성들이 조직화되었으나, 맥커스터와 프레스몬에서는 장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조직화되지 않았다(Mark-Lawson, Savage & Warde, 1985).

안은 여성 임금율 1970년에 남성의 시간당 임금의 63.1%에서, 1977년에는 75.5%, 그리고 1986년에는 74.3%로 끌어올림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를 10%까지 줄이게끔 이끈 것으로 보인다(평등기회위원회, 1987:38-9). 어떤 이들은 성별 임금 격차의 감소는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정책으로 생긴 허구라고 암시하지만(Campbell & Charlton, 1978), 위트와 매킨토시(Weir & McIntosh, 1982)는 이 효과는 실제로 법안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국가는 두 번 다시 여성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제 논쟁은 고용에의 길을 더 넓게 열어가는 데 국가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나는 여성의 고용을 결정하는 데 국가가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들, 또는 경제적이고 가족적 이유들의 결과가 아님을 주장해 왔다. 더 나아가서 나는 국가의 역할은 단일한 것이 아니며, 여성이 정치적 시민권을 얻은 결과로 국가의 역할은 급진적으로 변화했음을 주장하여 왔다.

## ◎ 다른 구조들

나의 가부장 체제에는 두 가지 구조가 더 있다. 즉 성성과 남성 폭력에서의 가부장적 관계들이 그것이다. 이것이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 성 성

성성은 유급 노동과 별 관계가 없다고 보통 생각된다. 실제로 이러한 이분법은 미첼(1975) 식의 이중 체제적 접근에 기원이 되는데, 여기서 성성은 가부장적 관계의 분야이고, 경제는 오직 자본주의적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가부장적 성적 관습이 성별

에서 물리적 힘에 대한 위협 또한 고용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과 유급 노동의 문제에 관해 폭력이 주로 관련된 때는 노동 관련 분쟁과 고용법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가 합법적인 폭력을 쓸 때이다.

###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락들의 구분

성별 직업 분리에 대한 하트만의 분석은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그러나 봉쇄의 형태는 하나 이상이다. 나는 우선 유급 노동에서 서로 별개인 두 가지 가부장적 전락으로 분리와 배제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싶다. 배제 전락은 고용의 한 분야, 혹은 사실상 모든 고용 분야에 여성의 접근을 전적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분리는 여성의 일을 남성의 일과 분리시키고, 보수나 지위면에서 후자보다 전자가 낮게 등급이 매겨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더 약한 전락이다. 이러한 구분은 공학 기술과 사무 일을 비교함으로써 설명된다. 숙련된 육체 공학 기술자 조합은 창설된 이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여성을 숙련 노동에서 배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40년대에 가서도 우리는 공학 기술자 조합 연합(Amalagated Engineering Union: AEU)의 의장인 태너(Tanner)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우리는 여성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공학 기술 및 범 고용주 국가 연합, 중앙 회의와 특별 회의록, 1940년 4월 8일, p. 430). 결정적인 전환점은 제2차 세계 대전 도중에 있었다. 1943년 AEU는 처음으로 여성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Jeffreys, 1970). 이 때부터 그들은 분리의 전락으로 바뀌어서 여성들은 임금이 허용되었으나, 일정한 작업 영역에 그리고 조합의 분리된 부문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배제 전락이 실패한 결과로서 생긴 것이다. 고용주들은 공학 기술자 노동 조합의 노동 공급에 대한 통제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식들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이다. 이것은 고용 분석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기여라는 제목으로 앞에서 논의되었으나(특별히 메키닌, 1979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이 영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왔다(예를 들어 Hadjifotiou, 1983; Hearn & Parkin, 1987; Stanko, 1988).

성화론은 일을 가진 여성을 통제하도록 작용하며, 동시에 여성을 어떤 유형의 일에서 배제시키도록 작용한다. 배제적 효과는 아마도 가장 극적인 것이다. 과거에는 모두 남자뿐이었던 직업 분야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화론이 사용되는 때가 바로 이 경우이다. 리즈의 조사는 비전통적인 직업 분야에 있는 여성의 96%가 직장에서의 성화를 경험했음을 발견하였다(Leeds, 1983). 이런 종류의 가장 널리 알려진 최근 사건은 1980년대 중반, 런던 소방대 사건이었다. 이 시기에 평등 기회의법의 보호하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들의 새로운 권리를 실행해 보았던 여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잃어 버리게끔 하는 저변 물리적·성적 공격을 당했다.

그러나 성화론은 전통적으로 남성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물론 이같은 사실은 조사 연구에서는 자주 보고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인용한 리즈의 같은 조사에서 전통적인 여성 직업의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48%가 성화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상 이같은 보고율의 차이는 전통적인 영역의 여성은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단지 덜 가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스탠코(1988)는 생각한다.

### 폭력

성화론은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확대될 수 있는 행동의 연속선상에 있다. 물리적 완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자들은 어두워진 후에는 공공 장소에서 걸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이런 경우가 필요한 일 자리,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

력에 대항하여 싸워 왔으며, 실제로 1897년 길고 쓰라린 연속적인 파업과 한 번의 공장 폐쇄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The Engineer, 1987; Jeffreys, J.B., 1945:143-8). 전시 남성 노동자의 부족이라는 압력 속에서 여성들은 공업 기술자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으며, 다른 일반 노동 조합들은 이들을 충원하기 시작하였다(Walby, 1986).

사무직에서는 남자들은 예를 들면에도 불구하고 배제 전락을 결코 확립할 수 없었다. 사무직이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던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이 전락이 시도되긴 했지만, 그들은 이 전락을 강행할 만한 권력을 갖지 못했다(Holcombe, 1973; Humphreys, 1958; Martindale, 1938). 예를 들면 전국 사무 직원 조합(the National Union of Clerks)의 의장인 엘빈(Elvin) 씨는 조합 잡지에서 "여성이 공장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기가 올 때까지" 사무실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The Clerk, 1908: 131). 그러나 그들은 이 전락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을 결코 가지지 못했고, 대신 분리 전락으로 돌아섰다. 남성과 여성의 분리는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그리고 고용주 간의 투쟁의 결과였다. 분리는 남자들이 남아 있는 사무 노동의 영역에서는 여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막고, 그러면서도 다른 등급에서는 여자들이 고용주를 위해 값싼 노동력이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남녀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Holcombe, 1973; Humphreys, 1958; Martindale, 1938; Walby, 1986).

배제 전락은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 영국의 수공업 노동 조합에서 지배적이었고, 반면 일반 조합들과 나중에 발전한 조합들은 분리 전락을 따르는 경향이 더 컸다(Walby, 1986). 여성 문제에 대한 조합의 접근법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로 세 요인 때문이다. 첫째, 특정 조합들(예를 들어 AEU)이 여성의 진입에 반대하는 싸움에서 패한, 즉 배제 전락이 실패한 결과였다. 둘째, 반숙련 그리고 미숙련 노동자

들을 들여보낸 일반 조합들이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인데, 이 조합들은 거의 처음부터 분리 전략을 사용했다. 셋째,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

여성에게 대한 봉쇄를 입법 수단을 통해 지원해 달라는 조직적인 남성 노동자의 청원을 들어 주는 정책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부터는 여성의 진입할 권리를 지지하는 정책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분리 전략 그 자체는 역사적·공간적으로 독특한 몇몇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0년대 이후 영국의 노동 시장 분절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형태는 시간제 일과 전일제 일을 구분하여, 전자는 거의 전적으로 기존 여성에게 의해 수행된다는 데 있다. 시간제 일과 전일제 일은 노동 조건이 두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다르다. 즉 시간제 일은 평균적으로 임금을 덜 받고, 고용 계약이 덜 확실해서 해고당하기 더 쉽다(Robinson, 1988).

1986년 상근하는 여자는 남자의 주급의 66%를 받고, 남자의 시간당 임금의 74%를 받지만, 시간제로 일하는 여자는 남자의 시간당 임금의 56%만 받았다.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은 상근하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의 76%를 받았다(신소독 조사).

일 주일에 8시간 미만 고용되는 시간제 근무자는 불공정한 해고에 대한 청구, 모성 수당, 잉여 노동자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득을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 주당 8시간에서 16시간 사이 일하는 사람들은 한 고용주 밑에서 5년 이상 일할 경우에만 이러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다(Robinson, 1988).

영국은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시간제 노동자와 상근 노동자의 권리를 더 극단적으로 구별짓고 있다(Manley & Sawbridge, 1980). 이는 덴마크를 제외하면 어떤 다른 EEC 국가보다 영국에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설명할지도 모른다. 즉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고용 권

서 이들 전략을 볼 수 있다(덧장 참조). 이 책의 끝부분에서 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가부장적 전략이 두 가지 형태의 가부장제를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 결 론

성과 고용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내 가지 주된 시각에 의거하여 행해졌지만, 이러한 시각들을 가로지르는 몇몇 중심적 쟁점들이 있다. 이 쟁점들은 상이한 가부장적 구조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나의 주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장의 결론의 첫부분에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언급하겠다.

1. 여성의 노동력 참여의 결정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것보다 노동 시장은 더 중요하고, 가족은 덜 중요하다.
2. 여성이 유급 노동에 덜 참여하는 것은 빈번히 주장되는 것처럼 '선택'의 문제 혹은 문화적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 제약의 결과이다.
3. 정치와 국가는 성적 분업을 구조화하는 데에 보통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의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의 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 노동 시장 대 가족

전통적인 견해는 여성의 고용상의(그리고 실제로 사회의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지위는 가족 내의 그들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해

리들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 고용주들에게 더 매력적이다. 이는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이 권리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직장일과 가사일을 더 쉽게 조화할 수 있으므로 시간제 근무는 여성 스스로가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Martin & Roberts, 1984). 그러나 특별한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고용주의 결정이 피고용인의 선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은 부분적인 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시간제 일의 존재는 전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를 크게 촉진하였다. 사실상 영국의 경기 후퇴가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직도 EEC 국가 중 가장 높은 여성 고용 비율을 가진 국가 중의 하나다. 앞에서 표 2.1이 보여 주듯이, 여성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리의 유형을 구분짓는 또 다른 방식은 위츠(Witz, 1987, 1988)가 제안한 방식이다. 위츠는 이미 정의된 직업에 여성을 배제하느냐, 물여놓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노동자 집단이 일단의 기술을 전유하고, 직업적 능력의 경계를 놓고 싸우는 것을 고찰한다. 그녀는 이를 기술하기 위해 경제 설정의 봉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따라서 유급 노동의 가부장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하트만이 도입한 분리의 개념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나는 제안한다. 중요한 것은 배제와 분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분리 그 자체는 상이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전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의 구별이다. 두 번째 구분은 개인적인 배제적 봉쇄와 경제 설정적 봉쇄 간의 구분이다. 그 효과는 수평적 형태와 수직적 형태가 있으며, 이 장의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최근 영국에서는 수직적 분리가 감소하고 동시에 수평적 분리는 증가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분은 한편으로 배제, 다른 한편으로 분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형태의 가부장적 전략은 유급 노동이 아닌 다른 활동 장소에서도 발전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성성에

왔다. 이는 민서(Mincer, 1962, 1966)와 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 파슨스와 베일스(Parsons & Bales, 1956), 그리고 비치(1977, 1978) 같은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의 분석에서 매우 분명하다. 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개별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 사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약한 의미 외에는 이러한 견해가 불린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취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가정 환경에 의해 제약받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진실이다. 기존 여성은 남편과 다른 '의존자들'로부터 가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기다 경제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남편은 그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더 중요하게는 그녀가 부인과 엄마의 역할을 열정적으로 기꺼이 수행하면 얻을 심리적·재정적 이득에 대한 그녀의 기대에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 우리의 분석이 현재의 순간에 한정된다면, 표면적으로는 마치 가족이 여성의 고용 결정을 중요하게 구조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즉각적인 의사 결정을 이해하는 데는 중대할지 모르지만, 이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는 왜 여성들은 남성만큼 더 나은 직업을 가진 기회를 똑같이 가지지 못하느냐를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여성이 이러한 상황들과 협상하느냐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성의 낮은 임금은 그 자체가 가족 내의 그들의 지위의 결과인, 낮은 기술과 자격의 면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그들이 노동 예비군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즉 가족 내의 그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없음까지도 증명되었다. 오히려 노동 시장의 구조화 특히 성별 직업 분리는 매년 설명에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가 남자보다 임금을 덜 받는 것은 인적 자본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여자들이 저임금의 산업과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여성들이 쇠퇴하는 제조업 부문이라

기보다는 성장하는 경제 부문인 서비스 부문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1980년대와 같이 경기 후퇴의 시기에 남성만큼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 직업 분리의 설명은 유급 노동상의 성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이다.

노동 시장과 가족 간의 인과적 관련성은 보통 가정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우리가 인과 관계에 대한 질문을 구조적 수준에서 할 때는, 인과 관계는 노동 시장에서 가족으로 가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 유물론 대 문화론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의 고용 패턴은 물질적 요인보다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는 성별 분업은 강동적이기보다는(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관념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자발적으로 돈 버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결혼하면 자발적으로 직장을 포기했고,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하며, 훈련받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은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여성이 일자리를 떠나간 것은 국가의 입법 조치로 후원받은 고용주와 남성 노동 조합 간의 협정에 의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결혼하면 예전에는 직장을 포기했는데, 이는 기존 여성이 대부분의 공식적인 일자리에 남는 것을 금지하는 결혼 퇴직 관습(marriage bar)에 강요되었기 때문이며, 여성이 좋아하느냐는 고용주들에게 상관이 없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결혼 퇴직 관습이 폐지된 이후, 기존 여성의 취업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보통 인식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많은 여성은 남자만큼이나 어렵고 더러운 일들에 종사해 왔다. 여성이 대학 교육과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싸워서 쟁취되어야만 했다. 최초의 입학은 제1세대 페미니즘에 의해 얻어졌으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요컨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합의의 문제인 만큼이나 갈등의 문제이며, 규범적 가치에 대한 문제인 만큼이나 물질적 권력의 문제라고 나는 주장한다.

여성의 고용 유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족보다는 노동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을 논의할 때처럼, 분석의 수준이 다시 중요하다.<sup>11</sup> 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여성 자신이 표현한 신념을 본다면, 문화적 가치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더 심층적 질문은 무엇이 이러한 신념이 나오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점이다.<sup>12</sup>

### 정 치

이 문제는 여성 고용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견해와 관련된다. 국가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국가 수준이 아닌 조직화된 집합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모두 정치는 여성의 고용(따라서 남성의 고용)을 형상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다.

가장 좋은 직업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려는 자신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도록 19세기 조직화된 남성 노동자들은 국가에 부탁했다. 여성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 페미니즘 투쟁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행동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여성을 방해하는 의견상의 시도는 훨씬 덜 일어났으며, 오늘날 국가는 동일 임금법과 성차별 금지법(비록 이는 강력히 추구된 정책은 아니지만)을 통해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고용에서의 성별 관계는 정치 투쟁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성은 자신이 최상의 직업으로부터 배제되는 데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 현대의 변화

전후 시기에 여성들, 특히 기존 여성(예나 하면 미혼 여성은 보통 돈 버는 일을 해왔으므로)은 점점 더 취업하러 들어왔다. 이같이 중요한 '공적'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 해방의 신호로 여겨져 왔다. 여성의 노동이 가족 내부에서 남편에 의해 확립될 소지는 적어졌다. 조직적인 남성 노동자이건 국가이건 간에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습은 과거보다 덜하다.

이러한 증거의 면에서 혹자는 성 불평등이 적어지고 있다고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조건·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진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남녀 간의 불평등의 정도는 아주 조금만 줄어들었다. 즉 참가율의 양적 증가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의 여성 지위의 질적 변화는 아주 적었다. 임금 격차는 아주 조금만 감소했으며, 1970년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63%에서 1986년에는 74%가 되었을 뿐이며,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상근 여성 근로자 임금의 76%만을 받다(신소득 조사, 1986). 수직적 분리는 앞의 표 2.2와 2.3에서 보여 주었듯이 1971년에서 1981년까지 약간 감소되긴 했지만, 아직도 광범위하다. 산업별 수평적 분리는 표 2.4에서 보았듯이, 1971년과 1981년 사이에 남자의 경우는 감소되었지만, 여성의 경우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여성을 임금 노동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을 낮은 임금의 산업과 직업들, 그리고 시간제 일에만 끌어들여 시키는 일은 아주 조금만 줄어들었다. 여성은 유급 고용의 공적 영역에 들어갈 기회를 얻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남성에 종속되어 있다.

사적인 형태의 가부장적 여성 확립에서 공적인 형태의 가부장적 여성 확립으로 이처럼 변화되는 과정은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힘들의

산물이다. 첫째, 자본주의 노동 시장 내부에는 값싼 노동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가 있다. 가부장적 생산 관계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는 여성을 유급 고용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생산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과정은 상이한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 및 인종주의로 말미암아 복잡해진다. 둘째, 페미니즘 투쟁은 가부장적 배제 전략을 침식하도록 도와 왔다. 이는 다수의 위치들에서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국가와 노동 조합의 위치가 특히 중요하다. 투표권의 생기는 여성에게 국가에 의해 지원받아 온 배제 전략을 차단할 능력을 부여하였다. 노동 조합 그 자체는 여성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그리고 그 안에 조직을 증가시킴에 따라 가부장적 배제 전략의 매체에서 기껏해야 분리 전략의 매체로 변화되었다.

자본주의의 힘과 페미니스트적 투쟁의 결합이 여성 노동에 대한 가부장적 착취가 사적 형태에서 공적 형태로 변화되는 데 주로 책임이 있다.

## 여성노동자와 연대의 정치학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 아이들 옷도 잘 입힐 수 있고 또 그러고도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돈이 조금은 남을 거라고 꿈꿔 봅니다. 또 우리가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꿈꿔 보기도 합니다. .... 그러면서 자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껏 우리는 단 두 가지 해답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조직을 하거나. 숫자에서는 재미를 본 적이 없다는 말 말고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당신 책에 써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은 조직을 해야만 하는 거라고! .... 왜냐구요.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힘을 아주 조금이나마 가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욕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만 집단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어마르마, 켈리포니아의 실리온 벨라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1993)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그럴듯한 삶에 대한 어머니의 꿈, 자신의 노동의 질과 장점에 걸맞은 동등한 대우와 존중을 기대하는 그녀의 소망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힘을 아주 조금이나마 가늠"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적 투쟁에 대한 그녀의 확신은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에서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sup>1</sup> 이 장에서 나는 가난한 제3세계 여성들에 대한 착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나는 노동자로서 그들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통의 지점과 욕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노동자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여성노동자들 일상에 붙박고 있으면서 매일의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직의 전략/실천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장을 써나가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었다. 자본주의적 지배과정의 거의 총체적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페미니즘적인 저항의 형태를 그려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여성노동자(혹은 임금 노동자)에 대한, 여성노동자에 의한 행동이나 성찰 그리고 분석을 통해 어떤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압도적인 불리함에 직면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존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투쟁을 통해 자율성과 해방에 대해서 만류나 착취와 지배의 과정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메리 톱 Mary Tong이 조직한 샌디에고의 마킬라도라 Maquiladora\* 노동자 협력위원회가 진행한 멕시코의 티유아나 Tijuana 현장연구는, 특히 NAFTA가 시작된 즈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의 급진적 가능성을 타진하던 나의 신념을 확고하게 했다. 베르니카 베스케즈 Veronica Vasquez와

\* 멕시코 국경 지역의 공장들.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멕시코 노동력을 동원해서 여기에서 만든 제품들은 100%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 장에서는 전지구적 경제에서 노동자로 존재하는 제3세계 여성들의 지점을 초점으로 하여, 2장에서 언급했던 논의들을 조금 확대하려고 한다.<sup>2</sup> 먼저 불연속적인 나의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미국에 자리하고 있는 남아시아인 반자본주의적 페미니스트로서, 통문화적이고 국제적인 연대를 위한 잠재력을 이론화하고 실행하는 진실로 해방적인 페미니즘의 실천이 작동하도록 힘쓰는 페미니스트로서, 또한 "집"과 "일"이라는 심리적 질서가 언제나 모순되는 투쟁의 공간에 존재하는 제3세계 페미니즘의 선봉이자 행동가로서 그리고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규정 이외의 자기정체성의 자용성을 위한 중산층 여성의 투쟁에 대한 지적이고 정치적인 제보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제3세계 여성의 일이라는 특별한 분석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여성의 일"이라는 분석의 범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전미와 인종적 위계질서가 역사적으로 당연시된 독특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의 세계질서를 수립하고 공고화하여 유지하는데 핵심을 이루는 것은 국제적인 노동의 분화이다. 전지구적 조립라인은 그것이 "직장을 공급"하고 이윤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성 정치학을 이해하기 위해 일과 노동자를 당면시키는 존재들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나는 식민화와 착취의 과정에 서 전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관계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비자를 신진자본주의의 하의 "바르그" 시민들로 만드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동질화 과정이라는 구체적 특성이 비교 페미니즘 프로젝트에서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사실 시민-소비자 개념은 내가 미국하게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미국 고등교육의 맥락을 통해 뒷부분에서 탐구하려는 개념이다. 나는 시민-소비자 개념이 대체적으로 생산자/노동자 개념과 이들 간의 규율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논의하려

나는 생각과 경험 그리고 전략들은 이 장을 쓰는 내내 내게 큰 영감이 되었다. 베르니카 베스케즈는 21살의 마릴라 노동자이다. 베르니카는 자신의 일과 노동조건에 항의를 위해 그리고 성적 학대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베르니카 베스케즈와 함께 티유아나 수출공장에서 해고된 99명의 종업원들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기한 법정소송으로서는 전례없는 사례를 기록했다. 이들은 미국 소유의 수출공장인 님스 Downey의 내셔널 오-링 o-ring 소유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주에게 때리고 노동법을 준수할 것과 1994년 11월 티유아나에서 공장가동을 멈춘 이후 3개월 동안 밀었던 월급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NAFTA의 타당성을 시험한 최초의 사례에 착수한 젊은 멕시코 여성노동자들의 용기배배하며 결단력 있고 분석적으로 명확한 행동을 통해, 1995년은 자본주의적 지배의 전지구적 침투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의 연대를 진전할 수 있다는 위대한 가능성의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sup>3</sup>

나는 수년 동안 민족·인종·성·계급적 분리를 넘어서는 페미니즘의 연대를 구성하는 데 기로놓인 가능성만큼이나 한계에 대해 물었다.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여성들의 생활은 전지구적 영역에서 진행된 자본주의의 어마어마한 성장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자본의 공통 이해관계(예를 들면, 이윤·축적·착취)가 이 지점에서 다소 분명해졌다. 그렇지만 소위 민주화과정 속에서 가난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비)가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현대의 자본주의의 경제 하에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를 위한 민주적 시민권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이 장에서 계속 제기될 것이다. 나는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과 이들의 집단적 투쟁이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식화되어 동원되고 조직되는 가능한 지점을 명확히 하며 분석하려고 한다.

고 한다. 이 생산자/노동자 개념 속에서 시민-소비자는 정당성을 획득한다. 내가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방정식의 노동자-생산자 측면이다. 시민-소비자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이 노동자들에게 대한 이데올로기의 창조에서 성 정치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에 없이 증가하는 이윤추구적인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여성의 일이라는 형태를 만들면서 젠더와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노동자라는 특정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한 잠재적 연대나 기반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임금노동은 생산과 재생산을 조직하는 헤게모니적인 형태가 되고 있으며, 국경 안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계급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덜 투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경제, 즉 자본이 서로 구분되는 생산을 위해 특정한 공간을 활용하고, 자본의 축적과 그 축적과정이 이러한 공간들(그리고 사람들)을 변화한다는 논점이 페미니즘 분석에서 점차 근본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 일할 권리와 동일임금을 위한 요구를 둘러싸고 진행된 페미니즘 투쟁의 결과로 집/가족과 일 사이의 경계들(물론 이런 경계들은 언제나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에겐 유동적이었다)은 더 이상 위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작업장에 있고(그리고 언제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 나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젠더, 자본, 일에 관한 특수한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분석하려고 한다. \* 특히 주체 그리고 의식의 전환이라는 문제와 연관지어, 이 과정에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라는 아이디어를 진전시키려고 한다.

현 세계질서의 서로 다른 지리적 지점에서 제3세계 여성이 전지구적인 노동의 분화로 흡수되는 것에 대한 사례연구에 특히 주목하면서, 나는 페미니즘적인 통문화 분석에 기여하는 생산적이고 필요한 하나의 사례로

“여성의 일”이라는 역사적인 서술범주를 언급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나는 “여성들이 하는 일”이나 그들/우리들이 집중한 직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성, 가정이라는 특성, (이성애) 색수업리티, 인종적·문화적 유희화를 전유하는 개념의 측면에서 직장과 임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서로 다른 분계점을 넘어서는 자본주의의 작동방식을 지도로 그리는데 관심이 있으며, 여성들의 일의 제도와 인종적 대개변수의 측면에서 구성되고 정의되는 방식을 통해 자본주의의 절차·이데올로기·가치들이 당연시되는 흔적을 더듬는데 관심이 있다. 나는 (가사, 이성애, 가족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젠더 정체성이 여성에게 허용되는 일의 본질을 구조화하거나 혹은 여성을 전체 “노동자”의 존재에서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하려고 한다.

지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세밀한 사례연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제안하는 것은 사례연구식 방법을 넘어서서 전지구적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비교 방법론이다. 이 때 전지구적 과정은 자체적인 위치 질서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착취의 형태에 착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혹은 “재식민화”)를 공고화하는 과정이다. 지역적인 것과 전지구적인 것은 사실상 평행하는, 모순적인, 때로 서로 수렴하는 통치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통치의 관계는 여성을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점인 노동자로 자리매김한다. 나는 협소하게 규정된 계급투쟁이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위한 기반이 되지 못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에 동의한다. 사실 특별한 인종·민족·문화·성·지리적 역사 속에서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노동자로 정의하며 동일시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연관되어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생산과 재생산의 구분을 분석했으며 여성다움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분석했다. 여기서 나는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1) 임

대본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논의는 제3세계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 재개념화 함으로써 해방을 위한 행동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왜 종종 문제시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식으로 치부하는 “제3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왜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여타의 노동자 집단과 대비되는 존재로 제3세계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점·경험·정체성을 특화하는 논의를 진행하려 하는가? 맞다. “제3세계”라는 용어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용어는 제3세계 국가의 국경 내에서 경제·정치·인종·문화적 차이를 특징짓는 포괄적인 논의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북반구/남반구”나 “선진국/저개발국” 같은 다른 공식과 비교해 보자. “제3세계”는 식민주의 유산이나 현대의 신식민지적 경제제, 지리정치적 과정과의 연관 속에서 탐구적 가치와 해석적 특수성을 지닌다. 다른 공식들에서는 이런 측면을 찾아볼 수 없다.<sup>9</sup>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자. “새로운” 세계질서가 발전하여 작동하는 이 시점에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이 경우 지리적인 제3세계에서 온 여성이나 미국과 서유럽의 이민여성과 토착 유색여성으로 정의된다는 착취와 지배라는 자본주의 과정의 핵심적 특징을 조망하고 설명하는 국제적인 노동의 분업에서 특별한 사회적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런 측면들은 사회세계의 특징으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의기양양한 승리에 “당연히” 뒤따르는 것으로 전제된 “진보”와 “발전”의 담론(가난한 제3세계 여성들에게 경제, 사회적 발전의 표상으로 일지라를 창출했다는 것 등등) 속에서 정점이 흐려지고 신비화되었던 것들이다. 나는 사회세계와 관련된 모든 특징을 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의 재식민화 과정 전체를 다루는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 서로가 공통의 잠재적 정체성

금노동 부문에서 여성다움이라는 거부장적 정의가 지속되고 있다. (2)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 간의 가능한 공통의 이해관계와 연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착취적 과정은 변화무쌍하며 특수하다. (3) (남성 노동자의 계급이해관계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노동조합 방식이 세력화를 위한 전략으로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 집단적 조직화를 시도해야 하는 문제.

앞서 제안했듯이 만일 초국적 경제로 특화되는 세계질서의 논리가 젠더와 인종 불평등의 고유한 역사를 끌어다 실질적으로 “제3세계/인종 차별받는 혹은 주변부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로 구성하여 퍼뜨리는데 관여했다면, 또 만일 이런 노동자 정체성이 여성을 남성과 이성애중심, 혼인 중심의 가족 단위와 연관지어 정의하는 거부장적 측면에서 코드화된 것이라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갈등 양상은 사실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이해관계(그리고 아마도 정체성)의 측면에서 재조정되어야만 한다. 집 안팎에서 여성을 남성에 대립하는 존재로 놓는 거부장 이데올로기는 제3세계 여성노동자의 일상의 물질적 현실에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방식을 재개념화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은 단지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공통의 경험”을 인식하자는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수상권이 아닌 구체적) 공통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논의이며 국경을 넘나드는 연대(투쟁의 공통된 맥락)의 가능한 기반마련을 인식하는 논의이다. 덧붙여 비록 “제3세계”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만, 나의 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인종차별 받는 백인여성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자, 이제 논쟁은 “제3세계”라는 내용이 아닌 젠더와 인종적 지배라는 과정에 대한 것이 된다. 이처럼 젠더·인종·계급형성의 맥락에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를 가시화함으로써 우리는 종속과 착취라는 자본주의의

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 정체성은 바로 이 역사의 순간에 특정한 노동의 분업 속에서의 노동자 정체성이다. 또 나는 지리적, 문화적 구분선을 넘어서는 공통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젠더·인종·계급·(이성애) 색수업리티의 불평등한 통합을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를 독해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초국적 페미니즘의 연대를 꿈꾸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다국적기업들이 여성노동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자리잡게 하고 착취한다는 논의는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서로 연결하고 비교하는 것이 여성의 일이라는 범주, 특히 지금이 순간의 노동자로서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커다란 이론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일에 대한 개념정의가 남성성·여성성·색수업리티 개념을 비판하며 재구성하는 속에서, 젠더와 일의 상호교차하는 여성성의 일상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통문화적 비교와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나는 비교를 위한 바탕이 여성들의 경험의 전체성을 통문화적으로 소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성의 일”에 대한 이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구성이 통문화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성들의 일상이 그 자체로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여성들의 일상이 비교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정치적 연대와 공통의 이해관계 개념을 주장한다. 이는 계급·인종·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노동자들 사이의 집단성이나 공동체로 정의되며, 공통의 물적 이해관계와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독해하는 공통의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전지구적 경제 속으로 제3세계 여성을 동원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연대라는 사상은 통문화적 비교와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물적사적인 문화와 경험의 개념이 아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을 기반으로 하는 비교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이 특별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경험·역사·전략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험의 차이나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나는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라는 지점(노동에 대한 전지구적 착취의 기반으로 작동하면서도 이제껏 가시화, 이론화되지 못했던)의 입장에서 자본의 착취를 독해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 젠더와 일 : 역사적·이데올로기적 변환

"일은 인생을 즐겁게 만들지요"라고 플라 와이셀 Lola Wiesel은 말한다. 플라 와이셀은 <리벳공 로지의 삶과 시대>라는 코니 펠드 Connie Field의 영화에 등장하는 유대인 노동계급 여성이다. 와이셀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용접공장에서 일한 자신의 경험을 회고한다. 많은 미국 여성들은 2차 대전 시기에 전쟁에 싸우러 나간 남성들을 대체하여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주인공과 함께 일하던 다른 여성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장면이다. 기술을 배워 제품을 만들어 자신들의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던 이들에게 전쟁이 끝나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다시 여자친구, 아내, 어머니의 존재로 되돌아가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이들은 관심을 집중했다. 미국의 국가선전선동의 메커니즘이 남성과 여성의 일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고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는 이에 상응하는 남성성/여성성과 가정성이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임금노동은 공과 사 그리고 노동·소비와 시민 사이의 경계가 변하면서 더 이상 가시화된 남성의 측면에서만 규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직장전쟁·손실·이윤추구의 동력은 여전히 진행과정의 일부뿐이다. 1900년대 초 뉴잉글랜드 지역의 정미소 동네의 쇠퇴를 야기한 과정에서부터 현재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벨리나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인"과 "제3세계" 노동자를 "미국인"과 대립시키는 데 이르는 역동적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1909년 여성들이 주도한 뉴욕의 의류노동자 파업과 1912년 (로렌스 섬유)의 빵과 장미 파업, 2차대전 시기 노동조합을 조직했던 플라 와이셀의 역할, 대부분의 젊은 독신여성들이 빈번히 조직했던 1980년대와 90년대의 한국 섬유·전자 노동자들의 파업 사이에도 연속성이 존재한다. "전지구적 노동의 분업이 1950년대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성의 일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착취에 맞서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세계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핵심적 이슈이다. 결국 여성의 노동은 미국과 여타의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통합하며 재생산되는데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미국의 노예제·강제노동·계약노동·자영노동·임금노동의 역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맥락 속에 뒤얹힌 젠더·인종·(이성애) 섹슈얼리티의 역사였다. 계급갈등이나 계급투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인종·민족·사회계층의 여성은 19세기 경제, 사회적 관행(남부의 노예농업, 북동부에서 시작된 산업 자본주의, 남서부의 하시엔다 체제, 중서부 시골의 독립적인 가족농장, 토착 미국인의 사냥/채집과 농업)에서부터 20세기 후반의 임금노동과 자영업(가족경영 사업도 포함)에 이르는 경계발전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일에 대한 경험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지녔다. 로웰 Lowell 섬유공장이 노조를 조직하지 않는 노동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여 로웰에서 일하면 소녀들이 직장을 잃은 때에 년 뒤인 20세기 초, 페미니스트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석적이고

조직화된 수많은 진지한 도전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소위 새로운 세계 질서(Brecher 1993, 3-12)로 불리는, 바로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지배와 착취과정의 물적·문화적·정치적 결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피열당하고 있다. 특히 빈곤한 제3세계 여성들이 황폐화되고 있다. 마리아 미즈는 세계를 소비자와 생산자로 구분하는 방식이 증대하면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한다. 이 여성들은 국제적 노동의 분업 때문에, 농업분야의 노동자, 섬유·전자·의류·봉제 등의 대규모 제조산업 부문의 노동자, 수공업이나 식품 원재료(바공식부문) 같은 소규모 소비재 공장의 노동자 그리고 성산업이나 관광산업의 노동자로 유입되었다(Mies 1986, 114-15).

소비자 아니면 생산자/노동자,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느냐에 따라 붙는 가치·권력·의미는 우리가 불명등한 전지구적 체제의 어디에 자리 잡으며, 누가 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적어도 90년대 이후로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리차드 바넷과 존 카번나는 이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상호교차하는 네 가지 그물망의 측면에서 전지구적 상업부문의 특징을 고찰한다. 전지구적 문화 시장(영화·텔레비전·라디오·음악, 또다른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와 꿈을 창조하고 유포하는), 전지구적 쇼핑물(선진, 배급,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들을 판매하는 지리적 수퍼마켓), 전지구적 작업장(제품을 생산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 제공자는 공장이나 작업장의 네트워크) 그리고 끝으로 전지구적 금융 네트워크(통화교환, 전지구적 보안 등과 같은 국제교역)(Barnet and Cavanagh 1994, 25-41). 각각의 그물망 속에서 남성성·여성성·섹슈얼리티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가 정당한 소비자·노동자·관리자를 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권력

박탈과 빈곤화도 계속 유지된다. 여성들의 몸과 노동은 전에 없는 방식으로 성공에 대한 전지구적 꿈, 욕망, 이데올로기와 맞선 생활을 통합하는 데 활용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세계화와 자본주의적 재식민화 양식의 도전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성 정치학을 언급하며 민족국가의 경계 안에서 자행되는 종교근본주의 운동이 여성에 미치는 결과에 대응했다. 구조조정정책, 군사주의, 비무장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환경파괴와 토지/주권을 둘러싸고 토착민과 선주민들이 벌이는 투쟁, 인구통제·보전·재생산 정책과 실천들에 대해서도 대응했다.<sup>12</sup> 이들 각각의 사례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노동자, 성적 파트너, 어머니와 보살피는 사람, 소비자, 문화와 전통의 계승자·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남성성과 여성성, 여성다움과 (이성애)섹슈얼리티의 이데올로기 분석 그리고 주체·접근성·선택을 이해하며 지도화하는 것이 페미니즘 분석과 조직화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지배와 자본주의의 재식민화 과정을 폭력화하려는 내 시도가 조금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식민주의/자본주의의 대본을 구성하는데 언제나 참여했던 저항과 투쟁의 다양한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적인 계급/가스의 위계질서는 여성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오랜 역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 관행에 맞서 활기 넘치는 창조력으로 집단적으로-동원하고 조직해 온 투쟁과 저항의 양식 역시 언제나 우리 역사의 일부였다. 사실 나는 페미니즘의 해방적 실천의 요소를 한층 발전시키는 해방적 담론과 지식의 접합을 시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인종차별적인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속에서 변형되어야 하는 부문의 노동/일이라는 바로 이 개념이며 이성애적 남성성을 당연히 하는 "노동자" 개념이다.

테레사 아모트와 줄리 마타히(Amott and Matthaei 1991)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젠더·계급·권력의 인종-민족적 위계질서의 상호교차가 두 개의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고 논의했다.

첫째, 권력을 박탈당한 집단은 임금도 낮고 직업 안정성도 낮은, 더 힘든 조건의 직장으로 집중한다. 둘째, 작업장은 극도로 분리된 장소이다. 이 속에서 하나의 직장에 할당된 특정 인종-민족 집단과 젠더가 공장별,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동일한 인종-민족, 젠더, 계급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만 같이 일하는 직종에서 일했다. (316-17).

아모트와 마타히는 성-인종으로 유형화된 직업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의 격리된 그리고 종종 불안정한 부문에 집중하는 노동자들의 직업 유형과 사회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이론화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밝혀낸 경제적 역사는 인종과 젠더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주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분석은 이 직업들이 정의되는 방식 그리고 이 직업에 걸맞는 대상으로 누가 지목되는가 하는 문제 사이의 연계성(유색인들에 대한 지배라는 공통의 역사 이외에)의 유무의 문제는 회피한다.

나는 전지구적 경제로 여성을 유인하는 두 경우(인도 나사푸르에서 레이스를 만드는 여성들, 실리온 벨리의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를 검토하여, 젠더·인종·민족 간의 상호연계성 그리고 여성을 특별히 착취적인 조건으로 자리매김하는 노동 이데올로기를 서술하려고 한다. 두 사례는 계급·인종·민족의 구분선을 따라 나뉘는 여성의 모순적 위치를 보여 준다. 즉 두 사례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지리적,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에 의한 전지구적 경제의 조직화 때문에 여성들은 매

화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카스트 위계질서가 만들어졌다.

미즈가 연구를 진행되던 시기의 이곳에는 60개의 레이스 공장이 들어서 있었고, 20만 명의 나사푸르와 세레팔람 출신 여성들이 노동력을 대고 있었다. 레이스를 짜는 여성들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일했는데, 이들의 나이는 여섯 살에서 80살까지 다양했다. 미즈는 1970년과 1978년 사이 레이스 산업이 팽창하면서 그리고 그 레이스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면서, 특정 공동체 안에 계급/카스트 구분이 생겼고 이 속에서 모든 비생산 직종(무역)의 남성과 생산과정의 완벽한 여성화가 생겼다고 논의한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의 생산물을 팔았고 여성의 노동력으로부터 이윤을 얻어 살아갔다. 남성과 여성의 일 사이의 양극화, 즉 남성이 여성의 노동에 투자하는 사실상 수출업자나 사업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이런 양극화는 여성을 주부로 그리고 이들의 일을 "여가활동"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정의를 뒷받침했다. 다시 말해서 이 맥락에서 일은 성 정체성이나 여성성·남성성·이성애중심주의의 구체적인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카스트와 젠더라는 두 개의 특별한 내적 위계질서가 상호작용하여 "여성의 일"이라는 규범적 정의를 만들어냈다. 레이스 산업이 시작될 당시의 농업노동자는 카푸카스트의 중간계급(하위)남성과 여성이었고, 레이스 직종 공들은 그보다 낮은 카스트인 하리잔 Harijan(카스트의 하층계급) 여성이었다. 이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 그리고 카스트/계급의 이동 가능성이 생기면서, 하리잔 여성들이 농업노동자로 카푸 여성들이 레이스를 짜는 "여가"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카스트에 기반한 격리와 피다 이데올로기는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본질적인 것이었다. 여성의 피다와 여성에 대한 격리는 상층카스트 신분의 기초였다. 카푸 여성들의(레이스 직종) 행위는 "집안에 불어박혀 있는 여성"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 때

우 동일한 방식으로 자리매김되며, 결국 지역적으로 특화된 위계질서가 재생산되고 변화된다. 이 경우 가사노동과 공장노동 사이에 중요한 연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노동자로서 여성의 경험이나 사회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노동 고유의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속성이다. 이런 경향은 영국의 흑인 여성노동자(카리브해 출신 흑인, 아시아, 아프리카 흑인), 특히 가사노동, 공장노동, 가족은영사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주부들과 가사노동 : 나사푸르의 레이스 직조공

인도 나사푸르의 레이스 직조공에 대한 마리아 미즈의 1982년 연구는 자본축적의 명명 하에 가난한 농민과 부족사회 국가가 국제적인 노동의 분업으로 "유입되는" 이런 발전과정의 충격을 여성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준다. 미즈의 연구는 주부로서 정의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동 뒤에서 어떻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젠더와 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의 역사적 변화는 레이스 직조공들의 착취를 설명하는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그러나 여성을 주부로 정의하는 것은 여성의 일을 이성애중심주의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성은 언제나 남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혼인관계 속에서만 정의되었다. 레이스 산업의 발전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관계를 설명하는 미즈는, 젠더·카스트·민족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서술한다. 봉건전사 카스트(지주)와 나사푸르(가난한 기독교도)와 세레팔람 Serpalam(가난한 카푸/힌두 농민들) 여성들 간의 본래적인 카스트 구분은 레이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변

문에 노동하는 카푸 여성의 가정화는 전적으로 자본의 축적과 이윤의 논리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카푸 여성은 봉건과 지주 카스트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피다에 가려진 주부로서 세계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격리의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가정화는 마치 보호주의와 재산에 대한 남성적, 여성적 개념처럼 분명히 성적인 문제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또한 이성애중심적인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을 주부로 누이로 어머니로서 규범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은 언제나 혼인관계나 "가족"과의 연관 속에서 정의된다. 따라서 카스트의 변화, 가정화와 비가정화(카푸 주부 대(對) 하리잔 노동자)의 구분을 따르는 여성들 간의 분리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일과 여성들의 성 정체성, 카스트/계급 정체성을 연결짓는다. 이 경우 가정화는 주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지속성 때문에 작동한다. 주부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가정, 혼인 관계, 이성애중심주의의 내의 공간에 자리잡는 존재로 정의한다. "노동자"로서의 정의와 "주부"로서의 정의 사이의 대립은 노동(그리고 카스트와 관련된 지위의 비가시성을 불리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은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개념정의상 주부들은 노동자가 아니며 일하는 사람일 수도 없다. 즉 주부들은 생계부양하는 남성과 소비자 남성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여성의 장소와 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 이 곳에서 젠더화되고 카스트로 특화된 위계질서는 공간이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구성, 유지된다. 따라서 미즈의 연구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주부로서 정의하는 것이 지닌 구체적 효과를 서술한다. 레이스 직조공들은 인구 조사수치에 포함되지 않고 (결국 이들의 노동은 여가로 간주되므로) 주부로 개념정의 필요로써, "생계부양자"로 남성을 정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카스트와 성적 이데

올로기의 고유한 역사와 진한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을 통한 계급과 젠더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행되고 세계시장으로 여성이 통합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을 담당하는 주부/노동자의 위치에서 자본주의 과정의 작동을 독해함으로써, 일하는 사람과 노동하지 않는 사람(주부) 사이에 놓인 특수하게 젠더화되고 카스트/계급적인 대립이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여성노동의 숨겨진 대가를 인식하여 이를 설명하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결국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노동자 남성의 정의를 검토할 수 있었다. 미즈는 이 상황에 대해, 남성이 생산자인 여성에 기생해 살아간다고 표현했다. 자본주의적 가부장 문화의 대들보인 노동의 남성적 정의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이런 식의 정의는 여성노동과 여성노동의 대가를 비가시화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여성을 자신 고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전통"이나 "가부장제" 혹은 빈곤화 과정의 피해자로서만 정의함으로써,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실 이 선택이 야기한 모순은 레이스 직조공들이 자신의 일을 "여가 활동"으로 특징화하는 반응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며 자신들을 공평하게 만든 역사/상품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상승하지 않은)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은 스스로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들은 주부이자 어머니로서의 이들의 일과 역할 사이의 모순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모순을 분석해 자신들의 착취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때를 물적 조건을 변형할 수 있는 전략을 짜거나 조직화하는, 혹은 카스트/계급을 넘어 노동자 여성이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데까

한 분석은 1차 산업노동력을 구성하는 제3세계의 이민 여성의 측면에서, 공장 노동에 대한 규범적 관념의 이데올로기적 재정의가 필요함을 지적 해준다. 매우 복잡한 국제적인 세계시장에서 나사부르의 레이스 직조공들은 주부로 자리매김 되어 이들의 노동은 여가활동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실리곤 벨리의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제3세계 여성들은 어머니이자 주부이자 보조 노동자로 자리매김 된다. 카츠와 켈니처의 자료에 의하면 제3세계 국가의 조립라인에서는 "독신"여성 노동자를 찾지만, 실리곤 벨리에서는 "기혼여성" 이데올로기에 부분적으로 기인하여 직장변수가 정의 된다고 한다.

호스펠드는 기존의 여성성 이데올로기가 실리곤 벨리의 이민 여성노동자들에게 대한 착취를 어떻게 통합했으며, 또 어떻게 이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논리를 활용해 관리자에게 맞대응했는지를 보여준다. 전지구적인 전자산업 조립라인의 양극(한 쪽은 남한, 홍콩,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다른 한쪽은 미국,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Women Working Worldwide 1993])에서 이상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되는 "독신"과 "기혼"여성이라는 전제에는, 여성성·여성다움·성 정체성에 대한 규범적 이해가 근간으로 깔려 있다. 불여진 호칭은 성차와 이성애중심적 결혼제도가 제공한 것으로, "관리가 손쉬운"(순종적인?) 노동력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sup>13</sup>

카츠와 켈니처의 자료는 젠더·인종·민족적 위계질서가 이미 역사적으로 뿌리내린 미국의 상황에 들어맞는 여성의 일에 대한 정의와 그 변화를 지적한다. 게다가 이들의 자료는 제3세계 여성들의 일과 관련되어 불여진 "직장 호칭"이 성적, 인종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도 서술해준다. 호스펠드의 최근 연구가 카츠와 켈니처의 결론 중 일부분을 강조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성, 인종, 계급, 국적이라는 모순적인 이

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세레팔라 여성들은 레이스 짜는 일을 임금노동으로 정의하지 않고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그나마 자신들을 소상품생산자로 여기는 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기업가의 역할로 간주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노동을 파는 사람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 여하튼 두 사례 모두에서 여성은 스스로를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카스트와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이 공공장소가 아닌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노동을 고립시킨 때문에 노동자 혹은 여성으로 조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즈는 이 이데올로기에도 균열이 존재한다고 제안한다. 레이스 직조공들은 농업노동자들이 돌판에서 함께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했다. 페미니즘 운동의 측면에서 이런 태도를 바라볼 때 필수적인 것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주부라는 정체성이 "여성노동자 혹은 일하는 여성"의 정체성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여성이나 노동자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민 주부, 어머니, 공장 노동 : 실리곤 벨리의 전자산업 노동자들

전지구적 조립라인의 미국 부문에 대한 나의 논의는 캘리포니아의 소위 실리곤 벨리로 불리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나오미 카츠와 데이비드 켈니처(Katz and Kernitzer 1983, 1986)에 의한 연구와 켈스펠드(Hosfeld 199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산전략과 과정에 대

대올로기들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작업장에서 노동 통제와 노동 저항 모두의 형태에서 활용되는지(Hosfeld 1990, 140)에 초점을 맞춘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도한다.<sup>14</sup> 호스펠드는 산업의 구조와 속에서 젠더화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목록을 만들고, 자신이 "페미니즘 재개념화 전략"으로 부른 전략을 분석하는데 공헌했다.

실리곤 벨리의 1차 노동력이 제3세계나 새롭게 이주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전자산업에는 상당수의 제3세계와 이민 남성들도 종사하고 있다. 1980년대 초, 7만 명의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기계조작 같은 노동인력의 80-90%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45-50%는 제3세계, 특히 아시아계 이민인이었다. 백인남성은 기술자나 혹은 감독관의 일을 맡았다(Katz and Kernitzer 1983, 333). 호스펠드의 연구는 1983년과 1986년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기계조작일의 80% 이상은 유색인이었고 조립라인 노동자의 90%는 여성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했다(1990, 154). 카츠와 켈니처는 지루하고 보상도 없고 열악한 임금의 조건에서도 "일 잘할 수 있는" 노동자 집단을 "유인하기" 위해, 인종·젠더·민족적 스테레오 타입을 활용하며 생산을 비숙련화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값싼 노동의 원천을 찾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관리급 직원들은 인터뷰에서 이런 직업을 미숙련(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쉽다)의, 지루한 일을 참아낼 것이 요구되는(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들이 더 적합하다), 아이 돌보기와 가사노동의 임무를 주로 해야 하는 여성을 위한 보조작업으로 묘사했다(1983, 335).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여성과 제3세계 (기혼)여성과의 연관 속에서 직장 호칭을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카츠와 켈니처가 기록한 직장 호칭은 여성의 일에 대한 정의, 특히 제3세계/이민 여성들의 일에 대한 정의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숙련"이라는 개념을 삽고(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지루한 일을 참아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는 인종차별적, 젠더화된 차원이 깔려있다. 쉽고 지루하다고 간주하는 개념은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제3세계 여성을 미개발 상태로 간주하며, "지루함"과 "참을"이라는 토착민 담론을 비서구적, 농업중심적, 전근대적 (아시아적) 문화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둘째, 직장을 어머니와 주부에게 보조작업으로 정의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을 덧붙여준다. 이는 성 정체성과 이성애중심적 여성성의 개념이 결혼중심의 가정화로 자리잡는다. 이 직업은 파트타임이 아닌데도 보조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맥락에서 (제3세계) 여성들의 일에 대한 육구도 일시적인 것으로서 정의된다.

관리경영의 논리분석을 따라, 호스펠드는 보다 규모가 큰 문화 속에 만연한 젠더와 인종의 스테레오 타입이 어떻게 노동자 의식과 저항을 양산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공장직종이 노동자들에게 "여성적이지 않은", 혹은 "유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망되는 방식에 관심을 돌린다. 관리자들은 여성에게 여성성을 공장 노동과 모순되는 것으로, 여성들의 직업을 부차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를 여성 아니면 노동자 둘 중 하나로서만 정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착취하며 여성들에게 이데올로기를 강제한다(Hosfeld 1990, 168). 따라서 여성다움과 여성성은 가정적, 가족적 모델로 정의되며 이 속에서 일은 1차적인 정체성에 전주어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호스펠드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이민 여성의 80%가 가족 중 가장 많은 연간 소득을 벌어들이는 생산자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기고 있었다(1963).

따라서 인도의 레이스 직조공들이 "주부"로서 착취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리온 벨리의 제3세계/이민 여성들은 "어머니와 주부"로서 자리

매김되며 노동자로서는 2차적인 존재로만 취급된다. 두 경우 모두에서 남성은 진짜 생계부양자로 간주된다. (여성의) 일은 통상적으로 "공공" 혹은 생산영역에서 발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데올로기들로 인해 여성은 집안에 갇힌 존재로 정형화되고 만다. 인도의 상황에서 노동이 비가시화되는 것과 실리온 벨리에서 일의 본질이 임시적/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비교해 보자. 1982년의 미즈의 연구에서처럼 호스펠드와 카츠와 켈 니치가 수집한 자료들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착취에 기반이 된 젠더와 인종을 둘러싼 지역적 이데올로기와 위계질서의 현존을 지적한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여성들은 이같은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이처럼 착취적인 직장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는가?

전자산업 노동자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관리자들과의 견해와 정반대로 여성들은 자신의 직장을 임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향 이동하기 위한 평생전략의 일부로 생각한다. 자신들의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신분을 의식하는 이들은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식, 이를테면 다른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고, 아르바이트처럼 밤 시간을 이용해 야간근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을 노동자로 평가절하하는 것에 맞서 싸운다(1983, 337). 결과적으로 실리온 벨리 노동자들이 하는 "가사노동"은 나사푸르 여성들의 레이스 짜기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두 종류의 일 모두 집에서 고립된 채, 스스로의 간접 비용(전기값, 청소비 같은)을 노동자 본인이 감당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예를 들면, 최저임금보장, 유급 휴가, 보건 혜택과 같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에 부여된 의미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두 맥락 모두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

카츠와 켈 니치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계급이동을 시도하는 것을 자

아에 대한 중요한 자기공정으로 받아들이는(335-36). 따라서 나사푸르와 달리 실리온 벨리에서 가사노동은 여성들 자신에게 기업가로서의 측면으로 작용한다. 사실 나사푸르에서 여성의 일은 남성을 기업가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리온 벨리의 여성들은 개별 노동자로서 자신들이 직면하는 조건의 모순 속에서 이점을 취하는 셈이다. 나사푸르에서는 퍼다와 카스트/계급 이동성이 여성의 일을 가정 내의 여가행동으로 볼박아 두는 필연의 자기정의로 제공되었던 반면, 실리온 벨리에서는 특별히 북미적인 개인적 야망이나 기업가정신이 제3세계 여성에 필수적인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제공된 것이다.

카츠와 켈 니치는 이 지하경제가 직장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재정의했다고 논의한다. 이 지하경제가 이들을 역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대도시 중심부의 백인 노동계급을 지지하는 또다른 존재로 정의한다는 것이다(1983, 342). 다시 말해서 이 직장을 보조적이며 저임금의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유색인들의 생활양식을 차이가 있으며 값이 싼 것으로 정의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연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카츠와 켈 니치에 의하면 여성과 유색인들은 여전히 옛 산업체제 "밖의 존재로 정의되며" 계급으로부터 국가/민족/젠더적 구분선을 향해 이동하는 이데올로기의 파괴이 되거나 그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되어 버린다(1983, 341).<sup>15</sup> 이런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와 대중문화는 개인의 성공을 위한 선택의 개별적인 극대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공은 노동조합의 행동, 정치적 투쟁, 집단적 관계와 분리된다. 마찬가지로 호스펠드는 "이민인"을 필요로 하는 인종차별적이며 성차별적인 관리경영의 논리가 자신이 언급했던 착취적 노동과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1990, 157-58).<sup>16</sup> 카츠와 켈 니치는 실리온 벨리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생산양식의 관계와 생산·문화·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1차적 노동

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왜 제3세계 여성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또 호스펠드는 자본주의적 축적을 공고화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이고 젠더화된 논리를 활용하는 것과 작업장에서의 젠더화에 대한 풍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호스펠드 역시 "여성"과 "소수자 노동자"를 분리하여 이해함으로써(176), 실리온 벨리의 조립라인에서 중심 노동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왜 유색여성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카츠와 켈 니치는 여성과 유색인을 구분하면서 젠더와 인종이라는 오래된 개념적 구분을 다시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성은 우선적으로 젠더의 측면에서, 유색인은 인종의 측면에서 정의했던 것이다. 이들의 분석은 젠더와 인종의 상호작용 개념을 배제한다. 그러나 여성의 젠더화된 정체성은 인종에, 유색인의 인종적 정체성은 젠더 속에 깔려있다.

나는 사실, 카츠와 켈 니치 그리고 호스펠드가 수집한 자료들이 제3세계 여성들이 왜 주로 전자산업 공장에 몰려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3세계 여성들의 일을 임시적이고 보조적이며 미숙련의 것으로 재정의하며, 여성을 어머니나 주부로 여성성을 공장노동과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들은 제3세계의 이민여성성을 순종적이고 잘 참으며 평균수준이하의 임금에도 만족하는 존재로서 특별히 정의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필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성의 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재정의가 제시되었다. 호스펠드는 관리자들이 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활용하는 매우 젠더화되고 인종차별적인 논리를, 거꾸로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에게 돌아다며 맞서는 몇 가지 저항의 전략들을 서술한다. 이 전략들은 직장에서의 일시적인 위안만 안겨줄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 낸 인종차별적이며 젠더화된 스테레오 타입은 끝내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딸, 아내, 어머니  
: 영국의 이민 여성노동자

가족사업은 친족을 매개로 소수자 여성들의 노동력을 활용했으며, 집 안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사함으로써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에 호소해 왔다.

— 셀리 웨스트우드와 파르민더 바추(Westwood and Bhachu, 1988)

흑인여성과 소수자 여성들이 집 안팎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다룬 글 모음집에서 셀리 웨스트우드와 파르민더 바추(1988)는 영국 자본주의 국가가 이주 여성 노동의 인종차별적이고 젠더화된 측면에 기인해 이득을 얻은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17 웨스트우드와 바추는 "민족경제"(적대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환경적·경제적 쇠퇴라는 복합적 효과와 이주민들을 억압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기대는 방식)는 근본적으로 젠더화된 경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통계수치들은 영국에서 카리브해 출신 흑인들 그리고 무슬림이 아닌 아시아 여성들이 백인 여성보다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흑인여성(이 경우, 카리브해 출신 흑인여성, 아시아여성, 아프리카 흑인여성으로 규정되는) 대부분이 파트타임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니며, 집 안팎에서 온 가족이 생계를 위해 참여하는 가족공장이나 가족사업의 조건을 포괄하는, 이들 노동생활의 형식과 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 페미니즘 학자들(Phizackley 1983, Westwood 1984 and 1988, Josephides 1988 등)은 가정성이라는 가족중심 이데올로기와 이성애중심적 결혼이 가족공장 내에서 흑인여성노동의 경제적·사회적 착취를 통합해 버렸다고 주장한다.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고착

화하는 억압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흑인여성 본래의 문화 속에 불평등과 억압의 고유한 체계로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데올로기들이 인종차별적인 영국 자본주의 국가라는 조건에 이윤추구라는 집착제를 제공하기 위해 재생산되며 통합된다.

예를 들어,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의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방글라데시 가내노동자들에 관한 에니 피제클리아(Phizackley 198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피제클리아의 분석은 여성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이나 공동체 유대가 섬유산업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장시간 노동·비용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내하청계약을 허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수준까지 나아간다. 셀리 웨스트우드(Westwood 1984)는 이스트 미들랜드의 양말산업에 종사하는 구자라티 Gujarati(인도 지역이름: 역주)의 여성 공장노동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한편으로는 인도여성과 백인여성노동자들 간의 저항과 연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성·남성성·가정성이라는 문화적 규범을 이끌어낸 작업장 문화의 권리와 창조성이 사실은 구자라티의 문화적 유산에 내재하고 있던 것임을 밝힌다. 구자라티 여성의 집 안에서의 일상과 남성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노동을 가족 역할의 확대(경제적 독립을 위한 방도로서가 아니라)로 인식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논하면서, 웨스트우드는 거주 공간 내에서의 가정성이라는 이데올로기, 즉 내재된 (종종 억압적인) 문화적 가치와 관행들의 결과와 작업장 문화 사이에 놓인 연속성을 밝혀냈다. 서로서로를 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격려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연대를 만드는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호스펠드의 말을 빌면, 이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여성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된다.

결국 가족 내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자원과 충성심에 의존하여 "소수"인종 여성을 공통의 가족목표에 참여하는 노동자로 전환하는 가족사

업은 딸·아내·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여성의 역할에 뿌리박고 있다(Josephides 1988, Bhachu 1988). 가족사업에서 여성의 일은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급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과 마찬가지로의 종속성에 갇힌다. 둘 모두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양산하는 가정성과 여성다움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사사 조세피데스는 사이프러스의 가족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연구하면서, "명예"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것과 여성성과 여성다움이라는 개념정의(보호하는 부성적인 남성성 정의에 대한 완벽한 부수물로서)의 기반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공적영역 외부에 만드는 것을 언급한다(Josephides 1988). 이를 통해 사이프러스 여성들은 스스로를 자신을 위한 노동자로 간주하기보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 바라본다. 따라서 일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모든 갈등은 가족의 맥락 속으로 포괄된다. 이는 가족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을 가족적 의무의 "자연스런 확장"으로 동일시(메이스 직조공들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하며 노동을 사유화(私有化)하는 재정적의 지점에서 중요하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노동자로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대체한다. 윤잡인 시크코도들에 관한 파르민더 바추의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제시된다(Bhachu 1988). 바추는 영국 경제의 비교적 새로운 경향인 남아시아인들의 소규모경영의 증가를 인용하면서, 가족사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종종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가부장적 지배라는 더 전통적인 형태, 즉 남성이 가족 내 모든 혹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는 형태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일을 포기함으로써 여성들은 소득의 독립적인 원천과 주로 여성동료로 구성되는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부계중심성을 강조하는 친족체제로 재흡수 되버리고 만 자신을 발견한다." (85) 이에 따라 여성

들은 "생산과정과의 직접적 관계"를 잃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간주하는 문제를 (더 나아가 스스로의 정체성이라는 문제로) 비가시화 하고 만다.

영국의 이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분석은 미국이 아닌 다른 도시 중심부에서 노동자로서 착취당하는 유사한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런 모든 사례 연구들은 현대 경제 속에서 제3세계 여성을 위한 "여성의 일"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데, 가정성·여성성 이데올로기와 인종이 기반이 되고 있음을 지적해준다. 이것은 메이스 직조공의 사례에서는 가사노동을 여가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주부로 정의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논의했듯이 젠더와 카스트/계급에 내재한 위계질서가 이러한 정의를 가능하도록 해준다.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경우 여성들의 일은 미숙련의 지루한 일로 간주되었으며 어머니 역할이나 가사를 돌보는 것에 대한 보조행위로 정의되었다. 이 정의는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지역적인 역사와 개인의 성공을 조정하는 독특한 미국식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메이스 직조공을 비가시화 하는 특성과 실리온 벨리에서 제3세계 여성의 임시직이라는 특성을 대조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영국의 가족공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에 대한 충성심의 확장이 되고, 일이 가부장적 종속성을 공고화 하려고 여성다움·가정성·경영이라는 문화·민족적/인종적 이데올로기를 끌어오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사례를 통해 일의 범주를 당연시하는 속에서 제3세계 여성들을 값싸고 전유할 만한 노동력으로 구성하는데, 유동성·임시성·비가시성·가정성의 개념이 핵심임을 알게 되었다. 위의 모든 개념들은 젠더, 인종, 빈곤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3세계 여성을 차별차별 현대 전지구적 영

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복귀한다.

에일린 보리스와 신시아 다니엘스는 이렇게 주장한다(Boris and Daniels 1989). 가사노동은 생산의 탈집중화에 속하며, 이는 생산·소비·자본축적을 국제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처하는 공장과 부문의 핵심적 전략이다.<sup>18)</sup> 가사노동은 현대 자본주의적 전지구적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로 전제된다. 인도, 미국, 영국이라는 세 지역적 공간에서 제3세계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다룬 위의 논의들은 바로 이 역사적 국면에서 자본주의적 재식민화의 전략이 갖는 몇몇 특징을 재인한다. 가사노동은 미국에서 19세기에 공장노동이 등장하면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하나의 체제로서 가사노동은 언제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을 강화했다. 가사노동을 보통 "잡"이나 가정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임금노동의 하나로서(그녀의 노동과 그를 위한 시장 모두를 통제하는 하나의 경영으로서가 아니라) 고용주에 의존하는 노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 갖는 체계적인 비가시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사노동을 이처럼 근본적으로 착취적인 비가시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가정성, 종속성, (이성에) 채수얼리티라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여성, 이 경우 제3세계 여성을 우선적으로 주부/어머니로서 그리고 남성을 경제 유지자/성계 부양자로 할당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가사노동은 고향, 가족, 여성성/남성성의 가부장적이고 인종적/문화적인 이데올로기를 노동과 균등화하는 속에 압축되어 있다. 이 노동은 가사노동, 아이 양육, "집안 일"과 관련된 여타의 일 그리고 집에서 진행되는 때론 전혀 끝이 없는 일을 가리킨다. 가사노동자는 "주부", "어머니", "가사노동자"라는 특성 때문에 정규임금을 받는 존재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받는 노동자로서 간주되지 못한다. 따라서 생산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 사실상 여전히 가정적, 가부장적인 가부장제

여성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제3세계 여성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경제적·사회적·심리적인 자율성, 독립성, 자기결정권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한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노동/자본의 과정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런 조건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과 관련을 맺는다는 건 개념적, 실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공통의 이해관계/상이한 욕구 :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

지금껏 이 장에서는 상이한 지리적 지점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경제과정(대부분의) 가난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착취의 이데올로기적 공통성을 서술했다.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며 가정화하는 공장노동과 가사노동 간의 연속성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즉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가족적 역할이나 가족적 정체성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역적/내재된 초국가적인 착취의 과정 속에 뿌리박고 있는 가부장·인종/민족적 위계질서에 속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히 이 여성들은 식민화된 착취과정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사례 분석은 각자 자신들이 직면한 모순이나 자신을 노동자로 이해하는 수준도 상이함을 알려주었다. 이제까지 이 장에서는 서로 공유하는 지점이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개념화하는 토대작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분석도 대립의 형태보다는 억압의 과정을 강조하여 진행되

속에서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런 형태의 노동은 종종 거구의 족의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며, 임금노동에 대한 설명에서도 빠져있는 부분이다(Allen 1989).

영국의 가족공장은 계급 역학관계는 상이하지만, 이와 유사한 이데올로기 패턴을 보인다. 흑인여성들은 스스로를 (임금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 인종차별적 사회에서 가족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경영자로 상상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여전히 그들이 가정에서 하던 역할의 확대에 불과하며 이 일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종속은 더욱 강화된다. 그렇다고 가족공장의 여성들이 전혀 자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체제로서 가족경영은 제3세계 여성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즉 (인종차별적인) 영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상층으로 이동할 여지를 찾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내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며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녀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현대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영역에서 이런 형태의 노동을 극도로 착취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성에중심적 인종체제 안팎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 인종차별적 관계에 걸린 비가시성(시장에 대해서나, 때로 노동자 스스로에 대해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가사노동에 불박힌 젠더화된 관계를 변화하고, 가사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공장노동이나 가족경영에 대한 분석과 지리적인 세 지점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은 독신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가사노동과 공장노동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져준다. 이 경우 노동자의 구성은 젠더화된 이데올로기에 의존한다. 사실 여성노동자의 심리·물질·정신적 생존이나 발전에 필수적인 일이나 노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정체성(이런 정체성은 일이라는 매개변수를 벗어나 정의된다)이

있다. 가난한 제3세계 여성들은 어떻게 노동자로서 조직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공통의 투쟁이라는 맥락"에 기반을 둔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문제를 개념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체로서 여성들이 선택이나 결정을 통해 자신의 의식, 더 나아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매일의 생활을 변화하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앞에서 논의했듯이 시장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제멋대로 지배하는 전지구적 영역에서 자본/노동 혹은 "노동자"나 "계급투쟁"에 관한 구식 간판이나 개념 정의는 개념적, 조직적 범주화를 더 이상 전적으로 정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설득력도 없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들 매일의 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이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의 생존과 저항에 대한 경험들을 진정해야 제정과 행동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제시될 수 있다. 19 이런 면에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은 전 세계 가난한 여성들의 매일의 생활과 노동경험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페미니즘 정치 이론가 애나 G. 조나스도티르(Anna G. Jonasdottir)의 연구를 다루면서 현대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을 제안하려고 한다.

조나스도티르는 참여적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측면에서 여성의 이해관계 개념을 탐구한다. 그녀는 "사회적 존재의 서로 다른 층위: 주체와 주체에 계 힘과 의미를 부여하는 욕구/욕망들"(Jonasdottir 1988, 57)에 대한 사회, 정치적 이해관계 이론의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측면 모두를 강조한다. 형식적 측면(즉, 적극적으로 "그 속에 끼기"를 요구하는 것, 개인 나 몸의 존재의 측면에서 규정하기 위해 혹은 선택의 조건을 획득하는데 참여하기로 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이론화하는 정치적 분석가들과(주관적이고) 개별화된 그리고 집단적 기반한(선택의 결과로서) "욕구와 욕

망'의 개념을 선호하여 이해관계의 개념을 거부하는 정치적 분석가들 사이를 매듭지으면서, 조나스도티르트는 전자를 강조하긴 하지만 두 관점 모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개념을 공식화한다. 그녀는 이해관계의 형식적 측면(적극적으로 "그 속에 끼기")이 중요하다고 논의한다.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사람들의 생산한 경험에 근거하여 바라볼 때, 집단별로 생활조건이 체계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기본과정에 대한 이해관계도 집단별로 체계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규정할 때 이해관계는 '객관적'인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41) 다시 말해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물적, 역사적 토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조나스도티르트가 제안하다시피 이해관계를 이론화하는 두 번째 국면인 욕구와 욕망(그녀는 주체와 주체의 행위결과를 구분한다)의 만물은 여전히 열린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욕구와 욕망의 내용은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조나스도티르에 따르면 페미니스트들은 (주관적인 욕구와 욕망에 기반을 둔) 여성들 공통의 이해관계를 "그 속에 끼기" 위한 형식적인 이해관계의 측면으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 재현과 민주적 정치체에 대한 참여의 맥락에서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객관적인)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인식하며 투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화를 통해 우리는 매일 생활의 물적·이데올로기적 조건을 변화하려는 욕구, 욕망, 선택(변화의 의식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을 둘러싼 조직화와 이에 대한 이해라는 보다 깊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열어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적 지점이나 경험이라는 체계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나 잠재적인 주체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후자는 그렇지 않지만, 전자는 변화가능한 페다고지의 차원이다.

따라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교회가 개입하는 방식은 미국의 집단 투쟁에서 중요한 형태였다(Women Working Worldwide 1993, 38).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조합에서 혁신적인 투쟁의 전략을 개발했다. 예를 들면 1989년 한국여성노동조합의회는 마산공장 점거를 벌였다. 이들은 공장으로 들어가 거기에 살면서 음식을 해먹고 기계와 건물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생산을 멈출 수 있었다(Women Working Worldwide 1993, 31). 이런 방식으로 노동현장을 점거하고 매일의 생활을 물어가는 방식의 저항(미국의 복지권 투쟁도 마찬가지였다)이나 반대는 가난한 여성들의 일상이라는 체계적 현실에 뿌리박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성, 즉 일과 가정이라는 인위적인 구분이 미이상 의미없는 자신들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점거"는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이 생존의 형태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집단적 저항의 전략인 것이다.

쿠무디니 로사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자유무역지대 FTZ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의 기절"을 분석하면서 비슷한 논의를 펼쳤다(Rosa 1994, 86). 여성들이 자유무역지대에 모여 함께 생활하고 일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건설하고 자원과 꿈을 나누고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조립 라인이나 거리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개인적이고 집단적 저항의 기질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된다. 로사는 저항과 상호협력의 형태가 "전복적인 문화"에 뿌리박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복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은 복종하고 훈련받을 것을 요구하는 기부장제나 권위적인 거주환경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은폐된 형태의 빈곤"을 실습하게 된다(86).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은 스리랑카에서 "자발적인" 파업을, 말레이시아에서는 "살행이식"의 파업을, 필리핀에서는 "공감을 얻는"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생산목표를 체계적으로 하향조

이 이론화는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개념화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 조나스도티르트가 구분하는 주체와 그 주체의 행위 결과는 이 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 영역에서 페미니스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1) 제3세계 여성노동자를 노동자라는 (이들은 노동자이기를 선택한 주체이다) 공통성 속에 객관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과 (2) 자신을 노동자로서 그리고 그에 따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여성 고유의 의식에 놓여있는 모순이나 탈구지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욕구나 욕망은 (주체의 행위의 결과로) 자신들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조직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점과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지배의 경험 사이의 연계를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사회적 정체성을 이론화하고 실행하는 분석이 과제로 남는다. 위에서 언급한 공통의 이해관계의 이론화와 가난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의 형태를 연결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어디쯤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감 잡게 될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자유무역지대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가난한 여성들의 욕구와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가장 가시화된 무대였다. 그렇지만 노동조합내 성차별주의로 인해 여성들은 대안적인 보다 민주적인 조직화를 요구하며 여성들만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한국, 중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Women Working Worldwide 1993]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들은 공동체 그룹이나 교회 공동체 혹은 페미니즘 조직을 찾아 나섰다. 미국의 전자공장에서 일하는 제3세계 이주여성들은 종종 노동조합을 백인남성 노동계급 미 국인 노동자의 이미지 모델로 인식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적대시했다.

정하거나, 혹은 속도가 느린 노동자들이 조립라인에서 생산목표를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도우며 지지한다. 로사의 분석은 형식적으로 "그 속에 끼어있는"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준다.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매일의 생활에서 모순을 느끼며 저항을 실천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집단적 욕구를 동일시하면서 매일의 생활조건을 변화하는 적극적인 조직화를 감행하지 않는다.

젠더와 인종/민족적 위계질서의 측면에서 일에 놓인 이데올로기의 구성을 다룬 앞서의 논의에서 가난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분명한 형태로 가사노동을 고려했다. 사실 가장 창조적이고 변화무쌍한 뛰어난 집단적 조직력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 영역이다. 가사노동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공을 거둔 조직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두 단체는 WWF와 SEWA다. 두 단체 모두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비공식 경제부문의 소상인이나 행상인,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을 편입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Mitter 1994, 33).

영국에는 가사노동자 조직화의 오랜 역사가 존재한다. 1980년대 웨스트요크셔 가사노동그룹 West Yorkshire Homeworking Group의 경험을 논의하면서, 제인 테이트는 "가사노동 캠페인은 여러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해야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이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고, 가족적 상황이 일과 상호연결되면서 소규모 지역회의에서 의회에 로비를 벌이는 방식이 진행되었다. .... 실천적 측면에서 가사노동 캠페인은 공동체 작업의 이론이나 실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집단의 실천을 반영하는 그런 조직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캠페인은 여성들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체를 갖지 못한 공식적으로 덜 조직화되고 덜 구조화된 소규모 그룹에 보다 집중했다."

(Tate 1994, 116) 인종, 민족성, 계급 이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핵심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아시아인들이나 제3세계 출신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테이트는 웨스트코크서 그룹이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많은 동시다발적인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준다. 이 그룹은 조직화된 노력을 단순히 지역 보조금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방향을 잡기보다는 "진짜" 고용주(혹은 진정한 적)를 정확히 지적하고 가시화했다.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상품구입을 가사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계시켰다. 노동조합, 여성, 소비자 집단과의 동맹을 형성하여 공급자를 위한 노동실천의 코드를 만들기 위한 투쟁도 벌였다. 예를 들면, SEWA 같은 대안적인 노동조합 조직은 조직의 발전과 캠페인을 연결하였다. 국제노동기구 ILO 같은 국제기구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끝으로 가사노동자들의 지역 풀뿌리조직들과 국제적 연계를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자원과 전략을 공유하거나 세력화를 고무하기도 한다. 가사노동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일상의 측면에서 인식되며 이 맥락에서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혹은 "주부"라는 인위적인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웨스트코크서 가사노동그룹이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일정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이에 의해 문맹퇴치나 의식고양 그리고 노동자의 세력화에 대한 참여도 두드러졌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조직화에 대한 자국이 노동자로부터 시작되는 여성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한 조직화가 아닌) 여전히 페미니즘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SEWA와 WWF는 가난한 여성노동자 조직에서 중요한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스와스티 미터 Swasti Mitter는 SEWA와 WWF의 성공을 이렇게 언급한다. (1) 효과적인 전략들을 사용하여 강력한 여성노동자 조직을 조직한

있다. 따라서 이들은 조직화에 있어 가장 어려운 구성원들 중 하나이다. 서로 공유하는 원칙 그리고 교육, 자립, 자율(을 위한 투쟁)이라는 조합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에 기초한 경제적 발전과 결합된 평등권과 정의(에 대한 투쟁)를 향한 집단적 투쟁을 동시에 강조했던 것이, 집안에 있던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을 담당했던 SEWA의 성공 비결이다. 자발라는 이렇게 요약한다. "노동조합과 상호협력적인 힘이 결합되어 회원들이 유지되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가난한 여성들 간의 상호협력은 새로운 현상이다. SEWA는 상호협력성을 보다 평등한 관계를 이끌고 그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사회형태로 조망하고 있다."(135)

SEWA는 조나스도티르가 상세하게 설명했던 제3세계 여성노동자의 욕구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결합시킨 가장 근접한 사례로 간주된다. SEWA는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객관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다. 조직화 전략에 포괄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나 상호협력력을 통한 발전이라는 측면 모두가 이런 점을 제시해준다.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와 시민의 지위로서 권리와 평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다. 그렇지만 SEWA는 주관적,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인식과 욕구나 욕망이 결합된 한층 깊은 수준에도 접근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비로 이 수준의 인식이나 결합이 전지구적인 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문제제기이다. 노동자로서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나 조직화의 형태로 집합되어왔지만,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정체성을 잠재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제3세계 여성노동자의 공통적인 욕구와 욕망(이해의 내용적 측면)을 규명하는 이행의 과정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과제를 규명하고 언급하는데 있어 SEWA가 아마도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

이들의 잠재력(WWF의 회원은 85,000명이며, SEWA는 46,000명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내와 국제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가리어 보이지 않던" 노동자들을 가시화한 점. WWF와 SEWA는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이 여성들을 위한 발전계획, 이를테면 리더십 훈련, 아이양육, 여성은행 그리고 대안적인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제시했다. SEWA의 사무국장 레나나 자발라 Renana Jhabvala는 이렇게 말한다. 인도노동운동과 여성운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1972년에 발족한 SEWA는 스스로를 협동조합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Jhabvala 1994). 그러므로 가난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언제나 대안적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전략과 나란히 가야 한다. 자발라는 "SEWA는 상호협력의 원칙을 수용하며 이 원칙들을 빈곤한 여성들에게로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상호협력적 운동의 일부로 스스로를 간주한다. .... SEWA는 가난한 여성들을 노동자들의 상호협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호협력적인 구조를 진정한 노동자 조직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가난한 여성들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임무 속으로 상호협력적인 운동의 강도를 복돋을 수 있다." (Jhabvala 1994, 116) 가난한 여성들에게 이같은 협력적(혹은 민주적) 원칙의 확장을 강조하고, 정치적 문맹과 법적 문맹을 퇴치하고, 비판적이며 공동체적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집단적(때로는 전투적인) 투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경제·사회·심리적 발전을 위한 전략의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SEWA의 프로젝트가 진정한 페미니즘적이며 민주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준다. 자영업 여성들은 인도사회에서 시민권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속한다. 이들은 카스트 제도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보건의 측면에서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취약하며, 물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비가시화 되어

다.

나는 바로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발전하는지금이 순간에 제3세계 여성노동자라는 특수한 지점이 유리한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 지점은 (1)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배와 재식민화를 가시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으로써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미시적이고도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재식민화 과정을 조망한다. (2)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을 초국적으로 연대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경험·역사·정체성의 공통성을 이해한다. 여기서 나는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단순히 계급기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경우에는 인종, 젠더, 카스트의 역사와 일의 경험의 대한 이해에도 기반을 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가사노동이 현대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하의 "여성의 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억압적인 형태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전지구적 노동분업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제3세계 여성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적하면서 특수한 불평등의 역사에 자리한 차이를 접합하고 있다. 즉, 나사푸르에서 젠더와 카스트/계급의 역사, 실리곤 벨리와 영국에서 젠더, 인종,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역사를 접합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두가 분리되거나 구분될 수 있는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의 경제적 착취라는 특수한 형태로서 여성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3세계 여성과 제1세계 여성에게 공통된 특수한 역사, 즉 현대의 전지구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논리와 작동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나는 현대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와 이를 위해 시도되는 전략들이 사회 내적인 위계질서를 끌어들이며 남성성/여성성, 기술적 우월성이나 사유화된 발전, 숙련/미숙련 노동 등등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며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나는 앞에서 제3세계 여성노동자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어 '여성  
의 일'이라는 범주를 통해 이 논의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 속에서 제3세계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분석은 식민주의와  
인종·계급·자본주의 역사, 젠더와 가부장제, 성적이고 가족적인 구도를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의와 재정의  
를 둘러싼 분석은 공통의 투쟁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제3세계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만들어주는 이 특별한 방식이야말로 내가 지  
지하려고 하는 논의인 것이다. 이것은 제3세계 여성 혹은 제3세계와 제1  
세계 여성 간의 공통의 경험·착취·힘이라는 물역사적인 개념에 반대하  
는 것으로서, 자아와 타자라는 서구페미니즘적인 규범적 범주를 당연시하  
는 것에도 맞선다. 제3세계 여성이 이론과 투쟁에서의 주제로 간주된다면  
우리들은 그들/우리들의 공통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역사의 특수성에 초  
점을 맞추게 된다.

요약하면, 이 장은 전지구적 영역에서 일하는 제3세계 여성노동자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분석적, 정치적인 이슈들을 강조했다. 이 장은 특  
수한 여성노동자 집단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고 소개했고 현대의 자본주  
의적 체계모니 작동방식 속으로 끌어들었다. 이 장은 남성화된 노동자라  
는 이데올로기를 탈신비화하는데 기반을 두고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나  
드는 여성노동자들 간의 연계와 잠재적 연대를 소개했다. 또 제3세계 여  
성노동자를 가정 내의 존재로 전제했던 개념정의를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재식민화 전략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조건이나 환경을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  
동을 여가활동이나 보조활동이 아닌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인식하여, 가  
정이라는 공간을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갖는다고 제안했다. 여기서는 경제정의와 정치정의에 관한 페미니

즘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투쟁의 기반으로서 페미니즘적인 해방적 지식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장은 제3세계 여성들의 공통적인 사회적 정체  
성을 여성/노동자로 이론화함으로써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이  
해관계라는 개념정의를 제공한다. 끝으로 이 장은 저항의 기질, 집단적 투  
쟁의 형태, 빈곤한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전략들도 살펴보고  
있다. "당신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면, 그건 당신의 욕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의 지원에 힘입어 집단적으  
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다"(Hosfeld 1993, 51에서 인용)라는 어마의 말  
이 맞다.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정체성만큼이나, 자본주의적 재식민화  
에 맞서는 투쟁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자기결정이나 자율성을 위한 투쟁  
의 잠재적인 해명적 기반을 형성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나 욕구를 정의하  
는 문제도 복합적이다. 그렇지만 마릴라드라 노동자 베르니카 바스케즈나  
SEWA의 여성이 제시해 주듯, 여성들은 이미 그런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21세기의 시작은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지배와 착취라는 성 정치학의 악  
화로 특징지어졌는지 모르지만, 21세기는 또한 새롭게 정비된 희망과 연  
대의 정치학의 시작으로도 제안될 수 있다.

## 시작하며: 아시아 여성들은, 지금

###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활기 넘치는 아시아 여성들

1995년 가을, 유엔 세계여성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베이  
징에서 열렸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정부와 민간 단체 등 4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21세기를 향해서! 여성들의 엠폰워먼트\*를!'이라  
는 기치 아래 열정적으로 참가하였다. '엠폰워먼트'란 '힘을 키운  
다'는 말이다.

회의 기간 내내 나는 풀뿌리 운동 조직을 일구어가는 여성들의  
힘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20년 전 멕시코에서 열렸던 '국제

\* Empowerment는 힘주기, 힘 모으기, 힘 기르기, 지지, 세력화 등 다양한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옮긴이는 저자의 '엠폰워먼트'라는 언어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이하  
이 책의 모든 주석은 '옮긴이 주'다.)



만리장성에서 손으로 만든 현수막을 들고 있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한국의 여성들.

여성의 해 기념 세계여성회의'에서 아시아 여성들은 그다지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는 얼마나 활기치게 행동하는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여성들은 전쟁과 학살 정권 때문에 25년 가까운 시간을 '쇄국' 상태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런데 처음으로 130명이나 되는 많은 여성들이 국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그들은 세계 여성들의 자매애를 과시하기 위한 '손으로 만든 현수막 캠페인'에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각국 여성들이 손으로 만든 현수막을 이어서 몇 백 미터나 되는 거대한 현수막을 만들어 만리장성에 내걸었다.

베이징에 온 캄보디아 여성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죽의 비극을 이겨낸 여성들의 강인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태국 농어촌에서 온 여성들, 플뿌리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힘 또한 대단했다. 태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토지 압수에 저항하는 여성들 300여 명이 회의를 준비하며 여성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했는데, 그들 중 대표 20여 명이 베이징회의에 참가했다.

그들은 숙소에서 직접 태국요리를 해 먹으며 분주한 활동을 벌였다. 감색 목면의 옷차림으로 '인신매매 반대' '댐 건설 반대'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시위를 조직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양손을 앞으로 모으며 우아하게 절을 하는 태국 여성의 고운 이미지를 씩씩하고 강렬한 느낌으로 바꾸어놓았다.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외국에 기본 경험이 없는, 햇볕에 겹겹이 그을린 농촌 여성들이었지만 '유칼립투스 식림(植林)'을 중지하라는, 자기 삶에서 우리나라는 주장을 당당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내전·독재·개발…… 수많은 억압과 폭력에 투쟁해온 아시아 여성들의 힘이 베이징회의에서 폭발한 것만 같았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역시 여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경험한, 내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1982년 싱가포르 특파원으로 있던 시절 나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였다. 7백만 민족 중 2백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은 현실이 말해주듯, 가는 곳마다 헤아릴 수 없는 백골산이 눈에 들어왔다. 한 낯한시에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많고 어디를 방문해도 '비명인'이나 고아들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캄보디아 제로(zero)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괴된 폐허 속에서, 그녀들은 세상을 떠난 남자들 대신 맨손으로 조국 복구에 나섰다. 긴 치마의 민족의상을 입고 크메르(Khmer, 캄보디아인족) 미소를 짓는 그들을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뭔가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슬픔과 고통을,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전환시켜가면서 베이징회의에까지 이르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그들이 헤쳐온 가시밭길을 생각하니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국에서도 6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참가하였다. 한국에서 이토록 많은 여성이 국제회의에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 사람들 또한 긴 세월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았다. 수많은 여성들이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서서 투옥과 고문을 경험하였고, 남편이나 자식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

그들은 베이징에서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휘날리며 복을 치며 시위를 벌였다. 전 '위안부' 여성들의 눈물어린 증언도 있었다. 언어의 벽을 뛰어넘으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국 여성들을 보면서 민

## 행동강령

세계여성회의는 베이징 시내에서 열린 189개국 정부 대표회의와 시내에서 약 50km 떨어진 만리장성 근처 호와이로우에서 열린 NGO 포럼 양쪽을 뜻하는데, 정부회의의 구체적인 성과는 행동강령을 채택한 것이었다. 행동강령은 '여성의 empowerment를 위한 어젠다'라고 머리말에 적고 있지만, 그것은 21세기를 향해서 각국 정부가 취해야 할 여성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성에게 유리한 강령을 만들기 위해 세계 NGO 여성들이 2, 3년 전부터 베이징회의를 준비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던 것이다. 베이징 현지에서도 의논을 거듭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로비 활동을 벌이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령은 12개 주요 분야로 나뉜다. 거기에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쏘여 있다. 12개 분야는 빈곤과 교육,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무력 분쟁, 경제 참여, 정책 결정, 지위 향상, 을 위한 기구, 인권, 미디어, 환경, 그리고 여아의 문제다.

강령의 요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빈곤과 환경 등으로 요약되는 경제 개발과 남북문제\*가 그 한 축을 이룬다. 그리

\* 남북문제(南北問題, North-South problems):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 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 격차에서 생기는 국제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

멕시코회의가 끝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도 몇 억 명이라는 여성들이 빈곤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베이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기된 것이다. 1980년대부터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세계 성장 센터'라고까지 불렸던 아시아지만, 빈곤한 여성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아시아다. '빈곤의 여성화'는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의 원인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베이징에서 여성들은 남반구의 국가들을 증명화시키는 글로벌 경제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남반구 여성들은 제1차 세계은행 등에 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문제를 한결같이 비판하였다. 1980년대 이래,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대부분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기관이 그것을 반환받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도국 정부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공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정원 감축을 통해 여성을 해고시킨다. 또한 외화 획득이라는 명분 아래 농민들은 그들이 먹고살기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용 작물 재배를 강요받는다.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아프리카 여성들은 베이징 NGO회의에

출석한 세계은행 총재에게 "우리 생활을 파괴시키는 구조조정을 중지하라" "최빈국의 채무를 탕감하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되자, 선진국의 책임을 의식한 캐나다 등 북반구의 여성들도 G7(선진 7개국)을 추종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의 여성들도 망설임이 없이 서명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NGO 여성들은 ODA(정부개발원조)\*를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두 번째 원인으로 뽑았다. 필리핀의 10개 여성 단체로 결성된 '그룹 10'이 개최한 ODA 워크숍에서는 정부개발원조로 인한 댐 건설이 나 항구, 도로 등의 거대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생생하게 보고되자 세계 최대 ODA 공여국인 일본에 공격의 화살이 모아졌다.

마구잡이식 기업 진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국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일본의 정부 개발 원조를 말한다. 일본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ODA 공여국이다. 일본 ODA의 목적은 빈부 격차 해소, 인도적 문제에 대한 개입, 지구적 차원의 과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군비를 확산하거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에는 ODA 공여를 제외하는 방침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규정적 의미의 ODA의 목적은 일본의 국익(기업 이익)과 경제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왔다. 예를 들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일본 기업의 이익이 보장되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켜 무역과 투자를 강화하는 식이다. 이 책의 제2부(개발, 평화와 싸우는 여성들)는 ODA로 인한 지역 공동체 파괴와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담겨 있다. ODA에 관한 더 속 자세한 논의는 '여성들의 21세기'(아시아여성자료센터, 2003년 8월호)를 참조.

경을 넘어 경제 활동을 강화시킨다. 개발도상국 정부 측도 '북반구를 추월하라'는 슬로건 아래 공업화에 집중하면서 다국적 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여왔다. 외국 기업의 공장에 고용된 이들은 젊은 미혼 여성이 대부분이다. 그녀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직업병에 걸리거나 화재로 사망하기도 한다. 게다가 성희롱 등 성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NGO 포럼에서 열린 여성 노동에 관한 워크숍에서는 위의 사례가 개도국 공통 사안으로 보고되었다.

이 이외에도 여성들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로 대표되는 자유화는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고 비판하였다.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미국 농산물이 들어와 농촌이 파멸되고 있다는 비통한 사례가 베이징에서도 여러 번 보고되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돈벌러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주 노동의 여성화'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일본 등 외국의 성산업에 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있는 현실, 그것은 선진국 위주의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 세계화로 인한 농촌 빈곤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NGO 포럼에서 선주민들은 생존 기반을 파괴시키는 개발로 인해 생활과 문화를 잃어가는 선주민족의 고난을 서로 공유하면서, 개발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비판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다양한 형태의 폭력

베이징회의에서는 경제 개발이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공통의 인식 아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가장 많이 열렸다. 가정 내 남편의 폭력이나 강간, 성희롱에서 여성 인신매매 등 남부의 여성들은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행동강령에서 네 번째 분야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가 제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인신매매 금지다. 인신매매 피해가 아시아를 비롯하여 남반구 측에서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파도 속에 여성들이 성 상품화되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태국이나 필리핀 여성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세계 최대 인신매매 여성 접수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들의 대책 활동이 아시아 각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태국·네팔 등지에서 현대판 성노예제가 비대화되는 현실에 맞서 여성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동강령 다섯 번째 분야는 무력 분쟁과 여성이다. 무력 분쟁 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쟁 범죄로 간주하여, 일본군 성노예제(중·군위안부)에 관하여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보상 등을 명기하고 있다. NGO 포럼에서는 전범 법정도 열렸는데 한국과 필리핀의 전

'위안부'들이 50여 년 전의 고통과 전쟁 후의 고난의 세월을 호소하며 일본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였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여성들이 군대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미군기지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 21세기를 향하여: 대안적\* 비전을

베이징에서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것은 남반구 여성의 빈곤화와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 세 가지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시스템 그 자체, 즉 세계화 된 자유시장경제로 인한 개발의 형태였다. 여성들은 기존의 개발 모델을 바꾸어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창조할 것을 베이징 NGO회의에서 선언하였다.

그것은 500년 전 콜럼버스 이래 계속돼온 서구 근대 산업사회 개발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식민지(남반구)와 자연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폭력을 기반으로 성립되어온 서구 지배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인 것이다. 20세기 종말에 가까운 지금, 빈곤과 환경 위기, 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금

\* 저자는 알터너티브(alternative)라는 영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옮긴이는 문맥에 따라 영어 알터너티브, 혹은 또 하나의, 대안의, 다른, 새로운 등으로 번역하였다.

까지의 모델과는 다른 21세기를 만들자는 여성들의 호소는 절박했다.

엄혀져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작은 시도에서 여성들은 아시아 각지에서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베이징에서 서로의 경험과 활동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아시아 여성들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 또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다른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실천과 사상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지..... 나는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아시아 각지 현장으로 향했다.

##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들

### 제1부 경제 발전과 여성에게 대한 폭력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NGO포럼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지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각국의 여성들

## 일본으로 팔리고 에이즈에

베이징을 필피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연 세계여성회의 NGO 포럼 개회식에서 태국 여성 노이(에칭, 29세) 씨를 보았을 때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감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작년 12월 방콕 출라롱콘(Chulalongkorn) 대학에서 개최된 '아시아 여성법정'에서, 일본에 팔려와 에이즈에 감염된 고통스런 체험을 읊먹이며 증언했었다.

"사진 촬영을 삼가해달라"는 방송이 있는 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법정에 오른 그녀는 태국 북부 마을에서 일본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난한 부모에게 농사지를 땅과 집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에 도착하자 업자들은 "350만 엔 빚을 매춘 해서 갚으라"고 요구

제1장 인신매매되는 여성들 27

했다. 돈은 태국 측, 일본 측 업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노이 씨는 그 돈에 팔린 것이었다. 감금되어 구타당하면서 매일 손님을 받을 것을 강요당했다. 세 번째 가게로 옮겨갔을 때, 빚은 700만 엔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곳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업소가 출입국 관리당국에 적발되면서 노이 씨는 바로 강제 송환되었다.

에이즈 감염자를 수용하는 방콕 교외에 있는 시설에 들어간 노이 씨는 일본 언론인의 취재에 응했다. "이름과 얼굴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나와버려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나의 명예와 인권, 정의를 되찾고 싶어요." 노이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일본의 어느 민영 방송국이 방영한 비디오 일부가 스크린에 비치졌다. 노이 씨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업자나 손님의 얼굴, 그리고 업소 이름은 모두 흐릿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게다가 일본인 취재자는 그녀의 고향 마을까지 찾아가, 노이 씨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해버렸다. 이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 받은 나머지 실신하였는데 취재자는 그 장면까지 찍고 있었다. 회의장에선 아시아 각국에서 참여한 300여 명의 여성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난한 태국 여성을 인신매매하여 성노예로 착취하고, 에이즈에 감염시켜 생명을 위협하고, 범죄자처럼 체포하였는데 언론은 그의 명예까지 더럽혔다. 일본이 그녀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인권 침해

에 대한 사건의 '판사 역'의 한 명이었던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고통 속에서도 증언을 해준 그의 용기에 감사하면서 그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베이징회의의에서 노이 씨는 세계 각국의 여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증언하였고 태국 여성들 시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그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일본 여성 단체가 방콕국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들었다. 도대체 여성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노이 씨를 지원하면서 연대했던 이들은 일본 당국에 그 책임을 묻고 있었다.

노이 씨는 일본으로 인신매매되는 몇만 명의 태국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이고 수만 명의 '노이' 씨가 지금도 일본에서 가혹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

## 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어 저지른 살인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팔려온 것을 알았어요. 정말이지 짐승과 같은 생활이었어요. 손발이 묶여서 나갈 수도 없었고 아는 곳이라고는 업소와 호텔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손님을 받아야만 했어요. 생리 때에도, 열이 들끓어도 손님한테 갔어요. 도망치려 하면 보스가 쫓아와 태국에 있는 부모를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태국에서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1991년 9월 이바라키현(茨城県) 하관시(下館市)에서 세 명의 태국 여성이 보스인 태국 여성을 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은 피고 중의 한 명인 케이 씨(가명, 사건 당시 25세)가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담은 편지이다.

"우리 집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늘 배워왔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는데 쌀이 떨어질 때도 많았어요. 부모의 고생을 보면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4년을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어서 낚싯पाल이, 공장, 가게 종업원, 청소부 등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결혼한 후에는 부모에게 돈을 보내지 못 하게 되었어요. 막내딸인 나는 어떻게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10,000~15,000바트(B)(1바트: 약 44원, 10,000바트=440,000원)를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태국에서는 1년간 일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매월 돈을 보내려고 은행구좌를 만들어놓고 일본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350만 엔의 빚이 있으니 매춘을 해서 갚으라는 말을 보스한테 들었고, 곧바로 상상도 못했던 성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빚에는 식사비와 아파트 비용이 가산되었고 3일 동안 손님을 구하지 못하면 벌금 2만 엔, 살이 썩면 1kg당 벌금 2만 엔을 물어야만 했어요. 송금은 꿈도 못 했어요.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보스에게 구타당했어요. 정말이지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니다."

같은 업소의 태국 여성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보스에게서

여성 세 명을 가리키며 "그녀는 이 여자들을 사왔기 때문에 말을 잘 들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엄하게 다루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는 여성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

미토지방법원 하치(下館)지부에서 변호인 측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강제 매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매춘하기 위해 일본에 왔고, 돈을 흠치려고 살인을 했다.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중형에 처해야 한다"며 세 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1994년 5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이 강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지만 "불법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입국, 피고가 받았고 통, 굴욕 등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히며 인권 침해 상황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온정 판결'이라는 언론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 명의 피고인 여성은 우리는 강도가 아니다. 돈 때문에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지른 사건이었다며 도쿄대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들은 재판이 길어져 귀국이 늦어진다 해도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것은 노예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상품도 아닌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와 같은 것이었다. 1996년 7월, 도쿄대법원은 1심 판결은 너무 중하다며 2년을 감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석의 여성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하관 사건, 태국 여성들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은 부모의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보스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러 살인을 결행한 것이다.

여권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스의 가방을 열었더니 현금 700만 엔이 들어 있었다. 여성들에게는 단돈 1엔도 지급되지 않던 화대(시세 25,000~35,000엔)가 가방에 가득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는 "돈을 노린 강도 살인"이라고 기록되었고, 불충분한 폭력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 이 여자들을 사왔다

하관시 사건 재판을 방청하면서, 나는 바로 앞에 앉은 피고석의 젊은 여성들을 보았다. 태국 마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 어찌다가 머나먼 이국 땅 법정에서 강도 살인범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을 악용한 인신매매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살해당한 보스 여성도 과거에는 성노예였다가, 거기서 인간임을 쓰다가 이번에는 사용자 측에 서게 된 것이 아닐까. 사건이 일어난 매춘업소 경영자인 일본인 남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태국

지원하는 모임'의 여성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보낸다.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5년 동안 이국 땅 구치소에서 고독과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온 그녀들과 연대해온 지원자들은 가해국인 일본의 양심이 라 할 수 있다. 태국 여성들이 지원자들에게 자기의 경험과 마음을 답아서 보낸 편지는 250통에 달했다. 편지의 일부는 『매춘사회 일 본에게, 태국 여성들이 보내는 편지』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 세계 최대 인신매매 접수국

태국 여성이 일본에 이주해오는 이유는 접수국 일본이 매춘 사회라는 사실과 송출하는 나라 태국의 복잡한 사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태국 여성이 일본 성산업에 보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며 1990년 전후에 급증했다. 필리핀 여성이 엔터테이너로서 합법적으로 일본에 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태국 여성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판광 비자나 위조 여권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나가노현(長野縣)이나 이바라키현에는 태국 여성이 수백 명이나 모여 살고 있어 리틀 방콕이라 불리는 마을도 있다. 여성들은 조직 폭력 이 만연한 지역에서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태국 여성을 10명 데리고 있으면 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다. 사농은 '상풍'이 도망가면 본전까지 날리게 되므로 감금해놓고 매춘을 시켜야 한다. 저

항하면 폭력·협박·강간·마약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억압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도망쳐 나와 도쿄 태국대사관에 가는 여성은 1년에 3천 명에 달한다. 도망칠 수 없어서 고용주를 죽이는 비극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6개월 후인 1992년 도쿄도 가즈 시키구(葛飾區) 신고이와(新小岩)에서 여섯 명의 태국 여성(15세를 포함)이 대만 '바마' \*를 죽인 신고이와 사건. 같은 해 9월 지바현(千葉県) 무원시(茂原市)에서 다섯 명의 태국 여성이 싱가포르 국적 '바마'를 죽인 무원 사건..... 1년 사이에 태국 여성이 연관된 살인 사건은 10여 건에 달하고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인신매매 여성 점수국이 된 것은 성산업의 비대화 때문이다. 4조 엔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GNP의 1%, 방위 예산에 견줄 정도로 거대해진 성산업에 있어 일본 여성 대신 값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성산업이 확대되는 것은 봉건시대 공창제도의 잔재와 매춘이 용인되는 성 풍토, 그리고 피 말리는 기업 문화를 들 수 있다. 현대의 기업 사회는 '위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전사들을 대량으로 창출하고 있다.

\* 흔히 매춘업소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여성을 일컫는다. 한국 기지촌 미군 전용 클럽에서도 '바마'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태국의 산악 민족 소녀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

학조미료·가발·스키용 장갑 등 온갖 제품들의 생산뿐만 아니라 닭고치나 생선 등을 가공한다. 태국의 관광 입국 정책에 힘입어 일본은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을 위해 마음대로 숲을 벌채하고 있다. 농민들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양파나 옥수수 등의 단일 품목 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제당한다.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새우 양식장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이 태국의 숲과 밭, 바다마저 빼앗고 있다. 일본이 태국을 통째로 구워 먹고 있다"라는 유행가가 나올 정도다. 또한 일본이 태국에 쏟아 붓는 정부 개발 원조는 3억 8천만 달러(1994년)나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도로·항만·공항·댐·공장 단지·관광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쓰이고 있다. 농업이나 교육, 복지에는 관계없는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다.

## 농촌의 빈곤

여성들을 송출하는 태국은 1980년대 후반 이래,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여 이미 NIES(신호공업 경제지역)\*에 가까운 수준에 와 있다. 수도 방콕은 자동차가 넘치고 고층건물이 난립하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빈곤이 심한 지역인 동북부 이산(I-SAN) 지방의 세대당 평균 연 수입은 방콕의 10분의 1이라고 한다. 70%의 농민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딸을 팔고 있다.

북부 국경지대의 산악민족은 '개밭'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극심한 빈곤에 내몰려 딸들을 매춘업소에 보낸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적다고 여겨지는 어린 소녀들이 업자들의 표적이 된다.

이렇듯 산악민족과 농민들이 자신의 딸들을 팔아야만 할 정도로 빈부 격차가 심한 태국.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일본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태국 불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져 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은 이미 1,000개를 넘어섰다.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이용해서 화

\*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신호공업 경제지역). 한국·타이완·싱가포르·홍콩을 위시하여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포르투갈·그리스 등을 가리킨다.

하관 사건의 여성들이 편지에 썼듯이 농민들이 겪는 빈곤이란 정말이지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원인이 단지 빈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비문화가 벽촌에도 침투하여 소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 가난한 농민이 일본산 전기 제품이나 오토바이·농업기계를 사기 위해, 혹은 빚을 갚기 위해 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 미얀마와 중국의 소녀들도

1992년 태국 민주화운동으로 군사 정권이 무너진 후 탄생한 첫 문민 정권은 어린이 매춘 추방 운동에 나섰다. 매춘업소 단속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성산업에 보내지는 태국 소녀의 수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움직임이 일게 되자 이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이라도 하듯 주변 국가의 소녀들이 인신매매업자의 표적이 되었다. 1994년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어린이 인신매매 문제 회의'에서 그 실태가 밝혀졌다.

특히 미얀마 소녀들이 4만여 명(유니세프 통 추정)이나 태국에 팔려왔다. 일부는 북부 국경에서 방콕과 치앙마이·파타야 등의 관광지에 팔리고 있다(140쪽 지도 참조). 남부 어항 도시 라논에 가장

많은 미얀마 소녀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전류가 흐르는 철조 망에 둘러싸인 40여 개의 매춘업소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갇혀 있던 소녀 73명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방콕 NGO에 보내어 그 폭력의 실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의 인권단체 '아시아 워치'가 1993년에 발간한 '현대 노예제도: 태국 매춘업소에 인신매매된 미얀마 여성과 소녀'라는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포함해 현대의 지옥을 폭로하고 있다.

중국 남부 윈난성(雲南省)에서도 소수민족의 소녀들이 태국 북부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홍콩 등에 보내진다고 한다.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방콕 어린이 권리센터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중국 소녀들이 적어도 5천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인권 단



『현대 노예제도』 표지

는데 이곳에는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산악민족의 소녀들도 감금되어 있다.

국경을 구획 짓는 사이 강을 따라가면 작은 보육원이 있다. 세로 지은 건물 안에는 콘크리트 유니폼을 입은 2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득하다. 155명의 아이들에 둘러싸인 선생님은 잔람·시리킨프 씨(22세).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언니나 누나 같은 느낌이다. 그녀가 사는 마을에는 미얀마에서 이주해온 산이나 아카 등의 산악민족이 많다. 산악민족은 국경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 태국 국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와 빈곤이 겹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도 못 가는 실정이다. 그들의 딸들 중 80%가 매춘업소에 팔리고 있었다.

"겨우 일곱 살에 방콕에 팔리는 여자 아이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딸들을 마을에 남아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글을 읽고 쓸 수만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테 돈을 조금 받아서 근처의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잔람 씨는 당시 겨우 열네 살이었다. 몇 년 후 이 보육원이 방콕 시내에 보도되자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8년이 지난 1991년, 꿈에도 그리던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세 명의 자원 활동가 선생님과 함께 분투하면서 보육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춘이나 마약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과도 상의하고 있어요"라고 잔람 씨는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말했다.

체 '중국 인권'이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발표한 '중국 여성의 인권: 전통과 국가의 틀에서'라는 보고서는 중국 국내에서 결혼과 매매추출을 위해 인신매매가 행해지는 문제와 일부 중국 여성이 태국이나 대만으로 팔리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타이베이 어린이 인신매매 문제 회의에 참여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대표는, 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관광 진흥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소녀 매매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태국·홍콩·대만 등 동남아시아의 중국계 남성은 나이 어린 처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젊어진다든 뿌리 깊은 미신과 에이즈에 대한 걱정으로 어린 소녀를 원한다고 한다.

라오스에서도 태국에 팔리는 소녀가 많아져 국경지대 매춘업소에서 구출되는 사례가 보도되곤 했다. 아시아를 덮친 시장경제의 파도는 중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에 확대되어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 경제 발전에 앞장선 태국이 성산업을 통하여 후발 근린국의 소녀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소녀들을 지키는 활동

태국 북부 미얀마 국경 마을 노사이에 매춘업소가 들어서 있



보육원에서 산악 민족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잔람 씨. 그녀는 혼자 힘으로 이 보육 시설을 만들었다.

보육원 가까이에 있는 '딸들 교육 프로젝트'를 방문하였다. 예전에 관광 가이드였던 섀넌 잔트낙 씨가 80년대 말부터 절을 빌려서 시작한 단체다. 매춘업소 소녀들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보면서 우선 그들이 팔리지 않도록 막고 싶었다고 섀넌 씨는 말한다. 그는 산악민족의 분포 지도를 가리키면서 "이 지역에서는 마을의 대표, 승려, 선생까지 나서서 인신매매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자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의 소녀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를 설득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 중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뜻한 교복 차림의 소녀 십여 명이 학교에서 돌아와 수줍어하며 인사를 했다.

"아버지나 손위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했던 소녀들이 여기에 와서는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섯 씨는 소녀들의 자립과 의식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빈곤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순종을 강요받는 성차별 문화에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오스 국경에서 가까운 바덴마을에는 산악민족인 야오족(傜族)이 40여 기구가 모여 살고 있었다. 마을 대표 집에 화려한 민족의 상을 차려 입은 여성 십여 명이 둘러앉아 젊은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본인이 시작한 NGO '산악민족 여성 교육 개발 프로젝트'의 스태프인 완사 씨(21세)는 역시 야오족 출신이다. 그는 2년 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동족 여성들을 조직화하다가 이제 겨우 어머니 그룹을 만들었다. "산악민족은 숲을 파괴시키는 개발로 인해 더욱 가난해져 인신매매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이 먼저 자각하고 그녀들이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자수(刺繡) 천에는 글을 수놓은 것도 있었다. "자수를 이용한 식자 교육의 일환인데 우선 자기 이름이나 마을 이름을 외웁니다. 자수를 팔아 소득을 올리기도 하구요." 완사 씨는 말한다.

여성들도 잇따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그룹이 생기고 나서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관계 등 집안 문제도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딸들을 도시에 보내지 않도록 대책을 짜고 있다는 등 과거에는 사람들을 앞에서 자기 소개도 못 했다는 여성들이 진지하게 토



바덴 마을에서 활동하는 완사 씨(왼쪽에서 세 번째)

론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토지 분배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가출했다가 매춘에 내몰려 비참한 체험을 한 젊은 여성도 있었다.

완사 씨는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1992년 치앙마이(Chiang Mai)에서 열린 태국 소수민족대회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였다. 태국의 소수민족은 55만 명이다. 이들 중 11개 산악민족과 2개 해양민족 대표가 회의에 참여하였다. 완사 씨는 소수민족에게 태국인과 같은 권리를,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통'에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남성 장로들이 주축이 된 회의는 장시간 격론으로 이어졌지만, 소수민족대회 선언문에 여성 지위 향상을 명시하게 되었다. 야오족의 한 젊은 여성의 힘. 그녀가 일구어가는 미래가 밝

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네팔 소녀 마야의 죽음

태국과 그 주변국에 이어 아시아 인신매매의 또 하나의 중심지는 남아시아이다. 특히 네팔에서 인도로 팔려가는 소녀의 문제는 심각하다.

카트만두(Katmandu) 교외의 카펫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야(15세)는 꿈만 같았다. 카트만두 서북쪽에 위치한 누와콧 지역(Nuwakot District) 산촌에서의 중노동과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노동은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공의 도시' 뭄바이(Mumbai)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야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인도에서 돌아온 '성공한' 여성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펫 공장은 인신매매의 루트였다. 마야가 보내진 곳은 캘커타(Calcutta)였다. 그녀는 25,000루피(nupce)(약 875,000원)에 소나가지 거리(거리의 매춘업소로 팔려갔다. 이 지역에는 약 4만여 명의 매춘 여성\*)이 있는데 대부분은 네팔에서 온 여성들이었다. 그 후 마야는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윤락 여성, 매춘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성산업 종사자, 성관매자, 성 노동자 등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파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서로 겹합하고 있다. 옮긴이는 저자의 표기 그대로 '매춘 여성'이라고 번역하였다.

뭄바이에 15,000루피에 팔려 2년 여 동안 성노예 생활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심한 성병에 걸려 3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마야를 동정한 의사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 마야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겨우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짧은 삶을 마감하였다. 1989년의 일이었다.

"마야처럼 인신매매되어 인도의 매춘 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여성은 20만 명에 가까워요." 1990년 3월, 21세기 비전을 민중의 입장에서 만들어내자는 취지의 '피플 플랜 21'(PP 21) 남아시아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했던 카트만두에서, 나는 인신매매가 네팔의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인도 정부가 에이즈에 감염된 218명의 네팔 여성을 송환한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인신매매 문제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그룹 등 17개 단체가 수상에게 시급히 대책을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1983년, 뭄바이 세계 최대 규모의 매춘 지대인 가마티푸라 거리(별명 포클랜드 거리)에서 본 네팔의 소녀들, 매춘업소 처마 밑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떠올랐다. 성병 전문의의 안내로 방문했던, 매춘업소에 있는 20명 모두가 네팔 여성이었다. 그들은 가루와리(매춘업소 경영자)의 눈치를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괴롭다고 말했다. 2년 후, 약 5만 명의 네팔 여성이 인도 각지로 팔려갔다고 들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는 20만 명 가까이 된다. 매년 5천에서 7천 명의 여성이 팔려가는 현실을 알고



나서 나는 너무 슬퍼 정신이 아득해졌다.

카트만두 여성 재활센터(Rehabilitation center)를 방문했다. 소장인 레누 라지만드리 씨(36세)는 의사였다. "5년 전 몸바이에서 도망쳐 나온 19세 여성의 에이즈 검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보건소를 그만두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NGO를 설립했어요. 그녀한테서 당신은 도대체 의사로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결심했어요. 비극을 막기 위해선 풀뿌리 활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레누 씨는 1993년 몸바이에서 실태 조사를 하였다. 계지 거르라 불리는 매춘업소의 네팔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맹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20%는 미성년자, 다만(Daman)과 구른 등 몽고계 소수민족이 65~70%, 친척이나 마을 사람에게 속아서 오게 된 사람이 35~40%, 하루에 대하는 '손님'은 5~35명, 매춘 화대는 50~200루피(1루피: 35원)지만 처음 5, 6년 동안에는 무임금으로 일한다는 것, 그 이후부터 업자와 절반씩 나눈다는 것, 몸바이 체류 기간은 보통 15~20년, 90%가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상태이며 만약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면 50%는 귀국을 희망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몸바이 여성들의 생활환경은 정말 심각해요.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식사는 싸은 음식들이 많고 보건직원, 경찰 등에게도 속아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녀들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포기한 상태여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을 하지 못 합니다."

### 팔리기 직전의 자립 지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레누 씨는 인신매매가 유행하는 지역의 젊은 여성 리더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게 양성된 이들은 전국의 마을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들이 인



팔리기 직전에 구출된 네팔의 소녀들. 그녀들은 자립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개질을 하고 있다. 카트만두 여성 재활센터(Rehabilitation center).

신매매될 뻔 했던 소녀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요. 마을에 '경고'를 하고요." 센터에서 젊은 여성 몇 명이 둘러앉아 큰 사이즈의 남성 스웨터를 열심히 뜨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온 주문이라고 한다. 뜨개질을 해서 소녀들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11명이 자립하기 위해 서로 도우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네팔에서 인신매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단체는 'ABC네팔'이다. "1987년에 친구와 함께 결성했어요. 여성의 90%가 산속 고립된 마을에 살면서 빈곤과 차별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농업과 임업, 기초보건, 협동조합 등 세 분야를 연결한 농촌 여성 자립 활동을 시작했어요. 인신매매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체 대표인 두루가 기마이어 씨는 말했다.



마을 여성들을 방문한 ABC 네팔 대표 두루가 기마이어 씨(오른쪽).

ABC네팔도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신매매가 유행하는 신드바루조쿠 지구 등에서 글을 읽지 못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즉흥극이나 노래 등을 통해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BC네팔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신매매와 에이즈 예방 노래 테이프를 판매하기도 했다.

나는 마을에서의 캠페인, 카트만두의 시설 등을 보면서 10년 전을 떠올렸다. 네팔 여성들은 스스로 정력적인 활동을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힘을 키웠던 것이다.

인신매매가 왜 이토록 유행하고 있는가. 여성 그룹들이 분석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인은 빈곤이다. 한 사람당 평균 연 수입이 180달러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의 현실. 그러나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신매매가 횡행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원인은 여성차별의 문제다.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비탄에 빠져 아이를 학대한다.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는, 무가치인 딸을 파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매춘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의 문제다. 왕궁에서 첩을 두거나 힌두사원에 딸을 헌납하는 매춘 전통. 식민지 시대 인도의 영국군이 네팔 남성을 구르카(Gurkha) 용병으로 고용하고 몰바이 매춘 지대에 네팔 여성을 고용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네 번째로 법적·정치적인 대응의 문제다. 인도의 매춘 도시와 네팔의 산촌, 카펫 공장과의 사이에 인신매매 루트가 확립되어 있다. 그곳 사람들은 딸 한 명을 1,000달러 전후로 매매하고 돈을 번다. 민법을 개정하여 업자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금고 20년의 벌칙은 현실적으로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정치가의 일부가 업자와 한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외국 자본 도입 등의 개방 경제, 서구나 동남아시아의 소비문화와 포르노문화의 침투, 관광 개발로 인한 외국인 매춘의 확대 등 세계화의 영향도 빠뜨릴 수 없다.

현대판 성노예제를 방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네팔의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 자립, empowerment의 관점에서 단지 예방이 아니라 새로운 마을 만들기나 교육 등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의 NGO 포럼에서도 인신매매를 주제로 많은 워크숍이 열렸다. 인신매매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여성들은 회의에서 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의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인신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는 관점이 국제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의 하나로써 인신매매를 들었다. 같은 해 말, UN총회가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에서도 사회의 폭력 가운데 하나로 인신매매가 분류되었다.

베이징회의가 채택한 행동강령에서는 12개 주요 분야 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채택되었고, 정부나 국제기구가 취해야 할 전략적 과제로 인신매매 방지대책이 제기되었다. 형사·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것, 섹스 투어와 인신매매 금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 등이 그것이다.

10년 전, 나이로비(Nairobi) 세계여성회의에서 '2000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강령(약칭 나이로비 강령 전략)'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부분이 불과 몇 줄밖에 안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10년 동안에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관심과 실천도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한다.

아시아의 자유시장형 경제 발전은 몇 십만 명의 여성과 소녀의 국제 인신매매, 즉 현대판 성노예제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 인권 침해, 여성차별을 동반하는 '개발' 그 자체의 모델을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인신매매와 고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 점을 통감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여성의 증언

"저는 티나라고 해요, 올해 스물여섯 살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홍콩에 돈 벌러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네시아 여성 60여만 명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여성 법정'에서 증언한 티나 씨는 작고 가름한 몸매의 여성이었다.

티나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직업 알선업자의 모집 광고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강간이나 성폭력 등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가정부로 고용된 집에

제3장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 69

는 아이가 5명 있었고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해야만 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이슬람 국가의 일부다처제 관습으로 그녀의 고용주는 1년 후에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였고, 티나 씨에게 두 집에서 일할 것을 명령했다. 첫 번째 부인은 티나 씨에게 둘째부인의 집에 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구타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 저는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그녀를 찔러 죽이려 했어요. 올면서 다가갔는데 그녀가 저를 넘어뜨렸어요. 화장실에 끌려 들어간 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티나는 다음날 귀국하려 했지만 여권을 빼앗겨서 결국 계약 기간(2년) 동안 흡사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거주 귀국하여 자카르타공항에 도착하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알선업자는 그녀에게 15만 루피아(약 72,000원)를 내라고 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티나 씨를 강간했다.

다음해 그녀는 언니가 일하고 있던 홍콩으로 갔다. 비행기 안에서 물레 본 계약서에는 월급 2,800 홍콩달러(약 392,000원), 주 1회 휴일이라고 써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0 홍콩달러밖에 못 받았다. 알선업자에게 항의했더니 귀국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고용주한테도 성희롱을 당했는데, 아내에게 말하면 귀국시켜버리겠다고 위협하여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휴일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 친해져 월급이나 휴일에 대한 권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월 1회의 휴일을 요구했

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몇 번이나 왔으며 고용주의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해서 저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월급과 주 1회 휴일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일로 밤늦게까지 심하게 다투었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 4시에 고용주 집을 나와 아시아 이주노동센터에 도움을 청했어요." 티나 씨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 되찾기, 노동국에서의 조정, 노동재판소, 지방재판소에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등 여러 법적 수단을 다 취했다.

결국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지만 티나 씨는 고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고,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성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여러 교육과 상담 일을 맡아하고 있다. "알선업자들은 돈벌이만 생각하고, 정부는 냉담합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정보를 찾고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티나 씨는 아무지게 말했다.

## 해외 이주 노동, 학대

티나 씨가 찾아간 아시아 이주노동센터는 홍콩에서 어려움에 닥친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고 조직화할 목적으로 1989년에 문을 열

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지원 단체는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센터는 필리핀인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었다.

홍콩의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노동자는 8,100명(1994년)으로 늘어나 필리핀 여성에 이어 두 번째가 되었다. 때문에 센터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인도네시아 여성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센터는 상담하러 온 57명과 일반 가사노동자 100명의 면접 설문조사를 정리해서 『갈 데도 없이』라는 작은 상담 책자를 만들었다. 그 책자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 미지불, 장시간 노동, 무휴, 여권 압수 등의 남성 노동자와 공통되는 문제 이외에도 고용주와 그들의 남성 가족에게서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임신되어 내쫓긴 후 갈 곳이 없어 방황하거나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대와 고독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같은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이유로 1970년대부터 여성 이주 노동자가 증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은 심각했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인신매매 문제 회의'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이유로 자살한 사람이 11명에 달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는 인간 이하로 취급되었다. 우리는 상품이나 노예처럼 취급되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왜 해외로 나가는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형 개발은 한층의 부자를 더욱더 부자로 만들고 1억 9천만 명 인구 중 1억 명은 최저 생활 수준 이하의 빈곤한 상태다'(1994년 타이베이,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의 보고)라는 리포트가 말해주듯

## 이주 노동의 여성화

1억 명이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수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1994년에는 1,300만 명에 달했다.

아시아 해외 이주 노동의 첫 번째 물결은 1970년대 오일 붐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중동의 국가로 향한 것이었다. 1985년에 39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중동으로 향했다.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도 주변국에서 남아시아,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직업의 종류도 남성의 건설 노동을 시작으로 가사노동자·간호사·교사 등 전문직으로 다양화되었다.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가 들어서 경제 발전을 가속화한 동아시아, 즉 일본과 NIES(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로의 이주 노동이다. 서비스 산업화, 낮은 인구 증가율, 고령화가 노동력, 특히 3D(difficult/dirty/dangerous) 업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NIES에 이어 성장을 거듭하는 말레이시아도 점수국이 되었고 태국 또한 수출국인 동시에 미얀마 등 주변 국가의 노동력을 점수하는 나라가 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 현상이다. 게다가 세계 여성 이주 노동자의 72%가 아시아에 집중해 있다(1995년 UN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 쿠마라스와미의 보고). 직업의 종류가 가사노동과 성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시아 여성 이주 노동

저임금 정책, 구직자 10명 중 3명밖에 취직할 수 없는 상황(실업률 43%, 1993년 세계은행), 78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채무..... 이러한 사정으로 정부는 인력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을 완화와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에 100여만 명(이중 절반은 '불법' 체류), 사우디아라비아 동 산유국에 50여만 명, 기타 홍콩·대만·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 등지로 이주하는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다. 알선업자는 높은 이익을 쟁기고 정부도 그것을 묵인한다.

그 중에서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대부분 가사노동자로서 돈벌러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여성의 연속적인 지위, 전통적인 성별 분업 등으로 여성의 일은 가사노동, 공장 노동, 매춘, 해외 이주 노동 등 네 가지밖에 없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국내 월급은 고작 13~26달러지만 해외에서 일하면 135달러를 벌 수 있다'(서울 회의 보고). 또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점수국 측도 여성의 고학력화로 직업을 가지는 여성이 많아져 육아나 노부모 부양 등으로 가사노동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해외로 나가지 말라고 말려도 국내에서 취직할 수 없기 때문에 딱히 다른 해결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 자신의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GO가 할 일이 많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참가자가 강조한 말이다.

의 특징이다. 필리핀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 노동력 수출 국가 필리핀

홍콩의 일요일, 공원은 젊은 필리핀 여성들로 가득 차 있다. 가까운 성당은 미사를 보러 온 필리핀 여성으로 초만원이다. 울먹이며 기도하는 여성의 모습도 보인다.

"수지는 어느 날 밤 고용주한테 성폭력을 당했어요.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유명한 남자인가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 받는 일이 생깁니다. 잘 극복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회복이 안 되어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여성도 있습니다." 홍콩·필리핀 이주노동자선교단에서 일하는 신시아 테레즈 씨는 말한다. 홍콩에서 '아마'라고 불리는 10만 명에 가까운 필리핀-가사노동자는 인도네시아의 가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착취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싱가포르에도 필리핀 여성 약 6만 명이 일하고 있다. 4명의 아이를 둔 프로부 곤텐 플시온 씨(42세)는 다른 가정부와 함께 고용주의 아이를 살해한 죄로 시형을 선고받았다. 필리핀과 세계 각국의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95년 3월에 처형되었다.

6개월 후 아랍 수장국 연방(酋長國連邦)에서 16세의 사라 바란간 씨가 고용주를 살해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소년은 민디나오 섬의 모로(이슬람계 주민)이며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든 살이 넘은 고용주한테 칼로 위협받으며 강간당한 후 분노한 나머지 칼을 빼앗아 그를 34번이나 찔러 살해한 것이다. "강간 피해자인데 왜 사형이냐"는 항의와 함께 구명 운동이 국제적으로 일어났다. 필리핀은 물론 홍콩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이 시위를 벌였다. 결국 1995년 10월 재판부는 태형 100번, 금고 1년,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가사노동자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다.

필리핀은 남녀 합해서 350만 명을 135개국으로 보내는 세계 최대의 노동력 수출국이다.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30억 달러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빈곤층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11.6%의 실업률과 300억 달러의 채무에 허덕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마르코스 정권 시대 이래 국가 정책으로 굳어진 인력 수출 정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해외 이주 노동자의 65%가 여성이다. 과거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던 시우다다라비야마저 여성이 55%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본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자녀들과 가족의 인권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子)\* 씨 결혼식이 있어서 거리는 화려했다. 말리벨 씨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 해, 17세에 일본에 왔다. 위조 여권에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나이도 다섯 살 많은 22세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클럽과 스낵바를 전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했었다. 너무나 외로워서였을까?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자와 두 달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에게 구타당하여 죽고 말았다. 필리핀에서 급히 달려온 그녀의 어머니는 고국을 떠나 3년 만에 시체로 변해버린 딸을 보고는 쓰러져 울고만 있었다. 유골을 담은 항아리에는 거짓 이름과 거짓 나이가 일본어로 적혀 있었다. 유골을 안고 터번터번 화장터로 향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거리의 떠돌이처럼 축 처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번영의 그늘에서 인권 침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일본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필리핀 여성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살해되었거나 자살했거나 사고사나, 병사, 혹은 아시아에 가까운 영양실조사 등 아시아 여성의 죽음은 끊이지 않는다.

타항에서 삶을 마감한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1994년 봄, '여성인권 아시아 법정' 전날, '성폭력의 희생이 된 아시아 여성 추모의 밤' 행사가 네온이 번쩍거리는 시부야(澁谷)의 혼잡한 거리에서 있었다. 촛불 추모집회를 준비하면서, 신문 보도, 지원 단체, 대사

\* 광성현황의 둘째 머느리, 즉 천황 차남의 아내.

일본도 필리핀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좋은 거의 엔터테이너로 한정되고 있다. 태국 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의 손을 거쳐 '불법' 체류자로서 일본에 보내지는 것과 달리 가수나 댄서 등의 예술 흥행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본에 오는 여성이 많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에 예술 흥행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인은 37만 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여성이다. 관광 비자 등으로 일본으로 와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살고 있는 여성을 합하면 연간 7~8만 명의 필리핀 여성이 일본에 와서 성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셈이다. 예술 흥행 비자를 갖고 있어도 월급은 500달러 안팎이며 호스리스로서 술을 따르고 매춘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다. 조직폭력배가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 말리벨을 위한 장송

말리벨이라는 20세 필리핀 여성의 장례식이 도쿄 기틀릭 성당에서 조용히 치러진 것은 1992년 6월 29일이었다. 그날은 기코(紀

\* 흔히 E-6으로 불리는 엔터테이너 비자. 예전에는 E-6 비자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엔터테이너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필리핀 당국은 ARB(Artist Book)라는, 일종의 경력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필리핀 현지에서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자료 제공: 한국의 기지춘 여성운동 단체 '두레방').



'아시아 여성 추모의 밤' 촛불 시위에서 성폭력 반대를 호소하는 각국의 여성들 (도쿄 시부야역사).

관을 통해서 모은 피해자 리스트에는 사살되거나 교살된 사건, 화제로 사망한 사건 등 2년 동안 필리핀 여성 8명의 자살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의 100여 명에 가까운 여성들의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추모의 밤'에서 시인 이시카와 씨가 낭독한 「스러져간 꽃들 에게 보내는 진혼가」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소녀의 진혼과 말리벨처럼 성산업에 종사하다가 죽음을 당한 여성들을 애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당신의 억울함

당신의 슬픔을

같은 여성으로서

조금이나마 해야됩니다

당신들이 왜 그러게났는지, 부서져버렸는지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차가운 유물로 변해버렸는지

그것을 이 땅 끝까지 가져라도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 확산되는 지원 활동

아시아 여성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일본 각지에 생긴 여성 쉼터나 상담 활동 등 지원 네트워크를 방문하면 필리핀 여성들의 씩씩함에 압도될 때가 많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파나로(성공한 사람)'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엔터테이너로서의 소망.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일본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 그들의 강한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그림을 만들어 신문을 내고 모임을 만들면서 이국땅의 외로움을 덜어내고 자 하는 마음들…… 나는 때때로 그들의 쾌활함에 매료되곤 한다.

홍콩에서 '베춘 하우스'라는, 필리핀 여성을 위한 쉼터를 방문했을 때도 무엇보다 그들의 밝은 분위기에 나는 마음이 끌렸다. '베춘 하우스'는 필리핀 선교사 준과 신시아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은 외동딸 베춘을 그리면서 동포 여성들을 위해 문을 연 여성들의 쉼터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 20명은 폭력이나 성희롱, 임금 미지불



노래에 맞춰 춤추는 부하이오르족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자센 활동가 마루스 (왼쪽 끝, 베춘 하우스에서).

에는 쉼터에서 지원 활동 하는 것을 허락해준다고 한다. 고국에 남겨둔 딸이 18세가 되었다고 하는 그녀, 그녀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만들었다.

어머니, 밝은 미래를 위해

왜 바다를 건너야만 해요?

당신의 꿈을 이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 하나요?

자유가 그림다는 당신의 꿈을

어머니, 돌아와서 내 곁에 있어줘요

키스해주고 안아줘요

이 나라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등의 전형적인 학대와 착취를 받고 도망쳐 나온 가사노동자들이 다.

내가 방문한 날에는 이 센터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원해준 스웨덴 여성의 귀국을 아쉬워하는 저녁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발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명랑하게 이야기와 음식을 나누면서 노래하고 있었다. 「젊은 농민」, 「우리도 인간」 등의 노래를, 기타로 반주하는 마루스 씨는 이곳 스테프 중 한 명이다. "몸과 마음을 다친 여성들이 들어오면 마루스 씨가 밤새워가며 잠도 안 자고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줍니다. 그래서 모두들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스웨덴 여성이 나에게 말했다.

스테프인 부하이 씨가 노래를 하며 근사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10년 전 가사노동자로 홍콩으로 와서 학대를 견디며 이내 다 베춘 하우스가 개설되던 날 도움을 청하려 왔다가 그대로 스테프로 일하게 된 여성이다. 쉼터를 방문한 필리핀 시인이 그녀에게 매료되어 고국을 떠나 씩씩하게 사는 여성들을 기리는 시를 그녀에게 바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 시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 함께 불렀다. 스테프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성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성장한 여성이 조직의 스테프가 되어 일하는 방식이다. 자주적이며 평등한, 열려 있는 필리핀식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곡은 40대인 마루스 씨가 만든 「어머니 돌아와주세요」라는 노래였다. 그녀의 고음주는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쉬는 날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어머니는 나의 인도자니까

눈물을 흘리며 노래한 이 곡에는 세계화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남북 격차로 인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해외에서 일해야만 하는 몇 백만 여성들의 분노가 담겨져 있다.

"여성을 가사노동자나 성적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NIES가 필요로 하는 가사노동자와 일본이 필요로 하는 엔터테이너를 제3세계가 공급하는 구조, 경제적 착취와 아시아 안에서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여성의 이주 노동을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아시아 이주노동자센터 메이안 비탈바 씨는 분석한다.

여성의 이주 노동 문제는 이러한 성차별과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녀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연대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과 '성별화된 계급'의 출현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은 정부의 구조로 의처지던 '세계화'가 얼마  
나 한국인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였다.  
IMF 금융 위기 초기에 우리는 한국 사회의 신용 등급에 관한 국제적 평가를  
매일 전해 들어야 했고, 그것의 변화에 따라 삶의 희망과 우울함이 교차하는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금융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을 목격함  
과 동시에, 세계화라는 거대 담론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적 석학이라고 불리  
는 몇몇 서구 남성 지식인들의 소위 '대\* 예측'이 한국의 주요 언론과 사회  
과학 담론을 장식했고,\*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견들이 우리를 우울

\* 이 글은 「진보평론」 7호(2001)에 실린 것을 수정한 것이다.

\* 예를 들어 새뮤얼 헌팅턴 Samuel Huntington은 세계화를 서구 대 나머지 문명권의 대립으로  
그리면서, 서구 문명과 유교와 이슬람 문명 간의 문화 부딪음을 예견한 바 있다. 이산 지식인 dia-  
sporic intellectuals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는 모든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자  
본주의적 자본주의를 향한 단일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의 종말' 논의를  
이끌어 냈다. 바버 Barber는 맥도널드로 대표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확산과 지하드 Jihad로  
상징되는 종교 근본주의의 확산을 세계화의 보편적 흐름으로 규정한다. 링(Ling, 1997) 참조.

하게 했다. 산업 자본주의적 근대화로는 국가 경제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고부가 가치 문화 산업과 정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 '여성'은 문화적 감수성이 있는 존재로 인지도면서 여성성은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기호로 등장했다.

사실 21세기가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희망으로 여성들을 들뜨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까지 산업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규정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감성과 상상력이 주요한 노동의 자질이 되면서, 여성들은 경제적 자율성과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여 성별 위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제 침체는 많은 여성을 일터 밖으로 몰아냈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성차별적인 모욕과 억압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의 인간적 희생 비용이라 여겨지는 가정 해체, 알코올 남용, 범죄, 폭력은 가족이나 살기 피곤한 한국 사회를 더욱더 파도친 긴장 상태로 밀어 넣고 있다. 여성들은 실업자나 불안정한 노동자로서 개인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당한 실업이 야기하는 정신적 문제들의 일차 피해자와 희생자가 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일상적 삶의 질을 한국의 정치 경제학적 맥락 안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과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그런데 활발하게 일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 '성별'을 분석적 범주로 다루는 논의는 많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한 국 여성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중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여성 노동의 문제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이숙진(2000), 윤경자(2000) 등이 그 예다.

성별화된 계급이란 여성성이라는 생물학적, 문화적 성별성이 권력과 자원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기제로 활용되면서 전지구적 자본주의 질서 안에 편입된 여성 하위 주체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의 세계적 이동과 새로운 국제 노동 분업이 일어나는 시점 이후에, ① 신 국제 노동 분업과 '제3세계 여성 하위 주체', ② 국제적 이주 노동과 서비스 계급의 여성화, ③ 몸의 상품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젠더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성적 차이가 세계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을 만들어 내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페미니즘 정치학'의 지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신 국제 노동 분업과 '제3세계 여성 하위 주체'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생산, 노동, 시장의 지구적 변화'를 의미한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다국적 기업은 '유연성'을 자본 축적 전략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자본을 이동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신 국제 노동 분업'이라는 형태로 생산의 전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자본은 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산의 세계화'는 '노동의 여성화'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즉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여성들이 의류, 신발, 전자 제품, 장난감을 만드는 세계적 조립 라인 의 단순직 임금 노동자로 대규모로 편입되면서, 수출 주도적인 제조업 분야의 여성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된다. 사실 여성들은 글로벌 산업화 이전, 일찍

'과정'으로서, 또한 '이데올로기'로서 세계화가 어떻게 '성별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거나 강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런 '분석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 글은 성별을 분석 범주로 사용하여 세계화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화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평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성별화된 과정'이며, 또한 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고, 소위 여성적이라 규정되는 성상이나 색수입 리티가 어떻게 재구성되며 '전지구적 자본'과 결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의 '성별적' 과정을 분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세계화는 사실 '종립적'이거나 '보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성, 계급, 인종, 국적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과 접맥하면서, 다양한 흐름을 구성하며 진행되고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성별이라는 권력 관계는 물론이고, 인종, 계급 등 기존의 위계질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초과 이윤을 통한 자기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별이나 인종적 이미지를 포함한 문화적 상징체제와 경제 문제는 점점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확장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이데올로기들을 끊임없이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위치한 성적, 계급적, 인종적 또는 정치적 입장과 관점에 따라 세계화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어떻게 세계화 과정 자체가 남성 중심적 경제 질서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유지 또는 확장하면서, '성별화된 계급' gendered class을 새롭게 생산해 왔는지를 다룬다.

\* 빙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이고 젠더적 관점에서 전지구화를 검토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논의에 대한 '분석적 불균형'을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ing, 1997). \*\* Enloe(1989), Ling(1997), Pettman(1999), Lim et al.(1999) 참조.

부터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왔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소위 제3세계는 서구의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원조나 '경제적인 부자'를 얻어 내느라 새로운 경제적 종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서구 자본은 구 식민지 국가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환금 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한다. 플랜테이션 농업 노동자로 동원된 남성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경작을 하거나 가내 생산을 통해 가계 부양자의 역할을 했다. 여성들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외국 자본은 동원된 남성 노동자들을 아주 짧기에 부릴 수 있었다. 이렇게 남성을 보조하거나, 남성과 맺은 관계를 통해 국제 자본과 연관되던 여성들이, 신 국제 분업 하에서는 글로벌 자본과 직접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국제 노동 분업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는 남성들에게 한정되었던 일자리에서 여성들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노동 비용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제3세계 여성들은 저임금의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로 진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수출 자유 지역이 세워지고, 각 나라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폐지, 노동조합 금지 등의 '유인책'을 경쟁적으로 활용한다. 즉 여성들은 집을 떠나오거나,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관습과 계약으로부터 해방된 면이 있었지만, 임금과 고용 조건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수출을 증대하려는 정부와 기업들이 여성 노동을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 노동기구 협약상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아마네트·케버나, 1994). 또한 정규 노동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